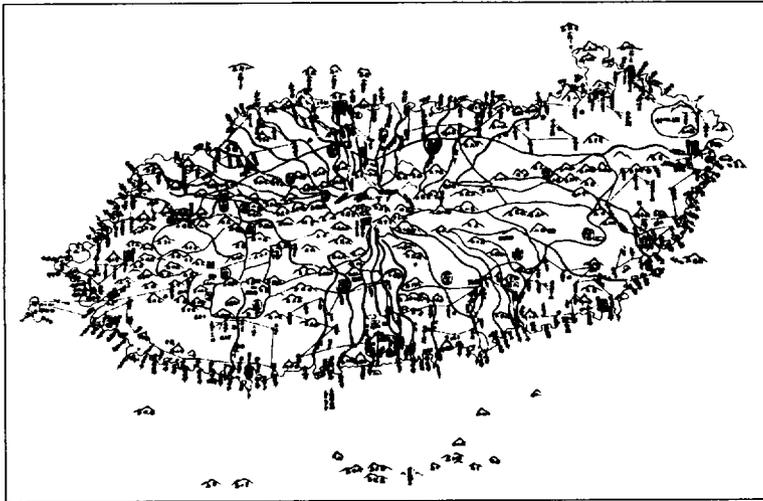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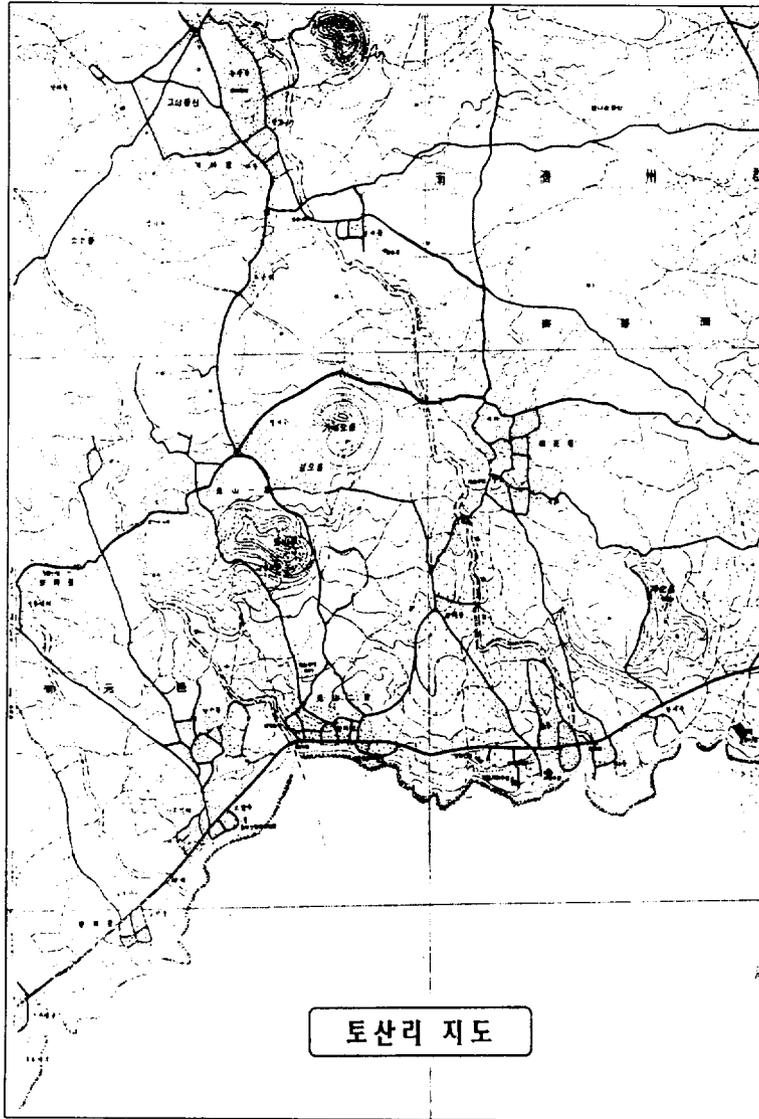
南濟州郡 兔山里
現地學術調查報告
(2001. 8. 3 ~ 8. 6)

1. 調查經緯
2. 마을개황
3. 方 言
4. 民 謠
5. 說 話
6. 信 仰



자료1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 토산리 부근 지도



調查經緯

⋮

우리 국어교육과에서는 1976년부터 매해 여름방학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올해로 벌써 23번째가 된다. 그 동안 현지 학술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로 적용시켜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방언이나 민요, 설화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국어국문학의 시야를 확대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학술조사는 2001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의 3박 4일 동안 南濟州郡 表善面 兎山里에서 이루어졌다. 답사 경위와 조사 경위는 아래와 같다.

5월 초에 表善面 兎山里로 학술 조사 장소가 확정되자, 본격적인 사전 조사에 들어가, 5월 27일 토산 2리 노인 회장님과 토산1리 이장님과 만나 사전 협조를 부탁드렸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숙식 문제였다. 왜냐하면 처음 숙식 장소로 선정하였던 토산 2리 마을회관은 그 곳의 내부 상황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정했던 토산 2리 마을회관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토산초등학교로 숙식 장소를 변경하였는데, 토산초등학교의 완강한 반대로 많은 어려움이 따랐는데, 현승환 선생님(재직교수)의 도움으로 겨우 토산초등학교로 숙식을 허락 받게 되었다.

1차 사전 답사는 6월 22일에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사용하게 될 토산초등학교의 시설을 둘러보고, 마을 지리를 익혔다. 그 후 각 마을의 노인장님과 노인회장님을 만나 협조를 부탁드렸다.

2차 사전답사는 6월 29일에 각 반장으로 실시하였다. 토산 1리 이장님을 만나서, 마을 지도와 마을지에 대한 자료를 협조 부탁드렸다. 토산 1리 이장님(정봉진)과는 전화 연락을 자주 했지만, 실제 토산 1리 이장님

을 만난 것은 시기상 꽤 늦은 감이 있었다. 하지만 학술조사에 필요한 여러 제보자들의 성함과 마을 당의 위치, 지명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제보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었다.

3차 사전답사는 7월 23일에 각 반장과 반원으로 실시하였다. 김임현 할아버지, 정의숙 할아버지, 정의문 할아버지, 김창문 할아버지를 만났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전 답사로는 마지막 답사였다. 네 분의 할아버지로부터 마을에 내려오는 설화(오별장 이야기, 선산이왓 이야기, 거슨새미와 노란 새뽕 이야기)와 신앙(삼천교, 천지대한교, 포계, 당의 위치) 그리고 소리 잘하시는 분들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학술조사 당일에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는 약속 또한 받고 돌아 왔다.

본 조사에는 재직교수, 재학생, 그리고 동문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재직 교수로는 최규일, 김태곤, 윤석산, 안성수, 문성숙, 손오규, 현승환 교수님, 동문들로는 송문석, 강건후, 부상력, 임용진, 변성구, 김윤건, 백운주, 변숙자, 김소현, 고상수, 고창근, 정루시아, 이태은, 현승춘 동문 등이, 그리고 현대문학 연구회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원우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특히 현승환·강정식 선생님은 사전 답사부터 시작하여 본 조사에는 숙식을 같이 하며 3박 4일 동안 모든 반을 지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참가 재학생은 아래와 같다.〔()안은 학년〕

- 마을개황 : 김윤희, 김현주, 양정환, 이후경(3), 이수연, 강보윤(2)
김양희, 김주연, 양지선(1)
- 방 언 : 고은영, 양혜영(3), 지혜진(2), 고영란, 강성진, 고미진(1)
- 민 요 : 강경희, 강지혜(3), 김진희(2), 강현주, 이충훈(1)
- 설 화 : 김진주(3), 박소미, 오정아, 김영만(2), 김은향, 박미진(1)
- 신 앙 : 강현영(4학년), 장은주, 조선덕, 고정혜(3학년), 양승희(2), 박신춘, 고은실, 서지은(1학년)

조사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제1일(8월 3일) : 9시에 학교에 집결하여 인원과 물품을 정리하고, 9시 30분에 학교 버스를 이용해 출발, 10시 30분 경에 초등학교에 도착하였다. 오후 1시까지 숙소를 정리하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13시부터 각 반별로 제1·2차 조사에 들어갔다. 이 날에는 토산 1리 노인회장님과 할아버지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 주셨다.

● 제2일(8월 4일) : 9시까지 아침식사를 마치고, 한 시간 동안 조사 발표 시간을 거쳐, 그 날 하루 조사할 각 반의 계획에 대한 의견 교류를 하였다. 그 뒤 제 3·4·5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차부터 5차 조사까지는 주로 토산 1리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 제3일(8월 5일) :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동네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신다는 정보를 듣고, 모든 반이 조사를 나갔다. 조금 늦게 아침식사를 마치고, 조사 발표 시간을 거쳐서, 자체 평가와 그리고 각반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제보자들에 대한 의견 교류를 하고, 제6·7·8차 조사를 실시하여 하였다. 그리고 <국교인의 밤> 행사를 통해 교수와 재학생, 동문이 어우러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제4일(8월 6일) : 모든 반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전사를 하였다. 그리고 1시경에 학교로 복귀하였다.

조사에 도움을 주신 토산리 마을 주민들과 숙박 장소를 허락해 주신 토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지도해 주신 학과 교수님과 여러 동문 선배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열악한 현지에서 땀흘리며 조사를 맡아 준 각 반의 반장과 반원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마을개황

〈 목 차 〉

- | | |
|---------|-----------|
| 1. 자연환경 | 2. 역사적 배경 |
| 3. 인문환경 | 4. 산업환경 |
| 5. 세시풍속 | 6. 기타 |

1. 자연환경

토산리는 제주도 동남부, 남제주군 표선면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동쪽으로는 세화리와 서쪽으로는 신흥리와 인접하고 있는데, 면 소재지인 표선리에서 서쪽으로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토산리는 행정구역상 토산 1리와 토산 2리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 있는 토산봉이 경계를 이룬다. 처음에는 토산 1리를 중심으로 마을이 운영되다가 토산 2리가 설촌하게 되었는데, 현재 운영상에 있어서는 각각 독립적인 마을이다. 토산 1리의 경우 국호 16호선인 중산간 도로가 마을 안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순환버스, 중산간 버스, 동부산업도로 노선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중산간 마을이면서도 교통은 편리한 편이다. 또한, 1리는 북쪽에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는 마을로서 총 면적 464ha 중 총 경지면적이 274ha로, 총 가구수 148호인 작은 오지마을이다. 토산 2리의 경우 일주도로가 마을을 통과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편이며 감귤을 주소득원으로 하고 있는 전원농촌이다. 해안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담수가 용출되는 '산여리통'이라는 곳이 있어 휴양지로 좋을 뿐만 아니라 연중 낚시터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착공 중인 토산관광단지(2001년

도에 완공되면 관광 소득도 올릴 전망이다.

용수상황은 토산 1리의 경우 가세봉, 낙단 세미, 거슨 세미 등에서, 토산 2리에서는 바닷가에서 단물이 나오고 산여리통 등이 있어 물 여건이 좋은 편이다. 그래서 인근의 가시리 주민까지 와서 물을 떠갔다고도 한다. 이렇게 물이 풍부한 것이 토산리의 역사가 깊은 이유 중의 하나이다.

옛날에는 밭농사를 주로 하며 근검절약으로 어렵게 살았으나, 1970 년대에 새마을 사업이 전개되면서 전기, 수도, 포장, 전화가 개설되고 감 굴을 비롯한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면서 복지 농촌으로 발전하고 있다. 바다와 인접하여 있지만 어업종사인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2. 역사적 배경

2.1 설촌유래

토산리는 약 1000년 전에 탐라왕조의 일파인 夫씨가 설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가장 오랜 옛날에 설촌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기 1300년(충렬왕 26년) 제주도의 山南에 동서도현제(東西道懸制)를 실시할 때 본 마을에 현을 설치하였다. 그 후 光山金씨가 고성(古城)에서 慶州金씨가 의귀(依貴)에서 입주하여 지금은 김씨촌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현재 22개 성씨가 살고 있으나 김씨가 약 60% 이상 된다.

처음에는 토산 1리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토산 2리는 약 250년 전에 順興安씨가 가시리(加時里)에서 그리고 光山金씨가 토산 1리에서 입주하여 토산 2리가 설촌되었다. 그리고 서기 1912년 김도순(金道純, 慶州金씨 입도 19세)이 속칭 물굽은 밭에 이주 설촌하여 월지동 취락이 형성되었다.

마을 이름을 처음에는 흙(土)이 좋다고 하여 '토산리(土山里)'라고 했다. 약 150여 년 전에 풍수지리설에 의거, 이 지역의 지형지세가 옥토망월(玉

兎望月)이라 하여 '토산리(兎山里)'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

2.2 행정구역변천

토산리는 약 1000년 전에 설촌되어서, 1916년 정의군(旌義郡) 동중면(東中面) 兎山으로 칭하고, 1943년 행정 구역을 토산 1·2區로 분리하였다. 그러다가 1948년 행정 구역을 토산 1·2리로 분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행정 구역이 분리되었지만, 서로 협조하여 같이 발전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토산 1리는 '웃토산', 토산 2리는 '알토산'이라 부른다.

3. 문화 유적과 특이 지형

(1) 토산봉수(兎山烽燧)

- 소재지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 1리 산 13번지

세종 때는 호이촌 봉수와 직접 교신하였으나, 1500년경 지배봉수가 호이촌 봉수와 토산봉수 사이에 개설되면서 토산봉수는 서쪽으로 지배봉수와 응소하였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달산봉수와 응하였다. 토산봉수는 전혀 이명(異名)을 지니고 있지 않는 봉수이다. 이 곳 일대는 고려시대 토산현이 위치해 있었다. 토산 1·2리 사이에 위치한 높이 178m의 토산봉은 그 형상이 토끼와 유사하다는 데서 그 명칭이 유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토산봉수가 있었던 곳은 동서로 나란히 선 2개의 봉 중에서 서쪽 봉의 정상이다. 현재는 흙으로 쌓은 흔적만이 남아 있다.

(2) 토산리 사지(寺址) 추정지

-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 시기 : 고려시대 말기 ~ 조선시대 초기 경

토산 1리 토산봉 남쪽에는 속칭 '절래왓가름', '절래왓', '절라왓' 등으

로 불리는 곳이 있다. 이 일대는 고려시대의 속현(屬縣)의 하나인 토산현(兔山縣)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사지(寺址) 추정지는 '절래왓가름'이라고 불리는 지경에 있다. 사지추정지는 비교적 평탄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동쪽으로 토산봉을 등지고 남서쪽으로는 '송천(松川)'이라는 하천이 있다. 지금은 밀감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지표에서 건물지는 확인이 안되나 주변에는 초석(礎石)으로 보이는 유구(遺構)에 따른 유물들이 있고, 다량의 기와편과 도자기편들이 산포되어 있다. 정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사찰여부 및 규모와 양상도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조사된 자료들로 그 시기와 양상을 추측한다면 '고려청자흑백상감편'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초기의 '분청사기편'들이 나타남으로써 고려시대 중기 경에 기와지붕을 한 건물이 남향이나 서향으로 창건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3) 토산리 건물지(비자낭밭)

-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 1리 1163, 1164번지
- 시기 : 고려시대 추정

토산봉의 남쪽 편에는 높낮이가 심한 가운데 나지막한 지대가 있다. 주로 경작지·과수원들로 조성되어 있는데 지표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도자기·기와편들이 산포되어 있다. 지명으로는 '절래왓가름'이라고 부르는데 범위상으로는 밭 200필지 가량 되는 광범위한 곳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유물 파편들의 종류도 많고 다량으로 산포되어 있다. 이 곳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전적으로 전해지는 속칭, '비자낭밭'에 대한 현지 확인 작업을 하였다.

이 유적지는 현재 감귤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주변 환경으로 보아 지표를 정리했던 흔적이 있어, 유구(遺構)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표에는 고려시대의 고려청자편이 드물게 눈에 띄며, 조선 초기 청자와 분청사기편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중기부터 후기까지의 백자편도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지표상으로 어떠한 유구가 있었다기 보다는 구전에 나타나는 '비자낭(비자나무)'이 있었던 곳으로 유추된다.

(4) 토산리 건물지(당낭밭)

-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 1리 1063-2번지 일대
- 시기 : 고려시대 추정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 1리의 속칭, '절래왓가름'이라는 광범위한 지역 안에 있는 곳으로 유적지는 현재 밀감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 곳 토산봉의 완만한 경사도의 영향을 받아서 북고남저(北高南低)를 이룬다. 구전에는 '당낭밭'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옛 선인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이 곳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떠한 유구(遺構)의 흔적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표에는 소량의 도자기편과 기와편이 나타나는데 고려시대의 청자편을 비롯하여 조선 초기의 분청사기편과 백자편 등이다.

구전과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추해 보면, 이 곳은 '당낭'이라는 나무가 자생했던 곳으로 이해되며, 소규모의 건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인김씨지묘(儒人金氏之墓)의 묘비명에는 '동당동(東堂洞)'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동당(東堂)'이라는 당이 있었던 곳일 수도 있다. 그러면 구전에 전해지는 당낭은 '당신목(堂神木)'을 얘기한다고 해도 현재의 상황으로는 과언이 아닐 듯 싶다.

(5) 토산리 건물지(옥터)

-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 1리 1063-1번지
- 시기 : 고려시대 추정

이 유적은 구전상으로 '옥터(감옥이 있었던 곳)'라고 전해지는 곳이다. 위치상으로는 토산봉 남쪽의 '절래왓가름'이라는 지경에 속해 있다. 북쪽으로는 잡목이 무성한 수풀을 이루고 있고 유적지를 비롯하여 주변은 밀감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지표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遺構)에 따른 흔적은 발견할 수 없고, 지표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만 확인할 수 있다. 이 유물편들은 시기적으로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고려청자편과 조선시대 초기에서 말기에 이르는 청자편·백자편 등이다. 이로 미뤄 보아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옥터’에 따른 유구는 알 수 없으나, 사람이 기거했던 기명(器皿)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소규모의 건물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6) 토산리 건물지(옥터 북쪽)

-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 1리 1070번지 일대
- 시기 : 고려시대 추정

이 건물지는 ‘절래왓가름’ 지경의 한 밀감 과수원으로 속칭 ‘옥터’라고 불리는 북쪽에 위치한다. 유적지는 주변에 있는 ‘옥터’, ‘당낫밭’, ‘비자낫밭’들과 1~1.5m 정도가 낮고 평탄한 지형을 하고 있으며 밭의 규모도 유난히 크다. 이 일대에서 가장 많은 유물편들이 산포되어 있어서 규모를 갖춘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지표에 나타나는 유물들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고려청자흑백상감편’, ‘청자편’이 있고, 조선 초기의 것으로 ‘분청사기인화문편(粉靑沙器印花紋片)’, ‘분청사기귀얄문편(粉靑沙器귀얄紋片)’, ‘분청사기박지문편(粉靑沙器剝地紋片)’, ‘조선초기백자편(朝鮮初期白磁片)’ 등이 보이고, 이 외에도 조선시대 초기에서 말기까지 막그릇으로 이용된 ‘도자기편’, ‘질그릇편’ 등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양을 이루는 평기와편들이 산포되어 있어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거주한 곳으로 유추된다.

(7) 집탁개

-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마을 동쪽 해안가
- 명칭 : 포구의 이름을 두고 ‘집탁개’라 한다.

● 조건 : 좌측 ‘집탁개빌레’와 우측 ‘도막은소’가 있는 암반(빌레)을 의지하여 그 안에 포구가 위치한다. 안쪽에 위치한 포구를 ‘안개’, 그 밖에 위치한 포구를 ‘밖개’라 한다. 안개에는 완전 썰물이 되면 바닥이 드러나 배의 출입이 어려우나, 밖개는 어떠한 간조때라도 배를 댈 수 있는 ‘튼석’자리가 된다. 안개 바닥에는 여기저기에서 담수가 솟아 선식충(船食蟲)인 ‘소’로부터의 피해가 거의 없는 편이나, 밖개는 그렇지 않다.

- 이용 : 평상시에는 ‘밖개’에 배를 매어두나, 긴급적 안개에 배를 정박시

키려 한다. 선식층인 '소'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큰 태풍 때에는 다른 마을 포구로 배를 이동시켜야 했다.

(8) 멜통

-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마을 바로 앞 해안가
- 명칭 : 거의 천연적으로 생긴 물웅덩이에 멀치가 몰려들었던 데라 하여 '멜통'이라 한다.
- 조건 : 좌측으로 '높은덕코지', 우측에는 '봉용이코지' 사이로 좁다랗게 개를 이르는 곳에 위치한다.
- 조간대 : 중간층에 위치한다.
- 담 : 천연적인 바닷물 통이라 원담이 거의 필요 없었다.

(9) 산여리통

-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멜통' 동쪽
- 명칭 : '산여리물' 아래쪽에 위치한 통이라 하여 '산여리통'이라 한다.
- 조건 : 좌우 암반 사이에 좁다랗게 골짜기를 이루는 곳에 담을 축조하여 통을 만들었다.
- 조간대 : 중간층에 위치한다.
- 담 : 완전하지는 않으나 그 흔적만 남아 있다. 담의 길이 5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0) 송굴왓 동산당

-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 1리 축구장이 있는 송굴왓 또는 골머체 가시리 '송굴왓 동산당'은 일퀘당으로 토산에서 가지 갈라다 모신 '토산 일퀘한집'의 당이다. 가시리 주민 일부가 이 당에 다닌다. 제일(祭日)은 6월과 11월 7·17·27일이며 메는 3기 가지고 간다. 아기의 피부병과 육아의 기능이 있는 당이다. 당은 '송굴왓' 또는 '골머체'라고 부르는 동산 수림 속 큰 바위를 중심으로 산목에 지전이 걸려 있는 퀘(신석)형·지전물 색형·동산형·수림형이다.

(11) 옷토산 한집

-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 1리 마을 입구 서쪽 300m지점

토산 1리 '옷당 일뤼당'의 당신을 '옷토산 일뤼한집'이라 한다. 마라도에 귀양정배된 한라산신의 딸과 귀양을 풀어주고 함께 사이좋게 돌아온 첩신은 모두 '일뤼한집'으로 산육·치병신이다. 토산당곳에서는 이 신을 놀리는 '아기놀림굿'을 한다.

제일(祭日)은 6월과 11월 7·17·27일이며, 당에 갈 때는 메3기를 가지고 간다. 당은 스텝 건물 안 곳곳에 담구멍마다 지전이 끼워져 있다. 당우형·지전물색형·전답형의 당이다. 토산 1리 주민들이 다니는 본향당으로 강씨 상단궐, 오씨 중단궐, 한씨 하단궐이다.

(12) 알토산 한집

-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 2리 바닷가 동쪽 끝

토산 2리 '알당 요드렛당'은 '알토산 요드레한집'을 모신 당으로 제일(祭日)은 6월과 11월 8·18·28일이다. 치병신이며 이 당에서는 시집가기 전 처녀를 수호해 주며, 당에서 액막이를 한다. 당에 갈 때 메는 3기를 가지고 간다. 원래 이 당은 토산 2리 사무소가 있는 메뚜기모루에 있었는데 지금은 토산 2리 바닷가 동쪽 끝 동산에 있다. 토산 2리 주민 일부가 다니며, 당의 형태는 해변형·신목형·지전물색형이다.

(13) 토산봉(兎山峰)/ 토산망(兎山望)/ 망오름

- 위치 : 토산 1리 산 13번지

● 유래와 현황 : '토산봉수'터로, 이 오름의 형태가 토끼 형국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동서 양쪽으로 솟은 봉우리 중에 서봉 정상에 조선조 때 시설한 군사통신시설의 하나인 봉수대가 있으므로 '토산망' 혹은 '망오름' 등으로 불리워진다. 높이는 178m이다.

(14) 느단¹²⁾새미

- 위치 : 토산 1리 1253번의 2번지

● 유래와 현황 : 영천사 앞 언덕 밑에서 솟아나오고 있는 샘으로 오른쪽에 있으며 한라산을 향하여 거슬러 흐르지 않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15) 거슨새미

● 위치 : 토산 1리 1307의 1번지

● 유래와 현황 : '늑단새미'와는 대조적으로 한라산 쪽으로 거슬러 흐르는 샘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길가의 잡목숲 언덕배기에서 용출하여 바닷가로 흐르지 않고 한라산을 향해 거슬러 흐르는 샘으로 유명하다.



사진1 거슨새미

(16) 달믄루/ 탈믄루 / 월지봉(月旨峯)/ 월지동(月旨洞)

● 위치 : 토산 1리 800번지 부근

● 유래와 현황 : 달을 바라보는 언덕배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자표기화에 의해 '월지봉(月旨峯)'이라고 표기하며, 발치곶에 자리잡은 마을이름 또한 이에 연유하여 '월지동(月旨洞)'이라 부른다.

(17) 소소름/ 쇠오름/ 우악(牛岳)

● 위치 : 토산리 220번지

● 유래와 현황 : 이 오름의 지형지세가 소가 누워있는 듯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자표기화에 의해 '우악(牛岳)'이라 표기한다.

(18) 숨골왓/ 쉬골왓동산

● 위치 : 토산 1리 794~808번지 일대 마을운동장 서북쪽

● 유래와 현황 : 흡입수구인 '숨골'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동산이 가파

12) '늑단'은 오른쪽을 일컫는 제주 지역어이다.

라서 올라가고 나면 숨이 찬다 하여 '쉬꿀왓동산'이라고도 부른다.

(19) 알오름/ 난악(卵岳)/ 북망산

- 위치 : 토산1리 산 11번지
- 유래와 현황 : 이 오름의 지형지세가 마치 달걀과 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마을의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어 별칭으로 '북망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20) 어위폭포

- 위치 : 토산 1리 1265번지 서쪽 하천 제2송천교에서 남쪽 200m지점
- 유래와 현황 : 사람이 다니기에 몹시 위험하다 함을 한자어 어위(御危)를 취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주도의 대부분의 건천(乾川)인 데 비해 작은 폭포를 이루고 있다.

(21) 토산다리/ 송천교(松川橋)/ 다리옆

- 위치 : 토산 1, 2리
- 유래와 현황 : '솔내'에 서기 1938년에 다리가 가설되면서 '송천교(松川橋)'로 명명되었으나 주민들은 '토산다리'라고 부르며 그 일대를 '다리옆'이라고 한다.

(22) 가세오름

- 위치 : 토산 1리
- 유래와 현황 : 가세오름은 세화 1리와 토산 1리 사이에 자리잡고 있어 행정구역상 세화리 쪽에서 보면 민듯한 사다리꼴 모양이고, 토산리에서 보면 숲이 우거진 가운데 젓무덤 같은 봉우리가 굽부리를 이루어 판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북봉과 남봉 사이는 야트막한 안부를 두고 휘어져 그 거리에 약 350m의 등선 마루가 형성돼 있으며 정상인 남봉이 표고 200.5m로 삼각점이 있다. 산봉우리가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이 마치 가세(가위)처럼 생겼다는데서 가세오름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제주방언이 '고세'임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

는 이도 있으며 풍수설의 가사장 삼형에서 가사봉이라 했던 것이 가세오름이 되었다고 풀이하기도 한다.

3. 인문환경

3.1 인구 현황

토산리는 행정구역상 토산 1리와 토산 2리로 나뉜다. 2001년 8월 현재 총347세대, 1103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 중 남자는 582명, 여자는 548명이다. 해마다 인구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젊은층의 도시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며, 가구당 인구는 4명으로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4·3사건으로 작은 마을로서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았는데(2일 약 130명의 사상자) 이에 고노령자가 생존해 있지 않다.

● 토산리 인구현황

구 분	인구수(명)			가구수 (가구)
	남	여	계	
토산1리	251	238	489	148
토산2리	331	310	641	199

<2000년 12월 31일 현재, 면사무소 제공>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성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합계
토산 1리	남	34	31	6	8	27	12	5	36	5	251
	여	26	31	4	8	20	9	8	22	7	238
	계	60	62	10	16	47	21	13	58	12	489

토산 2리	남	39	42	9	11	51	14	18	46	8	331
	여	39	44	5	16	31	15	8	25	11	310
	계	78	86	14	27	82	29	26	71	19	641

<2000년 12월 31일 현재, 면사무소 제공>

3.2 마을단체

마을 자생단체로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가 있는데, 토산 1리의 경우 원모회가 하나 더 있다. 또한 자생단체 이외의 단체로 토산 1리에 생활개선회가, 토산 2리에 어촌계가 있다.

토산리 부녀회는 1리와 2리의 부녀회로 각기 나뉘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언제 조직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활동한지 대략 4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한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1명), 총무(1명)와 일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산리에 거주하고 있는 20~50대 여성이면 전원 의무적으로 부녀회의 회원이 되어 활동하게 된다. 1리의 부녀회는 정기모임을 갖지 않는 대신 특별한 사업 시에 임시총회를 열며 연말에는 연시총회를 갖는다. 2리의 경우에는 매달 15일에 정기모임을 열고 1월 하순에는 연시총회를 갖는다. 부녀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일년에 한두 번 마을의 불우한 노인들을 방문하여 집안 청소를 해주거나 음식을 갖다주고 있으며, 폐품수집을 하여 마련한 돈으로 토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경로당을 비롯한 마을 안길 청소, 마을 노인들이 게이트볼 연습 시 간식제공을 하며, 면·마을 체육대회 때에 음식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 밖에 마을 청년회와 연합하여 경로 잔치와 어버이날 행사 준비, 농로길 가지치기, 풀베기 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취미강좌나 한라산 등반을 계획함으로써 회원들끼리의 친목을 다지고 있다.

노인회 역시 토산 1리와 2리가 나뉘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이 회원이 되어 활동하는데, 1리에는 80여명이, 2리에는 70여명의 회원이 있으나 현재 활동인원은 각기 20~30명 정도이다. 임원은 토산 1리의 경우 회장, 부회장(1명), 총무(1명)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

며, 2리는 회장, 총무(1명), 반장(4명-연락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게이트볼장에서 자유로이 운동을 하며 건강을 다지는 토산리 노인들은 면·도 주체 게이트볼 경기에 참석하기도 하는데, 표선면에서 올(2001년) 6월에 열린 게이트볼 경기대회에서 토산 2리 노인회가 우승기를 획득하기도 했다.

청년회도 토산 1리와 2리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써 마을 체육대회 개최, 하천 정비, 마을 앞 길 가지치기, 방범 활동을 하며, 하절기에는 방역 활동도 하고 있다. 또한 토산 1리의 경우 리사무소 2층에 있는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회의 조직을 살펴보면, 토산 1리의 경우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고문 2명, 운영위원 3명, 직전회장 1명으로 구성되며 그 산하에 기획부·체육부·사업부·홍보부가 있다. 토산 2리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 연청 임원 1명, 운영 위원 6명, 직전회장 1명으로 구성되며, 그 산하에 조직부·지역 사회개발부·사무/재정·홍보부·체육부·청소년부가 있다.

토산 1리에 존재하는 원로회는 과거 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어르신들로 구성된 자생단체이다. 조직된 지 대략 십여 년이 넘었으며, 회칙이나 정기모임, 회원의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활동임원은 6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회장, 총무, 일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 청소년 지도, 한문교실 운영, 마을의 자문역할을 주로 담당했었으나 지금은 그 활동이 뜸한 상태이다.

자생단체 외에 토산 1리에는 남제주군 기술센터(법인체) 산하의 농민단체로 생활개선회가 존재한다. 토산 1리의 거주 여성 중 희망자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데, 현재 활동인원은 12명 정도이다. 운영 규약을 가지고 있으며 회장, 부회장, 총무, 일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 개선을 위한 기술 정보 교환이 그 목적인 이 단체는 갈옷 만들기, 음식 만들기(고추장·된장 담그는 법 등), 실뜨기, 미싱 등을 회원들에게 교육하고 있으며 감귤을 비롯한 농업 정보 교환,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토산 2리에는 자생단체 이외에 어촌계가 존재한다. 어업현황을 보면 해녀사업과 양식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바다의 오염으로 인해 현재는 그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며 그 소득 역시 적은 형편이다. 어촌계 조합원수는 총 56명(남: 3, 여:53-모두 해녀임)이며, 15t미만의 어선 1척이 존재한다. 해녀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소라 양식장(6000평, 2ha)에서는 매주 약 300kg의 소라를 수협에 납품하고 있으며, 그 소득의 2.5%를 어촌계로 납입하고 있다. 소라양식장 외에 치어의 종자를 길러 2cm가 되면 파는 종묘 양식장(1곳)과 광어를 기르는 양성 양식장(1곳)이 있다.

3.3 교육기관

토산리의 교육기관은 토산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있다. 상위 학교 진학은 중학교인 경우 주로 표선중학교를 다니고, 그 외 시내에 위치한 학교를 다니기도 한다.

토산 초등학교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토산 1리에서는 화산 초등학교, 토산 2리에서는 홍산 초등학교에 통학하며 어린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학구민들이 분교 설립 추진 기성회를 조직, 단합된 힘과 재일 동포의 지원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이어 학급 증설에 따른 교실 부족을 학구민들의 자력으로 가교사(假校舍)를 지어 수용하는 등 학교 기반을 닦았으며, 분교에 학급 수가 5학급에 이르자 분교 승격을 추진하여 1978년 토산 초등학교가 개교하게 되었다.

토산 2리의 경우는 어린이들이 주로 걸어서 통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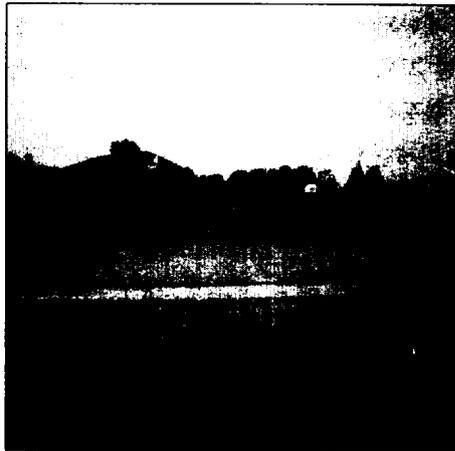


사진2 토산초등학교

하지만, 토산 1리의 경우는 학교가 좀 먼 관계로,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학교차를 마련·운영하여 통학하고 있다.

●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보직 교사	교사	유치원	서무	조무원	영양사	조리 보조	계
남	1	1	2				1			5
여				4	1	1		(1)	1	7(1)
계	1	1	2	4	1	1	1	(1)	1	12(1)

<2000년 3월 현재, 토산초등학교 제공>

● 학급편성

학년	1	2	3	4	5	6	계
남	8	9	6	7	9	4	43
여	6	5	8	6	3	7	35
계	14	14	14	13	12	11	78
학급수	1	1	1	1	1	1	6

<2000년 3월 현재, 토산초등학교 제공>

3.4 향약

토산 1리와 토산 2리의 향약이 별도로 존재한다. 토산 1리의 향약은 다음과 같다.

Ⅱ 토산 1리 향약

● 전문

우리 토산마을은 천연적으로 산세가 좋고 광활한 옥토와 용천수가 세 곳에서 흘러 호종단의 전설이 어리고 고려 때 현조선시대 정의현의 직촌으로 된 1,0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마을로서 1948년 4·3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마을 청장년 모두가 학살당하고 마을이 몰락당함으로써 참으로 견딜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里民이 화합과 단결로서 하면 된다는 신념과 노력으로 타지역에 앞서 가는 선진 복지 농촌으로 발전하여 오던 중 21세기를 맞이하여 里政이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손만대에 길이 빛나는 함께 잘사는 마을을 만들고자 마을총회 의결로서 이 향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향약은 토산 1리 마을 향약(이하 '본 향약' 본회라 함)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里사무소는 토산리 1370-1번지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 향약은 마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민 상호간의 긴밀한 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정의롭고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조 직) 본 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행정조직-6개반외(중감 할 수 있다)
2. 산하조직-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

제5조 (사 업) 본 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업
2. 里民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
3. 里民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제2장 里民의 권리와 의무

제6조 (里民의 권리) 전 里民은 본 향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20세

이상)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里民의 의무) 전 里民은 마을 운영에 대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

제8조 (里民의 자격)

1. 본 里의 里民은 표선면 토산 1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다음의 명에 里民을 둘 수 있다.
 - ① 본적지가 토산 1리인자
 - ① 토산1리에 공헌이 있는 자 중 개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제9조 (里民의 자격 상실) 본 里의 里民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 里民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토산 1리에서 퇴거한 자
2. 회원이 사망으로 승계자가 없을 때

제3장 임원 구성 및 임기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① 里長 1인 ② 새마을 지도자 2인 ③ 감사 ④ 개발위원 6인
- ⑤ 반장 6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里長이 유고시 잔임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지도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본 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里長은 마을을 대표하여 마을 전체 부분을 총괄하고 집행하며, 총회, 개발위원회 의장이 된다.
2. 새마을 지도자는 里長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里長을 보좌한다.
3. 감사는 업무 집행 및 재산 사항을 심사하고 연 1회 이상 里政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개발 위원은 里의 발전을 위하여 里政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里長을 보좌한다.
5. 반장은 반의 대표로서 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里長을 보좌한다.

제13조 (里長의 자격) 본 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里長, 새마을 지도자, 감사, 개발위원, 반장은 총회에

서 선출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음) 1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里長 또는 개발 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시 이를 里長이 소집한다.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의 구성인 里民 35인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17조 (총회의 개최통지) 총회는 7일 이내에 방송과 공고를 통하여 알리고 기타 회의는 3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可否 同數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향약의 개정
2. 임원의 선출(里長, 지도자, 감사, 반장, 개발위원)
3. 재산취득 및 처분관리 승인
4.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개발위원회의

제20조 (개발위원회의 구성) 개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里長 1인 ② 새마을지도자 2인 ③ 개발위원 6인 ④ 반장 6인
- ⑤ 자생단체장: 노인회장 1인, 청년회장 1인, 부녀회장 1인, 직전 이장, 里長이 필요시 2-3인의 개발위원을 더 둘 수 있다.

제21조 (개발위원장 선출) 개발위원장 선출은 개발위원 구성원 중 개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22조 (개발위원회의 소집)

1. 개발위원회는 里長 또는 개발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2. 재적인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소집한다.

제23조 (개발위원회 의결사항)

1. 총회에 제출하여야 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을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관리에 대한 심의
5. 향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 개정안 심의
6. 예·결산 작성 심의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 (개발위원회의 의결) 개발위원 회의는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 출석
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25조 (회계연도) 본 회 회계연도는 (음)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
다.

제26조 (세 입) 본 회 수입을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① 결산서 ② 사업 경과 보고서 ③ 특별 회계 결산서 ④ 재산 목록
- ⑤ 기타

제28조 (특별회계) 본 里의 里운영에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개발위
원회 및 임시총회를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보수) 1. 里長은 총회의 의결에 의거 다소의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里사무장은 총회의 의결에 의거 일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3. 다른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6장 관리

제31조 (서류의 비치) 본회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① 향약 및 제규정 ② 里民명부(주소록) ③ 회의록 ④ 금전출납 ⑤
- 재산목록 ⑥ 인계인수목록 ⑦ 비품대장 ⑧ 개발위원명부 ⑨ 결산보
- 고서철 ⑩ 기타 필요한 서류

3.5 종교현황

종교현황은 기독교로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있고, 불교는 '영천사'와 '용
두사'라는 2개의 절이 있다. 그 밖에 천지대안교와 삼천교(三天教), 또한
당신앙이 남아 있다.

3.6 기타

각종 생활용품, 중·고등학교, 의료, 문화 시설 등은 주로 면소재지인 표선리를 이용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이용하고 있다. 토산 1리의 경우에는 마을회관 옆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 곳을 이용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물건의 매매와 관련해 대부분 표선장을 이용했다. 옛날의 상권은 표선면을 넘지 않았다.

4. 산업환경

옛날에는 보리, 조, 고구마, 유채, 산두와 같은 잡곡농사를 지었다. 여름에는 유채를 재배해서 그것을 키워 열매로 팔았고, 겨울에는 보리를 재배하였는데, 이웃끼리 서로 도와가며 수확을 하였다. 또한 밭을 갈기 위해서 옛날에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소·말 등을 키웠는데 현재는 가축을 기르는 집이 그리 많지 않다.

● 산업일반현황

토산리	토지이용현황(ha)					가구수(가구)						총인구수(명)			농가인구
	농경지				기타	계	농가호수				비농어가	계	남	여	
	계	소계	밭	과수원			소계	전업농	수산	기타					
1리	464	274	66	208	190	143	99	84	12	3	44	489	251	238	455
2리	439	279	50	229	160	197	135	107	16	12	62	641	331	310	616

<2000. 1. 표선면사무소 제공>

현재는 주민 대다수가 감귤을 재배한다. 최근에는 토산리에서도 한라봉이나 네블오렌지 등의 변종도 재배하여 고소득을 노리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주민이 감귤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반작물은 약간의 콩, 참깨를

경작하고 있으나 많은 편이 아니며 일반 농작물 소득은 미미한 실정이다.

● 감귤재배현황

	재배면적(ha)	농가수(호)	계획면적(ha)
토산1리	208	183	25
토산2리	229	270	28

<2000. 1. 표선면사무소 제공>

화훼와 양봉은 이 지역의 중요한 특화작물이다. 옛날에 비하면 적은 사람들이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데, 주요 재배 작물은 장미, 소재류(아스파라가스), 케일, 신선초 등이다. 시설면적은 약11,200평에 이르고 있다. 양봉도 그 사육군수가 295에 이르고 있다.

바다에 인접해 있는 토산 2리에서는 약간의 해산물 소득이 있다. 해안변에 소규모 어항(포구)이 있고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낚시배 수준이며 어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극히 적은 편이어서 해녀들의 작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부로 어업 소득은 미미한 편이다.

● 해양수산현황

어업인구				어선 보유현황			마을 어장	해안선 길이	육상양식장현황				잠수 탈의실	항포구현황(m)			
토산리	계	남	여	계	15t 이상	15t 미만			계	양성	종묘	담수		방파제	호안	물양장	선착장
		56	3	53	1	-	1	71.6 (ha)	1.800 (m)	2	1	1	-	1	160	-	35

<2000년 12월 자료, 면사무소 제공>

5. 세시풍속

● 1월

· **정월맹질** : 음력 정월 초하룻날 토산리 사람들은 차례를 지내고, 곤쌀로 떡국도 해먹고 빙떡도 해먹는다. 친족끼리 돌아다니며 세배를 하였는데, 맹질날로부터 15일간 세배를 다닐 수 있었다. 그 후 오랜만에 모인 친족끼리 옷놀이, 연날리기, 연싸움, 자치기, 떡대치기 등을 하며 친목도모를 한다.

· **포제** : 음력 정월이 되면 포제를 지낸다. 과거에 행정구역이 나뉘기 전에는 토산 1리와 2리가 함께 제를 지냈는데, 현재는 따로 지낸다. 마을에서 제관을 선정해(나이순 혹은 가문별로 12명) 제청에서 2~3일 지내고, 마지막 3일제 밤에는 토산봉으로 올라 제를 지낸다. 마을에 장사(葬事)가 나면 연기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빈다.

· **신구간** : 신들이 모두 하늘로 올라가서 지상에 귀신이 없다고 여겨서, 이 기간동안 이사나 집 고치기와 같이 그 동안 동티가 날까봐 두려워서 미뤄왔던 일을 한다. 이사를 할 때는 솔단지, 성냥(옛날에는 숯과 같이 불 피우는 것)이 먼저 들어와야 하고, 이사가는 사람이 아닌 이사오는 사람이 집청소를 해야 한다. 옛날에는 통시(돼지통)의 동티가 가장 큰 일이라고 여겼는데, 이 기간동안 통시도 마음대로 만질 수 있으므로 화장실도 고친다.

● 2월

· **입춘** : 입춘날은 새철 드는 날이라고 해서 여자의 바깥 출입을 금한다. 집집마다 대문에 글씨(예>立春大吉)나 팻을 붙인다. 이는 귀신을 쫓기 위함이다.

● 3월

· **묘제** : 삼월 삼짇날은 멀리 떨어진 가족도 다 모여서 그 동안 제사

를 지내지 않았던 5대 이상의 조상묘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묘제는 주로 3월에 이루어지고 부득이한 경우 가을에 지내기도 한다.

· **석전제** : 토산리에서 향교에 가입한 사람들이 정의 향교(정읍리)에 가서 지내는데, 봄과 가을에 걸쳐 2번 지낸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석전제 지내는 사람의 수가 줄었다.

● 4월

· **청명** : 신들이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동안 신의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못했던 移苗를 한다.

● 5월

· **단오** : 음력 5월 5일 단오날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보리묵과 보리가루를 갈아서 떡을 해먹는다. 4대 명절 중에 하나지만 단오를 크게 하지 않는 까닭은 보리베기와 같은 농사일이 한참 바쁠 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단오 풍속이 많이 퇴색되었다.

● 6월

· **갈중이 만들기** : 무명, 광목에다 감물을 들여서 갈중이를 만들어 입는다. 갈중이는 품앗이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해 입었다. 토산 2리는 해안부락이라 감나무를 키우기 어려워 사거나 얻어다가 해 입었다.

· **닭 먹는날** : 음력 '6월 20일'은 닭 잡아먹는 날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끼리 모여 닭을 잡아 먹는다. 이 닭은 집에서 기르던 것으로, 정월에 낀 병아리는 이 때쯤이면 장성하게 된다고 한다. 삼복(초복, 중복, 말복)은 굶이 챙기지 않아도 이 날은 꼭 닭을 먹는다.

· **개역** : 보리가 나면 개역을 해 먹는다. 보리를 술에다가 볶아서 맷돌로 갈아서 만드는데, 개역은 특별히 칠월칠석이나, 어느 특정일에만 먹는 것은 아니다.

● 7월

- 칠월칠석 : 절에 가서 집안의 운을 빈다.
- 백중 : 물을 맞으면 약이 된다고 해서, 백중날은 '물 맞는 날'이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토산 2리에 위치한 '산여리통'에 가서 물을 맞는다. 또, 이 날 소와 말을 기르는 농가에서는 소와 말의 무질과 번식을 비는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 8월

- 소분 : 8월절(백로)에 들어서야 비로소 벌초가 시작된다.
- 추석 : 친척들이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차례를 지내고 송편을 만들어 먹는다. 토산리에서는 보름달에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는 보름달을 보며 노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비우제(기우제) : 토산 2리에서는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기원하는 제를 해안가에서 지낸다.
- 말똥줍기 : 옛날에는 소와 말을 기르는 집에 가서 말똥을 얻거나, 토산봉과 같은 오름에 가서 말똥을 주워왔다. 말똥은 땀감이나 거름으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온돌방의 땀 것으로 쓰면 그 따스함이 오래가므로 좋은 땀감이 되었다.

● 11월

- 동짓날 : 가족끼리 팔죽을 쑤어 먹었는데, 팔죽을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 지붕잇기 : 매년 새로 지붕을 바꿔주는데, 농사가 완전히 끝난 날 바람부는 날이나 화일을 피해 날짜 택일을 받아서 하였다. 새는 가을 넘어서 바짝 말려서 쓰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돌아가면서 한다.

● 12월

- 장담그기 : 콩 수확 후 장을 담갔는데, 신일은 쯤날이라고 해서 피하였다. 亥日, 酉日, 戌日이 가장 좋은 날이다.

방 언

〈 목 차 〉

- | | |
|----------------|-------------|
| 1. 일상 생활 관련 어휘 | 2. 산업 관련 어휘 |
| 3. 관혼상제 관련 어휘 | 4. 기타 |

1. 일상 생활 관련 어휘

1.1 의생활 관련 어휘

1) 의복

(1) 저구리 - 저고리

(2) 잠뱅이

(3) 갈중의

: 민영을 사다그냥 감들이기 전에 혼 땀번 입어남 어신 사람들은 경
해주게 빨아동 입어남 감을 들여신디 그것도 곤 옷이렌.

(4) 적삼

: 우에 옷만 적삼 요러케 풀른 거 이추록 긴 거 아니라 이것에 소매
이만이 걸고 게와 양착 들고 그게 적삼이라.

① 민영적삼

② 갈적삼

③ 모시적삼

(5) 치메 - 치마

(6) 곤중의

(7) 장옷 - 장옷

(8) 멩지바지

: 누에 질라그녕 실 빠서 허는 게 멩지주게 멩지옷 그것이 젤 조은 거라.

(9) 광목바지

2) 신발·모자

(1) 신발

① 보선 - 버선

② 째세기 - 째세기

③ 남신

: 비 올 앓을 때 신는 게 남신 나막신이라고 행 이서 나무로 만든 신.

(2) 모자

① 정당모저

: 정당으로 행 이만치 크게 행 사름 만들어그녕.

② 벌립

: 벌립이라고 해서 쉼틸로 만들어그녕 모저를 만들어서 모저를 만 드는 사름이 이섯주.

③ 패랭이 - 패랭이

3) 머리장식·도구

(1) 건지 - 머리를 따서 위로 돌리는 것

(2) 비네 - 비녀

(3) 도메

(4) 얼레기 - 머리빗

(5) 챙빗

4) 바느질 도구·바느질법

(1) 바느질법

- ① (손)바농질 - 바느질
 - ② 땡침
: 이불 꼬맬 때.
 - ③ 감침
: 감추는 거
 - ④ 박는 거
- (2) 바느질 도구
- ① 큰 바농 - 큰 바늘
 - ② 작은 바농 - 작은 바늘
 - ③ 손바농 - 손바늘
 - ④ 훑은 실/ 줌진 실 - 굵은 실/ 작은 실
: (실은 예. 그 이불 꼬맬 때나 아니면 호꼴락한 거 꼬맬 때나 다 똑같은 실 썬 마씨?) 아니, 그 줌진 바농 위 요지랑 할 때 다 줌진 실로 쓰꼭 저 같웃이나 이처럼 굵은 바농질할 때 굵은 실로 쓰꼭 헛주게.
 - ⑤ 바농졸래
: 그거 막 여기 막 쓰다 딱 떨어뜨리면 잘 잊어버리잖아게. 영 헤가지고 머리카락 영 헤가지고 다 꽃아놨잖아게. (그것ㄷ래 뭐렌 합니까?) 바농 졸래. 바농쌘지에 그걸 쟈쟈헤게시리 맨 다음에 그 바농 질레는 바농 졸래라고. 그 때 게영 돌아 막 쌘해여.
 - ⑥ 바농쌘지
: (게면 할머니 아까 곁는 거 보난, 영 바농 놓고 실 놓고 하는 거 바농쌘지마씨?) 응. 바농쌘지(바느질고리)
 - ⑦ 바농쌘 - 바늘쌘
 - ⑧ 실드래기
: (또, 영 실 감아 놓는 거 곴아 뭐라?) 실드래기
 - ⑨ ㄱ새 - 가위

1.2 식생활 관련 어휘

1) 음식

(1) 밥, 국, 죽

① 조밥 - 조밥

② 고구마밥 - 감자밥

: 고구마 낱 한 밥

③ 곤밥 - 쌀밥

④ 보리밥 - 보리밥

⑤ 보리술밥 - 보리 + 쌀

⑥ 툄밥 - 툄밥

⑦ 누물냉국 - 나물냉국

⑧ 메역냉국 - 미역냉국

⑨ 물웨냉국 - 오이냉국

⑩ 누물국

: 겨울에사 누물국. (누물국은) 배추도 먹곡, 늣뻘도 먹곡 혼 이서.

⑪ 꿩기국

: 꿩기도 바지고 늣뻘도 썰어와 혼곡 메역도 이닝 요런 바닷강 헤 다그네 메역 놓고 꿩기도 놓고 행.

⑫ 콩죽

: 가는콩 밧디 신거 퍼렇게 간 거. 그거 익으면 헤영 독개로 두드려 그네 정골에 곶아그네 죽 썬 먹었주. (무슨 콩으로 죽 곶아?) 이제 가는 콩 헤다그네. (가는 콩 마썸?) 가는 콩 헤그네. (가는 콩 이 어떤 콩이 파?) 가는 콩 밧에 질러 퍼렇게 간거. 그거 익으면 헤영 도계로 두드려그네 쟁골에 곶아그네 죽 썬 먹었지.

⑬ 좁쌀죽

: 좁쌀 낱 죽순 것에 그 풀누물 논 채 gpd 먹곡 혼 잇어서.

⑭ 감저죽 - 고구마죽

⑮ 풋죽

: 퍼르스름헌 건 풋죽.

⑩ 꿩죽

: 꿩죽두유. 쨌 쨌 이서 이서도 경 꿩죽 해먹는 사람도 이섯주. 본 설에 꿩에 낵 뽀사그네 죽써.

(2) 반찬 및 기타 음식

① 반치

: 바나나쌈 같이 생긴 거 잇어. 간장에 담가 뒷다가 여름에도 먹고 겨울에도 먹고.

② 감저뽀뽀기

③ 므른 감저(말린 고구마)

④ 비재기 - 비지. 두부를 짜낸 찌끼.

⑤ 느물

: 느물이나 숲아 먹엇주. 무순.

⑥ 짐치 - 김치

ㄱ. 늣뽀짐치 - 무김치

ㄴ. 배추짐치 - 배추김치

: 늣뽀짐치도 허곡, 배추짐치도 허고. 이디서 늣뽀쌈 토다그넝 배춘 어디서 그 옛날 시절에. 저 바당에 구덕에 담아 농곡 망대기 농곡 행 가그네 바당물에 강 돌 뽀래서 박박 밀엿 그 촌물에 씻어 촌물 뜨고 훈두박세기 그 망대기레 걸어 농곡 그 씻은 느물 담아놓고 헨 집에 오라 그걸 짐치라고 먹엇져. 맛을 느끼게 먹어서 맛이 좋기를 경해서.

⑦ 썸직기느물 / 촌느물썸직기(썸직기김치)

: (할머니 게고, 영 늣뽀 밑에 잇는 거 영 들르른 하얀 걸로 영 무수로 행 김치 만들어 먹어났고, 그 위에 그 위에 걸로는 김치 안 먹어 뵈수꽈?) 게메 그 그거 위 썸은 저 산 위에 툽질 헤 뵈그넝 바당물에 정강 씻어네 그 망대기네 망대기 지어주곡 느물 주어 주곡 행가그네 바다 소금 어디시난 소금은 경 하. (게난) 그 바당물을 소금 대신 행 씻어그네 바당물 걸어농곡 그 물에다 씻어 다그네 망대기에 쫄근 쫄근 담아낭 그 바당물 훈 두박씩 걸엿 그 망대기네 농곡 느물 씻은 것도 농곡 헤게 지위랑 지위가지고 풀뽀

찌나 타당 흥들그레 낚그녕.

⑧ 범벅 - 범벅

ㄱ. 맛물범벅

: 맛물 곱앙 범벅도 허곡. 그 옛날 오죽 어렵게 살아시니. 피 곱아 범벅도 허곡.

ㄴ. 밀채범벅 - 참밀의 걸겹질로 만든 범벅

⑨ 즈배기 - 수제비

⑩ 생청

: (그 벌 헤가. 벌은 여기서 안 키워난 거 닳다 예.) 스문 옛날엔 벌이여 무시걸 몰랐는디 요 중간 옛날로 이렌 벌 벌들도 헤쳐. 생청이라고 그건. (생청) 벌싸놓이. (웅) 그거 긴나게 돈 권들 사먹고.

⑪ 자리젓 - 자리(海魚)로 담근 젓

⑫ 전기떡

: (물 완전 많이 끓영 예 조금씩 즈봐가지고..) 전기. 그 전기도 있곡. 전기떡이 맛이 좋주.

⑬ 등개떡

: 보리 깎아그녕 막 그 깎아냥 거 채 도새기 주는 채를 또시 그거를 쳐서 그자 등개떡을 이렇게 등글럭허게 만들어서 이 그개 등개떡이라고 잇어

⑭ 좁쌀떡 - 좁쌀떡

⑮ 감저떡

: 감저뻬떼기 밤에 뻬사그네 ㄱ르해그네 신떡도 칭 먹고

⑯ 곤떡 - 흰떡

⑰ 시루떡 - 시루떡

⑱ 만뒤떡 - 새미떡

2) 식기

(1) 사발 - 그릇

(2) 남박 - 나무를 파서 만든 바가지 같은 그릇

(3) 도구리 - 밥그릇

(4) 살레

: 영 헤그네 나무로 맨든 거. 영 영 올라가 층층히 요만하면 요딘 큰 사발 얻고곡 또 밋에는 또 좀보시 얻고곡 헤그네 그기서.

(5) 수제 - 숟가락

(6) 저봄 - 젓가락

(7) 젓통/냥통 - 수저통

: (숟가락하고 젓가락은 이렇게 딱 하나 그 때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놓는 통 같은 거 어서수파?) 그런 숟가락이영 그릇이영 숟가락이영 그 저봄이영 이제 저봄도 하시 이런 대나무로 헤영 영 만 들어그네 저 현거 남. 냥통이라고 이만큼 헤그네 거기 고망 풀앙 침 돌아그네 공장에 돌아메듬서 그릇. 숟가락이영 거영 씻으면 거기 갖다 놓추게. 거기 갖당 영 영 질러뵈여. 게면 밥먹을 때 되 가면 그거 아이들이 영 다 갖당 놓곡 해신디.

(8) 보시 - 오목한 접시

(9) 종제기 - 식사에 쓰는 작은 그릇

(10) 밥자 - 밥주걱

(11) 남죽 - 밥 젓는 거.

(12) 보리때

: 막 마치 술 이제 지금 장마때 장마오민 막 이제 저 거시기 비가 많이 오민 보리때 옛날 보리 보리 헤그네 그거 헤그네 내 팡팡 연기 연기 팡팡나명 밥헝 먹곡 (아, 보리때로 영헤그네 마썸?) 응, 보리때로 영 검은 술에 불 때난 술에 영 들이몰아그네 그 보리술밥헝 먹젠허른 지금곧이 과수가 영 키른 하지만은 그뎌 그런 거 아 니 주게 저 불 숲아그네 밥할 때난.

(13) 믰물사발

: 이쁘디 아니현 거, 시검스르헝 사발.

(14) 존보시

: 존 접시, 접시. 사라. 아, 장 담고 헤난 접시.

* 자와

: 큰 그릇, 요만석 큰 거. 자와. (용 움막 드러간 그릇이파?) 응. 응. 진행 그것에 장행 메와그네 장거래낭 장 먹곡.

(15) 대차반지

: 대차반지도 요만큼한 거 떡. 떡헝 놓는 거. 그 대차반지 그릇이 거 별거 어시난 그 대차반지래라도 수박놔그네 쫄라그네 먹고게.

(16) 대구덕

(17) 낭푼이 - 양푼

: 채뻐 갈쩍엔 낭푼이래헝 거 요새 아래미 그릇. 요만한 거 깨끗한 거 스텡낭푼이 있지. 지금은 지금은 스텡이지마는 그때는 스텡도 아니라 아래미 그릇 오만한헝 거. (아래미 그릇은 또 뭐파?) 이모 노개.

(18) 시리 - 시루

: (게면 경 콩나물 기러난 그릇은 뭐래 굶아놔수파?) 그거, 무시거 시리. 시리.. 요만큼한거, 영 올라간거 그릇 요만한 헝 건디 가온 데고망 요만큼 툴아지곡 저 또예모로 세젠가 네젠가 툴라진델로 그 이제 이런 옷 쫄아그네 이런 옷 깨끗한 거시몬 밑에 쫄아그네 콩쉐라불카브헝 영 놔그네 우로 물주몬 물은 내려볼곡 거기 콕하면 콩나물 이만. 콩나물 크몬 그거 해그네. 많이도 못한다게 쫄끔씩 해그네 쫄끔씩 헝 아이들도 주곡 갈라 먹어그네..

(19) 밥사발

: 밥사발은 영 영 꼭작하게시리 호끔 무시거헝 거고

(20) 국사발

: 국사발은 그 저 므물사발 그 대접이래 헝 거에 지금같이 예쁘지도 아니한다게. 시커먼 거 옛날엔 그런 사발이, 그 옛날 초상들 그런 거 하나네 요샌 음 깨끗한 그릇 나나넝 그런 다 갖당 버블엇저게.

(21) 물박 - 물바가지

: (물 먹을 땐 뭘로 먹어놔수파?) 물 먹을 때 아무 거라도 먹지, 사발에, 아니 사발에도 먹곡 이 저 호박 닳은 거. 콕이지, 콕 (예)

호박 닭은 거 헤이영헌 거. 주머니. 그거 지붕위론 지붕위. 시비레 당 이런 데신 걸으면 그것이 킁 자라가면 올라가그네 거시 열민 이렇게 열민 거시 오래되면 썩썩하면 이제 툽으로 영영영 싸그네 그디 파네도그네 그거 딱흐네 얹어 말리우민 그거

(22) 대차롱

: 대차롱에 옷 놓고. 대차롱 큰큰헌 거 수라헌 거 불라그네 종이로 불라그네 그레 요 책갑에 다 못 놓면 휘어떡헌거 놓앗주.

1.3 주생활 관련 어휘

1) 가옥구조

- (1) 정재/정지 - 부엌
- (2) 삼방 - 마릿방
- (3) 큰 구들 - 안방
- (4) 작은 구들 - 작은방
- (5) 안거대 - 안채
- (6) 고팡 - 창고
- (7) 안거리 - 안채
- (8) 밧거리 - 바깥채
- (9) 우영 - 텃밭
- (10) 올래 - 골목
- (11) 물팡 -
- (12) 쉼막 - 외양간

: 소 지르는 막이여. 두 마리고 세 마리고 다섯 마리꼭 기르게 뉘면 이 소막이 따로 잇어. 소집이. (집을 이렇게 따로 만들고 지붕도 다 있고 뉘도 다 있고 헤가지고예) 그렇지이. 요기 여 형 집 이렇게 지으면은 요 양쪽에 요새는 창고 모양으로 지르는데 그것이 전부 소막이라. 소막.

- (13) 올담 - 올타리

2) 부엌

(1) 솥강알 - 아궁이

(2) 솥전

: 솥 앞히는 돌레

(3) 솥덕

: 솥앞힌 곳

무슨 솥을 놀라며는 이디 영 만들잖아. 덕을 만들어서

(4) 굴묵

: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

(5) 부시 - 부시

(6) 화성

(7) ㄱ스락불

: 옛날에는 그 성냥이 없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ㄱ스락불이엔 혼 것도 있어나고 건 집에서, 또 화성도 있어 나고 겐디 불씨를 전부 자기 집집마다 보관해야돼 따로.

화성은 들에 갈 때에 불씨를 보전하는 것이고 ㄱ스락불은 보리 같은 거 두드려 나면은 끌걱끌걱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분리될거 아냐 알곡호곡 그걸 쌓아놓 그걸 불을 탁 불허버리면은 그것이 한 메칠가 다 타도록 한메칠 간다고이

그 불에 가정에서는 어느 한쪽에 거기 불을 불형 내부는 거라이 그럼 화재는 아이냐 회한해 화재는 아사나곡 불씨만 거기만타 그 큰 이제 입으로 후후 불어가지고 불씨를 전해가지고

불씨가 옛날에 불씨 이렇게 이만이 혼든 회한하게이 동맹이 하나 없어노몬이 동맹이 좀 묵직한 동맹이 딱 없어노몬 그 불씨가 얼른 꺼지지도 안혼여 24시간 간다고 왜 없어놓는나? 거 안 없혀 놓면은 이게 빨리 불으니까 느리게 불여놓기 위해서. 경허고 화덕은 막 발달된 거. 마리에 마루에, 마리에 부석 부석 부석 부석이주게 부석이 맞추게. 부석에 가운데 이렇게 네모나게 돌로영 마로방에 허룻불을 살리기 위해서 부석이렌 해가지고 돌로 만들어 가지고 그건 저 식구들 모여 앉아서 영 쪼고게이.

2. 산업 관련 어휘

2.1 농업 관련 어휘

1) 농작물

(1) 곡류

① 대축/대죽 - 수수

② 산디 - 발벼

③ 께/애염저

: 애염으로 요렇게 두판 세판 이배끼 애염에만 해서 애염저라고 헐 거.

ㄱ. 흰께

ㄴ. 검은께

ㄷ. 노랑께.

ㄹ. 40일께

ㅁ. 50일께

: 40일께니 50일께니 뭐 그런 말이 이서 날만 빠르게 된 거 중저가 딴 거. 50일께는 그보다 조금 늦은 거고 나무도 크고 40일께는 멀지 았앙 헤 들이게 허게 뉘서.

④ 서숙 - 조

ㄱ. 호린조

ㄴ. 개발시리/퀘발시리

: 퀘발시리, 개발시리헐는디 끝갱이 요만치씩 거린게 세 개 기러기는 요만이 해도 끝갱이 솔지기는 요만이드 안 솔져 경 행 헤 난 건디 요즘은 검은누린조렌 헤그넝 찰찰 누린조도 잇고 모인조렌 헐 것도 잇어.

ㄷ. 대정모살시리

ㄹ. 버린조

ㅁ. 모인조

- ㅂ. 바게꿈
- ㅅ. 불각시리
- ㅇ. 백시리
- ㅈ. 동고시리

⑤ 보리 - 보리

- ㄱ. 외보리
- ㄴ. 잔보리
- ㄷ. 쏘보리
- ㄹ. 걸보리
- ㅁ. 줄보리/맥주보리
- ㅂ. 떡보리

⑥ 콩 - 콩

- ㄱ. 보리콩

: 보리밭 밭을 미리 이 지금 한참 킴주게. 콩보리 보리콩이라고 해서 밭에 비여놔불어. 걸름으로 경헛당 보리 갈주게 (보리콩 은 언제 뿌립니까) 건 봄에. 이른 봄에 아주 저 그자 눈만 아니 쟈 고찌 안헛 것이렌 허믈 보리 보리콩이렌 허믈 걸름으로.

- ㄴ. 검은콩
- ㄷ. 노린콩
- ㄹ. 흰콩
- ㅁ. 청콩

⑦ 감저 - 고구마

⑧ 풀 - 팔

⑨ 피 - 피

- ㄱ. 쾌피
- ㄴ. 갱피
- ㄷ. 올피

⑩ 모밀 - 매밀

: 매밀농사는 이제 곧 헛 때지. 모물 농사가 제일 늦은 농사주게 모

물농사는 걸름만 잘 주면은 늦어도 돼고 일러서는 안 댜덴. 웨 일러서 안 댜느냐 어른들 옛날 허여난 경험담을 아메도 골은 잇어 난 모양이라. 옛날 강태공이렌 헌 분이 목시질을 댜기다보니 농서철을 오곳 지나불엇거든. 모물농사 에이 모물이나 허자고, 뒤쉬영 험게 없거든.

⑪ 콩나물

: 콩나물도 시리에서 키우곡.. 시리 엇어그네 제기네 허젠허든 저 불숨 불치나온 솟독으로네 망대기에 놔그네 영 질으레 놔그네 또 스라사 제기나래 헤왔주.

⑫ 호박 - 호박

⑬ 쉼쌀눔삐

: (눔삐랑 비슷한데눔삐 위에 영 잇잖아예. 끝댕아리 이리 영 무사 무수 보른 영 허영한 부분으로 김치헝 먹음니께 예) 게메.눔삐로. (예. 근데 그 허영헌 부분이 완전 제라에 완전 쨍고 그 밑에 썸부분이 예 막 진 거 그것도 잇어나지 않아마썸? 옛날에).. 쉼쌀눔삐던 무신. 그 땅베켓드레 완.

(2) 채소류

- ① 패마농/마농 - 쪽파
- ② 무수/눔삐 - 무
- ③ 촌메/츄웨 - 참외
- ④ 웨 - 오이
- ⑤ 물웨 - 물외
- ⑥ 대사니/콤포대사니 - 마늘
- ⑦ 세우리 - 부추
- ⑧ 고치 - 고추
- ⑨ 강낭대죽/강낭대축 - 옥수수
- ⑩ 양에 - 양애
- ⑪ 콩잎 - 콩잎
- ⑫ 민네기 - 미나리

⑬ 녹물 - 배추

⑭ 당근 - 당근

2) 농기구

(1) 따비

: 사람이 밭 불리는 거라. 이제는 요게 요러케 이거를 돌아온 놈이
 있는디 이거를 심어서 영행 탁허게 지어그녕 밭로 볼브명 볼랑 땅
 더레 들어강 그걸 일러서 따비밧으로 행잇엇주게 따비로행 밭을
 만들어 낫단 말이주 (따비, 그건 어떻거꽈?) 그 무신 종이영 그
 뉘.. 영 걸룩배기 돌은 거..(영 그러지걸들랑 쫘 그러줍써)게 께도
 같고 그걸로 새밧도 풀구 (거 그런거 지금은 어서 마썸 안 썸수
 께?)거 시방 안 써 (창고에라도 영 낫두지 안해 마썸?) 박물관에
 가면은..있어.. 거린따비도 있고 보섭따비도 있고 (어떤..거릿..무
 슌 따비..) 거린따비 있고 보섭따비 있고 (거린따비하고 보섭따
 비) 거린따비는 요렇게 해서 이제 (두 개로) 밭이 두 개가 이제 거
 린따비 보섭따비는 외로 된게 보섭따비 (하나로 된거 마썸?)웅 하
 나로 된 거 (어떨 땐 거 쓰고 어떨 땐 거 쓰는 거꽈?)저 요거이 요
 것에 또 요..(애유..크게도 그러줍써게..하하하) 대충게 대충 이런
 게라 허는 거주게(예) 어둑워부난 눈 어둑워부난 무신 연 연필이
 크게 안 나와라게 (연필이 안 좋아부난 마썸 하하하) 크게 안 나
 와게라게 게난 보섭..) 요거이 요거는 따비라고 해서 이거 이거 이
 거 크게 본뜩본뜩허게시리..키게 기려븍써게 아맹이라도 (할아버
 지 연필 보짱 기려븍써 마썸 예) 크게 크게 기려븍써 크게 기려븍
 써 크게 큰 맘 먹엉 큼직이 (여기 여기 중심잡앙 영 크게 그러줍
 써) 밭 밍는거 당 헤그네 간 간단하게 기려븍써 간단하게..게메 간
 단하게 (이거 어떤 데 쓰는 거 마썸?) 이거 이거 새밧 갈 때에..이
 거는 제주도는 돌이 많애 노니까 (예 예)쉐로 갈메..못 가는 거..
 돌에 걸려가지고 못 가는 데에는 요 거린따비로 헤가지고 그 놈을
 딱 행 돌 일러둥 (아아) 때영 돌이영 다 일러둥 그 걸 때를 부황
 으네 쉐로 쉐로 가는거 (아아)게난 거 거린 따비로 돌 영 치워둥

보섭다비로 영 가는 거..)돌 치워동 거린따비 돌 일러동 다 헤는 거 요렇게 이제 나무로 이 이것도 나무로 된거이 요것도 나무로 된 거 요것도 나무로 된 것 요 글갱이 씨 쉼로 끼와져사.. (사람이 영 밀명 가는 거파 사람이 밀명 가는거파?) 보선 신기듯이 (갱 이 거 이거 하나 하나 명칭은 엇어마썸?) 요거느 요거는 너 미리 고 르라이.. 요건 다 따비라고 하는 명칭 팽개는 따비고 따비 따비 따 비 요린 쉼 (지금 뭐 마썸?) 요리 요리 (요리?) 쉼 (그 다음은) 요 걸 번듯 이거 이거 영 한건 번듯 (번듯 예?) 번듯 (요건 마썸?)요 거는 대우썰 손잡이라고 허는 거 대우썰 대우썰 대우썰 손잡이 (요건 마썸 요건 뭐 마썸?) 요거는 설짓 (설짓?) 따비 설짓 요 요 령게 해서 요거 요걸로 예날에는 시방 고라나 (예) 영 행 탁 허게 시리 지영 이디 양 발을 올라상 꾸닥꾸닥허당 탕 허민 이만썸 혼 번에 혼 짐에 못지게시리 혹 돌도 일어나고 돌도 일어나고 흙도 때도 일어나고

(2) 보리클 - 보리를 떠는 기계

: 보리 같은 거영 털뎨 보리틀로 영 잡앙 이삭만 짚히고 불리허고 이, 보리클이랜 허주, 여기 말로이.

(3) 몰궤 - 연자방아

: 여기서는 몰궤랑 헤영 양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거 있져.

(4) 정궤 - 맷돌

: 건 정고래 이젠 작은 거 건 맷돌, 몰궤는 그거 있어, 몰궤렌 현건 연자방아, 연자방아 같은 것도 여기 있어수까?- 어, 혼 마을 에 대여섯군텐 있어났어, 우린 하나 있어났어

(5) 산태/삼태

: 긴 쳇나무 두 개의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들 것 처럼 앞뒤로 들게 된 제구

(6) 흘태 - 흘이

: 보리 흘트는 빛이 잇엇주게 이렇게 생긴 건디 이거 영영 막 이것 에 붙엇잇엇주 영행 이레 발로 영 세왕 발로 탁행 영 동경 나무 에 장치가 뉘거주 옛날에는 좀진 흘태 흘튼다고 해서 좀진 거 웨

는디 요즘엔 혼 20개 야튼 스무개는 넘어

(7) 작디 - 작두

: 출 씨는건 작디

(8) 소스렁/쇠스렁

: 요 요 요거는 즈룩이 요렇게 또 나가야 돼 이거 일루 이리루 요건
요건 췌로 된 거 요 요 영 가린 거 요것도 가린 거 요것도 7린 건
디 요 즈룩이 이 상발발랑 영 영 행 놓으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손으로 심영 영 잡고 요거 요거 즈룩 요거 즈룩 (즈룩 마
쌌?) 쇠스렁 즈룩

(9) 팽이

: 팽이가 여러 가지라 여러 가지 목팽이도 있고 그는 고찌 앓아도
다 아는 거 저 경허나네 그런 걸루 옛날은 बात 이켜 만들었다는
그런거라 (고찌 안해도가 아니고 고라줘사 알아마쌌 목팽이 말고
뭐 있어마쌌?) 목팽이 썩팽이 제비췌과니 팽이가 맺개라 맺개
(팽이가 또 뭐 어서 마쌌 팽이가 또 그거 말앙 뭐 있어마쌌?) 팽
이가 그거 말고도 팽이가 침 팽이가 기냥 입으로 이르는 게 다 췌
로 만든 게 다 팽이라 (나무로 목팽인 어떤 나무로 만들어마쌌?)
목팽이렌 헌 건 췌즈룩 양 짝에 영 코지 돌아그네 요디 즈룩 박는
통이 요디 영 이디 잇고 요쪽으로 영.. 것도 모르는 모양인게 (예
우리 아무것도 몰라마쌌) 영 요디는 이거 즈룩 이거 영 즈룩 돌아
져서 이 즈룩 심어그네 들어 매당 이래허민 요 요디에는 요 혼 쪽
에는 영 벌어진 즈룩이고 혼 쪽은 이거 이거는 혼 쪽은 그냥 그자
고지만 행 돌도 일구고 요 혼 쪽은 놀 돌아그네 나무도 그차지고
정해그네 옛날 이걸루 요걸루 허구 요걸루 허구 이거 이걸루 헤그
네 거 그냥 팽이로는 두드렁 이 태나무식으로 두드려그네 बात 만
들어심에

(10) 멩에 - 멩에

(11) 굴각지 - 호미

(12) 호미 - 낫

: (보리 벨 때 그거 영 썼던 거 뭐 파?) 어? (보리 벨 때 쓰는 거?)

그건 호미 호미 (호미 다른 말로는 어수파? 호미렌 한 하고) 낮 이렌도 허구 낮 낮 진짜 낮은 이제 낮은 산에서 후리는 게 그게 낮 인디 보통 이제 이 제주도서 뜬디도 낮 호미고라 낮이렌 헤여 호미고라 (예-예-) 호미고라 호미 영 비영 영 영 헤는 것 고라도 낮 이렌 허고 즈룩이 이 정도 된 거에도 그런 거에도 낮이렌 허고 허 난 낮은 두 가지라

(13) 도깨 - 도리깨

: (비어 온 다음 타작할 때 허는 거?) 도깨 (도깨?) 도리깨 (도리깨?) 어 (것도 영 명칭 있지 안해 마썸? 도깨도 도깨도) 도깨 영 들려그네 영 들령 (영 행 손으로 잡는 부분허고) 즈룩이 잡아그네 영 도깨 도리깨 헤그네 이 사람 혼 번 탁 허멍 탁 이래 노령 할 때 에 어야 흥 하민 조짜이 사람도 어야 흥 허고 마당극 마당극이라고 도깨가 (도깨도 영 잡는 부분도 있고) 어시가 있고 아덜이 두 개 있고 도깨 툄래가 있고 툄래가 있고 네 개가 들어야 하나가 돼는거라 도깨 툄래 이? 어시 아덜 이렇게 헤가지고 (거 어떻 어떻 된거파? 아덜은 두 개 마썸?) 어 아덜이 두 개 잇이는 술진 낭 흐나 흐나 툄래렌 현 건 켜허게 낭으로 영 데와정으네 나무로 나무로 가도 오도 못하게 딱 나무로 재운 거라 것 보고 툄래 (거 무슨 나무 따른 아무 낭이나..) 아무 낭이나 데와지는 낭이른 돼 데와지는 낭 데와지는 낭 꺾어지지 않으민

(14) 땀망탕이 - 어깨에 메고 다니게 만든 망탕이

: 망탕이에 씨를 놔그네 끈 돌아 혼 쪽 등에 싹 메는 거. 땀망탕이.

(15) 잠대 - 쟁기

① 보섭 - 보습(쟁기의 맨 밑에 붙어 있는 것으로 땅을 파는 날)

② 뭉클

③ 양젯머리

④ 벳 - 벳

: 영 헤그네 또 여기 이거 쉼로 된거 잇어. 쉼로. 요것이 흙 넘어 나게시리 만드는 벳.

⑤ 달뱅이 뿔

⑥ 성에

: 쇠명에 - 명에는 쇠에 다가 영 걸청 그거, 지게 예들렁 밧이 갖추
게.

⑦ 친

⑧ 좁게

: 명에 양편에 각각 꺾어서 목 아래로 휘워다가 매게 된 나무가지.

⑨ 오리목

(16) 바래기 - 달구지

2.2 어업 관련 어휘

1) 어패류·해조류

(1) 어류

① 돔 - 도미

ㄱ. 자리돔

ㄴ. 돌돔

ㄷ. 감은돔

ㄹ. 뿔이

: 뿔이 이거 고라 뿔이엔 안허느냐. 조개 고틱서 몬 잡아낚주게
고매키도 보말도 잡아나고 수들이도 잡아나고 수들이는 막 큰
거.

* 뿔뿔이

* 청뿔이

* 동북뿔이

ㅁ. 갯돔

ㅂ. 생선 - 옥돔

② 우럭 - 썸베이/붉감쟁

③ 불참우럭

④ 얼룩배기

- ⑤ 갈치 - 갈치
- ⑥ 각제기 - 전쟁이
- ⑦ 고딩어/고등에 - 고등어
- ⑧ 솔치
- ⑨ 따치
- ⑩ 꿩치 - 꿩치
- ⑪ 어랭이 - 황놀래기
- ⑫ 맥진다리 - 어랭놀래기
- ⑬ 망치 - 망사어/주벽치
- ⑭ 객주리 - 쥐치
- ⑮ 삼치
- ⑯ 북바리
- ⑰ 논쟁이
- ⑱ 다금바리 - 자바리
- ⑲ 불각쟁이
- ⑳ 물썰기 - 해파리
- ㉑ 뭉게 - 문어
- ㉒ 베들레기 - 베도라치

(2) 패류·갑각류

- ① 구쟁기 - 소라
- ② 생복 - 전복
- ③ ㄱ메기/ㄱ메기보말 - 남방울타리고동
- ④ 오분지기/오분재기 - 떡조개
- ⑤ 갱이 - 게
- ⑥ 굼붓/굼벚 - 군부
- ⑦ 수두리 - 두드럭 고동
- ⑧ 멍게/멍지 - 멍게
- ⑨ 꽃쟁이 - 아주 작은 게
- ⑩ 돌팍말 - 돌보말

(3) 해조류

- ① 매역 - 미역
- ② 넙매역
- ③ 툭 - 툫
- ④ 우미 - 우뭇가시리
- ⑤ 물룣
- ⑥ 감태
- ⑦ 우미

2) 해녀 관련 어휘

- (1) 줍녀 - 해녀
- (2) 화덕/불턱 - 불 쬐는 곳
- (3) 빵돌 - 뉘싯봉
- (4) 소중이 - 속곳
- (5) 눈 - 물안경
- (6) 광목수건 - 광목수건
- (7) 모저 - 모자
- (8) 적삼

: 해변 살아나난 알주게 우리 메느리도 해냏주게 물질..(게민 물질
헐 땐 머 입어나수가?) 속곳 옛날 소중이 소중이 입언 햏져 머리
엔 골목수건 영 햏 쓰고 햏영 현 적삼 입고게 안경 영 눈이렌 현
거 쓰고 게 별 게 엇어

- (9) 굴갱이

- (10) 비창

: 비창은 생북떼고

- (11) 호미

: 감태영 헐 땐 호미로 기자

- (12) 스살/외비늘

: 고기 쏘는 건 저 무시겨 외비늘 호나.

2.3 축산업 관련 어휘

1) 가축

(1) 말 - 말

- ① 일가라
- ② 이청충매
- ③ 유마
- ④ 월라말
- ⑤ 병마

(2) 쉼/쇠 - 소

- ① 황쇠
- ② 검은쇠
- ③ 제노린쇠
- ④ 얼룩쇠

※ 쇠뿔종류

- ① 건지뿔
- ② 삼태뿔
- ③ 바르박은뿔
- ④ 잡박뿔
- ⑤ 두룩머리

: 뿔이 베껴져분 거, 빠져분 거. 뿔이 양쪽, 뿔그라져가지고 없는 거.

※ 성별

검은 부랭이 : 검은 숫소

검은 암췌 : 검은 암소

(3) 송애기 - 송아지

(4) 도새기 - 돼지

(5) 돛 - 닭

(6) 빙애기 - 병아리

(7) 돛새기 -달걀

(8) 암툭 - 암툭

2) 가축 외 축산업 관련

(1) 도고리

: 여 나무 큰 걸로 헤가지고 이 파 놓은 거 있어. 그런거 있어난. 그렇지 않으면 항아리 뚜껑 잇잖아이 그런 거.

(2) 출

: 보통 먹이는 출 / 풀 길러서 말린 것을 출이라고 해. / 8월달나면은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하잖아.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출 뷔어가지고 3일만 말리면 이런 땡땡드레 3일 말리면 깨끗하게 마르거든. 계면 걸 헤가지고 묶어서 집에 갖다가 노저. 옛날엔 여기는 놀이라고 하지. 놀. (놀). 쉼출놀. (웅). 출놀. (예) 노적이지 노적. 이 저 조선말(?)로 하면. 그렇게 만들어 나가 가지고 한단씩 이렇게 (아, 계면?) 그거 주고 소야 기르지. 겨울철에. (그럼 몰은?) 몰도 계면 마찬가지로.

(3) 몰채

: (근데 그럼 말 같은 건 딱 타면은 그.) 몰 탈 때는 몰채지 몰채라.

(4) 몰안장

3. 관혼상제 관련 어휘

3.1 관례 관련 어휘

* 토산리에서는 관례를 특별히 행하지 않은 채 장가(시집)를 가면 그 후부터는 어른으로 인정을 해 주었다고 한다.

3.2 혼례 관련 어휘

1) 혼례복

(1) 여자 예복

① 초록장옷/파란한 장옷

* 토산리에서는 장옷을 머리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의복과 마찬가지로 입고서 혼례를 치렀다고 한다

② 맹주로 만든 한복

ㄱ. 저구리 - 저고리

ㄴ. 치매 - 치마

ㄷ. 맹주바지

ㄹ. 적삼

ㅁ. 도갱이

③ 보선 - 버선

④ 빈네 - 비녀

(2) 남자 예복

① 도복 - 새신랑이 입는 옷

: 새각시 돌레가든 도복은 벗어그넝 한복만 입엉

② 관복

③ 탕근 - 갓 속에 쓰는 탕건

④ 두르막 - 두르마기

⑤ 쾌지 - 쾌자

⑥ 사모관대

2) 신발·모자

(1) 족두리

(2) 창신 - 시집갈 때 신부가 신는 신

: 여저는 결혼할 때 검은 고무신 짚신만 아니신영가든 조은 거 . 노랑 고무신에 바위 들러진거라

(3) 풍뎡이 - 새신랑이 쓰는 모자

: 머리에 쓰는 거 풍뎡이.

(4) 남신

: 남자신은 남신 영 코이신거.

* 혼수

- 신부가 신랑집에

: 혼 사각대엔뜨는던 옛날엔 이불 혼 채나 따른, 따른 사람 낸 두 채나 경허꼭 다같이 옷 해지고 / 잘 초진 사람이 두채조 원 제-원 / 경헨 시집가민 그제서 또 신랑은 공제엔 헨거. 공제. 물 재우는 함. 그건 저 광우지난 무시거 잘사른 사람은 네토, 못사는 사람은 두토, 겨고 그디 예잔헨 영 문제드떠려 영 혼 문제 썩 온다. 그거 말앙 올라도 처가집에 올앙 그레덩 바빠 돌아간디 그것도 말제인 그 딸 주멍 신랑 옷 해주면 다 쥬비여.

- 신랑이 신부집에

: (할머니 계른 신랑이 신부집이 가져갈 땐 뭐?) 그건 흥새 흥새 속에는 맹주 한 필 놓고 광목도 한 필 놓고

3.3 상례 관련 어휘

1) 상복

(1) 상복

: 상나민 입는 게 상복이고

(2) 제복 - 큰 상제가 입는 옷

: 초제, 제우제, 일포제를 헨다든지 그 때 입는 옷이 별도로 잇었어

(3) 허리띠

(4) 두건

: 대건/소건 - 상제 남저 쓰는 것은 초상 나면은 대건, 소건, 그렇게 행 잇었주게. 대건을 만들 때에 요것 달른 거 올로 이레 영 앞뒤로 잇는디 앞뒤를 뭇 때문에 나도 옛날 어른한티 들은 말인디 대건을 만드는 이치를 앞이는 요 무신거 혼적 요 요디선을 세 개를 놓고 뒤에는 네 개를 놔 이 우잉 영 헨 것에 앞뒤가 잇주게 게제 뭇 때 문에 앞뒤가 잇고 요걸 꼭 썩느냐 허면 앞이 뿔이 세 개 논 것은

전삼 삼년것상을 헐 것이고 후세 소대분 제상을 헐 것이다.

(5) 방장대

① 왕대 방장대

② 먹이낭 방장대

: 상제가 짚으는 것이 방장대주 남자가 돌아가면 왕대 방장대를 지고
여자가 돌아가면 먹이낭 방장대를 지고

(6) 건대

(7) 머리창

: 여자는 건대쓰고 머리창. 상제 표시 머리에 하얗힌 거 꼽는거.

(8) 행경

: 남자는 다리에 행경

(9) 수건

: 옛날엔 여자는 시방은 건대쓰지만 옛날엔 수건씻주게

(10) 지두

(11) 관복

: 관복이렌 현 건 지두옷 위에 또 입는 거 있고

2) 상여

(1) 생여

(2) 치잡아/치잡이

: 방향 돌리는 사름

(3) 선가지

(4) 장군/명군

(5) 화단

(6) 종

(7) 찻대

(8) 몰갠낭

(9) 소몰개/관바치 - 관반침

(10) 다패/다포

: 상여 앞에는 이 다포렌 헤그네이 광목으로, 상가 여인들 쪽 줄로
이영 간다고. 여자 복친들 복수건 쓰고 상복 입영이

- (11) 운도소리
- (12) 상뒤꾼 - 향도군
- (13) 소방상

: 경 행 관우에는 이 봉우리 모양으로 만들어그네. 이렇게 포장을
씩운다고. 이게 소방상이주게

- (14) 지전

: 소방상 각 귀에 다는거. 옛날에 왕들이 나갈 때 돈을 뿌렸어. 돈.
그 형식을 여기서는 돈을 없으니까 돈 고망 모양으로 돈을 툴라
가지고 맨든 종이모양으로 달아매가지고 걸 찢으면서 던졌어. 창
호지로 해도 돼주기. 길에 하나씩 하나씩.

3.4 제례 관련 어휘

1) 떡

- (1) 솔벤
- (2) 절벤/제편
- (3) 우적
- (4) 자구떡
- (5) 전기떡
- (6) 인절미
- (7) 시리떡
- (8) 친떡
- (9) 곤밥
- (10) 갱국
- (11) 탕유지
- (12) 감
- (13) 생선

- (14) 당시
: 고사리, 콩나물, 무수, 민네기, 메역채, 녹물채소
- (15) 가지
- (16) 청주
- (17) 적갈

4. 기타

4.1 인체 관련 어휘

- (1) 데맹이 - 머리
- (2) 양지 - 얼굴
- (3) 이맹이/임뎡이 - 이마
- (4) 빼암 - 볼
- (5) 야가지 - 목
- (6) 젓쟁이 - 겨드랑이
- (7) 독무리/독무럭 - 무릎
- (8) 니빨 - 이빨
- (9) 독지 - 죽지. 팔과 어깨와의 붙은 관절의 부분
- (10) 등따리 - 등
- (11) 잠지팽이/잠지패기 - 엉덩이
- (12) 귀마리짱 - 복숭아뼈
- (13) 앞가심 - 앞가슴
- (14) 손콍 - 손뚱
- (15) 발콍 - 발뚱
- (16) 엄지손꼬락 - 엄지손가락
- (17) 새끼손꼬락 - 새끼손가락

- (18) 상손꼬락 - 가운데 손가락
- (19) 허벅다리 - 허벅다리
- (20) 종에 - 종아리
- (21) 코잔등이 - 콧잔등
- (22) 아굴톡 - 턱
- (23) 뒤마리 - 뒤축
- (24) 상가메 - 머리 꼭대기에 있는 소용돌이 모양으로 난 머리털
- (25) 앞갈름 - 앞가리마
- (26) 정뱅이 - 점뱅이
- (27) 배또롱 - 배꼽
- (28) 옆갈리
: 아 이 영 갈비뼈 같은 거 만져지는 거 영 옆갈리
- (29) 엉둥이 - 엉덩이
- (30) 쥐술 - 장딴지
- (31) 흘목 - 손목
- (32) 가슴팍 - 흉골
- (33) 발등뎡이 - 발등어리
- (34) 발뒤치기 - 발치기
- (35) 발창 - 발바닥
- (36) 귀머리/귀마리짱 - 복사뼈
- (37) 눈뚱게
: 눈이신드레 요건 눈뚱게.
- (38) 눈망울/눈뺨울 - 눈망울

4.2 친족 관련 어휘

- (1) 고조하르방 - 고조할아버지
- (2) 고조할망 - 고조할머니
- (3) 증조하르방 - 증조할아버지

- (4) 증조할망 - 증조할머니
- (5) 녃하르방 - 손자가 할머니의 자매나 그들의 남편을 부를 때
- (6) 녃할망 - 손자가 할머니의 형제나 그들의 부인을 부를 때
- (7) 큰아방 - 큰아버지
- (8) 큰어멍 - 큰아버지의 아내
- (9) 셋아방 - 아버지의 둘째 형이나 아우
- (10) 셋어멍 - 아버지의 둘째 형이나 아우의 아내
- (11) 말젓아방 - 아버지의 셋째 형이나 아우
: (큰말젓아방 - 셋말젓아방 - 작은말젓아방)
- (12) 말젓어멍 - 아버지의 셋째 형이나 아우의 아내
- (13) 작은아방 - 작은아버지 아버지의 맨 끝에 아우
- (14) 작은어멍 - 아버지의 맨 끝에 아우의 아내
- (15) 큰눔(-년) - 셋눔(-년) - 말젓눔(-년) - 작은눔(-년)
- (16) 아지방 - 아제
: 여자가 자기 아우 남편을 부르는말/ 여자가 자기 남편의 아우를 부르는 말
- (17) 아지방
: 남자가 제수를 부르는 말/남자가 동기 이외의 손아랫 여자를 부르는 말
- (18) 메누리 - 며느리
- (19) 성님 - 형님
- (20) 아시 - 동생
- (21) 진위가 - 아버지의 외가
- (22) 가시아방 - 처부
- (23) 가시어멍 - 처모
- (24) 처아지방 - 처제
- (25) 처아주방 - 처남
- (26) 안사둔 - 안사돈
- (27) 밧사둔 - 바깥사돈

4.3 바람관련 어휘

- (1) 하니 바람 - 북풍
: 서북 한라산에서 부는 바람 우로 불어오는 거
- (2) 셋하니 - 북서풍
- (3) 동하니 - 북동풍
- (4) 마바람 - 남풍
: 알로 불어오는 거
- (5) 셋바람 - 동풍
- (6) 갈바람 - 서풍

4.4 지명관련 어휘

- (1) 조도르
: (젠디 뭐하나 궁금한게 이신디예 이지역에 뭐 지명 특이 할 거 이 수광?) 지명은 뭐 특이 한거 없다. 지명 뭐 특이한 거 해주게. 속 칭 이레 헤그네. (예, 거 말해줍서) 조도르 망아피 망 앞이니까 망 아 피고 (조도르는 뭐짱?) 존도르는구. 뜻을 몰르겠어. 조도르는 작은 돌을 하니깐 조도르랭 허는 거고게
- (2) 당어리, 넷바고
: (당머리는 어딜 당머리렌 험니까?) 당서쪽 한라산쪽이난 당어리 이 너분개 너분개는 개가 넓으니까 너분개 집타개, 집타개는 집앞 에 개가 흐르난 집타개, 개에 특징이 잇이냥 영 부르는건디, 살당 보단 말이 변하는 거주게
- (3) 넷바르
: (넷바르는 무사 넷바르렌 해수짱?) 넷바르는 내앞에 하천 앞이난 경 골앗주게 바닷가를 바르랜 헤여 이, (망아피는 무사 망아피마 씨?) 망오름 아피니까 망아피주 망오름 이름이 망이. 그 이름이 옛날 적군들 들어오면서 다 망 오름에서 감시를 하거든 게난 망보

는 디난 망아띠. (당쿨 당쿨은 뭐짜?) 당쿨은 굴렁이주 당으로 굴
렁진디난. (병디릴건 무사 병디우까?) 병디 병디는 넓은니까 그거
아냐 넓은니까. 옛날 병디는 막 넓은 땅. 바람불민 훑날 니는데를
병디랭 해났주게. (아. 이거은 다 된거 마씨?) 지명.

(4) 혼개

: 아. 저 혼레이서. 혼레 메아진 돌을 돌로 메아지난 메아진 돌 아
니. 이런 바닷가에도이 요긴 뭐 사고 여긴 뭐니고 다 이서. (아.
거 어떻 구분혜수까?) 아 경해야 우리도 어디 누게 이신줄 이주
게. 모살통, 높은턱, 턱이 노파부난 높은턱, 조근 사니리통 큰 사
나리통, 모살통은 모살이 하부난 모살통, 그 지역에서 그 지점을
가리쳐야 하니깐 게 그거 주게.

(5) 사니리통

(6) 너븐개

(7) 집타개

(8) 드깨미

: 드깨미는 뒷작이난 뒤깨미렌 해신거고..

(9) 서탑통

: 넷바르 사니리통, 높은턱 너븐개, 집타개 혼개 드깨미. 쪽이주게
서탑통은 영 물이 좋아서 세탁은 많이 해나난 서탑통, 사니리통은
산열, 열을 발산시키는 통이다 이거 주게. 할아버지 고는개는 뭐,
고는개는 가느다란 게 개가 이시난 건 기주 드깨미는 어디고? 나
잘 모르켜. 아이고 되서 이젠. 거 뿐이 어서. 이 무사 어디어디렌
혼마디하면 어디어디 나타날꺼 아니냐. 제주시 허민 몇 통 몇 방
호드스게 사람이 저기 몇 호 살고 집도 동사집, 서사집 옛날 사회
형태가 그리 부르게 돼 있어. 우리 사는 동네 고장은 서바디렌 해
나신가 서쪽으로 살아시난 서바디렌 헛주게. 집안끼리도 경 불러.

(10) 동사집

(11) 서사집

(12) 서바띠

민요

〈 목 차 〉

- | | |
|------------|-------------|
| 1. 밭 밟는 노래 | 7. 노 짓는 소리 |
| 2. 밭 매는 노래 | 8. 자장가 |
| 3. 맷돌 노래 | 9. 대툭질 소리 |
| 4. 타작 노래 | 10. 시집살이 노래 |
| 5. 방아 노래 | 11. 동요 |
| 6. 해녀 노래 | |

1. 밭 밟는 노래(밭 불리는 소리)

이 민요는 밭에 좁씨 등의 씨앗을 뿌린 후 밭을 잘 밟아 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다지고자 할 때나, 떼밭을 일구고 나서 흙덩이를 부수고 부드럽게 하여 떼를 쉽게 쳐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때, 말 또는 소떼를 밭에 몰아 넣고 밭을 밟도록 유도하면서 부르는 민요이다.

마소의 수는 대략 적으면 두세 마리에서 많으면 수십 마리까지 동원되었다고 하며, 사람은 마소떼를 유도하는 한 두 명의 선창자와 10명 내외의 보조자가 동원되었다. 가창에 대한 남녀구별이 없었으며, 辭說內容은 대부분 밭을 밟고 마소를 모는 등의 勞動關係 辭說, 노동이나 인생살이의 고통, 경제적 불안 등에 관한 신세한탄 내용 등이었다. 또한 밭 밟는 동작의 불규칙성 때문에 자유리듬으로 가창되어 不規則分割 리듬현상이 나타난다. 이 점은 이 민요가 가지는 土俗性和 原初性を 잘 보여준다.

① 조사일자 : 2001년 8월 3일

조사장소 : 토산초등학교

제 보 자 : 정의숙 (남, 정묘생-75세)

어려려려려~

요 몽생이덜¹⁾ 빨리빨리 걸영

이 농사를 잘 지어야 아덜 딸²⁾ 학교도 시키곡 할건디

어려려려~ 어려려려려려~ 허~

이러 이러~ 어려~ 어려려려~ 허~

요 몽생이덜 혼저³⁾ 걸라

어려려려~ 어~ 허~

② 조사일자 : 2001년 8월 3일

조사장소 : 토산초등학교

제 보 자 : 김창문 (남, 갑술생-68세)

어려~허 어려려~허~ 어려려~어허~ 하~ 어~어어어허

어려려~ 어허~ 하~ 허해~

저 몽생이덜~ 어~허~

담에염드래~ 덜여몰라⁴⁾~ 어려려~허~ 어허~ 허

미곤방이 에 어둑어둑해영~ 대우방 수천리 올 성 부르구나 어~허~

저비 오기전이 혼저 씨와블라그네 에~ 요

므시덜⁵⁾ 내므라야 어~ 좋구나 어허~ 허허허허

아랴~ 어~돌돌 에~ 어랴랴~ 하~ 에허~ 어~

어려려~ 하~돌돌~

어~ 저 므시덜 저 밧드래 들여몰라~

어려려~려려 어~ 어야~ 어~ 허~러러러러

1) 몽생이는 망아지인데 망아지, 몽생이라고도 한다.

2) 딸.

3) 빨리, 어서.

4) 담 곁으로 몰아라.

5) 말과 소 마소

어려려~하 어허~ 돌돌 엉~ 어~ 얼얼얼~
 아~ 어~ 어려려려~ 어려~ 려~
 둘랑둘랑하게시리~ 요 뭉생이덜 몰아그네~ 어~ 어허~ 호오
 어려려려~ 하~ 어려~ 어~ 허~ 어려려려~ 하 아~ 돌돌 엉~
 어려려~려~ 어려려~ 허어~ 에~
 어려려~ 어~ 하~ 어~ 허~ 하~ 헤~ 호오
 어려려~ 아 돌돌~ 허~ 어려려~ 하~ 돌돌이여 헤~
 어려려~ 어려려~ 허~ 에~ 어~ 어려려~
 어려려~ 어~ 아 돌돌 허~

③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김계은 할아버지댁
 제 보 자 : 김계은 (남, 신유생-81세)

어려려려려려려~ 어려려려~려려
 일로도 돌곡~ 절로도 돌곡⁶⁾~ 골고루
 돌~아간다
 어려려려 어려려려~ 어려려~
 테우리⁷⁾ 물을 몰듯이 잘 들어서 앞발이
 랑 가고 뒤돌아보지 말앙 빙빙 돌아가라



사진3 김계은 할아버지

④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김효열 할머니댁
 제 보 자 : 김효열 (여, 무진생-74세)

어려~ 어려~ 어려~ 어려려려~ 어려~ 어~ 돌돌
 어려~ 어려~ 어려~ 어려려려~ 어려~ 어~ 돌돌이로구낭
 이 놈의 뭉아지덜아 그레 뱅뱅 저레 뱅뱅 돌아가명
 어~이 말을 들어라 어려려~ 어~ 돌돌

6) 이리로도 돌고, 저리로도 돌고

7) 주로 말과 소를 등에 놓아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 또는 목동

어려~ 어려~ 어려~ 돌돌이로구나 어려려려~ 돌돌
 어려~ 어려~ 어려려~ 어려~ 돌돌~ 어려~ 어~
 울로 뱅뱅 질로 뱅뱅 돌아댕기멍 불러도라
 요 놈의 몽아지덜아 어~ 돌돌

- ⑤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1리 마을회관
 제 보 자: 김창문 (남, 갑술생-68세)

어려려려 허~ 어려려려~ 허~
 요 몽생이덜아 허허허 호
 어려려~ 하라 어허허 허
 이리 이리 허어허 허~허~ 하이고 야네들아
 요 몽생이덜 담에염드레 덜여 몰아그네
 담에염도 불라사 씨가 살거 아니야 어~려~
 어~허 어려려려 하~ 돌돌 허허~ 이리 이리 허~
 허려려~려 허려려려려 허~ 돌돌
 예~ 미끈방이 어둑어둑 검은 오름 구름 솟아오르거보나~
 대우방 수천리가 울성 부르난에 해~
 요비 오기전에 요씨가 불라그네 해~
 요 믰시덜 내물양 해~
 저비 맞이민 진부중되매⁸⁾ 해~
 어려려~하라 장통⁹⁾ 박아지민 해~
 종자가 피올라그¹⁰⁾ 허~려~
 농사실롱 되맨서든 허~하~랑
 해~해~해~해~ 하라~ 하 돌돌
 저비 맞이민 아니되매서든
 몰머리 한군데로 몰아그네 해~ 어~ 허려려~하라
 허~허허허 허려려~하 돌돌

8) 흙이 질퍽질퍽하게 되어.
 9) 움푹 패어 들어가서 비가 내리면 물이 잘 고이는.
 10) 종자(씨앗)가 잘못되어서.

- ⑥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1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정춘효 (여, 신유생-81세)

허려려~허려 돌돌 하 돌돌
요 놈의 몽아지덜아 봉울봉울 들이몰라 어려 돌돌~ 하고
요 놈의 중상¹¹⁾덜아 문착지계¹²⁾ 걸어서 시시 엇는거나
씨 싯이민 바독지엄 아니텐다 어려 돌돌
어려려 어려~ 어려 아~ 돌돌
요 놈의 송아지덜아 귀아지¹³⁾가 솔랑솔랑하게 걸엄시라 어려 돌돌~하고
(요놈의 소리는 허랭은 허영도 못허키여)
저 망오름¹⁴⁾으로 비 지는거 보라 비 오기 전이 혼저 들이몰라
요 송아지덜아 아~ 봉울봉울 걸어라 하~돌돌
어려려 어려 어려려 하 돌돌
어려려 어려 어려려 하 돌돌
어려려 어려 어려려 하 돌돌
어려려 어려려 요놈의 송아지덜은 들이 몰지 아니허난
졸암시네 문착문착 들이몰라 어려려려~ 아~돌돌 어려려~ 어 려려
어려려 어~려 어려려 어려~려 어려~어려~려 돌돌
봉울봉울 혼저 걸오라 아 돌돌
송아지덜은 졸암시네 봉우리 아니만
어려~ 어 돌돌 어려~려려 어려~려려~
어려려~ 아~ 돌돌 어려~ 돌돌 어려려 아~ 돌돌
허여봐도 요 놈의 소리는 허지 못 허키여 아~ 돌돌

-
- 11) 짐승. 여기서는 말과 소
12) 물건이 약하고 연하여 만질만질하게.
13) 귀의 언저리.
14) ① 조선 때 봉수대가 있어 외침에 대한 망을 보고, 통신망 구실을 하던 산을 일컬음.
② 한라산 국립공원 옷세오름의 눈오름을 달리 부르는 이름. 방목하는 마소의 망을 보았음.

⑦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2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고성환 (여, 정묘생-75세)

어~돌돌 어러러러~돌돌 요 몰들아~
훈 머루지썩 놀 그는 양 조름¹⁵⁾에도 가라
설은 발만 꼭꼭 불라 불명 어~러러 돌돌 어러~돌돌 어~
앞 뵈리명¹⁶⁾ 요 몰들아 발 뵈지 말망 떨어나 가라
곤밥¹⁷⁾도 옛날엔 쌀밥도 옛날엔 기려운 것¹⁸⁾
태우리 나시 밥이나 해여 온다 어~ 러러러 돌돌~
뱅뱅 돌아나 오라~

⑧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흥기생 할머니댁

제 보 자 : 흥기생 (여, 기사생-74세)

어러~러러~ 러러러
노픈 동산 늦은~동산 골고루 불라주라 어~ 어러러러~
곱새 몰도 요레 뱅뱅 돌아오라 어~ 러~
적대 몰도 요레 뱅뱅 돌아오라 어러~ 어~ 어~러러러~
골고루 족족 불라주라 요 몰떼야 어러러~ 어~
어~로 백매 몰아 뱅뱅 돌아오라 어~러러러~ 어러러러~

15) 꿩무니. 뒤.

16) 보면서. 잘 살피면서.

17) 뱀살로 지은 밥. 흰 밥.

18) 먹고 싶거나 마시고 싶은 것.

2. 발 매는 노래(검질 매는 소리)

①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2리 마을회관

제 보 자: 고성환 (여, 정묘생-75세)

검질~짓~고 풀 너른 밧디¹⁹⁾ 아~야 에~야 에~요
곱~은 쉼로 여의멍~ 가자 아~야 에~야 에~요
어델~ 가~면 내 놀고 살까 아~야 에~야 에~요
노다 가~소 자다나 가소 아~야 에~야 에~요
저~달이 새도록 노~다나 가세~ 아~야 에~야 에~요
앞멍~에²⁰⁾~랑 들어나오~라 아~야 에~야 에~요
뒷멍~에²¹⁾~랑 나고나가라 아~야 에~야 에~요
노다 간~건 건달이로다 아~야 에~야 에~요
좀자다 간~건 정말로 내 사랑 아~야 에~야 에~요
다음에 나낀 남자로 나소 아~야 에~야 에~요
나도~나낀 군즈²²⁾로 나소 아~야 에~야 에~요
허당 말민 놈이나 웃어 아~야 에~야 에~요
양긱 잡앙 지친 듯 허라²³⁾ 아~야 에~야 에~요

② 조사일자: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김효열 할머니택

제 보 자: 김효열 (여, 무진생-74세)

검질짓~고 풀 너른 밧디 아~양 아에~양 에~요
앞멍에랑 들어나오소 아~양 아에~양 에~요

19) 김이 많고 풀이 넓은 밧에.

20) 눈 앞에 보이는 밧머리.

21) 발 매는 이의 자세로 보아 등 뒤에 놓인 밧머리.

22) 군자

23) 양끝을 잡아서 채치는 듯 하라. 멍석의 양끝을 잡아서 곡식이 잘 섞이도록 마무리를 해라.

뒷머에랑 나고나가소 아~양 아에~
 양 에~요
 어기여차 소리에 배 올려맨다 아~양
 아에~양 에~요
 허경허즈 선현이로구나 아~양 아
 에~양 에~요
 훔 소리에 두 줌반씩 아~양 아에~
 양 에~요
 서산에 지는 해 지고 싶어진다 아~
 양 아에~양 에~요
 허경허즈 선현이로구나 아~양 아
 에~양 에~요



사진4 김효열 할머니

- ③ 조사일자 : 2001년 8월 3일
 조사장소 : 토산초등학교
 제 보 자 : 김창문 (남, 갑술생-68세)

허저지가 아~ 허~ 어우어~ 아~ 허어~
 어기야 어~ 음~ 야~ 어~허 어기야~ 어~
 요만허민~ 헐 만도 허~ 어우어~ 어~ 허~
 어기야~ 어~ 음~야~ 어~ 어기야~ 어~
 헐 만도 허~ 허구나 어~ 어우어~ 어우어~ 엉~ 어기야~ 어~

- ④ 조사일자 : 2001년 8월 3일
 조사장소 : 토산초등학교
 제 보 자 : 김창문 (남, 갑술생-68세)

검질~짓~고 풀너른 밧딤 아~양 아헤~ 양 헤~요
 곱은~ 췌로 여의명 가세 아~양 아헤~ 양 헤~요
 비온~날~에 웨상제²⁴⁾ 올 듯 아~양 아헤~ 양 헤~요

24) 외상제.

먼 데~사~람 듣기나 좋게 아~양 아헤~ 양 헤~요
가까운 데²⁵⁾~ 사~람 보거나 좋게 아~양 아헤~ 양 헤~요
요레 저레 모다나 드소 아~양 아헤~ 양 헤~요

- ⑤ 조사일자 : 2001년 8월 3일
조사장소 : 정춘효 할머니댁
제 보 자 : 정춘효 (여, 신유생-81세)

어데~야 방아로구나 아~양 아헤~양 에헤~요
이어차 소리에 배 솟아간다 아~양 아헤~양 에헤~요
검질 짓~고 골너른 밧디 아~양 아헤~양 에헤~요
앞명~에~랑 들어나오소 아~양 아헤~양 에헤~요
뒷명~에~랑 나구나갑서 아~양 아헤~양 에헤~요
사데 불렁 검질을 매져 아~양 아헤~양 에헤~요
사데소~린²⁶⁾ 느직느직 검질 손도 즈직즈직
앞명에~야 들어나오소
청주나 혼 잔 마셨더니 득지춤²⁷⁾이 절로나네
어허~ 요랑 사데
사데소린 느직느직 검질손도 즈직즈직
앞명에~야 들어나오소
청지 혼잔 마셨더니 궁등 춤이 절로난다
앞명에~ 두줄 반씩 들어오소

- ⑥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김효열 할머니댁
제 보 자 : 김효열 (여, 무진생-74세)

앞명에랑~은 들어나오소 아~양 아에헤~양 에~요
뒷명에랑~은 나구나가소 아~양 아에헤~양 에~요

25) 가까운 데.

26) 사데소리. 사데소리. 검질매는 소리.

27) 어깨춤.

이어차~ 소리에 배 올려멘다 아~양 아에해~양 에~요
 허경~허조 선현이로구나 아~양 아에해~양 에~요
 어~요랑 스하데 사데 불렁 검질매자
 아~ 요랑 스하데 허경~허조 선현이구나
 아~요랑 스하데

⑦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1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A-정춘효(여, 신유생-81세), B-김정순(여, 정묘생-75세)

B : 아~양 아에~양 에~요	A : 검질~깃~고 골너른 밧디
B : 아~양 아에~양 에~요	A : 곱은 췌~로 여의명 간다
B : 아~양 아에~양 에~요	A :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B : 아~양 아에~양 에~요	A : 뒷명~에~랑 나~구나가~라
B : 아~양 아에~양 에~요	A : 검질~손이랑 즈직즈직
B : 아~양 아에~양 에~요	A : 사데~소리랑 느직느직
B : 아~양 아에~양 에~요	A : 칠성 ²⁸⁾ ~ㄱ치 벌어진 적군
B : 아~양 아에~양 에~요	A : 다몰 ²⁹⁾ ~ㄱ치 모다나 드소
B : 아~양 아에~양 에~요	

⑧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2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고성환 (여, 정묘생-75세)

씨앗이 굶어 산둥더레 뜰으레 가난~ 아~양 에~양 에~요
 같은 밧에 메마꽃ㄱ치 아~양 에~양 에~요
 허연 듯이 나아갔구나³⁰⁾ 아~양 에~양 에~요

28) 북두칠성.

29) 밤에 한군데에 여럿이 총총이 모여서 반짝이는 별.

30) 앞에 나와 앉았구나.

3. 땃들 노래(ᄇ래 ᄇ는 소리)

이 민요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女性謠이며, 또한 제주도 여성들의 생활 감정을 가장 풍부하게 표출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불러 왔고, 그 가운데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제주도적인 기질이 잘 스며든 민요이다.

땃들질 소리는 주로 집 안에서 보리쌀이나 콩 등의 알곡을 땃들에 넣고 갈면서 부른다. 부엌, 마루, 처마 밑, 마당 등 집안의 일정한 장소에 멍석이나 덕석을 깔 후 그위에 땃들을 놓고 이 노동을 한다. 땃들질은 두 사람이 같이 노동을 하는 경우 한 사람은 땃들을 회전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땃들을 회전시키는 일과 병행하여 곡물을 땃들에 담은 일을 한다.

땃들소리의 사설내용을 주제별로 분석해 보면, 시집살이의 설움, 부부간의 갈등, 현실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신세한탄, 노동의 피로움 등이 대부분이다.

- ① 조사일자 : 2001년 8월 3일
- 조사장소 : 정춘효 할머니댁
- 제 보 자 : 정춘효 (여, 신유생-81세)

이여동허라 놀래³¹⁾모른 애기네들아 나신드레 배우레 오라
 태욱선간 마이간 손은
 이어 ᄇ래 붉은 때³²⁾ 해영
 본데 즈낙³³⁾ 어듬는 집이 오늘이엔 볼가나 현다
 이어 소리에 나 눈물난다 대로 한 질 놀래로가라
 놀래 모른 애기네들아 나신드레 배우레 오라
 태욱 선간 마이간 손은

31) 노래.
 32) 밝은 때. 날이 저물기 전에.
 33) 저녁. 여기서서는 저녁밥.

이엇 말은 말고 가난 늬이나 웃나
이어동허라 ㄱ랑줍썰³⁴⁾ 니 엇이 먹영 늬의 어멍 말엇이 살라
이어 방애 고들방애 지영 즈낙이나 붉은 때 허라
본테 즈낙 어듭는 집이 오늘이엔 불가냐 현다³⁵⁾

②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1리 게이트볼장

제 보 자 : 김정순 (여, 정묘생-75세)

이어동허라 이엇~ 말랑 말 아니 허라
가당 오민 늬이나 웃나
대로 한 질 놀래로가라
이어~ 이~어 이어동허라

③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1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A:정춘호(여, 신유생-81세), B:김창문(남, 갑술생-68세)

A :

이어동허라 이어~ 말랑 놀래로구나 대로 한 질 놀래로가라
놀래 모른 애기네들아 나신드레 배우레 오라
늬이 첩광 소낭의 벚름³⁶⁾은 소리나꼭 살을 메 엇나
지서어~멍³⁷⁾과 오름엿 들은 등글다도 살을 메 난다³⁸⁾
대로 한 질 놀래로가라 가당말민 늬이나 웃나
대로 한 질 놀래로가라 놀래모른 애기네덜아 나신드레 배우레 오라
ㄱ랑줍썰 니 엇이 먹영 늬이 어멍 말엇이 살라
이어 방애 고들배 지영 즈낙이나 불근데 허라
본테 즈낙 어듭는 집이 오늘이엔 불가냐 현다

34) 자잘한 줍쌀.

35) 본래 저녁밥을 어두워서야 먹는데 오늘이라고 일이 일찍 끝나서 밝은 때 먹겠는가.

36) 소나무에 부는 바람.

37) 정절을 잘 지키면서 집안일을 착실히 하는 아내.

38) 살 도리가 생긴다.

B :

이어 이어 ㄱ래
ㄱ래 굴민 어느 때민 요 ㄱ래 다 굴아그네
아침해영 널랑 널 아침이 놈광ㄱ치³⁹⁾ 검질매리 갈꺼냐
종에 좀저그네⁴⁰⁾ 복복허게 굴라 요 말젯년⁴¹⁾아
어느 때민 요거 다 굴아그네 어~ ㄱ래~
재기 종에 번지마랑 요 종에 좀지어그네
복복허게 둘러그네 흐저 굴라
요 보리쫄 서이새끼 저 솟드래 앞정 볼랑볼랑 데와그네
느네아방⁴²⁾ 밧 굴래강 들어오거들라그네
상출렁 재기⁴³⁾ 들여놓지 안허민
부지땡이로 아랫몽둥이 잡앙 굴기기 전에

④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흥기생 할머니댁

제 보 자 : 흥기생 (여, 기사생-73세)

이어도~ 방애~ 날난 날은 무신 날애 나그네
어느 바당 메역국⁴⁴⁾을 먹영 날 낭딘고
이어 ㄱ래여~ 이런 말랑 말라 나 놀래랑 산 넘영가라~ 물 넘영가라
이어도 ㄱ래~ 간세⁴⁵⁾ 말앙 고분 오몽허민⁴⁶⁾ 고분 거 뜯어먹나
이어도 ㄱ래~ 이어 이어 이어 이엇 말랑 굴앙 ㄱ래로가라

⑤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효열 할머니댁

-
- 39) 다른 사람들처럼.
40) 종아리를 안으로 구부려서.
41) 셋째딸
42) 너희 아버지.
43) 저녁상을 차려서 빨리.
44) 미역국.
45) 일하기가 싫어서 피를 부림.
46) 몸을 움직여 일을 부지런히 하면.

제 보 자 : 김효열 (여, 무진생-74세)

이여 이여 이여~
이여동허라 이엿 말라그네 말 아니헌다
이여 이여 이여~
이여동허라 이연 말라그네 말 아니허라
이여 이여 이여~ 이여동허라

4. 타작 노래(마당질 소리)

마당질 소리는 타작질 소리, 도깨질 소리, 도리깨질 소리, 도리질 소리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민요는 과거 통이나 메밀, 보리, 팥 등 곡식을 수확한 다음 그것을 도리깨로 탈곡하면서 불렀던 민요이다. 탈곡기가 없었던 과거에는 도리깨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곡식을 내려치면서 탈곡했는데, 이러한 노동에 수반된 민요가 바로 마당질 소리이다. 이 노동을 마당이나 밭의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 졌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마당질 소리라고 부르고 있다.

도리깨를 내리치는 작업은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두세 사람이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른 한두 사람은 탈곡할 곡식을 조정하는 보조적인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에 수반되는 마당질 소리는 자연히 타작질하는 두 사람 이상이 교대로 가창하며, 나머지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후렴구를 같이 받는다.

① 조사일자 : 2001년 8월 3일
조사장소 : 정춘효 할머니댁
제 보 자 : 정춘효 (여, 신유생-81세)

에야도 하야 어기야 흥
요런 날에 요런 일 허멍

훈 번 누리치건⁴⁷⁾ 돌락돌락
젓가슴이 돌락거리게 패여보자
앞드레나 동겨지게⁴⁸⁾ 마당질을 도끈도끈 해여보라
어기야 흥 이야도 하야

- ②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1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정춘효 (여, 신유생-81세)

이어동 흥 어야 흥 어기야 흥
요것조것 요레조레 패여보라
어깨춤을 할 때 돌락돌락 패여보라
요 동산도 때라보자
요것이 진곡이여 딱리고 딱리라 돌락돌락 딱렴시라
어기야 흥 이야도 하야
검질손이랑 늦직늦직 어깨독지 꼭지가 잣닥잣닥 해염시라
에야도 하야 어기야 흥 어기야 흥
요레저레에 돌아들명 딱리고 딱리라 요것도 진곡⁴⁹⁾이여
몬착몬착 딱리고 딱리라 몬착몬착 독개꼭지가 잣닥잣닥 패여부러
어기야 흥 어야 하야
요런 광질달이들 보라
광질달이엔 현 말랑 떨어불라
어기야 흥 요것조것 생곡이여 요레저레 모다나 들라
모다들명 좃아들명 딱리고 딱리라
어야도 하야

- ③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2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고성환 (여, 정묘생-75세)

47) 내리치면.
48) 앞쪽으로 당겨지게.
49) 生穀. 덜 타작된 이삭.

이어도 하여 이어도 흥 이어도 흥
 흥 므루랑 놀구나 가자 흥 므루랑 자고나 가자
 이어도 하여 이어도 흥아 이야흥~
 흥 므루랑 쉬멍가자 흥 므루랑 놀멍가자
 이야흥~ 이야하야 이야하야 좃아들멍 때려나 보자
 예야흥 예야흥 어기야 흥 좃아들멍 노픈 동산 때려나 보자
 예야흥 어기야 흥 이어도하야 이어도 하야
 요 므루랑 쉬고나 가자 흥 므루썩 쉬고나 가자
 이어도하야 이어도 하야 어기야 흥 어기야 흥
 이어도 흥 이어도 흥 이어도 흥 예야~흥
 요 므루는 누게 앞일라나 설운 정네⁵⁰⁾ 앞일로다
 설운 정네 가는데 질조차 자우러지네
 이어도 하여 이어도 하야 어기야 흥 이어도 흥
 요 놀래랑 산 넘영가라 요 놀래랑 물 넘영가라
 물도 산도 넘지나 마라 요덧 올래⁵¹⁾ 지넘고 가자
 이어도 하여 이어도 하야 어기야 흥 어기야 흥
 요건 누게 앞일로나 설운 정네 앞일로다
 이어도 흥 이어도 흥 이어도 하야 이어도 하야
 요 앞이랑 노픈 동산 때려나 보자 때려나 보자
 좃아들멍 때려 보자 예야 흥 이야흥 어기야 흥 이어도 흥
 지춧구나 자춧구나 보리떡에 쉬 미춧구나
 이어도 흥 허도 흥 허도 하야 어기야 흥

④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흥기생 할머니댁

제 보 자 : 흥기생 (여, 기사생-73세)

이야 흥 이야 흥
 요 동산 저 동산을 내리와 보자
 이야 흥 진곡들 돌려주라

50) 貞女. 어려움 속에서도 건실하게 집안을 잘 다스리는 여인.

51) 거리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길.

어야 흥 에야 흥아 어야흥 어야 흥
노픈 동산 늦은 동산 늦아도라
어야 흥 에야 흥아 어야 흥아 어야 흥
노픈 동산 진곡 내려와 주라 어야 흥

- ⑤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효열 할머니댁
제 보 자 : 김효열 (여, 무진생-74세)

허야동하야 어야 흥아
어야 흥 허야동하야 어기야 동아
허양 허야 허야동하야 어기 흥아 허야동하야
허야 흥 허야동하야 허야동하야 어야흥
허야동하야 허야동하야 어야 흥아
어기야 하야 어야흥 허야동하야 어야흥
요 념의 보리야 태작을 허면 부서지라
흔숨해도 멧 섬씩 두드려간다
어야 흥

5. 방아 노래(방에질 소리)

제주도에서는 방아를 남방애와 몰방애로 나누는데, 전자는 사람이 직접 곡식이나 떡방아를 찧는 것이고, 후자는 연자방아로서 소나 말에 연자매를 매고 돌리면서 곡식을 찧는 것이다. 여기서의 방아질 소리는 전자인 남방애를 찧을 때 부르는 민요이다.

이 민요의 사설에는 여성들의 고된 삶을 노래한 내용이 많고, 방아 찧는 작업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작업은 비교적 빠른 동작으로 하기 때문에 재빠르게 사설을 엮어나간다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이 민요는 다른 민요에 비하여 '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 따위의 여

음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 ①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 조사장소 : 2리 마을회관
- 제 보 자 : 고성환 (여, 정묘생-75세)

이어동 허라 이어도 허라 이어 이어 이어 이어
 가스롭 강당장 칩⁵²⁾이 식콜방애⁵³⁾ 새글럼서라⁵⁴⁾
 이어 이어 이어동허라 음~ 이어동허라
 새시집이 간 보난 방애질도 몰란
 방애질을 허난 방애혹⁵⁵⁾만 다 두드려 불고
 이어 이어 이어동 허라 이어 이어 이어동 허라
 우리 어멍 날 날적 무신 날에 날이낭 나그넝 요런 종사만 허랜 햄신고
 이어 이어 이어동허라 이어 이어 이어동허라
 집이 신 땀 아무것도 혈 줄 모른 애기 시집 새 시집을 보내어 노난
 방앤 지랜 허난에 식콜방애 새글럼서라
 이어 이어 이어동허라 이어 이어 이어동허라
 우리 어머니 날 낳아도 늦게라도 시집을 보내주마는
 열여섯에 시집을 가난 아무것도 혈줄 몰란 방앤 지랜 허난
 이어 이어 이어동 허라 이어 이어 이어동허라
 이어도 방앤 새글럼서라

- ②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 조사장소 : 김효열 할머니댁
- 제 보 자 : 김효열 (여, 무진생-74세)

52)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康堂長 집. 대부호였지만 지나친 물욕으로 풍수에 밝은 스님을 박대했다가 온갖 이변이 일어나 삼시간에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음.

53) 제주도 특유의 ‘남방애’를 세 사람이 짊을 경우.

54) 그 사이가 어긋나서 어울리지 못하고 있더라.

55) 절구의 가운데에 박아 놓은 돌을 우묵하게 파서 만든 물건.

이여 이여 이어동허라 이여 이여 이어동허라
가시오름에 강당장집이 식콜방에 새글러간다
이여 이여 이어동허라 음~ 음~
이여 이여 이어동허라 이연 말랑 말아니허라
이여 이여 이어동허라
가시오름에 강당장집이 세콜방이 새글러간다
이여 이여 이어동허라

6. 해녀노래

이 민요는 해녀들이 바다로 물질을 나갈 때 노를 저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노는 대개 혼자서 젓는다가 보다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젓는 경우가 많으며, 나머지 해녀들은 배 위에 모여 앉아 장단을 맞추면서 뒷소리를 부른다.

辭說內容을 살펴보면, 물질작업의 고됨을 달래기 위한 해녀노동과 관련된 내용과 시집살이와 삶의 어려운 고초 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는 제주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당시의 고통을 노 젓는 동작에 얹어 노래로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의 한을 달랬던 것으로 풀이된다.

- ①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1리 게이트볼장
제 보 자 : 김정순 (여, 정묘생-75세)

이이사 이어나 동이나바당 들물나면 서이나바당 이어도사나
물때나 점점 늦어나간다
이물⁵⁶⁾에랑 이사공아 고물⁵⁷⁾에랑 고사공아

56) 배의 머리쪽.

57) 배의 뒤쪽.

허릿대⁵⁸⁾ 밋디 화장수⁵⁹⁾야
물때나 점점 늦어나간다
이어도사나
요 바당에 은과나 금은 꼰렸건마는
노픈 낭의 열매로구나
이어사 이어도 사나

- ②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2리 게이트볼장
제 보 자: 송사옥·정순생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솔솔가는 솔나무배 우리나 배는 잘도나 가네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허릿대 밋디 화장아야 물 때 점점 늦어나가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물에는 이사공이여 고물에는 고사공이여
이어도 사나 이어도사나
(청취불능) 만단들로 잘도나가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청취불능) 만날들로 이어사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쳐라 쳐라쳐라 이어도 쳐라

- ③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2리 마을회관
제 보 자: A-현정렬 (여, 무오생-84세),
B-고성환 (여, 정묘생-75세)

A :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58) 배의 허릿간에 세운 돛대.
59) 화장수. 화장아. 배에서 불 때는 일을 하는 아이.

물로 뱅뱅 달아진 섬에⁶⁰⁾ 요 물질 배왕 혼푼 두푼 모인 돈을
낭군님 술값으로 나 나간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사 어~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어~
술술가는 잡놈의 배야 이어사나 이어사나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매일 종사 오늘이여 이어도 사나
쳐라 쳐라 잘도 간다 어기야 디여 이어사 이어사나 이어사나
잘잘가는 잡놈의 배야 어서 가자 이어도 사나
어야 디야 어기여 차차 어~ 어이사나 이어사나 이어사
이어사나 어~ 이어사나 어기어라 이어도사나
쳐라쳐라 쳐라쳐라 이어도사나 잘도 헨다
어야디야 이어차 이어차나 이어도사나 어~
이어도사나 이어사~어~ 이어도사나

B :

구시월에 쓸쓸한 브름 혼 질 두 질 숨이나 참고
우리 애기들 배근밥⁶¹⁾ 맥이자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 ④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계은 할아버지댁
제 보 자 : 강기생 (여, 기사생-73세)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이어사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이어사 이어사
젊은 년이 기십⁶²⁾으로 요네 상착⁶³⁾ 놈을 주랴
이어사 이어사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 이어사
요 네 상착 놈을 주랴 젊은 년이 기십으로
요 네 상착 놈을 주랴 이어사 이어사

60)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

61) 배부르게 먹은 밥.

62)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거나 주저하지 않고 덤비는 담기(膽氣).

63) 노(櫓)의 상책.

이어사 이어사 이어사 이어사 이어사
요 내 배는 솔나무 댕데 치룩차룩 잘도나간다
이어사 이어사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젊은 년이 기십으로 요 네 상착 놈을 즐쏘나
이어사 이어사 잘도 나간다 치룩차룩 잘도 간다

7. 노 짓는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김계은 할아버지댁
제 보 자 : 김계은 (남, 신유생-81세)

이어차 하고~ 이어차 하고~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이어차 하고~ 이어차 하고~
산도 설고 물도 설고 우리 배는 올라간다
이어차 하고 올라간다 이어차 하고 이어차 하고
이물예랑 이사공아 고물예랑 고사공아
허릿대 밋디 화장아야 물때는 점점 늦어진다
이어차 하고 이어차 하고
이언 이언 이언 이언 물이 들고 산도 설고
우리 배는 잘도 간다 이어차하고 이어차하고
이언 이언 이언 이언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허릿대 밋디 화장아야 물때나 점점 늦어진다

- ②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오창수 할아버지댁
제 보 자 : 오창수 (남, 무인생-63세)

이어 이어사나 이어사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 산천은 푼트푼트 해년 마당은 잘 바라진다
이어서 이어도사나
어떻허민 살아나 지코 어떻허민 살아나 지코
이어 이어 이어도 사나

8. 자장가(애기 흥그는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1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정춘효 (여, 신유생-81세)

왕이자랑 왕이자랑 어지시던 할마님 내온 즈손
할마님이 머리찌봄에 불뚱고치 모셨으니
이 즈손 풀잎께도 거찌게 맵서
하늘만이만 키와줍서
승이신들 승을 보멍 괴가 신들 괴홀 수 있으리까
밥 먹으면 배 배근 줄 옷입으면 등 따신줄 백기모른 무둥이니⁶⁴⁾
무신 일 알까푸와 할마님이 열다섯 십오세 전은
할마님이 키우는 법 아니카보파
할마님이 이 즈손 하늘만이만 키와줍서 할마님 무슨 저손
할마님 능력 그정 못 헐일 잇스리까
승 불일 시나 때나 승광 괴랑 저보감저 헤어줍서
왕이자랑 왕지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혼저 혼저 혼저 크라 혼저크라⁶⁵⁾
할마님이 이 즈손 풀잎께도 거찌게 맵서
물웨크듯 키와줍써 구덕 어깨 크는 철에 모르게 키와줍서
할마님이 승이신들 승을 보멍 괴가 신들 괴홀 수 있으리까
무쇄순디 서숙 밥 먹는 무소에 무슨 철을 알카보파
할머님 내온 즈손 할마님이 이 즈손

64) 밥 먹으면 배부른 줄, 옷 입으면 등 따신 줄밖에 모른 어린아이니.

65) 빨리 커라.

승불일 시나 때나 승광 피랑 저보감저 헤어줍서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저레가는 검등개야 우리애가 재와주라
우리 애긴 자는 소리 늑는 소리
할마님 물 아래 금돌 닦은 아기 옥돌 닦은 저손지
우리 애긴 자는 소리 놈의 애긴 우는 소리

- ②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계은 할아버지덕
제 보 자 : 강기생 (여, 기사생-73세)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윙이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자랑 자랑
우리 애기 자는 소리 놈의 애기 우는 소리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자랑
우리 애기 돈밥 든줌 재와줍서 할머님 자손 든줌만 재와줍서
자랑 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자랑 자랑
윙이아 자랑아 윙이여 자랑아 윙이여 자랑아 자랑아

- ③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효열 할머니덕
제 보 자 : 김효열 (여, 무진생-74세)

자랑 자랑 윙이자랑 자랑 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자랑 자랑 자랑
은즈동아 자랑아 금즈동아 자랑아
자랑 자랑 신선동이 자랑 자랑 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은즈동아 자랑아 자랑 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어진동이 자랑아 신선동이 자랑아
은즈동아 자랑아 금즈동아 자랑아

어진 애기 자랑아 할망즈손 자랑아 할망손지 자랑아
자랑아 자랑아 똥이자랑 똥이자랑
요놈의 고냉이⁶⁶⁾ 말 아니 들으민 뒷뱃더래 호나 흑 데끼민⁶⁷⁾
뒷뱃 고냉이도 박박 뜯어먹고
앞뱃더래 흑 데끼민 앞뱃 고냉이도 박박 뜯어먹곡 한다
즈즈해영 자랑아 똥이자랑 똥이자랑 곱앙자랑 곱앙자랑

9. 대뚝질 소리

뚝질소리는 산이나 집에서 나무를 켤 때 부르는 민요이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는 아름답디 나무들이 많았는데, 이 나무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거나 테우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뚝질작업은 크게 혼자서 하는 경우와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혼자서 하는 경우는 대개 작은 뚝으로 작업을 하지만, 둘 이상이 할 때는 여건에 따라 규모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집을 짓거나 배를 만들려면 커다란 통나무를 자르고 켜서 재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때 10여명의 역군들이 큰 뚝 양쪽에 줄을 매어 서로 교대로 당기면서 뚝질을 했다. 때문에 뚝질작업은 자연히 흥겨운 놀이판과 연결되어 심지어는 풍악까지 동원되었다고 한다.

①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1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김창문·김규철, 정의문, 정의숙

(성님 이거 낭 바로 사시나 봅서 나 본딘 곱게 사신께)

먹통술⁶⁸⁾랑~ 중심삼아 어허~ 낭청 흥헤로다

66) 고양이.

67) 던지면.

68) 목수용 먹물통.

허 간디 가고 온디 오라 어허~ 낭청 흥헤로다
 남은 아년 물듬비여 어허~ 낭청 흥헤로다
 어허 낭청 흥헤로다 어허~ 낭청 흥헤로다
 지쳤구나 다쳤구나 어허~ 낭청 흥헤로다
 보리 떡에 쉬미쳤 어허~ 낭청 흥헤로다
 스투롱 솔착 들고가라 어허~ 낭청 흥헤로다
 요령오령 집을 짓엉 어허~ 낭청 흥헤로다
 딸랑 나컨 열녀나 웨고 어허~ 낭청 흥헤로다
 어허 아들 나컨 효자웨라 어허~ 낭청 흥헤로다
 잘도헌다 잘도헌다 어허~ 낭청 흥헤로다
 스투롱 솔착 들고가라 어허~ 낭청 흥헤로다
 요 산중에 놀던 대뜸 어허~ 낭청 흥헤로다
 요 역꾼덜 잘도 헌다 어허~ 낭청 흥헤로다
 어느 누가 택일 헤여시니 어허~ 낭청 흥헤로다
 눈썹래기 귀차래 때렷쩌 어허~ 낭청 흥헤로다
 (청취불능) 아년 눈진뱅이 어허~ 낭청 흥헤로다
 간디가고 온디 온다 어허~ 낭청 흥헤로다
 잘도든다 잘도든다 어허~ 낭청 흥헤로다
 요만허면 혈만하다 어허~ 낭청 흥헤로다

10. 시집살이 노래

- ①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1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김창문 (남, 갑술생-68세)

장독 7튼 시아방에 암독 7튼 시어멍에
 물꾸럭⁶⁹⁾ 7튼 서방님에 코생이⁷⁰⁾ 7튼 시누이에

69) 문어.

70) 용치. 놀래기.

시집살이 고치장이 맵다한들
요 시집살이만 매울쏜가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어찌 좋은 줄을 모르겠네

- ②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1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김정순 (여, 정묘생-75세)

(청취불능) 살건마는
가다오다 만난 님은 정이나 없으면 못 살게여
이빨이 좋다고 정들었더니 말머리나 미웁 정 떨어졌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랑 놀지는 못 노리라

11. 동요

- ①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1리 게이트볼장
제 보 자 : 김정순 (여, 정묘생-75세)

저산더레 고박고박 하는건 무시거니 미우쟁이야⁷¹⁾ 미우쟁인 흰다 희민 하
루방이여 하루방은 등 굽은다 등 굽으면 쉼질멧가지여 쉼질멧가지는 너구멍
난다⁷²⁾ 너구멍 나민 시리여 시린 검나 검으면 가마귀여 가마귀 뉘뜯다 뉘뜨
민 심방이여 심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민 철쟁이여 철쟁인 줍진다 줍지만 갱이
여 갱이는 붉나 붉으면 엇이여 엇은 쫓난다 쫓나민 그래기여 그래긴 보리떡
나 보리먹는 건 다우려분다

- ②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71) 미꾸쟁이, 참억새의 줄기 끝에 이삭 같이 된 기다란 꽃.

72) 구멍이 4개 난다.

조사장소 : 1리 마을회관

제 보 자 : 김정순 (여, 정묘생-75세)

㉠ 여럿이 마주 앉아 다리를 엇갈려서 펴 놓고 부르는 노래

훈다리 인다리 개청
대청 원님 스설
구월 나월 장장
밭디 지동에 척

㉡ 재⁷³⁾야 재야 느러오라 개똥범벅 허여주마 쇠똥범벅 허여주마

㉢ 춤대⁷⁴⁾ 아정 나오라 꿩기 뉘으레 가게

③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효열 할머니댁

제 보 자 : 김효열 (여, 무진생-74세)

훈다리 인다리 므시땡
너희 삼촌 어디가
제장 밧디 총 노래 가

73) 재열. 쟈. 매미.

74) 뉘싯대.

설화

〈목 차〉

• 調査經緯

- | | |
|--------------------------------|------------------------|
| 1. 도채비 이야기 1 | 29. 도채비 이야기 3 |
| 2. 오별장 이야기 | 30. 이순신 장군 이야기 |
| 3. 당팻 당장 1 | 31. 당팻당장 3 |
| 4. 선산이왓 | 32. 여방훈장 2 |
| 5. 가새오름, 염통오름, 망오름, 납쟁이
골 | 33. 답다으니 |
| 6. 거슨샘 | 34. 결혼이야기 |
| 7. 엉터리축 | 35. 정당장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
| 8. 뼈 딸린 맹물 | 36. 십탱께 |
| 9. 산열이통 | 37. 육혈(육반대기) |
| 10. 거슨새미, 느단새미 | 38. 조자현이 터 본 이야기 |
| 11. 보물선 이야기 | 39. 당팻당장 4 |
| 13. 허깨비 | 40. 가사봉과 염통오름 |
| 14. 호종단(胡宗旦)이 터 봐줘서 잘
된 얘기 | 41. 토산봉 |
| 15. 설촌 이야기 | 42. 거슨샘, 느단샘 |
| 16. 말가죽을 피해 달아난 마마귀신 | 43. 개미목(육혈) |
| 17. 망오름 | 44. 토산봉 구리 먹고 병 나은 이야기 |
| 18. 설촌 유래 | 45. 뱀 이야기 |
| 19. 조상묘 잘 써서 성공한 이야기 | 46. 힘자랑 |
| 20. 술독에 빠진 구렁이 덕에 벼슬
얻은 이야기 | 47. 토산 뒷병덕 |
| 21. 당팻당장 2 | 48. 산여리통 |
| 22. 죽었다가 산 이야기 1 | 49. 마을 곳곳의 지명에 대해 |
| 23. 이재수난 | 50. 굶해서 병 나은 이야기 |
| 24. 오름 이야기 | 51. 도채비 이야기 4 |
| 25. 용두사, 영천사 | 52. 죽은 부인과 이야기 한 할아버지 |
| 26. 여방훈장 1 | 53. 김녕뱀 |
| 27. 도채비 이야기 2 | 54. 죽었다 산 이야기 |
| 28. 토산당 이야기 | 55. 사랑이야기 |
| | 56. 도채비 이야기 5 |
| | 57. 여방훈장 3 |

調查經緯

● 제1일(2001년 8월 3일)

학교에서 9시 30분경에 출발하여 토산 초등학교에 도착하였다. 간단하게 짐정리를 마친 뒤, 점심을 먹었다. 점심식사 후 반별로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눈 뒤 반장끼리 조사할 장소를 정하기 위해 반장모임을 하였다. 1차 조사는 토산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다. 토산 초등학교로 정의숙, 정의문, 김창문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인사를 나누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후 각 반별로 할아버지께 이야기를 들었다. 1차 조사는 1시 30분부터 저녁 6시경까지 이루어졌다. 1차 조사가 끝난 뒤 저녁을 먹고 반원들은 2차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때 소개받은 김안길씨를 찾아 뵙기로 하였다. 저녁 7시에 찾아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2차 조사를 나갔다. 김안길 씨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알고 계셨다. 9시 30분쯤에 학교로 돌아왔는데, 녹음된 것을 확인해 보니 녹음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낮에 들은 이야기를 전사하고 나중에 김안길 씨 댁을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다.

● 제2일(2001년 8월 4일)

오늘은 아침 7시에 게이트볼장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모인다는 말을 듣고 조사를 나갔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게이트볼 치는 데만 열중하셔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게이트볼 치는 것을 구경하다가 마을회관에서 아침 10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8시에 숙소로 돌아왔다. 학교에서 전사를 하다가 3차 조사를 나갔다. 마을회관에는 김창문 할아버지와 정의숙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어제 듣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두 분은 이야기를 주거나 받거나 하시면서 흥이 나는지 어제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

4차 조사는 2시에 토산 2리 바닷가에 찾아가서 조사를 하였다. 토산

2리 게이트볼장에는 많은 할아버지들이 나와 계셨는데 김대은 할아버지와 김성한씨, 안창우씨를 만나볼 수 있었다. 김대은 할아버지께서 마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고 주위에서 말씀 하셔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했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셔서 처음에는 아무 것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주위 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토산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 때문에 토산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 김대은 할아버지께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주셨다. 그리고 마을에 관계된 설화도 이야기 해 주셔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6시경에 학교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7시에 5차 조사를 나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2조로 나뉘어서, 한 조는 1리 마을 회관에서 김창문 할아버지를 찾아 뵙기로 하고 한 조는 김안길 씨 댁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김창문 할아버지께서는 3차 조사때 한 이야기 중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해서 말해주셨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다. 김안길 씨는 녹음이 안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짜증내지 않으시고, 어제 해주셨던 많은 이야기를 빠짐없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10시쯤에 이야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반원 전체가 전사를 하고 내일 나갈 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제3일(2001년 8월 5일)

6차 조사는 10시에 조합장님 댁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다. 김순재 씨는 나이는 젊었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고 계셔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2시 30분경에 학교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전사를 한 후 2시에 토산 2리 게이트볼 장을 다시 찾아갔다. 7차 조사에서는 토산 2리 할머니들께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김인열 할머니, 김해생 할머니, 강래인 할머니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민담을 알고 계신 홍기생 할머니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4시 30분경에 조사를 마치고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전사를 한 후 7시에 토산1리 김임천 할아버지 댁으로 8차 조사를 나갔다. 그리고 마을에 대한 이야기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8시 30분경에 학교로 돌아와서 국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였다.

● 제4일(2001년 8월 6일)

9차 조사는 나가지 않고, 숙소인 토산 초등학교에서 반원 전체가 녹음한 테이프를 나눠서 전사를 하였고, 마무리를 하였다.

1. 도채비 이야기 1

제 보 자 : 정의숙(남·75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3일

조사장소 : 토산 초등학교

- 요약 : 장에 다녀오다가 말오름에서 도채비 본 이야기,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여자와 함께 남도산 전분공장에 가다가 도채비 본 이야기, 목수일을 하던 시절에 나무를 베어오다가 도채비 본 이야기.

그 도채비라는 것이 밤이 한 12시나 돼야 도채빌 나는 걸로 생각되는디. 우리 어무니가 돌아가 우리 어무니가 언제 돌아가셨나믄 음력으로 9월, 9월이면 이라 도채비가 날 때가 아니라. 아넌땀디 어무니가 돌아가나네 모실 띠 그 터 보래를(보리) 저 웃드래(위에) 강 해당(가서 한 다음) 집에 오라도 왁왁은(정신 없는) 아니했어. 강 왓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거 참 한 참이 못됩니다. 이 1리에서 그리오는 그 만도 못돼어. 거리상으로 세화 구리화하고 토산 거리가 이 토산 1리에서 그리오는 그 거리가 못돼어. 세화 3리 우리 집 토산서 세화 3리 가는 거리가 가깝단 말이주. 그렇게 가게땀디 어듭지 채 아니흔디 지금 시간으로 6시 저기 7시반 여덟시는 안땀 때에 내가 그 거리를 걸어가는디 빠리는 안 걸었주. 가당(가다가) 종이는(종아리는) 하도(꽤, 많이) 아프고 이 정도 앓아시민은 혹 그 저 구르마로 뭐 장서(시장에서) 무시겨 할 무시겨 재료 끌래(고르러) 가는거주. 강(가서) 나강(나갔다가) 들어강(들어가서) 돌아오당 오랑방 아니 오랏건 마중을 땀. 이거 도채비 봐난 말을 허젠 하는거주. 경허주 말 오름이랜한 오름에 강 앓았는디 말로 그 저 그계 영장(?)슴이랜 하는 건디 기켓방에 ㄱ래(거기로) 굴러(말하러) 가는거 강 오는거 같아 붙들르고 허영. 아이고 오람것다. 여기서는 이 저 순풍기 요, 요사이쫘(그때쫘) 거리가 가까이 왔어. 경해도 사람은 온 거적이 없어. 지침을 '어험'하니 아이고 뭔가 '찍'ㅎ멍 찍하멍 가는거라 찍하멍 도채비, 그계 도채비라. 다른계 도채비 아니고, 사람 붙 들

큰거 닳게 불을 영(이렇게) 들르고 행 오랏는디 기침 '어험' 내라 확 일어서 명 '어험'하니 '찍'하는 소리하멍 돌는거라. 도채비란 그런거 다른 별게 아니고 아이고, 도채비가 이런거구나. 호촐시니깐(잠시 후에) 또 조끄디(가까이, 옆에) 또 왓어. 야 이거 이거 안되켜. 여기 사람 임시라도 앓을 곳이 못됨서. 따시 확 일어서명 지침(기침)을 하당 했는디 거 가세오름이 옰 한 오름이 동빨로 재영 돌는거라. 이젠 이제는 그 기계방에 고래 7는달 가 야 되겠다고 경행 가넛단 말을 7는 것도 도채비라는거이 독어그네 흐 시간상으로 요덧, 10시, 9시도 안된 때. 시간상으로 그때 도채비가 낫드라 하는 말이여. 그 음력으로 9월 돌인디 9시도 안된때라. 도채비도 날 때도 아니라. 게 그때뿐이 아니고 그루 은젠디 이 정이 요디 이디 저 남토산 전분공장에서 전분 주식을 싣거다그네(싣어다가) 도야지를 질르자(기르다) 우리집에 구르마, 몰도 있고 쉼도 잇엇는디, 구르만 빌고 우리 밖그레에 시든 여자가 한 사름 사는디 거 우리 쉼라. 그네 야이 어멍이 이끌고 날랑 몰 이끌영 이제 경행 이제 구르마 두 개에간 이제 전분 싣경 이디서 싣경 해진 때에 신작로 영 나로라시니까 것도 어스름이라. 그뿐 오거 그 말 굴 아동 굴아야. 아 경해서 저 거시기 망오름이옰 헛딜 이제 갖는디 그것도 초. 막 밤이 아니라 으스름인디 아 여 저 우리 아이 어멍이영 여자가 이 저거봄써, 저거봄써, 저거 뵈려정도(보이다) 뵈려져도, 나 7치(같이) 뵈려 젓짱하면은 노램(놀람)이나 헛걸. 무시거 무시거 아이 저거 뵈려져도(보여도) 뵈 뵈렌추룩 행 그때는 넘어갔는디 그보단 먼침 그때는 경해네 그 저 저거 봄써 저거봄써 했는디, 도채비가 불이 벌정했는디 콩지 콩지가 막 걸개 연. 연콩지 알지 못해여? 종이로 꼴랭이 종이 부쩍부쩍 허민 길게 돌려그네 영 흔들흔들하게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도채비 꼴랭이가 경했는디 그보단 전에 그 젊은 때 나고 목수 남 무시거 해그네 목수 일을 예전에는 남토산 이디 사람이 하는 말이 저 구르마 상량초를 섞어줍써. 나 대패질 까지 해 봐 어둑집 아니할 꺼우다마는. 그 사람도 목수일 하는 사람인디 대패질까지 해 나시나네 경허영 그거를 대패질해 논거나네 인척 그 일을 다 해여두고 인척 저녁되난 저녁 먹고 저 망오름을 갖는디 요즘을 올래에 그 낭(나무) 놓는게 어서 그 때에 쉼나 들카보덴 올래에 낭을

났주. 낭 해그네 영 뉘. 에이 올래에 막을 낭(나무)이나 하나 그창(베다) 가 보까 허여네 낭신디 들어가네 낭 혼자 그찬 들어가는 것도 혼 오십메다 정도도 안들어가그네 그찬 나오랑. 경해네 또 곧고 하나 멘건 멘 것 닭질 아니허여. 에이트 다시 하나 더 그창 하나 다시 혼 50메다 도 가네 또 하나 를 그창 오랏는다. 오랏는다 두겔 메니 두겔 메그네 또 하나를 그창 오랏는다. 오랏는다 두겔 메니 두겔 메그네 (목행장)은 지고 낭 두겔 메니까 무 거와. 에이 행장하곡 하나만 냉 하나만 저래 앓다도그네(쌌다놓고) 오랑 아 져갓주게. 거 아정 간다는디도 혼 200메다밖에 안된디. 그대 옛날에 앙 토, 앙토허래 땡기는 사름이 술먹영 땡기다 그네 그 더위에 그만 오꼳 죽 어난. 그디가 이서, 그 동쪽 드레 뵈리니 어떤 놈이 후하쉬불 들르고 올라 오라 내가 낭을 이리 메어시민은 오던말던 같것인디 그 부락 낭이주만은 거 낭을 꼬창 메놓니까 것도 나가 결린 몸이 되어선 게, 저 사람 지나나거 들랑 가자고. 아 그 간 사니깐이(서니까) 역시 그 불들러 오던 놈도 그냥 사는거라. 거 이상허다 사름이민 으레 같것인디 나 기드령 사는거. 거 이상하다. 그것도 역시 도채비라. 역시 아이 곧 어스름에 그 앙토장, 앙토허 래 땡기던 사름이 죽어난디 그 후라쉬불 들른 사람이 오랑시민 으레 같 건디 나 기드령이 가도 오도 아니행 그디고만 잇는거라. 아 도채비가 난 다난다 행게 이렇게 도채비가 나는 거로구나. 경행 도채비 세 번 봐서

2. 오별장 이야기

제 보 자 : 정의숙(남·75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3일

조사장소 : 토산 초등학교

- 요약 : 오별장이 눈을 뜨면 말이 다리가 꺾이고, 닭이 힘을 쓰지 못하여서, 토산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을 내려서 걸어갔다는 이야기, 이좌수의 아들 역시 눈을 뜨자 대문이 들썩거리고 닭이 죽어나가서 장모가 사위

눈을 뜨게 했다가 감으라고 했다는 이야기.

오별장, 오별장이란 분 그분이 토산에서 태어나고 토산에서 그냥 살았는데 그 때도 굴맛주게(말했었다). 여하튼간 요사방에서는 아주 자오를 한 모양이라. 그 오별장이란 분은 자오를 하니까 저 선내영 하며는 저 토산 서쪽 내에 오며는 서넛가 있고, 동쪽에 있는건 알오름이랭호는거. 나 아까 7른 그 오름인디 서로 오던 사람은 선내에 오면은 물을 탕(타고) 오당으네(오다가), 요즘은 차주만은 몰 타는게 제일. 그게 거 어디가는 건디, 그게 제일. 차, 요새 차로 땡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건이 토산지경에 오면은 오별장이 다른 사람은 무시운 게 아니고 오별장 때문에 딴 분들은 그렇게 몰탕 못간다 하니, 못 가서 내에 오면 느려그뻥(내려서) 그 알오름까지 걸 어아정갓당(걸어가다가) 글로 저래 물을 탕가고, 또 동으로 오던 사람도 알오름 오면은 느려서 걸어갔는디, 토산을 기냥 걸었는디, 흔 사람은 오별장이나 뭐 끝은 등곱이나 되니 그까지 새끼 하나 무서와 물을 내령(내려서) 가느냐고, 난 탕(타고)가겐다. 탕 가단보니 가다가 몰 다리가 딱 꺾어 지저든. 과연 이게 이분이 이렇게 멋이 있는분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허는 말이 이서. 계난 경해서 그 오별장이 저 가세오름이엔 한 오름에 묻었는디, 그건 말이 닦아뵈지 아니한 말이 이서. 오별장이 산 때에 에, 이, 나무들땀디 여기 눅지 못하고 나가 철메, 철메엔 힘건 요거 반착만이(반만큼) 한 셋덩어리라. 나 이 철메 댓경(던져서) 베겐디(바깥에) 바깥영장을 하라고 오별장이 한때 헛쥌. 햅시민(하면) 헛건디 오별장 그대 묻은 후제니간이 산을 또 땀단 말이주. 메해 해엿쥌. 나가 메 댓긴 베겐디 영장을 허라 징헛다고 헛 말이 있어. 쥌, 그건, 건 머리도 밥도 아이되는 말이라. 오별장이 그 날랜(명석)에 독을 들영 날래인명 들이심 돌리질 아니허고 눈만 꺾쩍해도(깜빡해도) 둥이 버덕버덕 죽영 허나네. 그 둥 돌릴 때에 윈 참 후엔 돌려보덜 못헛쥌 헛 말을 들었는디, 그 말도 그 말이고. 그 보담 먼저 대정, 대정 이제 대정고을 이좌수가 엿엇는디, 이거 이 말이나 비슷한 말이더라고. 이 좌수라는 분이 이제 나이가 흔 60이 지났는디 좌수하고는 60이 지났는디 오꽃 할망이 오꽃 죽거든, 이제 아이 이제 젊

은 사름헌디(이거 고자질말 아니해야 될 말인디마는) 할망이 죽어부리니깐 아방 그 좌수네 굿은 친구가 되어 친구네집이 가서 흐는 말이, “저, 친구 자네 딸을 날 주자”, “그거 말 굿은 소리냐고, 아 차마 자기가 내 딸을 달라고 어떻게 하느냐”고 영허니, 거니, 전 친구지간에도 그게 그런 말을 했다고 말이 오고갈 땡 언성이 대단이나 높아난 말이라. 굿은 말 초마(차마) 날 두고 딸 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난 말이나고, 영(그렇게) 행(해서) 허니 계난 이제 그 이좌수는 들어보니 윈 예잇 시끄령 가분다고 혼 것이 좋은 말 아니여. 원래 나가거든 허니 딸이 그만큼 듣다가 “아버지 혹시 저 사람 가계 말” “아 자네 이리 오자 오자 너 뭐가 그렇게 해두고 나를 박대해두고 그렇게 오자고 하느냐, 에이고 오꽃 이제 온고랜허니 이렇게 행가보자’ 오랐는디 딸이 하는 말이 “이제 소변을 봐 오며는 내가 판단할 뭐시 잇다고 소변을 봐 오니 영 소변을 봐전. 나 시집가겠다고 또 이제 시집을 가서 어찌어찌 살다보니 아덜이나 아덜은 나고 아덜이난, 이제 옛날에는 호술 혼 열네여섯 나가면 돌아 풀아그네(장가 보내서) 메누리 홀 그런 생각을 해여서, 아방은 나하나 오꽃 이제 육십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해여시난 나이 한 죽어분거 아니, 죽어부렀는디 이제 메누리를 그 각시 처갓집을 갖는디 육십 이상 된 분이 난 아들이 그 장개를 갖는디 처갓집에 가니깐 각시 어머이 흐는 말이 “야, 느 눈 감지마랑 눈 뜨라 뜨라”, “어머니 나 눈뜬거 꼭 보구정 하우파”, “아 눈 떠야주, 거 눈감지 말라” 경허건 어머니가 요 대문요 문을 열어그네(열어서) 지들릅센(기다리다), 대문을 강지각 이제 더꺼넝(닫다), 이 이 래 여잘 지들릅센 지들랑잇는디, 앓 사위가 눈을 보롱하게 떠가니까니 그 무이(문이) 들락탁 들락탁 해, 그 가시어 명(장모)이 문지불렁 전디질 못하게 했거든, 경허니 경허나네 아이고 눈 굶으라 눈 굶으라, 그때 경했다는 그런말이라고, 경했는데 그 아덜이 이제 춤 내중에 나서 아주 큰 사름이 되면 아주 춤 세계를 울리다 실퍼났다고 그런말이 이서 경허난 그 아들도 그 이좌수 아들도 날랜명석에 뉘을 도지질 안했다고, 이제 눈 번척뜨면 아무것도 버덕버덕 죽고 윈 눈 텅(떠서) 살아 일생을 눈 번척 텅 못살아 봤젠, 그런 말이 거 옛 말 그런 말.

3. 당팻 당장 1

제 보 자 : 정의숙(남·75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3일

조사장소 : 토산 초등학교

- 요약 : 장사를 지낼 때, 큰 돌을 움직이면 떡을 실컷 먹게 해 주라고 한 후, 당팻당장이 돌을 굴린 이야기.

당팻당장이란 분은 썩긴 썩 분이여 그 당팻 당장 시대가 오래진 않은 것 같아. 당손이 시방 증손이서.

<조사자 : 지금 살았어 마씨?>

응 살아있어 증손디. 경행 그 당팻당장네 손이 다 썩긴 썩 모양이라. 당손들은 죽어버리고 시방 증손이 살아있는디 증손은 아직 아이들이라. 겐디 그 놈도 배림에 졸졸 해도 썩여. 그 아범이 그거 물내려가는거 닳아. 겐디 얼마나 썩엇든지 옛날 도향을 부려서 장사를 지냈는디 돌이 되게 큰 돌이 일어나거든. 이 돌은 당팻 당장을 이거 둥그린다(굴리다. 움직이게 하다) 못 둥그린다 영 허는 실정인디. 느(너) 이거 둥그린다 못 둥그린따 하난 둥그려지커네 하난 “앗 이걸 둥그리면 상비, 토산상비 딱 혼시, 그 혼시엔 한건 딱 한번 맥이는 거 말해. 딱 한번 맥이는 거 다 주켤 흐문 둥그려 둥그려 쟁 다 주겐다. 뭇 둥그릴 아 그자그자 상주 들 입으로 아무거래도 허랭헌대로 다 하쿠다 벌을 다 받으쿠다. 겐디 쉼도 봉착이언한게, 그 쉼집 짐 신경(신고) 땡기젠(다니려고) 허민 짚방석 이마이 혼짜이 두꺼운거 요만치 이런게 있어. 이디 의자의 방석 닳은게 그런게 있는디, 그거 하나만 아따(갓다) 주른은, 그, 그거 하나 영 대영(대서) 요 장지 패기 토강 응 응 혼번 혼 소리에 그만 그 소리에 천리 만리에 둥그려 버리난 토산상주가 딱 한번 오꽃 그레 맥엇젠. 그런 말이 이서.

4. 선산이왓

제 보 자: 정의숙(남·75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3일
조사장소: 토산 초등학교

- 요약: 한 사람이, 자기의 조상이 선산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선산이왓이 자신의 밭이라고 우겼던 이야기.

계난 옛날 옛날에 워 강만이 동산이니 혼 것도, 강만이엔 한 분이 살아난다고. 선산이 밭이엔 혼 것도, 선산이밭, 선산이밭이엔 혼디가 있어난디. 옛날에 이제 뭇도 몰라네 선산이밭이엔 혼나네 선산이밭이엔 혼 밭이 어디 춤 그자, 굴아시민 똥똥 허난이. 자기가 선산이엔 한 일름(이름) 가진 사름네 즈손이 선산이밭 즈손을 아니고, 선산이엔 혼 사름네 즈손이 그 말을 듣고 와서 여기 선산이 밭이 있다 허니 선산이 밭이 어디쯤 잇냐고? 거 아멩아멩헌디라고. 그거 내 우리 조상이 살아난 밭이라고. 거 생각지도 아니헌 말이여. 선산이밭이엔 혼 밭이 그자 그 영또당또 아니허고 사름이 모단 그걸 먹어보젠 자긴 자기네 하르방 일름이 선산이고 거 밭이 잇다하니 선산밭이라니, 선산이네 밭이 아니냐 해서 그 밭은 내 밭이라 우겨보당 못 되었쨌 그런 말이 이서.

<조사자 : 쟁난 뻬언 마썸?>

뻬가진 못헛단 말이쥬. 선산이 밭이엔 혼 밭이 토산이 선산이와 집터가 잇긴 잇엇느디. 왜 뜯놈은 선산이엔 혼 사름의 자기네 조상 일름이 선산이라 허니까는 선산이밭이라하니 선산이 우리 조상의 밭이다 경헤노난 우겨난 말이쥬

5. 가새오름, 염통오름, 망오름, 납쟁이골

제 보 자 : 정의숙(남·75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3일

조사장소 : 토산 초등학교

- 요약 : 바닷물이 불어나서 간만큼 남았다고 해서 간오름(가새오름). 간 옆에 있다고 해서 염통오름. 망오름(토산봉)은 흙토자를 쓰다가 토끼의 형국을 닮았다고 해서 나중에 토끼 토자를 썼다는 이야기. 세화에 있는 납쟁이골을 육지사람이 신쟁이골이라고 찾아서 못찾고 돌아갔다는 이야기.

그 바닷물이 바닷물이 기냥 막 부건넳다헤여(불었었다, 넘쳤었다). 바닷물이 부꺼났는지 말았는지 몰라도 바닷물이 막 부끌때에 가새오름이 간만이 남아났다고 그런말이 이서. 그거빼겐 다른 말은 엇고 가새오름이 간만이 나오난 가새오름이다 헤또 그거는 아니고, 가새오름이엔 현 것이 아는 분이 보전데, 요거데 간 오름이다 현 말. 사람의 간. 사람이든 머이든 간. 그 뒤에 간 가새오름이 있고 그 다음 말 오리면 간에 그 알(아래), 그 세끼가 계난 염통오름이 있고, 염통오름이 있고 계난 간오름이 맞잖아

<조사자 : 예>

염통오름이 있고 이제 알오름이 있고, 그렇게 버금생겨. 쟁 염통오름이 비스름허노니 두 오름이 두 개 다 큰 염통 오름, 적은 염통오름. 계니 그거 그걸로 보며는 계난 큰 염통 오름이면 현디 산이 잇었는디, 옛날 산을 짓젠 허나네 토산 광산 집이서 거거 너를 보난 산을 쓰젠 했는디 광중을 헤가니깐 악 터졌다고 헤여. 풍삭 풍삭 하이거영 풍삭풍삭현디 염장을 헤서 되것느냐 하고 영허난예 그디 터부정씨가 허는 말이 염통이란 건 터져야 염통이지 풍기만 가진건 염통 마같이 못쓰다고 경헛어. 그렇게 헤서 거기에 산서네 산구신이 땃져..

<조사자 : 간마니란 말이 무슨 말 마씨? 아까 간마니란 말.>

건 나 모르크라. 간게 옛날에 간마니, 샷간마니 남아 이시니 간오름엔 그런 말이 잇었는디 그것은 아니고 간오름이다 허는 말이다.

<조사자 : 그럼 간오름이 가새오름?>

그게 그 무어.

<조사자 : 염통 오름은?>

거기에 간 쪼꺼티(옆에, 근처에) 염통은 잇는거라. 간 쪼꺼티 염통 잇거든 그렇게 해서 간오름이다 허는 말이고, 옛날에는 전설은 바당물 무꺼서 간마니 남으난 가새오름 헛다고 헛는디 이제 메종류는 간 오름이니까 염통오름 쪼끗디 잇는건지 아니냐 이말이라

<조사자 : 바닷물이 북껏덴 허는 말이 뭇말마씨?>

영 바닷물이 부로 부껴부껴

<조사자 : 알오름은 따로 이서 마씨?>

알오름은 그 간모름 쪼끄티 알오름 붙어서

<조사자 : 그럼 세오름이 비슷비슷하게>

으응으. 쪼끄티다 쪼끄티. 발오름팔에 알오름도 있고 갓갓 저 영통오름도 있고 다 거기 부터서

<조사자 : 아~ 같이>

그렇게 연달아서 게난 그 모냥 보멍 고르느거

<조사자 : 토산악 봉화있고 망이라고 망으로>

그 망으로는 토끼 토산이란 오름이 망오름이다. 옛날에는 흙토자를 써서 토산 이랏는디 요즘은 이는분이 넘영가당보니 이거는 옛날 넘어간 일이고 토산이 오름이, 토끼 토끼 눈 형국이니까 토산으로 허면은 앞으로 좋은 일이 날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토끼 토자를 써서 토산 태산이라 그러지. 그렇게 뻐다.

<조사자 : 혹시 여기 전설같은거 이서 마씨?>

어 전설 전설은 어서(없어). 여기가 아니고 외곽마을 세화3리지 세화3리말, 알들모든 나든것도 들은 말이다. 옛날 어른들이 납쟁이골 납쟁이골은 헛는디. 「납쟁이골요」 납쟁이골 납쟁이골이영 헛는디, 골짜기가 납쟁이골이 잇는디, 육지분이 와서 여기 표선면 세화 거 강화동이라곤 헛디

신갱이 굴이 있다는디, 신갱이 굴이 어느쫘이냐고. 내가 이떼꼬지 강화동 살아도 신갱이 굴이면 헌말 들어본디 없다고. 저 이사람헌시 굴아도 들어본말 었다고. 이기 따지면 신갱이 낙신제이니까 신갱이 굴이 뉼거 아니라. 겨니 그 사람은 낙신제허나니까 신갱이 굴이연헐 촌자(찾아)놓으니까니, 신갱이굴이 연 헌말은 여테까지 살아져 들어보지 아녜다고. 이렇게 해서 그 육지분이 망설연 갓다고. 그런말은 이제까지 굴앙 우리들어. 신갱이굴이나 납쟁이굴이나 거 맞은 말이여. 회기전 외곽말 이거 토산말곧당 굴아정 아젯말이여

6. 거슨샘

제 보 자 : 정의숙(남·75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3일

조사장소 : 토산 초등학교

- 요약 : 중국에서 물혈을 뜨러 온 고전적이라는 사람이, 고부랑낭 아래 행깃물에 물귀신이 숨은 것을 문서에서 보고 찾는다. 고부랑낭 아래 행깃물이 샘 이름인 줄 알고 찾다 보니, 거슨샘을 못 찾아서 물혈을 뜨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

아니겨난 샘이 샘이 말이 버리기도 곧당 남은말인디, 옛날 고전적이여 헌 그 사람이, 그 고전적인 운세가 수시 그 시간에 변동이 되는 문제라 허는걸 보면. 토산 거 거슨새미 앞에 너른 발이란 헌디. 인제 발은 갈레 갈 때에 쟁기 시끄고(실고) 그 마 밭갈쟁허면 마이면 비오카부멘 무장 아새까 지고 헤넌, 물, 먹을 물, 행주영 흐면 요제 저 무신 뉼시영 흘까. 그 주전자 닳은 것에 물을 아정강(가져가서) 쉼줄메 알를에(아래) 놔두고 발은 가는다. 이제 어떤 분이 와서 그 시시간 시간마다 변동도는 문생이가 그러쥬. 이 거슨 샘에, 참 거슨샘이 하예 고부랑 풍낭아레 행춷물이 어느쫘에

잇느냐고 하이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때까지 토산리 거 몇십년을 살아도 고부랑 풍낭아래 행긋물이영 허는거 들은적말이라고 아 있다고 절대 없다고. 원 들은말도 들은적 없다고. 겨니 그게 고전적이란 현 분이 나오기전에 금신 행긋물에 행주에 물을 앗따놓은게(갔다 놓은게). 아이고 그대 발갈레 올때사 주전자 닦은것에 물을 들러다 났는다. 물구신이 그 저 쉼질메 오란(와서), 속에 오란 숨어잇거든. 경허니 발가는 사람은 영 모른다고. 참 아니 고부랑 풍낭아래 행긋물이연현게 들은거 첨말이라고 허니. 야이 거 들어봐도 네네 없다고 허니 이거 문제가 혼 문제다. 그런말은 이서. 게니 그게 고전적이연 그 분이 나 살때에 토산 가겏다고 한 생각을 가고 가 나산풍한거랏지(?). 아니 발갈레 그날 오랑(와서) 물 들렁(들어서) 담는데, 그 물구신이어당 7밧는데(숨었는데) 꼬부랑 풍낭아래 행기물이 어딧냐고. 그게 엇덴 허난 그 고전적이 도무지 속안 문새(문서)라고 문새를 불살라 부러지 그계

<조사자 : 뭘 불살라요?>

그 문새, 문새. 그 문새는 그날 그날 변동이 되는 문새주계. 문새는 발갈레 온 사람 물 갖다냥 쉼질메 영 벳겨냥 그 안에 그 질메는 요렇게 풍낭아래 물항기를 놓았는데, 물구신이 그디왕 숨엇주계. 숨어잇는디 그 고전적이연 현 분이 이제 거순샘물 물에 현말 "고부랑(구부러진) 풍낭 아래 행기물이 어디쯤잇느냐고 하니깐, 이거 들은 둥 처음 듣는 말이라고 내내 허니 거 이상하다 이거 불명(분명)헌디 이상하다 해서 엇던말 허난, 이거 문새가 혼 문새라고 해서 불사러부러져

<조사자 : 그 행기물 찾는 사람 이름이?>

고전적

<조사자 : 고전적>

어. 고전적

7. 엉터리 축

제 보 자 : 김창문(남·68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3일
 조사장소 : 토산 초등학교 교실

- 요약 : 어떤 사람이 진평이굴 쪽에 있는 집에 잠시 쉬어가려고 들어갔더니, 마침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 집에서 축을 하나 고해달라고 부탁하자 엉터리로 '가가거겨~'라고 돌려댔다는 이야기.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 부락 안이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아 가지고 집단적으로 형성이 안됐어. (청취불능) 혼발씩 혼바씩 해서 이제 했던 모양인데, 교통이 옛날은 순 걸어서만 뎅기기(다니기) 때문에, 차가 없었(없어서) 걸어서만 뎅기기 때문에 어떤 양반이 지금까지 쩌 주재악쯤 갔다오는 길이었던 말이야. 요 진평이굴이엔 헌디가 있는데

<조사자 : 진평이굴이요?>

아니, 진평이굴이엔 헌디가 있는데, 아마 그디쯤 된 모양이야. 그던 확실한 아이나. 밤에 이제 오다 보니깐 불이 베롱하게 나잇거든. 하니깐 '거 이상하다. 이 밤에 어떻게 불이 저렇게 나이신고. 예, 저 조희도 아프고 저디 가서 유희다(쉬었다가)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디 가서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인데 오늘 저녁 여기 좀 유희다 갈 수 없겠습니까?" "하이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어서 들어오십셔." 함마 들어 모시거든. '하, 요놈들이 어찌 정 날 들어 모시는고.' 헤가지고 들어강 보니깐 딱 제를 벌여놔어. 제사 지넬려고. 제사를 벌일, 저 지넬려고 제사를 벌여놔는데 "계. 오늘때랑 어떻게 제사를 다해수편?" "헌난 "아, 제사가 정행, 저... 저기 저 오늘 우리 어머님 돌아가그네 이제 기일, 소상인디 손님 죄송하지만은 축이나 한 장 고해주십셔." 이렇게 헌난. "아고, 걱정마시라고. 축한장 고하는건 책임지겠수다." 쟁 이젠 상제가 지꺼져 가지고 '아, 이젠 요 손님 들어서 축을 허게 되었으니깐 이런 소원이 없다.'고. 밤 열한시쯤 되

니깐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해가지고 이제는 잔 행귀서...이제 축서문 보고 축을 험싸(하라고) 허난, 축을 뭐이라고 고하는가 흐면은 “가까겨겨고 교구규고기 고오~.” 이렇게 혼단 말이야. ‘아, 이 양반 축 잘 걷는 양반이여.’ 이제는 다 이제 제사 끝나가지고 음복을 허는다, 그 고만행(가만히) 이시민(있으면) 될건디 “하, 참, 축 멋드러지게 잘 고웁수다.” 허난 “아이고! 우리 성님은 나랑께꼬정 나감시우다.” 응, 이렇게 얘기혼단 말이여. 쟁 말장쉬인 모냥이여. 아마도 가까겨겨가 무슨 축 걷는거난 말이여.

<조사자 : 하하하>

쟁 이제 지네왔는디 또 흐 양반은 또 쟈 어디 남원쫘 갖다 오드렌 하니깐이 그디 역시 마찬가지로 밤에 그렇게 이제 불이 비룡한데가 있는거라. 들어간 보니까... 역시 거기도 제사흐는디라. 거, 저, 저기, 제사가 아니고 작년에 인제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작년, 습년(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작년에 습년이 들어가지고 소상을 못지네고 올헤는 이제, 이제 이 대상을 이제 보온다고, 그러시냐고, 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양반도 축을 멘드젠(만들려고) 흐니깐은 그러라고, 축을 ㄱ는데 무시젠 축을 ㄱ르시냐하면은 “유세차 신사년...” 뽀뽀뽀뽀 해놓고는 “작년 습년 금년 풍년 대소상 겸소상향.” 하 역케...작년에 습년 들어서 소상을 못지냈는디 금년에 풍년 들어서 말이여, 소상하고 대상하고 한데 이제 곁해서 말이여. 겸소상향하니깐 축이 됐거든. 아이고, 지껴져가지고(기분이 좋아서) ‘우리 아바님, 금년에 대소상 겸사 겸소상향해가지고 음복 많이헤가신가.’ 행 지껴정. 그런 얘기가 잇는디, 그런 이제...저 황당한, 텅기면서도 그추룩한(그런, 그와같은) 주변 잇어야. 주변 잇어야 그 동면을 좀 먼한단 말이여. “축헤달라, 뭐헤달라.” “에, 나 축 곶줄(말할 줄) 몰라.”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여. 뭐인가 어 둘러데야. 뭐인가 둘러데야 이제 사름 구실 혼단 말이여. 허허허허~그레서, 게서, 그렇게 헛다는 말이 잇는디, 아 이거 윈 참 말장쉬 말이주.

8. 뼈 딸린 맹물

제 보 자 : 김창문(남·68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3일
 조사장소 : 토산 초등학교 교실

- 요약 : 옛날 어떤 사람이 딸을 양반집에 시집 보내야겠다고 마음먹고, 아주 가난한 양반집에 시집을 보냈다. 그 후 딸을 보러 사돈집을 방문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맹물을 끓여 내온 후, 양반 뼈 딸린 물이라고 했다는 이야기.

옛날에 딸, 딸을 이제 나가시고 혼해 두해 하다보면은 이제 혼기가 차서 이제 혼 열으숯, 열다섯, 열으숯, 스무살 되민. 스물 두 살 되민 완전 노처녀라. 노처녀라고 해사되는다. 혼기가 되면. 혼기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땃젠 소문이 나신구라. 어느 한 영감이 “며느리 이거든 주시서.” 하고 부탁을 하니깐 부탁 받은 사람. 어른이 뭐 “거 아무데에서 거 뜨념을 며느리 삼겡다고 칭혼이 들어왔는데. 어뎡 거...허가(허락)허구가 아니허 구강? 거난 뭐 그디 뼈대있는 집안이 거 힘이라도 해주.” 이렇게 하니깐 딸을 그 양반집의 보네여네, 혼 몇 년 있다가 이제 딸네 집을 혼번 오랜헝(오라고 하니) 강(가서) 보자, 보자. 딸네 집에 가니깐 딸이 막 반가워헤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오랜만이우다. 잘 오섯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방으로 모셔 놓고는 그야 아무래도 시아방도 굴이 살앗던고라. 두 사돈이 한 방에서 모시도록 해두고 한 그자 열두시가 넘영 점심 때가 돼가는다 소식이, 아무 소식이 엇어. ‘이상하다. 예, 저, 사돈님. 저 오래 놀아시난 가겡수다.“하니깐”하이고, 다 되실꺼우다. 쯤끔만 기다립써, 기다립써.” 그렇게 허노라하니 짐(김) 풍풍 나는 상이 들어오거든. ‘얼쿠, 이제는 우리 딸이 나 먹을 진수성찬을 차령 왓시니깐은 내가 배불리 먹여져 가젠헝신게.” 원 상을 들렁(들고) 앓정와서(갖고와서) 아버님 앞에 톡 놓멍(놓고) 하는 소리가 “이거, 저, 양반 뼈다귀 딸린 진국이네.

진국이우다. 이거 맛있게 잡싱(잡수고) 가십써, 이거.” 보니 맹물이여. 경행 이제 보니깐 맹물이 이제 팔팔 끓림서. ‘하, 이거이거 과연 우리 똥이 먹을게 어서가지고 내가 양반만 좇다(찾다) 보니깐. 아방 말 들엉 양반 집의 시집 보넨걸. 잘못해졌구나.’ 그래서 이제 그, 양반 딸린 진국 잡수레 혼번 가네 맹물도 저 마셔질거라. 저, 뭐, 뭐, 그자 그냥 돌아오는 그런 설이 잇는다. 게서 이제 그...그 말을 옛어른들은 앓으면 그걸 ㄱ랏주(말했다). 예서 그 말을 왜 어째서 ㄱ랏느냐. 어디서 요 중간꼬지만해도 상하구 별이 잇어가지고 쫓오꿈 이제 그 옛날부터 쫓꿈 높다 한 집에서 쫓꿈, 그 빠다귀. 빠대 잇는 집에 청혼이 들어오면 “에~거 나 생각어서.” 이렇게하면 똥 주게 뇌똥단 말이여. 그때에 이 마을 어른들이 앓으면은 “아이고, 저, 그자 양반만 찾다보니 맨날, 니영니영해. 양반 딸린 진국, 빠다귀 딸린 진국, 진국이나 먹지 말아보젠 정. 그런 사람이 경해부런. 그래서 이제 는 그로 후제는 뭐, 이제는, 뭐, 시름만, 뭐, 사랑만 하면 최고. 뭐, 어서 가라 어서가라. 그래 연애해그네 그디 딸신디 가라가라 이렇게하지.

9. 산열이통

제 보 자: 김대은(남·69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토산2리 게이트볼 장

- 요약 : 여름에 땀띠가 났을 때, 산열이통에 가서 물을 맞으면 낫는다는 이야기.

옛날에는 여기 남군 사람들이 백주꺼리 되면은 집이 여기와 가지고 머저써. 사람 집에서 머지면서 물을 맞아간 일이 잇어.

<조사자 : 아~>

산열이랜 현 뜻은, 이 연필 쥐봐.

<조사자 : 연필건네드리며, 예,예.>

더울열 재가 이 저, 더울열 재가 영 써시냐? 이재는 어조사고

<조사자 : 예,예.>

이거 산열이라는, 산열이통 이엔 헌말이다, 음.

<조사자 : 열이 훗어불어.>

열을 없앤다.

<조사자 : 예~>

열을 훗터부러, 으~ 그래서 여기 산여리통이라고 여기,

<조사자 : 산열이통?>

통은 그 가만 잇자, 통이엔 헌건, 나무변에 써야 맞지? 그러니까 옛날
은 땀띠가 나거나 해도 약이 없거든

<조사자 : 아~>

깡, 방법이 없거든. 검질만 메나며는 온 몸에 땀띠는 나지, 약은 없지,
못 견디지, 그러믄 외방 사람덜 여기왕 물 맞앗다구.

<조사자 : 경허민 낮아 마씨?>

어, 낮아

<조사자 : 아~>

요새는 땀띠가 뭇지 모르지마는 옛날은.

10. 거슨새미, 느단새미

제 보 자: 김대은(남·69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토산2리 게이트볼 장

- 요약: 거슨샘 물귀신이 질메 아래에 있는 행기수에 숨었는데, 그릇에 있는 물이 너무 작아서 아니라고 생각한 중국사람이 문서를 찢고 그냥 갔다는 이야기.

<조사자 : 여기 또 무슨 샘물 같은 것도 있지않아 마씨?>

샘? 있주게 거슨새미영 ㄴ단새미라고 해서.

<김성한 : ㄴ단새미도 있주, 근디이, 여기와서 그런거 문헌을 듣젠허며는, 이지방 사람들이 잘 꺼리는게 옛날부터 마려, 그 무신 뭐 뱀당을 모신다느니 마려, 이런 그 쓸데기 없는 소리를 자주 그 하니까, 뭐 접해노니까 애길 안하려고 그렇게 한다마려 여기 사람들이

<조사자 : 아~>

또 실지(실제로) 뭐 그 옛날엔 말이여, 요즘 뭐 뱀이 따라다닌다 어, 뱀이 따라 다닌다, 그 없던 얘기를 쯤히 헐려니까 우리 토산 주민만 피해를 보는거라

<조사자 : 예>

그래서 아 역사는 좀 잊어도 세밀하게 얘기를 허젠 안 해, 그 사름덜이 자기한테.

<조사자 : 지금도 경해 마씨? 저희는 처음 듣는 거라 가지고>

지금도 제주시 갓은디 가믄은, 이 토산이라믄 말야 아주 뭐 은, 옛날 뭐 뱀을 갖다가, 뱀 같은 걸 갖다가, 뭐 자기가 기르는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름덜이 있다마라. 그니까 이게 아주 기분나쁜 소리라.

<옆에 앉은 아저씨 : 사실이 아닌 말, 으,>

<김성한 : 사실이 아닌 말을 갖다가 그런 말을 하믄은, 얼마나 저, 우리가 기분이...>

<조사자 : 맞아 마씨>

<김성한 : 그래서 여기와서 어떤 사름한테 물어도 그런 그, 그런 말 안해 주젠 허는거지.>

토산 거슨새미에 물이 있다는 걸 알고 오니까, 물귀신이 그 것을 알고 밧가는 그 쉼질때까지 아래강 굽았어. 그러니까 걸 모르고 물을 따지 못허고 넘어갔다 그런 전설이 있지.

<김성한 : 아니 그디장 ㄴ분게 아니라 그 귀신이 알아서 나를 살려달라~>

왜 행기수라고 있어, 그 행기수엔 헌건 밧가는 하르방이 샘잇 물을 떠

다가 지겟까지 아래 놔 불엇주게, 물 놔부난그네. 행기수엔 헌 것은 그 쉼질메까지는, 행기수 꼬부질 행재에, 행기수엔 해서 그 아래간 2'뵈다. 그런 전설이 잇지.

<김성한 : 물, 여기 큰 그 지등상이랜 헌 말 알지? 굉장히 물이 큰데, "이 물이 어디 잇습니까?" 허난, 그 할아버지가 저 목사밭에다가 물 떠는 걸 이거라고 하니까, 자기 물이엔 헌건 굉장히 큰데, 작다말야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해서, 이 찢어분거라. 그래서 일로 저쪽으로는 (남원쪽을 가리며)물이 잇고, (성산쪽을 가리키며)일로 저쪽으로는 물이 떨어져 사실상 없잖아.>

<조사자 : 여기부터는 안 끊기고 예?>

11. 보물선 이야기

제 보 자: 김대은(남·69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토산2리 게이트볼 장

- 요약 : 중국상선이 태풍을 만나 토산 앞바다에 가라앉았는데, 거기에 실려있던 보물이 대한민국을 사고도 남는다는 이야기.

<조사자 : 어제는 김창문 할아버님 만난마씨. 그 할아버지가 그 시집가는 얘기해 주었는데 시집갔는데 양반집에 강 고생하는 얘기 마씨. 여기 효녀얘기 갖은 거 잇서 마씨?>

지금 내 한가지 얘기할꺼슨, 뭐 바로 여기가 큰 보물선이 예살에(옛날에) 하나 파손되난는디

<조사자 : 보물선 마씨?>

지금 저기 금은보화가 까뜩 잇는디 지금 촌자넬(찾아낼) 수가 업서.

<조사자 : 진짜 잇었던 거 마씨? 아니른 옛날얘기 마씨?>

영조 9년에 중국상선이, 큰 상선이 여길 지나가는데 태풍을 만났다마려 이? 여기서서는 여기가 막 들어온 것 같지 안해도 (바다쪽을 가리키며)저~쪽에 강 보며는 여기가 쪽 만(灣)으로 들어와 있다 그 말이지. (바다쪽을 가리키며)저기 만이 들어와 잇잖아. 저기

<조사자 : 아~>

저 다리 밑에 거기 이제 파손되어 배가 굴렀단말야. 겐 굴렀는다. 그때 그 금고, 오금케라고 해서 꺾은 궤안에 잇는 제산이 대한민국을 사다 남는다고 했어

<조사자 : 대한민국 전체를 마씨?>

어. 그런 전설이 있어.

<조사자 : 한번도 건져 올려보젠 안헐 마씨?>

글세, 그런 전설만 있어노니까 모르지 그 누가 그 자본을 들임쓰며는 건져올릴런지(모두음웃)

<조사자 : 한번도 건져 본 사람은 업고 마씨?>

음. 건져본 사람은 업고.

<조사자 : 사실이다 예?>

아~게난 그 배가 부서져 난건만은 사실이라. 그 배 밀창에, 옛날에는 풍선(風船)이기 때문에 그 중국자갈, 자갈들, 지금 거기가며는 매끈매끈한 자갈덜이 남아잇거든. 상선이 부서져 난 건만은 확실해. 그러니까 상선이 부서졌으니까 다소 금은 보화도 없어졌을 테주. 큰 상선이니까. 그런데 사람덜이 제주시에 관에 끌려가서 허는 말이 그 금은보화가 '대한민국 살만큼 하다고 그렇게 헐다고 해.

12. 허께비

제 보 자: 김성한(남·55세), 김대은(남·69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토산2리 게이트볼 장

● 요약 : 토산2리 앞바다에 나타나는 허깨비 이야기.

김성한 : 그 예살에(옛날에) 저기 거시기 허깨비가 불쑥 만이 나났어(나타났어).

<조사자 : 허깨비 마씨? 어떤 허깨비 마씨?>

김성한 : 저기 사름덜도 안 살고 이랬거든. 전기불도 없고 허믄, 우리 어릴적에만 봐도(바다를 가리키며)저기 말이여. 저 파란불이 뭐 '촛' 아주 불야성이랬어. 훗디 지금은 그런거 가만히 생각해 보믄, 거 이상하단 말야 없어지는게. 전기불로 흰헤노난게(흰하니까) 있을 수가 이서게. 그 말해 지민 아 그 고기 비늘같은 것도 보믄은 그 인이라는게 있잖아? 이?

<조사자 : 예>

(칭취불능)

그런 것이 불빛이 아닌가. 지금 우리 추측컨데 글로백에(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허지. 지금은 없어지니까.

전기불 밝아부니까 이젠 안 보이는건가? 근데 비올라고 허민(바다를 가리키며)아주 저기, 저기에는 아주 우리 어릴적만 해도 상당히 무섭게 생각했거든.

김대은 : 집착에서도 흥영 올라와. 옛날에는 뭐야 으기 위에 있는디 말이여, 어린 아이 업고 말야 할머니가 말야 뭐 보말 잡으러 왔다가 거기서 죽엇단 말야. 옛날에는 거기 예기 우는 소리가 난에, 예기 소리가 이섯다 허는디

<조사자 : 그 소리 때문에 혹시 흔들린 사람 잇어 마씨?>

예살 사름덜 중에 뭐 잇겠지.

13. 호종단(胡宗旦)이 터 봐줘서 잘 된 얘기

제 보 자: 김성한(남·55세), 김대은(남·69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토산2리 게이트볼 장

- 요약 : 초대 경주 김씨 할아버지가 호종단에게 마를 삶아서 줬다. 그러자 공을 갠다고 호종단이 터를 봐줘서 경주김씨가 잘 됐다는 이야기.

<조사자 : 여기 묘 이장한 얘기 있어 마씨? 집안 잘 안되니까 이장해 가지고 잘 되거나, 아니면 이장했는데 더 잘 안된 얘기 같은 거, 아니면 죽엇당 살아난 얘기 같은 거.>

김대은 : 죽엇당 살아난일 이시믄 얼마나 좋케(모두 웃음)

<조사자 : 사실말고 옛날 얘기 같은 거 마씨?>

김대은 : 이 동네 그런 소리 업주만은, 옛날 태협동이라고 죽엇당 살아난 사람 이서넛쥬.

<조사자 : 예. 그 얘기해 줘>

김성한 : 지금 (옆 할아버지를 가리키며)이 형님네 아주방가 그 경주김씨 그저 고종달이 하르방, 그 하르방가 뭐야, 그 산터 받았덴 헌거. 그 제주 육반대기가 (옆 할아버지에게)여섯 번째 좋텐허는 거주 양? 제주도에 육반대기가 제 일 사라, 제 이 영실, 제 삼 김녕, 하여튼 그 육반대기가, 아마 그 어른이 산터밭 잘 뒤 갖고 자손이 경주김씨가 그렇게 크게 제주도에서 잘 됐다는거라.

<조사자 : 경주김씨가 마씨?>

김대은 : 무사 호종단이가 봐서?

김성한 : 호종단이가 본거겠지. 여기 저 물 뜨래 왔다가 그걸 찢어 버리고 이거(청취불능)못 헤 가지고 가다가 그저 경주김씨 그 하르방을 만났거든. 마(麻)를 케서 연명을 허는다. 마를 케서 연명허는다. 그 하르방는, 뭐 물론 호종단이가 배 고프진 안앗겠지마는, 먹을 걸 좀 달라하니까 그 마를, 쌀이 없으니까 마뿌리를 삶아 주니까 공을 갠다 해 갖고 으터를 봐주겠다 했거든.

<조사자 : 아~>

그 털 본게, 그게 초대 경주김씨 초대주

<조사자 : 아! 그래 가지고 터 잘 봐서~>

어. 그러니까 경주김씨가 이 제주도에서 잘된 편이지.

<조사자 : 이 마을에도 경주김씨가 많아 마씨? 광산김씨도 많다던데?>

에~. 광산김씨는, (김대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면)이기가 광산 김씨디. 지금까지는

김대은 : 이 동네는 광산김씨가 많다 그말이여.

김성한 : 여기만 광산김씨가 많지. 잘 돼기는 경주김씨가 잘 됐다

김대은 : 잘 됐다 말명 무신.

(모두 웃음)

14. 망오름에 금/구리가 매장된 이야기

제 보 자: 김성한(남·55세), 김대은(남·69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토산2리 게이트볼 장

- 요약 : 토산봉에 금/구리가 묻혀 있어서 왜놈들이 금을 캐가고, 그 앞에서 배가 주춤거린다는 이야기.

김성한 : 이저 토산봉. 망오름이랜도 허는디. 그 금이 매장됐다고 해서 옛날에.

<조사자 : 망오름에 금이 매장된 마씨?>

으. 매장됐덴 해서. 이게 상선이 지나갈적마다 이저 배가 그 자석이 힘에 의해서가 뭐 좀 추춤 거리니까. 이 배에서 이 제사를 모신거주. 아! 그걸 마 뱀당. 그런식으로 말야 그런 미신에 의해서 그러지 않는가 해가지말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뱀당이 유명해 져는지 몰라. 토산에.

김대은 : 망오름에 무신 금속이 있어 노니까

김성한 : 으, 금속. 지금도 조선봉하고 말이지 여기하고.

<조사자 : 구리같은 거?>

김대은 : 배에서 나침반이 들지 않는다는거여. 딱 돌아온 땡겨서. 이
건 과학적인 근거고.

<조사자 : 아~>

김성한 : 쟤디. 일본시절 금은 캐 갖거든. 캐갖다고 합디다.

김대은 : 판단(파다가) 네비늑난(늑두니까) 게~

김성한 : 파단에, 금을 팔라고 파다가 왜놈들이 말야. 일본놈들이 금
을 켈라고 파다가 네버렸어. 포기해부런. 어땡헛 포기했는지는 모르주마
는 채산성이 안나오니까 포기헛겠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 파 간거만은
사실이야. 지금도 거기 가문 그 구리라는게 나지. 췌 부러진 말야 그저 잇
췌, 까만거.

15. 설촌설화

제 보 자: 안창우(남·65세), 김대은(남·69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토산2리 게이트볼 장

● 요약 : 광산김씨가 설촌한 후 안씨가 들어왔다는 이야기.

<조사자 : 리사무소에서 여기 처음 설촌을 부씨가 헛다던데?>

김대은 : 부씨라고 헛는 것은, 왜 부씨로 나왔느냐 하며는, 에~ 고, 량,
부 삼성이, 고씨, 양씨, 부씨가, 왜 그 제주도 옛날 전설에 보면은 그 세
성인이 활을 썩서 자기 위치를 정헛다 하거든. 일도는, 예를 들어서 고씨
가 활을 썩니까 일도에 가니까 고씨가 장악하고, 이도는 이제 활이 이도
에 가니까 양씨가 장악하고, 부씨는 삼도에 가고, 이렇게 헛텐 허거든. 근
디, 고득종이렌 헛 하르방이 서세문에 보면은 그렇게 뷌어 잇지 않고,

에~ 고씨는 목관 지금 제주시를 말하는 거고 이도는 산방이렌 했거든.

<조사자 : 산방리요? 아! 산방산쪽?>

으. 대정을 의미한다마려.

<조사자 : 예. 대정요>

으. 삼도는 어디냐 하며는 토산이다 이거라.

<조사자 : 아~>

토산은 그러며는 정(?)이다 이거여.

<조사자 : 토산이 여기서 제일 컷었네 예?>

으. 토산이 역사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잇주. 사람은 안 살아 동네는 어서도. 그러니까 삼도는 토산이다 해서. 그러믄 이제 고씨는 목관 이고 제주시~, 대정은 양씨고, 토산은 부씨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추측헌 전설이지.

<조사자 : 그럼 부씨랜 현건 전설이네예?>

안창우 : 그저 사무실(동사무소)엔 그걸로 허는거주.

김대은 : 오래 살았다는 근거가 이성(잇어) 현 건 아니고

안창우 : 테레비(TV)로 그 터브게 살아났덴 허멍.

김대은 : 터브겐 무신. 어느 시청에 잇는 사람이 으당에 살아난 말이 주.

안창우 : 게메(그러게). 토산리 사람이 저 어기꽈? 그 저기?

김대은 : 게메. 그런 기록이 제주도 도지사에 나오니까 그걸로 행 부씨촌으로 나온거주게. 저걸 네 사무실에 가도 자꾸 쳐다보는디, 그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고. 설촌 현계 아니거든.

안창우 : 게민 설촌은 광산 김씨가 해서?

김대은 : 광산 김씨가 했주.

<조사자 : 아! 광산 김씨가 먼저 설촌을?>

안창우 : 그 다음에 우리가 왔주. 온지가 한 300년?

김대은 : 그건 뭐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지마는

안창우 : 아! 우린 알 수 잇는디.

<조사자 : 광산 김씨가 설촌한 얘기 잇수강?>

안창우 : 광산김씨는 어디서 왔고?

김대은 : 옷산(토산1리)더 왔주

안창우 : 옷산더 내려온 거니까 이쪽에는 역사가 없는 거지 예?

김대은 : 계난 우리 광산 김씨는 당머리에 오라네 설촌을 헤시나네.

계~.

안창우 : 그 다음에 안씨가 왔주. 안씨는 가시리서 왔주. 가시리서.

<조사자 : 그럼 광산 김씨 다음에 안씨가 들어온거 마씨?>

김대은 : 그것도 보른 어떤 책에는 안씨가 먼저 들어온 것으로 땃더라 구.

안창우 : 아! 계메 그건 모르쿠다마는 우리는 가시리서 온겁쭈. 예 가시리서 어디서 왔나하면 저 서늘서, 서늘서 가시리로 와 가지고 또 가시리서 분포되고 하르방이 또 분포허고.

김대은 : 분명헌 건 모르고 계.

16. 말가죽을 피해 달아난 마마귀신

제 보 자: 김안길(남·60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김안길 씨 덕

● 요약 : 옛날에는 마마 즉, 천연두가 제일 무서운 병이었다. 한 번 걸리면 태반이 죽고 살아도 얼굴에 흉한 곰보자국이 남아 평생 흉한 얼굴로 살아야 했다. 그런데 산뒤편이라는 감마장(국마양성소)지기는 자기 아들이 마마에 걸리자, 말가죽을 얼굴에 씌워 마마귀신이 달아났다.

천연두. 그게 마마라고도 허구. 여기서는 뭐 한집이라고도 허구. 제주도 말루. 거, 그, 걸리면은 무서운 전염병인데

<조사자 : 예>

그게 뭐, 어떤 귀신이 든거라고 생각을 헤가지고 뭐, 약도 없고 그러니깐, 예방주사도 없고 흐는 시절에는 뭐, 여기서 한다는게 무당 데려다가 빈다던가

<조사자 : 예>

뭐, 요런 정도백끼. 뭐, 손쓸 방법이 없고, 뭐 마마가 집에 들었다면 손님 들었다 헤가지고 집에서도 아주 정성을 다헤가지고 뭐, 뭐, 고기를 구워도 안되고 뭐, 뭐, 몸에 요세 옛날엔 그 뭐 옷에 이가 잇었어도 잡아도 안되고 뭐, 두벼도 안되고 다 하여튼 죽을 통에, 어쨌든 것이 끝날 때까지

<조사자 : 예>

근데 뭐, 한집에는 마마가 들었는데 그 아버지 신분이 낮아가지고 뭐, 아 그 산에 가서 국마, 즉 나라의 말을 키운다

<조사자 : 아, 예>

뭐, 여기는 뭐 가까운데 감마장이라고 헤가지고 그랬는데. 그 대 옛날엔 그 상민에서 상놈을 대를 물려가면서 아방이 하다가 또 돌아가버리면 또 뭐 아덜이 그거를 하구, 친한 사람의 신분이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마마가 걸려가지고 막 얼굴이 얼굴이 피어가지고 그 뭐, 곰보 형리 잇는 사람들 봤지?

<조사자 : 예, 예>

그것이 옛날에는 그것이 천연두 그거 할 때 굶어버린단다가 아니면 한꺼번에 돌았다가 들어갈 때 그게 그 자국이야.

<조사자 : 아~>

그래서 그게 열병같은건데 그 열이 한꺼번에 몸에 다가 그렇게 해서 났는데. 그 아버지가 목장에서 돌아와 보니, 자기네 아들이 그 마마에 걸려가지고 막 피어서 죽을 정도가 났는데. 그 산외 목시라한 사람은 쌍놈인데 '내 아들이 커서 뭐해봐도 뭐 날꺾치(나같이) 쌍놈질백기(쌍놈질밖에) 못할거고, 죽건 죽으라고. 한집님(마마님) 느리지(내리지) 맘씨(마세요)' 하면서 이제 그 몰(말) 가죽을 잡아다가 피 벌정한(시뻘건) 가죽을, 그러지 않아도 몰은 이제 뭐 제사에도 안쓰고 그러잖아.

<조사자 : 예>

부정한다 그랬는데. 아, 거, 이 우트래(위에) 탁 덕으면서(덥으면서) 느리지 맘써 하면서 그러니깐, 아 그게 병이 좋아가지고. 그게 어디 저 예춘 들엉 신화역(지명)을 말해주. 지금은 거기에 가가지고 또 어떤 아이 앞에, 아이네 집에 가서 그 마마가 걸렸는데 그 아이가 실토하기를 "아, 토산가민(토산가면) 아무개의 그 독한 놈이더라고. 아 그 마마가 걸렸는데 그 몰가죽을 헤다가 뭐 자기 우트래 씌우고 헤가지고 도망왔다."고.

<조사자 : 응~>

그런 얘기를 다 허고해서 아이가 천상 나아가지고 그런 말도 있고.

<조사자 : 그 마마, 마마귀신이 몰인줄 알고...>

아니~ 말인줄 안게 아니고 부정스럽다고.

<조사자 : 아~>

더럽다고.

<조사자 : 아~아까 제사 같은데도 안쓰고 그러는데>

응. 제사같은데도 안쓰고 그러는데 피벌경하게 부튼 몰가죽을 아, 그 마마하는 우트래 아이 앞에 씌우니까

<조사자 : 아~>

무서워서. 도망가서 아 그 토산 아무개의 이름을 거느리면서 아 그 무지한 놈. 독한 놈 만나가지고 뭐 도망왔다고

<조사자 : 응~>

하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 전설에 의하면 또 있고.

17. 망오름

제 보 자: 김안길(남·60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김안길 씨 덕

- 요약 : 토산에는 토산악이라는 망오름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오래 전부터 바다에서 왜구가 들어오는지 감시하였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도 연기나 불을 피워 이 소식을 알렸다. 그래서 이 곳 사람들은 토산악을 망오름이라고 부르고 있다.

토산악을 여기서는 망오름이렌.

<조사자 : 예>

뭐 이게 무슨,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서울 가, 가면은 서울에 뭐 남산같이 여기 있는게 망오름인데

<조사자 : 예>

우리는 뭐 옛날부터 망오름이라고 하고. 제주도에선 오름을 뭐, 산을 보고 오름이라 그러는데 또 뭐 산이 아니고 자그마한 동산. 그런걸 오름이라 그러는데. 그게 옛날 요즘같은 무슨 통신수단이 없었을 때, 옛날 뭐, 햇블로 뭐, 봉화해가지고 뭐 헛다는데 거 들어봤지?

<조사자 : 예>

응. 신호한다는 것이 봉화로 해가지고. 것 때문에 그 양반은 그 구실이 없고 쌍놈들만 어둑워가면, 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바다, 바당엘 쳐다봐야 하는데, 그 물믄루라고 하면은 수평선에 거 뭐 배가 하나 나타나면은 연기를, 지금 거기 이름이 연기봉이라고 해서 제일 높은 꼭대기에 이렇게 가보면은 뭐 돌로 쌓아놨는데, 돌은 다 가져가버리고 뭐 가져다가 산담돌로 써버리고 뒤편이라고 춤 독을 싸는 것이 몇 가지 있어.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보, 보는데. 거 참 뭐 망한이라고도 하고 거 쌍놈들이 돌아가. 번갈아가면 거 거 뭐 허는건디. 게 뭐 무슨 불침번 서는 것도 아니고 거 뭐 어차피 조상때부터 하니깐 뭐 그들도 뭐 조상들께 대물려가면서 허는디. 게니깐 여기서 같으면, 여기서 처음 발견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봉화 하나를 올리면은, 저 화천쪽에 가면 탈선망이라고. 것도 망보던 텐데. 화천쪽에. 오름인디 거기서 신호를 받고 서쪽으로는 이 한남리 저 건너가면은 거기도 이제 거 무슨 거 무슨 오름인진 몰라도 거기도 망보던 오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받고. 이제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좌우로 일시

에 뭐 제주도 일원에 봉황불이 올려집니다. 아 그러면 요즘말로 비상이 걸려가지고 아 이게 어느 방향으로 무슨 왜구의 침략하는 배가 들어온다 이런거를 이제 알게 됐는거죠. 신호로.

<조사자 : 예>

그러면은 이 중간에 오면은 두 개. 막 계맞디(가까이) 들어오면은 세계를 올리거든. 그 세계 올리면은 아 이 어느 쪽에서 뭐, 왜구가 들어왔구나 해서 그디서(그곳에서) 이저 지금, 지금 같으면 도청이고. 제주도는 뭐. 옛날에 목사 그러면은 뭐 도지사를 목사라고 했는데 목사가, 목사가 직접 오진 않고 거기 무슨 뭐, 지금 같으면 과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군졸들이 잇겠지! 여기 제주도에도 무슨 벨방진이다 무슨 어디 진이다해서 진을 치고 이제

<조사자 : 예>

와서 이제건 그런 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목이라고 문'문'자, 눈'목'자. 헤가지고 걸 써가지고 "당신배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이제 국호 이렇게 쓰면은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이면 중국인이다 하고, 일본이면 일본인이다 하고, 또 뭐 어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뭐 동양은 뭐 한문권 이니까 그래도 한문으로 통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했다는 말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못된 짓도 하고, 뭐 남자들은 봐지민(보이면) 막 때리, 때리고 뭐, 여자들은 뭐 잡아서 뭐 겁탈도 헤버리고 나쁜짓을 하고 도망가버리고, 음. 그래서 그 그게 그렇게 음. 지금도 어디 성산 온평(지명)쪽인데 그 어디 신양(지명)쪽인데 뭐 연기, 그 뭐 봉화가 이실꺼야(있을꺼야). 연대가 뭐

<조사자 : 연대? 아, 연대>

연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뭐 해안가를 무슨 연대 그런게 있는데, 무슨 성으로 쌓아가지고 그 위에 재 같은걸 뿌려가지고 그 말타가지고 이제 몰 풀랑지(꼬리)에 무슨 대비치락(대로 만든 비) 같은걸 이제 끼서가지고 막 달리고 그러면은 아주 무슨 뭐 기이하게 바닥을 쓸어 뭐, 옛날에 무슨 이순신 장군이 강강술래 허였던 하듯이,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뭐, 왜적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막았다는 말도 있고.

<조사자 : 아, 말꼬리에 비를 >

응. 비를 묶어가지고 달릴 때 재를 뿌렸다가

<조사자 : 아>

가물 때 쫓에 뭐 달려가면은 형편어시(형편없이) 날리고 그러면은 그것도 막 이상하게 생각되고 행.

<조사자 : 아, 이상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요즘 같으면 연막탄 뿌린 것처럼. 이.

<조사자 : 아>

<조사자 : 거 망오름이. 다른 디도, 다른 지방에서도 다 망오름이 있는거지. 예?>

모르겠지. 다른 마을에서는 자기네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 저 망을 빗기 때문에 망오름이다.

<조사자 : 그 토산악이>

응. 토산악이.

<조사자 : 토산악이 이제 망오름 되는거마썸?(되는겁니까)>

여기서는 망오름이라고 그린다.

18. 설촌 유래

제 보 자: 김안길(남·60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김안길 씨 덕

- 요약 : 토산리는 부씨(夫氏)가 설촌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제주가 3읍으로 나뉘어졌을 때 맨 처음 토산에 현(縣)을 두었다고 한다. 지금도 절래왓이란 곳에서 옥터와 현청 지붕에 썼었던 기와 조각이 발견되고 있다.

설촌 얘기는 확실히는 모르고,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고,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는데 뭐 부씨가 처음에 설촌해실꺼다 하는데 지금 부씨는 여기는 사는 사람이 없고 아랫마을에 부씨가 일부 좀 살긴 사는데. 그 전설은 모르는데 그 옛날 어디서 제주도 그 제주 삼읍이라는 말 들어봤어?

<조사자 : 아, 삼읍이요? 예>

응. 들어봤지? 이제 뭐 성안, 제주를 뭐 여기서는 성안이라고도 하고 목안이라고도 하고 그랫어. 서구. 대정.

<조사자 : 예>

정의. 그렇게 했는데.

<조사자 : 예>

정의, 예~. 토산에 과거에 어느 시적인진 몰라도 현을 뒀어. 지금 7트면 군청 7트는데.

<조사자 : 예>

현을 뒀다가 그 다음에 도성 갔다가, 그 다음 성읍(지명) 와서. 성읍을 정의현으로 했다가 나중에 저 제주 저 남, 북군과 갈림과 동시에 서귀포로 갔지. 남군청에 이제 성읍민속촌 되는 것도 정의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옛날 뭐 향교라든가.

<조사자 : 예>

문화재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저 뭐 현청도 있고 했는데. 여기 그 무슨 저 절래왓(지명)이라. 무슨 옥(감옥), 오른쪽에 가면 무슨 제일집서다, 제일 하면 예술인을 말하는건데 뭐 그런 말도 있고, 우리 밭에도 요기 올라가면은 얼마 아닌데 내가 검질(잡초) 메면서 보니깐, 뭐 기왓조각 뭐 자그마 하기는 해도 옛날 기와, 막(아주) 두꺼운 것을 봉가서(주워서) 놔둔(놓아둔) 기억도 있고 하는데. 요기 일단 뭐 토산이 지금 토산이 아니고 과거에 이 서구측량이라는 말 들어봤어? 서구측량이라고도 하고 거북집. 어른들 얘기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대로 잇는거를 측량해가지고

<조사자 : 예>

밭도 번지 매기고. 몇 평 하고.

<조사자 : 아, 예>

헛거든. 그 때에 원래는 요 신흥리 일부도 저 토산이었어.

<조사자 : 아. 예. 나뉘었다고>

응. 응.

19. 조상묘 잘써서 성공한 이야기

제 보 자: 김안길(남·60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김안길 씨 댁

- 요약 : 옛날에 정당장이라는 유명한 지관이 묘자리를 잘 봐줘서 영웅 할 아버지가 났다고 한다. 또 오별장이라는 장사 할아버지 얘기도 전하는데, 모두가 가세오름 뒤 큰 산 밑에 조상묘를 쓴 덕이라고 한다.

우리 마을에는 그 옛날에 우리 조상도 뭐, 영웅이라는 말 들어봤어?

<조사자 : 영웅이요? 영웅.>

응. 영웅.

<조사자 : 영웅요?>

응. 영웅. 이 영웅 할아버지라고 이제 그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산을 잘 쓰면 뭐 뭐 자손이 뭐 자손이 잘된다' 그런 말이 잇었지? 어 그런데 우리 그 우리 9대조 할, 할아버지를 잘 거기를 그때 가라왔는데, 그 할아버지를 그 그기 가문(가면) 이순고른 마루(마루)라고 망오름 앞에 모시면서, 이 정당장이란 그 당시 유명한 지관이 있었어. 지관이 뭐라고 그랬지?

<조사자 : 지관이 그리간...땅.>

그렇지. 땅 보는 사람이지.

<조사자 : 정당장.>

정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는 그리 유명하질 않았을건데

<조사자 : 예>

그 사람이 돌아가고 그 사람 예언한 것이 탁탁 잘 맞아드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마 됐겠지. 그 마 그 사람이 보면서 망오름 그르치면서(가르키면서) “저 망오름만 자손 나거든 천리허라”. 천리라는건 이묘를 하란 뜻이야.

<조사자 : 아>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묘(移墓)를 하라 하니깐, 그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6대조가, 난 6대조. 그러면은 그 모신 할아버지에서 증손이 있는데 그 증손이 참 영웅할아버진데, 참 영웅할아버진데 나가지고 그 때에는 무슨 뭐 어떤 요즘그치 중앙로길 가가지고 뭐하는데 없었잖아. 제주도는 제주도에서만 살고 그러는데 경행(그렇게해서) 막상 간다는게 뭐 정의 있으면은 정의현, 거기 가가지고 뭐 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의논도 하고, 아니면 뭐 현을 위해 무슨 뭐 일도 좀 허고, 또 중앙이면 성균관이고, 지방이면 뭐 향교라.

<조사자 : 예>

거기가 교육기관인데 아니면 뭐 옛날에 뭐 훈장을 한다던가. 장임한다던가. 별감한다던가. 그런 벼슬을 주는 것도 거기서 의무를 다하고, 그 집형장령. 그러면은 잡을 ‘집’자에 다닐 ‘행’자에 손바닥 ‘장’자에 이제 ㅎ여금 ‘령’ 해가지고 집행장령현 사람이 아들을 별감을 시켜달라고 이제 청원 들어오니깐, 거기서는 오늘 그트른 회의 그튼걸 하는데, 근데 우리 영웅 할아버님은 “집형장령 3대 걸쳐한 후에는 별감을 허라” 이렇게 허니깐 아무도 이제 뭐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말을 못허는거라. 그 우리 할아버지가 하도 영웅 할아버지기 때문에 그니깐 그 집행장령 허는 말은 “나의 자손에는 그 별감을 안하겠습시다”허고 그렇게 헐 정도로 이제 그 기세가 당당하셨는데. 그 음, 할아버지가 인제 36세에 돌아가부렀는데(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조사자 : 아>

큰 할마니는 딸만 잇고 다시 마누라를 얻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옛날에는 그 저, 적서분별이라고 적자와 서자가 분별이 잇었어. 적자가 아니면은 상속을 그 상대를 못하잖아. 거 뭐 드라마에도 보면 그런거 잇지. 왕도 그렇지만은 이제 민가에도 마찬가지로.

<조사자 : 예>

그러니깐 이제 할아버지가, 나가 아들이 없고 적자가 없어가지고 서자를 적자로 헐라고 하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소” 허니깐 다 뜻을 받아들여서 옳다고 개 그때는 옳다고. 이제 그때는 옳다고 헐 수가 없는 법인데도 옳다고 허니깐, 걸 뭐야 등재(등기)하고 걸 다 마쳐부렸으면(마쳤으면) 장자가 되는건데. 그대로 서류 분류 허기 전에 뭐, 갑자기 돌아가버리니깐 그 그게 적자가 안되가지고 다시 또 아들이 있어도 죽은(작은) 할망의 아들이 있어도 우리 이제 조상을 들여와서 그 할머니가 양자를 또 데려다가 대를 이어서. 그 자손들은 이제 일본 가보리고. 여기서 직, 직접 난 영웅 하르방(할아버지)인데. 게서 그 참 산도 잘쓰면 좋다는데 쟁 그런 영웅도 나오고 헛다 그러는데, 그 사람도 내내 토산 살다가, 그 그 씨인데 오별장, 오별장이랜 말 들어봤나?

<조사자 : 예>

오별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유명했는지, 그것도 뭐 영웅애긴데. 어떤 그 사람네가 그 할아버지네 당시에 걸어서 그때는 다닐땐데. 요 앞에 저, 매뚜기 맞추하고 거기 턱 나왔아가지고 집이 어디였는지 모르는데 그 앞에서 지날려 그러면은 몰타서. 그 옛날엔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말이잖아.

<조사자 : 예>

지나가다가 토산 오면은 물을 내려서. 하마(下馬)하고 이껴서(이끌어서) 갔어. 그렇지 않고 그대로 타고 가는 사람 이시민(있으면) 그 할아버지네가 눈 한번만 뜨면은 말이 죽어버려. 가다가.

<조사자 : 예>

이디 뭐 닭을 보고 눈 한번 편쪽 트면은 닭이 꺾꺾 죽어버리고. 그런, 그런 하르방들도 옛날에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것도 네네 그 가세오름 뒤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잘 써가지고 뭐 그럼 사람이 하르방들이 나왔다는 말도 있고……

20. 술독에 빠진 구렁이 덕에 벼슬 얻은 이야기

제 보 자: 김안길(남·60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김안길 씨 댁

- 요약 : 토산리에 어떤 사람이 탁주를 담아 헛간에 놓아두었는데 그 곳에 큰 구렁이가 빠져 죽어서 술을 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문둥병 거지가 와서 구걸하자, 그 버리려던 술을 주었다. 그랬더니 문둥병이 말끔히 나아 '자기 아버지는 시관(試官)'이라면서 그가 과거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집행장령은 어떻게 된 말이나면 것도 들은 말인데, 모르겠어. 에 그 사람네가 집행장령 되게 된 동기가 그냥 평범하게 그대로 잘 살고 잇었는데, 하루는 에~그 술을, 여기 탁주를 만들어 놔거든.

〈조사자 : 예〉

탁주를 헛간에 만들었 놔뒀는데 여름에 그 구렁이가 큰 구렁이가 다니다가 거기 빠져 죽게 되니깐. 그니깐 버려 볼수도 없고, 그 한 삼년동안을 놔두게 뒀단 말이여. 그걸 그냥 놔뒀는데 하루는 걸인이, 거지가 와가지고 뭘 달라고. 그런데 보니깐 얼굴이 뭐 형편없고 요즘말로 ㄱ트면 뭐 문둥병 환자라.

〈조사자 : 아, 예〉

〈조사자 : 와가지고, 그술을 달라고.〉

아니아니. 그걸 잇는줄 알아서 온게 아니고 그냥 거지가 들어와서.

〈조사자 : 아, 예〉

보니깐 주인이 형편이 없는 사람이더라고.

〈조사자 : 아, 예〉

작박 그러면은 표주박인데 작박을 하나 주면서 저 술이나 먹어가라고 (먹어서가라고). 경헨(그렇게해서) 좀 먹으니깐 취할거 아니가.

〈조사자 : 예〉

취하니깐 이제 올래강(방에 올라가서) 드러누워. 쓰러져서 취해서 드러누우니깐, 뭐 몸에서 무슨 구더기 ㄱ튼 것이 막 나와더라. 여기서.

〈조사자 : 아〉

게서 아이고 깨우고 머리를 터니깐, “너 그러지 말고 그 술이나 다 먹고 가라”고. 게서 그 술을 다 먹고 이제 하다보니깐 문둥병, 그렇게 된 것이 좋아가지고 얼굴 깨끗해지고.

〈조사자 : 예〉

좋았다 이거야.

〈조사자 : 아, 예〉

게니깐 그 사람이 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 한 시관이라 허는거라. 시관. 시험 보는 그 이제 그 뭐 요즘 ㄱ트면 채점하고 그런 시험보는데 뭐 조금 권리가 있는거지. 건디 아들은 경 몹쓸 병을 허니깐 어디 가서 얻어먹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내몰령(내쫓겨서) 이제 제주도를 어떻게 와가지고 땡기는거라. 이제 그 소릴 적어주는데 나도 성시관이니깐 언제 뭐, 요즘말로 과거를 본다고 그러면은 와서 뭐, 주소 성명을 없어주면은 아버지한테 말씀을 잘 드러 놓을테니깐 벼슬을 내리도록 허겠다 해서.

〈조사자 : 예〉

그 서울 장안에 가가지고. 뭐 답, 답도 다쓰면 옛날엔 그렇게 헛는가만은, 뭐 몰라도 방을 쓰고 던지면 그 안에서 뭐 주워가지고 뭐 읽어가지고 뭐 급제했다고 헛던 모양이야.

제주도 사람이 가면은 무신 흥미가 가가지고, 벼슬을 잘 허지도 못 허지만, 그 사람이 과거에 합격 헛(시관이 도움으로). 집행장령 벼슬을 내리니깐. 요즘 말하면 게 저 석전대제 같은 때에 뭐 도지사가 추앙해서 그런거 잇잖아.

〈조사자 : 예〉

그런식으로 뭐, 서울에서 무슨 제사를 올리는데, 그건 그 어떤 재화를 막는모양이라. 경훈디 저기 화로 잇잖아. 화로. 그러지 않아도 늦화로는 빨잖잖아.

〈조사자 : 예〉

아! 이거를 허는데 게니깐(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제주도 사람이 와서 그런거를 허니깐 좀 알봐가지고, 불을 막 달궈가지고 '이걸 들고가라 허민(하면은) 틀림없이 내버리고 실수허겠지' 헤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뜨거워도 손이 막 지저저도 실수를 안하고 잘헛던 허는 말도 있고. 다 옛날 얘기지 뭐. 허허허~

21. 당팃당장 2

제 보 자: 김안길(남·60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김안길 씨 댁

● 요약 : 옛날에 당팃당장이라는 힘센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하루는 시장에 갔다오다가 도적을 만났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센 힘을 이용해서 도적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그를 나무에 묶어 버린다. 그렇게 해서 머리카락이 모 두 뽑힌 도적이 다음부터는 도적질을 하지 않게 되었다.

당팃당장허면 뭐 춤 너무나 유명하게 힘센 하르방으로 이제 하는데, 지금부터 현 뭐 130년전쯤에 뭐 지구상에 있었던 실제 인물이야. 뭐 어제 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100살 되는 해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108살이라. 우리 아버지보다 춤 맏년 더 먹은 하르버지가 아버지하고 얘기했던거라. 힘이 센 할아버지 애긴데. 뭐 어제 얘기한걸 들었는데 아버지보다 혼 대여섯 우엇 그 하르버지가 당팃당장을 직접 봤다고. 그 또래라. 곶이(같이) 이제 늘고 그러는데 머리가 하얗고 뭐. 옛날에는 뭐 염색도 없고 그러니깐 요즘 7찌 한 80 되민 허여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당팃당장)가 마, 젊을 때 어느 시절인진 모르는데 옛날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기 뭐 농경사회고 농사가 잘 안되고 흥

년이 들고 그러면은 먹을 식량이 없잖아.

〈조사자 : 예〉

그러면 뭐 제주시는 녹완이라 그래서 거기는 뭐 보리도 잘되고, 그래서 이쪽에 여기서 가지고 갈거는 구덕을 만들어 간다던가 아니면 나무. 그 할아버지가 뭐 목수였던 모양이야. 게서 그 나무그릇, 남박이라고도 하는데 나무로 그릇들을 만들어 가지고 짚어정(등에 메어) 가면서 팔아서. 이제 옛날에 무슨 돈을 가정 하는게 아니고 물물교환으로 쌀도 바꾸고 뭐, 잡곡도 바꾸고 그랬겠지. 하루는 짚어지고 오는데, 거기 오름턱은 걸어지 나갈 때는 들리는 얘기가 도적 나오는 곳이라고 헤가지고 마. 제주시하고 이 정의현 중간에 어떤 그 산, 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 뭐 아마 거 도적이 있다가 뭐 가진거 이시면 좀 내불고 가라. 안그러면 뭐 생명이 위태로 우니까 뭐 내버령 가는거지. 아닌게 아니라 거기 오니깐 어떤 사람이 "당신 지고 가는 걸 내버령 가시오." 해. 그 할아버지는 뭐, 잔말할 필요도 없고 "어 그럼 짚어지고 가. 어서 지고 가"라고. "내가 밀려줄테니깐. 지고 가"라고. 그래서 밀려주는척 하는데 그 도적놈은 아마도 힘이 그렇게 쉰 할아버진 줄은 모르고

〈조사자 : 예〉

옛날은 상투 틀잖아. 상투.

〈조사자 : 예〉

상투를 이렇게 그 상투 있는디, (손가락으로 상투를 잡아 비트는 흉내를 내며) 요렇게 해서 폭 잡아가지고 밀려주는척 하다가 뭐, 이 돌아가면서 머리카락을 엄지손가락으로 씨게(세계) 딱 즐랐던 모양이라. 이게 손톱으로.

〈조사자 : 아, 이 손톱으로요?〉

응. 손톱으로. 그렇게 돌으니깐 그 원래 힘이 장사고, 그런 할아버지가 하니깐 아마도 피도 나고 그랬겠지. 아마도 그것이, 이제 나무가 있으니깐 나무 가지에다가 상투를 툭 돌아매부렸거든. 경행 내불고(내버리고) 짐을 짚어지고 가서. 근데 또 한 3년 있다가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인줄도 모르고 뭐, 목관 그러면 제주시 근처를 말하는데, 하루는 걸 짚어져, 나무 그릇을 짚어지고 장사를 다니는데 아 방에 머리가 하얗게 벗겨진 사람이

하나 있다 이거야.

〈조사자 : 아까 그 사람은 머리, 머리 뽑아져부런마썸?〉

아, 게메. 얘기하건 들어봐.

〈조사자 : 예〉

젠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거를 나무에 드라매고(달아매고) 하도 버등치 니깐, 그 무게가, 무게에 못이겨가지고 이게 가발 쓴 것처럼 문짝(모두) 벗겨져분거야.

〈조사자 : 하하하하, 머리만 따라간거마썸?〉

머리가 아니고 껍질까지.

〈조사자 : 아.〉

껍질까지. 가발 쓴거 벗겨진 것 같이. 하~그 이들이 한 3형제가 되는데, 저, 당신을 초청해서 인사 올리라고. 아 어떤 영문도 모르고 "아, 이거 어떤 일이나."고. "하, 당신 덕분에 병을 고쳤다고. 아이 고마워서 사렐 할려고 그러는디 찾아와줘서(찾아주어서) 고맙다."고. 그 도적은 아마도 안거지. 그 사람을. 자기가 그 옛날 도적질하다가 걸려가지고(들켜가지고) 이제 나무에 달아매준 사람인줄 안거야. 그거 허기 전에는 그렇게 하기 전에는 도적질을 하고 싶어가지고 머리가 아팠다는거야.

〈조사자 : 아〉

응. 그랬는데 아 그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 돌아 매가지고 머리를 뜯긴 후제는 머리가 안 아프다 이거야.

〈조사자 : 예〉

뭐. 도둑질할 생각도 없고.

〈조사자 : 하하하하〉

게서 그 도적질하는 사람도 어떤 뭐 신들린 것처럼 그런게 나쁜 귀신이 들어가지고 도둑질을 아마 허게끄미(하도록) 허게 뻗던 모양이야. 게서(그래서) 거서(그곳에서) 융성한 대접도 받고. 거 뭐 경헛다는 말도 있고.

22.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제 보 자: 김안길(남·60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김안길 씨 댁

● 요약: 제주시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는 얘기와 셋아버지가 어릴 때 호열자로 죽은 줄 알았는데 3일만에 살아났다는 얘기이다.

<조사자: 그 중산간 마을 쪽에, 중산간 마을 쪽에, 그니깐 저 북제주군쪽에 잇잖아 예? 북제주군 그 쪽 중산간쪽에 이런 얘기도 많던데. 낭(나무), 낭 얘기도 많고, 예? 뭐, 저기 사람이 죽어가지고 막 염도 해가지고 예. 묻기 바로 전날까지 죽었는줄 알아신디.>

응. 다시 살아난...

<조사자: 예. 강보니깐(가서보니까) 염라대왕 만나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 어 그런 얘기도, 그런 얘기도 나도 시에 갔다가 듣긴 들었어. 뭐. 몇시간, 자기가 뭐 몇시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뭐.>

<조사자: 그런 얘기 이서마썸?)>

응. 가니깐 무슨 어떤 뭐 흰강아지가 뭐 뭐 따라가라고 해서 무슨 따라가보니깐, 무슨 저승갔다가 뭐 살아났노라고 하면서. 저승가니깐 뭐 상당히 무섭고 뭐. 어땡어땡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랬는데.

<조사자: 그 얘기 좀 생각나시면...>

난 그거는 그 사람이 제주시 사람인데 우리 조카가 시에 결혼했다가 갑자기 이제 요즘말로 심장마비가 걸렸는지. 어떻게 해서 돌아갔을 때 그 사람집에 가니깐, 죽은 사람을 직접 만남. "자기가 직접 그렇게 당했노라(저승에 갔다왔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때는 뭐 어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든 제가 어디 죽은 것이 아니겠지. 우리 셋아버지도 옛날에 호열자, 그런 말 들어봤나?

〈조사자 : 예?〉

호열자.

〈조사자 : 호열자요?〉

제주도에 호열자란 전염병이, 응. 요즘 호열자 그러면은 뭐

〈조사자 : 열병?〉

아니, 이질. 이질 같은건데

〈조사자 : 아〉

응. 호열자가 그 설사하는 전염병인데.

〈조사자 : 예〉

음. 그 당시에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하르버지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고 그러니깐 그 손주. 아 그 할아버지 할머니니깐 손주가 뭐 한 (옆에서 놓고 있는 손자를 가리키며) 야네들 같이 세 살쯤 먹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죽어분거라. 쟁 장사를 지낼 그런 염두를 못뒀지. 쟁 한 3일 있다가 그 종이 "이제랑 도련님도 어땜 저 거 뭐 합쥬." 그랬는데 아 보니깐 깨났다 이거야. 한 3일, 3일 죽은 줄 알았는데. 게서 죽었다가 살아났젠은 하는데, 뭐 어릴 때니까 뭐 죽어서 저 송가보니깐 뭐 어땜 헛다는 말은 없고.

〈조사자 : 예〉

그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잇어. 뭐 요즘 의학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건 뭐 믿어지질 안하지. 뭐 덜, 덜 죽은 거나 좀(잠)이 진 거나(길거나).

〈조사자 : 하하하하〉

23. 이제수난

제 보 자: 김안길(남·60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김안길 씨 덕

● 요약 : 천주교 신자들이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며 민폐를 끼치니까 대정에서 이재수란 사람이 난을 일으켰다. 이에 외국에서 선교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함을 파견하였다. 이때 바다에 안개가 끼 배가 정박하지 못하게 되고 쥐가 탄약에 오줌을 싸서 못 쓰게 되는 등 하늘이 이재수를 돕는다.

이재수 얘기 들어봤어? 이재수난.

〈조사자 : 예. 이재수난.〉

이재수난. 것도 연극화했던가 뭐. 여기 사람들이 뭐. 이재수가 대정 보성리 사름이라고 하거든

〈조사자 : 예. 그렇게. 그렇게 나왔던데.〉

응. 백년이. 굶년이 백년인가 된다고 그러던데. 어. 백주년인가 되는데

〈조사자 : 예〉

그 아버지가 (옆에서 놓고 있는 손자를 가리키며) 요. 요 아이네만씩 뭐 한 일곱오덱. 아이(이 아이)가 일곱술이니깐 혼 으덱숯갯구나. 그 수망리(지명)에서 그때 만났는데. 남군들을 보니깐 그저 생조난리라고 해. 그 때 생조. 그러면은 요즈음 천주교를 생교라 그랬는데

〈조사자 : 생조요?〉

생교난리.

〈조사자 : 생교난리?〉

응. 생교난리. 생교난리라고도 하고. 이재수난이라고도 하고.

〈조사자 : 응〉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본거를 보면은, 밧엇노라 하는걸 보면은 그 어째서 난이 일어났는고 하니깐, 그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그저 생교 신자들은 자기네 그 어떤 패거리를 해가지고. 애들이 그 뭐 지지배들이 거름떡을 해감시문(해서 가고있으면), 옛날은 걸어서만 다니잖아. 그러면 뭐 떡은 빼먹어버리고. 뭐. 겁탈해볼기도 허고 뭐. 나쁜 짓을, 못된 짓을 막 하니깐, 그 이재수란 젊은 사람이 장도가 돼가지고 난을 일으킨거라. 게니깐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 뭐 대정에서 좌우로 아마도 동서로 나

간거지. 뭐 아버지가 목격했다는 말에 의하면은 백년전이니깐, 그 수망리에 그 동산이 지금도 이서. 거기서 죄인들을, 죄인들이라 그러면은 뭐 그 신자들이겠지.

〈조사자 : 예〉

뭐 몽둥이 2튼거 들고 이제. 그 장도가 뭐 이렇게 위위~ 몽둥이를 돌려서 이제 죄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쇠앗대로 딱 무르고 상투는 이제 그 셋에 딱 절박시키고. 아버지는 그때 거기서 본거라. 난꾼들이 마을에 도착하면은 이제 그 마을에서는 식사도 제공하고 뭐. 밤이면 또 이제 뭐.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 다음은 또 뭐 다음 마을로 가면서 죄인들은 잡아서 목관, 제주시로 간 거주. 옛날 같으면 관덕정 앞 거기가 제일 번잡하고 하니깐

〈조사자 : 예〉

갓단 말이여. 쟁 제주시에 가가지고 그 관덕정 앞에 가면은 이제 우체국 있어난디, 거기 뭐가 잇었다고 그래요. 그게 법? 법국이라 그러는데 그 뭐 로마를 말한건지. 뭐, 법국놈. 거, 거기까지 막 진군을 헤가지고 난꾼들이 가니깐. 요즘말로 뭐 거기 우두머리 뉘는 사람이, 목사나 누가 설교를 훈거지. 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고. 프랑스 신분가, 그 사람은 모자쓰고 하는데 그 뭐 활질 잘하는 사롬이 잇었던 모양이라. 경헨 안다치고 모자만 벗겨지게끔 활을 쓰고 헌 모양이라. 경헌디 그 조정에서는 그게 나라에서는 허가엇이 민란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백성들을 죽였다헤가지고 이제 마 이재수를 잡아 죽이라는, 그런 조치가 이신거라. 뭐. 요즘 같으면 뭐 반란을 일으켰다는거지. 그런디 무슨 뭐 웨국에서 선교사들이 제주도에 와서 그 난꾼들을 잡아 죽이려고, 요즘말로 어떤 보복을 홀라 그러니깐, 뭐 안개가 꺾. 바당에 뭐 배질을 못하게. 그 신이 도왔는지 한 3, 4일간을 그렇게 헤가지고 외국 군함이 못 들어오게. 우리 민간인을 헤치지 못헌거주. 또 탄약같은 것은 쟁이(쥬)가 들어가지고 막 활줄도 끈어버리고. 뭐 오줌도 싸서 탄약도 못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훈 일도 있다고 그러는데. 요번에 작년엔가 어느 때 이재수난에 대한거 뭐 나와실꺼여. 그런 것들 나왔지?

〈조사자 : 예〉

24. 오름 이야기

제 보 자 : 김창문(남·68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토산1리 마을 회관

● 요약 : 토산에는 오름들이 많은데 그 오름들 중에 지형이 별 모양과 같다고 해서 별오름이 있고, 별은 꽃이 있어야 그 꿀을 먹고 사니까 별오름 앞에는 뽕고스름이 있다는 등의 오름지명에 관한 이야기이다.

서쪽드래(서쪽으로) 가면은 머리, 동쪽드래 간 건 꼬리 이렇게 해서 동쪽에 꼬리쪽에 제주도 한씨선묘, 제주도 한씨 선묘가 그디 이제 소꼬리에 모셨다가 이묘를 헛는다. 이묘행 탄디 갖는다. 요 한 몇 년 오래지 안았어. 아주 그디 이제 한 그 십년 되나마니여. 십년 되지 아니헛. 서쪽드래 가면 왜 머리냐, 사름덜이 그 서쪽드래 보명 "췌(소) 머리다"정행. "다가리소 다가리소" 허주. 그게 눈 큰 췌가 목 마르면은 물 먹는 형국이라 헤가지고, '다가리소 다가리소' 물먹는 형국. 이 제주도 저것도 옛날 아주 비슷하게 맞춰놓긴 맞춰나신디. 저쪽에 가면은 옛, 여기 말로 거스름을 여짜리 여짜리 허는 것은 한자로 표실하면 여잔디. 여자가 으렇게 해서 팔을 벌려서 앉은 형국이다해서 여좌리 요좌리 여짜리연 하는거. 그 오름도 있어. 꼭 별모양(별모양)으로, 혼 가운디 준등이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준등오름 준등오름. 별오름이엔허여. 번널오름 번널오름. 그니깐 별이 거기 이시니깐 꽃이 있어야 될건디. 그 앞에 오름이 또 있어. 이거 머냐? 한가운데가 동글랭 헤가지고 흠뻑 들어간데가 있어. 그런오름이 있는디 여기서 지금 말하길 뽕고스름 뽕고스름 하고있어. 꽃이 핀 형국이라 이거야.

〈조사자 : 뽕고스름 마씨?〉

여기서 지금 곧는다(말하는데) 뱅고스름 뱅고스름 이렇게 하는다. 팽이 꽃, 팽이꽃이

〈정의숙 할아버지: 팽이꽃〉

꽃이 피었다고 해서. 그래서 저기 벌이 있으니까 그디 꽃이 있는것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런걸 맞춰서 있는거주. 벌이 있으니 까 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되는거. 벌이 꽃 어시든 죽지 사나? 거 꽃 이 있어야 사는거니까 그렇게 헝 그 우트래 가문 말이여. 사슴이 죽은(작은) 사슴하고 큰 사슴이 7치 있어. 거기는 사슴이엔 흐는, 사슴이엔 흐는 짐승은 꼭 쌍을 저. 하나만 땡기는(다닌) 수도 잇주마는(있지만은) 대부분 짝을 지영 땡기는거라. 큰 스슴 죽은 스슴. 이렇게 허영 구별허영. 또 그 저 동아일보에 나왔는다. 제주대에서 지조악이엔 흐는거. 제주도 땅 하르방. 이제는 모찌오름 모찌오름이엔 흐는다 .

〈정의숙 할아버지: 어멍〉

모찌오름이엔 아니 굴아도(말해도) 미찌오름 미찌오름 이렇게 그렇게 요즘은 빨리하당 보면 미찌오름 미찌오름 얘기허게 되는다. 그게 어,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모찌오름 모찌오름 이렇게 얘기허여. 그 밑으로,

〈정의숙 할아버지: 새끼오름〉

젠젠한(아주 작은) 오름들이, 오름들이 뭐 있어. 이거는 어멍이 그디 이 시니간 즈식(자식)들을 많이 낫다 해가지고 새끼오름. 또 그쪽드레 저쪽드레 이제 빠지면은 저 동남쪽드레로

〈정의숙 할아버지: 장자오름〉

장자오름이 이서.

〈정의숙 할아버지: 큰 아들〉

큰아들. 한라산 쪽에서 이제 북서계절풍이 겨울에 불어오며는 그 늬음 바람이 어드레 이제 터정 나가느냐? 아까 오름. 이제 사슴이엔 해 가지고 그 모구리엔 흐디. 장자오름이엔 흐디. 모구리로 헤 가지고 저 동남쪽드레 막 이제 후라부라 불어가니간, 동남쪽 저 성산쪽드렌 바람이 세고 응? 이렇게 흐단 말이여. 이쪽드레는 이제 제주도 한라산이 으렇게 되노니간 이게 가슴앞에 되니간, 이게 서귀포드레 밀감(감귤) 잘 되는 이유라. 가슴

아피가 붕긱하게 되가지고 한라산이 으렇게 되니깐 겨울 되도 춥지 안흐난, 미강(꿀)도 잘뉘고. 동쪽드레는 북서계절풍 불면은 이? 눈 온때쫘은 이 귀아리가 늘어난거 같애. 제주도, 제주도 한라산 브람은 다 글로 간다고.

25. 용두사, 영천사

제 보 자 : 김창문(남·68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토산1리 마을 회관

● 요약 : 토산에는 절이 두 군데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노단샘이 절간, 거슴샘이 절간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용두사와 영천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경위에 관한 이야기이다.

거 용두사엔 허는거는 그 사찰 들어온지가 몇 년 안되버리깐

<정의숙 할아버지 : 그니깐 거 그 절간 지은지 흐, 흐 육년이나 되시카?>

아니되수다게(안 되었습니다). 당최 거 흐 오년 되나마, 오년도 안되실 거여.

<정의숙 할아버지 : 오년 되나, 오년? 오년?>

제니깐 거. 이제야 이제 그

<정의숙 할아버지 : 오디사(어디에) 있던 절간인지 몰라.>

이거 헤노니까 용두사라고 하면은 한라로 하고 용머리, 용머릴 말하는 걸건디. 이 으디 저 육지에는,

<정의숙 할아버지 : 어디 잇당 터져 나온진 몰라.>

육지에는 아닌게 아니라 용두사엔 하는 절이 크게 잇기는 한 모양이라. 그디선(그곳에선) 육지엔 아주 큰 절이 잇긴 있는 모양인데, 으디 이제

저 영천사. 영천사 이제 전에는, 이 영천사라고 이름 지혼지도(지은지도) 이제 몇 년 안됐을거야. 아마도

〈조사자 : 그럼 원래 딴 이름 이섯수파?〉

딴 이름 아니라 이제 절간, 절간 이렇게 했주.

〈정의숙 할아버지 : 느단셈이 절간. 경만 했주.〉

저 절이, 절이 으 중간에는 시님이 이분 저분 허다가, 여즈(여자)어른, 혼 어른이 완전히 이제 거기 땅도 여즈어른이 사고 집도 그 여즈어른이 짓고 해서 그 여즈어른이 시님 노릇도 하고 전체적인 이제 그 절 관리를 하다가. 신도들도 오가고 하니까 거기다가 부처님을 모셔논거라. 경행 이제 그 절이다 이렇게 헛거주. 거저 거 시님노릇을 허다가 그 여자 시님 어른이 돌아가버리니까, 그 손자가 거기 어디 살았는디, 손자가 그걸 아이 마탄. 할망 허던걸 안 맡아가지고 여기 살다가, 지금 채주시강 사는디. 신도성(손자이름)이라고 돈을 내놔네(내놓아) 땅을 사서 절도 새로 짓고, 그 안네(안에) 옛날에는 초가집 하나 있어서. 할망 시님할 때는 그 초가집에서 부처님 모셨는디. 그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 간 그 손자가 땅을 뒤, 절에 이제 새로 마튼 시님한테 임대허연. 그래서 이제 그 절간 이름을, 이제 그 때 아메도(아마도) 그 땅을 등기시키면서. 저 이름이 있어야 계약을, 땅을 등기시킬거난. 영천사 이름도 아마 그렇게 지은 모양이야.

〈조사자 : 아...〉

영천사에 헛거 거 한자로 표시하면 신령 령자에 신령 령자, 하늘천자엔 흐는거라. 거 영천사에 헛거.

〈조사자 : 아~〉

한자로 표현하면 아마 그렇게, 그렇게 하곡하지. 지금 그 주위가 옛날 그대로라시몬 참 좋았는데.

〈조사자 : 아~〉

이 오늘같은 불더위에도

〈조사자 : 네.〉

그던 가면은 땅굴안으로 쑥 들어가면 그디 물이 잇는디

〈정의숙 할아버지 : 물이〉

그 물에는 가서 한 이십분이나 들어안절 못하여. 아주 추워서, 실려서. 겨울에는 물이 따뜻해서 빨래 하기가 그렇게 좋아.

〈조사자 : 네〉

그래서 여름에는 차고 겨울에는 따스고 거 완전히 그 참. 물이 좋아났는디 말이여. 아주 좋아. 그 요즘에는 그게 이제 다 메와져(막아) 버리고 하는 바람에 엇어져 버렸는디. 전에는 아, 아주 좋았어. 그게 그대로 보존되어서든 지금 관광지가 될렀는지 몰라.

〈정의숙 할아버지 : 그렇긴 하지.〉

〈조사자 : 그 물 어떻 생겨났는지는 얘기 어수과? 그 물 어떻 생겨났는지〉

아, 물이 어떻행(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조사자 : 그런 전설같은거〉

굴으니까(조사자가 말하니까) 그게. 그, 호종단이엔 헛거.

〈조사자 : 아, 그게 거슨샘이 느단샘이〉

그게 그거 거슨샘이엔 헛거는 거꾸로 한라산 방면으로 이렇게 나가니 까는 '꺼스로, 꺼스로 물이 난다'해서 거슨샘이. 바다쪽으로 나가니까 느단샘이. 요렇게 해서 이제 그 호종단이 그 스람이 토산에 와가지고, 그 발가는 영감이 아니랴다면 그 혈(穴) 떠부러시면 영원히 어서질는지 모를건데. 그 호종단이런 헛 스람이 거 찾지 못하여서 물을 물줄기를 그대로 살려서 가불면. 정행 지금까지정도 물이 나오는 겁주.

26. 여방훈장 1

제 보 자: 정의숙(남·75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토산1리 마을 회관

● 요약 : 계속놓는 끌럭지에 말뚝을 싸고간 여방훈장 이야기

계난 이제 그, 이, 저 곧단 도중에 내 마탕 굴아야죽. 계난 그, 그 당신이 좀 재변이 세어서 혼으로 친구 이제 나이 혼 세 살 위도 말은 말을 안놓고, 서로 맞을 먹어서 혼는 분이 이제 거 옛날은 새행으냉 거 제숫상 가는 새 허른 검질 거 이만히 높은 거 새 있잖여. 새, 집드레 놓고 하는 새, 새를 해서 이제 끌럭지를 이만씩 크게 멘들아내 끌럭지 멘데. 끌럭지엔 헨거 알아져, 모르지?

〈김창문 할아버지 : 모를꺼여게, 끌럭지 알 수가 이수과.〉

거 새 이만이 높은거를 비언 덩채기 오, 으정도 무경으네 이제 소들갱이 또 무경 영, 영 허당보며는 그 무엇이 만들어 무엇을 만들어지게.

〈김창문 할아버지 : 끌럭지엔 헨거 뉘고 하며는 제사집에 제숙 싸 아정 갈때에 가정가는거. 제숙 꿩기 싸 아정 갈려고 끌럭지, 끌럭지.〉

끌럭지, 끌럭지 해여. 새로 만들양 경 했는디 거 그 끌럭지를 크게 멘들어서 뉘을 놓앗는고 하며는 제숙을 가정간게 아니고 뉘똥, 말똥, 말똥, 말똥 알지?

〈조사자 : 하하하〉

말똥을 특하게 싸서 이제 그 친구 처녀집엘 가가지고 자 밤이 잡느냐고. 아이 이거 이만저만 행 저 우리 아방이 추렴을 해서 이거 보내건디 이거 마탕 뉘, 아 지꺼정 뉘 뉘똥 클렁 뉘똥 쌍(웃음). 이런 농담을 하는 할아방이란 말이죽. 거 계난 전 농담은 그 어떻게 세여했는지 으자 막 늙은(청취불능) 그자 그 말 우시게 말이라.

27. 도채비 이야기 2

제 보 자: 부기선(남·75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토산2리 부기선 할아버지 댁

● 요약 : 도채비가 무엇위 못 들어오게 올래어귀에 말뚝나 말가죽을 놓았다
는 이야기

도채비가 삼형제가 있다고하여. 들은말에 의하면 나도 뭐 걸 아는건 아니고 자세에 확실하게 아는건 아닌디 구좌면 구좌읍이지. 옛날 이 구좌읍 김녕리가 큰아덜이라고 하여. 큰아덜이라고 허고 대정 관래 가서 거 대정인가 거 대정 관래지? 세 개가.

<조사자 : 예.>

대정이 거 세 개가 셋아덜라고 이거 신산이가 죽은아덜이라고 으런말 이 이서.

<조사자 : 옛날?>

어. 옛날 도채비 구신 삼형제라 허여. 게니 토산을 두레야 하지. 제주도에서 두레 하지 안하나? 아, 거.

<조사자 : 옛날 마썸, 옛날.>

게메, 옛날든 뭐든 요즘도 제주시 갈래가 이 북군 갈래에도 요 뭐 구좌까지는 별로 그런게 없는디 제주시 가도 뭐 싫어하고 저 서쪽으로 가면 아주 싫어하거든. 토산을.

<조사자 : 아,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서쪽으로 지금 한림 관래나 애월 관래 가면 뭐 토산 영 하든

“아, 토산, 토산땅 구신 잇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

<조사자 : 정해 마씨?>

그렇게 거 안해여? 것도 몰라?

<조사자 : 예, 몰라 마씨>

그렇게 두레한단 말이여. 토산땅 구신이라는게 당이 없는 부락이 없어. 우리 제주도에.

<조사자 : 맞주 마씨.>

육지도 마찬가지로. 내 육지도 다녀보니 어느 부락가도 당산이라고 해서 다 당산나무 아래라고 해서 당 그 이라는 헤는디가 있어. 부락 안네 보면

육지도 당산 나무 아래가서 놀자고면서 나도 돌아댕기는 수차에 돌아댕기
니까니 여기저기 돌아댕기 대겐 알거든.

〈조사자 : 네.〉

여기 지금 제주도에도 거 뭐 제주시도 가문 동별로도 당이 잇은디가
있을거라. 노형동이든 노형도 있을것이고.

〈조사자 : 예, 잇주 마씨.〉

또 뭐 아라동이면 아라동도 다 있을것시고. 뭐 그 동 두어개 합쳐서
잇는데도 있는가 모르지마는 제주 관래는 자세에 이 촌에는 다 부락부락
마다 잇어. 어느 부락도 잇어. 토산은 옷토산 알토산 해서 이거 상하토산
이거 지금 한 동네거든. 그러니 그 뭐 하나뿐이고 이 세화리리 가면 세화
리도 있고, 표선가면 표선에도 있고. 뭐 가마리면 이거 세화 1, 2리가도
당 있고, 신흥도 당 있고, 다 잇어. 당이 없는디가 없어. 어떤디, 거 알고
잇어? 당 잇는 줄?

〈조사자 : 예, 잇주마씨, 다〉

다 잇는걸 알아? 그렇게 거 부락부락 잇는 걸.

〈조사자 : 거, 무사, 마을에서 뭇 일 생기든 나 어릴 때 예, 다 찾아가
는 데가 한군데 잇지 않습니까?〉

뭇 일 생기는거 아니고 거 강 그자 강 뭐 무시거사, 당이연헌게 이 뭐
굿하는데 신방 당이주게. 신방당인디 옛날 거 뭐 미신인데 미신을 위하는
데 가서 뭇 일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뭇 몇 번을 가서 거기가 자기가
뭇 딱 해놓고 고기 가지고 가서 뭇 무슨 무슨 천기차 고찬이란걸 이 기지
웃기지 도창 가는거라. 거 기차놓고 행 가서 뭇 해. 그 박지 소시적이라고
한 거 거 가지고 가서 놓고 해서, 뭇 돈 가지고 가 놓고 뭇 해서, 뭇 잘 뤼
게 해 줘센 뭇 비는거라 말이여.

〈조사자 : 맞수다게.〉

그 다 잇는거 알지?

〈조사자 : 예〉

거 알아 몰라?

〈조사자 : 아 우리 할아버지네 할 때 예 거 우리 할아버지 성산포주게

마씨. 게서 봐났수다.)

성산포서 봐나서?

<조사자 : 예. 그 성산포 거 바당동네라부난 바당동네도 막 그런거 합니께.)

바당동네도 하고 어디든 다 있어.

<조사자 : 예. 나 막 어릴 때 봐나수다.)

거 지금도 다니는 사람은 다녀.

<조사자 : 예.)

건디 우리 동네 지금 이거 녹음시키지 말라게. 무시거 녹음.

<조사자 : 예. 그냥 말씀해 주십서. 편하게 손주들한테 얘기헌덴 생각 행 예.)

무시거. 거 토산당 잇다는거 알고 있어?

<조사자 : 예. 당 마을마다 잇주마씨>

들었어? 토산당이 무섭다는 것도 들었어?

<조사자 : 그런건 제주시에선 예, 그런거 잘 모르난 예>

제주시선 잘 몰라?

<조사자 : 예>

육지사람도 다 말해여. 이 뭐 북한 사람덜은 모르겠는데 남한 사람들은 거의 아는사람 많애여.

<조사자 : 아>

토산당이라면 제주도에 토산당이라면 무섭다는걸.

<조사자 : 무사 무서웁신고?)

무서운게 아니고 구신이 그렇게 도채비 구신 7치 나쁜 구신은 아니라. 도채비 구신은 못쓰면 나가 무슨 딸신디 쪼차가. 쟁 딸신디 잘 쪼차가는 구신이라.

<조사자 : 아~ 도채비 구신 마씨?)

응. 도채비 구신이라는게 그게 몰라서 그렇지 딸신디 잘 쫓아가는 것이고 마 당구신도 딸신디도 쪼차갈 수도 있고 아들신티도 쫓아갈 수 있지. 그러나 특히나 도채비 구신 딸신디 잘 쪼차가는거라. 왜 그런고 하니 도

채비는 여자를 그렇게 가까이 해서 그 성관계를 그렇게 좋아하는거라 말이여. 뭐, 실지가 이, 도채비란건 거 남편 어디 가부리면 가 와서 같이 눕나하여. 부모 가치 잘 때도 도채비 거 말에 들으면 그런 사람이.

<조사자 : 그런 얘기 들어본 거 같애마씨.>

들어봤어?

<조사자 : 예.>

남자가 어디 가부리면 도채비가 와서 옆에 눕나거든. 여자.

<조사자 : 예, 신발은 하난디 사람 발 수가 네 개랜 행으냉>

여자 옆에 오란 눕넨허여.

<조사자 : 예, 경 행 그랬덴 하더라구 예.>

근디 우리 당은 그런 거시기ㄷ진 엇고 그리고 도채비 구신은 떨들 못하여. 떨게, 떨자고 뭐 몰, 몰고기나 몰뺨다구가 최고란 말이여. 도채비 놀래는게 그래. 몰뺨다구 헤다가 몰까죽으로해서 옛날에 싹 그 우리말하면 대하문이거든. 그게 말이지. 올래, 올래어귀엔 딱 걸치믄 올래어귀엔 혼 말 알아지커라?

<조사자 : 그냥, 올래 입구 말하는거 아닌가?>

올래 입구를 말하는거라. 이 대문을 말하는거라 말이야. 도시의 대문. 대문 거 들어오는 옆으를 말하는 거라 말이여. 어귀라면, 이거 이 담덜, 이 어귀란 말이여.

<조사자 : 어기요?>

원래 어귀하면 담 뚫아올린데가 어기라. 전히 대반이 이렇게 있으면 으겨 지금 대문이고 으짱 대문 읍에 쌓그네, 겨믄 으기가 어기란 말이여 으게.

<조사자 : 아, 예, 알겠수다.>

갱, 거기다가 몰가죽을 헤영 걸쳐놔두면 도채비가 놀래서 안들어온단 하여.

<조사자 : 아, 예.>

안들어오는데 그게 뭐 수십년 같순 없거든. 몰가죽이.

<조사자 : 맞아마시>

씩어채져불고 뭐 어디 충 2져부리면 도채비가 들어와서 당장 침소를 한다하여.

〈조사자 : 예〉

그게 뭐 언제나 그 놈들 수 없는 거니까, 이?

28. 토산당 이야기

제 보 자: 부기선(남·75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토산2리 부기선 할아버지 댁

● 요약: 제주도 사람이 나주를 가서, 간 김에 영산에 들렀는데 처녀가 혼자 앉아 거문고를 튕기니 가서 보려 했다. 그 때 일본사람도 오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안개가 저서 산에 불을 질러 버렸다. 그런데 처녀는 온 데 간 데 없고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나왔다. 그러자 제주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배에 올랐는데 배에 산판이 있어, 처음에는 버려 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렇게 같이 온 귀신은 토산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 하루는 그 처녀 귀신이 올레소에서 빨래를 하는데 일본사람이 그 처녀를 보고 강탈을 해서 처녀는 죽어 버렸다. 그 귀신을 기린 것이 토산당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토산당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리지 않으면 넘어진다고들 한다.

그거 뭐 값이 죽으면 안, 안해주는디 그거.

〈조사자 : 아, 제주시서 여까지 와신디〉

거 동넛스람들도 나 이거 얘기해준다고 막 실어햐여.

〈조사자 : 아〉

나배께 그 나베크게 잘 곁는사람이 었어. 또 지금 현재론, 나만이 곁는 사람이 었어.

〈조사자 : 아〉

나 뭐 나도 뭐 본건 아니지만은 들은 얘기에서 곁는건디

〈조사자 : 예, 그렇게 막 말 얹거든 마씨. 그런 말이 없어지니까 그런 말 들어르 이까지 완 마씨. 제주시에서)

거 갑시 많이 이씨야 곶아 많이.(웃음)

〈조사자 : 예, 그 값 여기 많이 드셔...불편하신데(웃음)〉

그게 토산에 나가 든 바에 의하면 옛날에 거 아마 사람 나고 구신 난 거지 나 생각인디 건 사람 나고 구신 난거지. 구신 나고 사람 난건 아니여.

〈조사자 : 예, 맞아 마씨〉

지금 뭐 정치하는 것도 사람이 나고 정칠 하는 거지 정치가 먼저 난 건 아니란 말이여.

〈조사자 : 예.〉

대통령도 사람 나고 대통령 난거지, 뭐, 요컨데는 그렇지. 그러니 사람 나고 구신 난 거라 말이여. 사람이 이렇게 제주도서 많이 산다고 하니 구신이란 것은 알거든.

〈조사자 : 예.〉

알았써? 옛날에 이 제주도 사람이 옛날 육지 몽치대를 갔어. 몽치대를 갔단 말 알아들어?

〈조사자 : 몽치대?〉

못 알아듣지? 많이 배웁 가야되여. 몽치대 갔단 말은 흥년이 지나까 쓸 사례 갔단 말이라.

〈조사자 : 아〉

쓸 사례 갔단 말이라. 쓸을 사러 배에서 가서 사서 실어와야 먹거든.

〈조사자 : 맞아마씨〉

게니 뭐 것도 뭐 도 전체에 간 거 아니고 개인이 간 거지. 그 부락사람 들 대개 모아서.

〈조사자 : 예〉

육지 사러 갔는디 가서 뭐 어떤 판인지 모르지. 라주를 갖다허여, 라주를. 라주를 가 가지고 그 쓸을 사례 가서 쓸 사서, 어느 정도 사서 실어 올려고 하다가 또 뭐 구경이나 해서 오자고. 라주 거 영산이렌 현 산이 있

는 모양이라. 거 나 들은 바에 의하면 리주 영산에 구경이 좋다고 하니 구경이나 가자 허서 동넛사람들 허고 구경을 갖는데 아주 곱디 곧 아름다운 처녀가 거기 아주 상봉에 있다고 하시니 구경 가자고 허엿거든. 뭐 거기 기와집이 조그만한 거 짓어가지고 아담한게 짓어서 처녀가 혼자 안자서 뭐 무슨 뭐 거문고 트는가 뭐 하는가 뭐 안아서 논다고 하니까니 아 뭐 남자로서 거 모르는 호기심 가져가지고 가서 볼 건 스실 아니라게.

〈조사자 : 예. (웃음)〉

아 여자도 남자가 거기 앉아 있텐 하문 허면 보라고 할 거라 이.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아마 일본놈들도 여기 자꾸 들었다 낫다 할 때인 모양이지. 일본놈들 돌아댁긴 오래니까 여기. 뭐 올라 갈려고 하면은 아 그 우리 제주도말로 안개가 폭 썩워 분단 말이야. 폭 썩와 불연. 어? 폭 썩워 분단 말이야.

〈조사자 : 안개가 마씨?〉

어. 안개가 폭 썩와 불어가지고 아 그 처녀가 안 뵈단 말이야. 산꼭다리 못 올라가게 안개 폭 썩워 분단 말이야. 아 거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야. 게니 거 올라가서 그 뭐 처녀한테 말이라도 혼 번 해볼려고 했더니 호기심에 여기까지 아 제 가도 못 하니 어떻게 말을 할 것이여. 구경을 못 하니까니 에 구경도 못하고 춤 이상하다 곤는디 일본놈이 여러 번 땡긴 놈이라. 그놈이 여러 번 땡기다가 옛다 모르겠다하고 이놈으 산에 불을 질러 불졌다고 이 뭐 처녀가 앉아 가지고 조회를 부려버리니까 이 지나가는 무리가 불을 질러 분다고 불 팍 질러버리니까 이 산 탈 거 아니라게.

〈조사자 : 예〉

산 타가니 뭐 기와집도 타 부릴 거주게. 기와집도 타 부리고 뭐 산도 타 부리고 다 타 불겨주. 처녀도 타사불었는지 어떻하는지 타 부리니.

〈조사자 : 예〉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구랭이가 한 마리 나오더라야. 썩 기어나가는게 꿩드라 말이야.

〈조사자 : 예〉

거 이상하다 그자 되돌아와서 그 사람도 돌아오고 아까 일본놈도 가부

리고 뭐 집도 집도 어서저블고 아무것도 어서저블언. 산이 몬딱 다 타부리니까.

〈조사자 : 맞아〉

거 이상하다고 해서 와서 배에서 이제는 이 널 모레는 바람이 조면 옛날에는 골선이라서 바람 따라서 밖에 못가거든. 바람이 없으면 배 못나오거든.

〈조사자 : 예〉

바람 세노니고 하나까 이제 널 모리 바람이 올 거 같으니까 가자고 제 주도 가자고 가지고 하는데 아 배에 올라와 보니 뭐 난데없는 산판이 떨어져서. 산판이란 말 알아? 모르지?(웃음)

〈조사자 : (웃음) 낫할 때 쓰는 거꽈?〉

어(웃음). 알았쨌 이? 낫할 때 쓰는 산판. 낫할 때 쓰는 멩기칼 무슨 영 행 땡글랑하게.

〈조사자 : 칼 마씨?〉

어. 멩두칼이엔 흔거 칼이죽. 칼같이 생긴 거지게. 신들구.

〈조사자 : 아~〉

경하고 또 영행으냉 무슨 저 상아 접시 닳은 거에 담아서 무신 대쟁가 두쟁가 담아서 딱하게 대기면 따글랑하멍 둥그러 가는거 이쨌? 그쨌 낫할 때. 영행으내 영 흥그르당 땅하게 댓기주게. 영 종지 닳은 거 있고 또 무신 돈 닳은 거 두 개하고 해서 거 네 개라. 그게 올라간 이시니까 보따리 싸경 올라와 있으니까 거 이상하다. 이걸 뭐이라? 하면서 바다에 던져 부렸거든.

〈조사자 : 예〉

되니까 바다에 던져 불언. 아 그 사람이 아픈단 말이여. 아파서 깡딱 못한단 말이여. 이거 볼 수가 있어. 아 어디가서 으새 2트면 병원이 있주마는 그 때 병원이 있어게? 의원밖에 엇엇거든. 뭐 한의원 뭐 침구백이 없엇거든. 거기다니 아 안되쨌다고. 점치는 사람한테 갔어. 점치는 사람한테 가니, 아 그 사람을 알긴 한거지. 아 거 뭐 난데없는 귀물이 뭐 배에 올라와서 뭐 잇으니 뭐 몰로 던져 불엇다고. 난데없는 귀물이란게 뭐 아

거 산판 던져본 거밖에 없단 말이야. 아 거 이상하다고 거 뭐 땀에 던졌냐고 하니 잘못했다고 따져 거 신에게 잘 빌라고 빌어야지 그릇잖음 안준다고. 아 사람이 생사가 (칭취불능) 살기 위하면 뭐 벨 짓을 다하는 것이여.

〈조사자 : 아. 예〉

죽이겠다고 짝 돌르든 뭐 살려달라고 하든 살리지.

〈조사자 : 예〉

뭐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뭐 그 점치는 사람 해다가 잘 점쟁이 해다가 잘 하니깐 아 존단 말이여. 뱅(빙)이. 아 널 모레 바람 세 잡아서 가자고 하는디 또 보니 또 잇어, 배 위에.

〈조사자 : 아〉

하 이번은 건들지 말아야겠다고. 건들면 제주를 못 갈 것이고 아 몸이 약하면 못 갈거란 말이야. 못 가겠으니깐 건드리지 말아야 간다고 눈 진득 곱아서 뭐 잔뜩 곱아서 안 쳐다본 거라. 건드리지도 아니하고. 아 그래서 이제는 그게 저 성산면 그 온평리로 들어왔단 해여. 배가.

〈조사자 : 아~〉

온평리 배였던가 어딿 배. 온평리가 어딿 거 해영 들어오니까 아 거기서 이제는 이렇게 보니 구신이 제주를 세여늘려고 한 거지. 거 거 뭐 그 사람 앞에 뭐 의탁될려고 한 것도 아니고 새여늘려고 한 건데 것도 모르고 그 사람은 뭐 거 던져버린 거거든. 게 딱 오니깐 그 구신이 와서 구신이라고 이제 아마 구신 곧지 안다고 아마 안 거지. 알아서 이렇게 쳐다보니 토산에 아주 지형도 좋고 아주 명당지지고 존디라 말이야. 토산리 아주 존디라. 이게.

〈조사자 : 예.〉

이 남군에서는 몇 재 안가고 이 서구포하고 이 성산 사이에는 토산만한 디가 었어. 이게 생기지라고 허여 옛날 이.

〈조사자 : 생기지?〉

생기라고 하면 산이 살아 있는 데라. 땅이.

〈조사자 : 아~〉

이 지금 토산 저쪽 가마리 그 세화리만 가도 땅이 죽어 있는 데고

〈조사자 : 아~〉

신흥만 가도 죽어 있는 데고 여기 토산은 살아 있는 데라 말이여.

〈조사자 : 아~〉

이 산 죽은 땅에 샘 있는 데가 엇어 샘물 나는 데가. 〈조사자 : 아.〉 벨 라 없어, 샘물 나는 데가. 죽은 땅에도 샘물 나는 데는 산 땅 샘물이라 것이. 토산에는 샘물이 여러 군데 잇거든. 지금 여기 요 오름 서쪽으로 가면 요쪽 남쪽으로 나는데도 있고 북쪽으로 나는데도 잇거든. 물이 샘물이 나고 저쪽 가새오름이라고 해서 저쪽 오름에 가면 거기도 물이 나거든.

〈조사자 : 예.〉

이렇게 나서 지금 생가지 물이 난다고 하거든. 서귀엔 물이 나는 데가 엇어.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돌아봐도 서귀엔 가보면 〈조사자 : 예〉 만 오거든(청취불능). 그 표선 가는디도 매오름이도 쪼끔 물이 난다고 하는데 그 부분만 쪼끔 생가지. 다 그 서기라 (청취불능). 그래가지고 토산을 가야겠다하고 좋은 자리를 잡아야겠다해서 토산으로 그런 구신이 왔다하여.

〈조사자 : 예.〉

그런 구신이 와서 아 그게 정해 살아나가는 거지. 여기 와서 사는데 웃토산에도 샘물도 있지마는 아맹해도 바닷가만이 못하거든.

〈조사자 : 예.〉

뭐 싸는 좋아서 땅은 좋지마는 바닷가에 오민 여기는 그 전에는 바닷가에 물 쫄쫄쫄 허는 거는 다 생수라. 뭐 찐물이 아무것도 엇어. 여기는 다 생수. 지금도 그렇게 내림슬거라. 나 요즘 바닷가 안 가서 모르는데 뭐 여기서 쫄쫄쫄 허는 거 이렇게 먹으면 먹고 저기서 쫄쫄쫄 허는 거 먹으면 먹고 뭐 거기 거기 뭐 다 토산 안네는 생수라. 게니 요 지금 다리 아래 올리소 올리소 하거든. 거기가 지금 바다물이 싸며는 물이 좀 버뜨고 들어오며는 바다물이 들어 들어오면 물이 크고 해서 그 전에는 요게 그 바닷물하고 합쳐지질 안했거든. 그대로 돈물로다가 들었다 났다 하거든. 뭐 생수같이 이? 이렇게 하는데 거 중간에 요 사라호 태풍이 막 썰어부리고 그 전에 그 사라호에 돈 썰어붙었는디. 그래서 이제는 바닷물이 막 들었

다 났다 하느디 거기 올레소 가서 그 구신이 세탁을 헷덴허여. 세탁을 하
레 갔는데 종 돌고 말이여. 그 종이란 알지?

〈조사자 : 예.〉

종 돌고 아마도 구신이라도 거 거 보통 구신이 아니지. 종 돌려서 종
돌고 와서 세탁을 헷다하니 일본놈들이 넘어가다가 그 철통을 봐가지고
말이야 망완경으로 말이야 철통.

〈조사자 : 아~〉

옛날에 그 철통이라고 하거든.

〈조사자 : 예.〉

아 걸 딱 보니 뭐 큰 처녀가 이 저 세탁을 하고 있거든. 빨래를 하고
있으니 아 저놈의 처녀 나가서 좀 붓잡아서 뭐해서 간다고. 아 그놈의 배
가 와아니 종이 있다가 하 거 여의 배가 들어옵니다. 일본 배보고 여, 여
배라고 했거든.

〈조사자 : 아~〉

여배라고. 그 왜놈들이라고도 했을 거여마는 여배가 들어옵니다 하니

〈조사자 : 예〉

어디서 오냐고 저디서 옵니다. 아 빨리 촬영 담아야지 안 된다고 빨래
빨리 잘 촬영 담아서 도망가야지. 여배가 와 가지고 그 지금 왜놈들이 조
차 옵니다 하니까, 하나가지고 그것을 거 뭐 종이 지금 뭐 거 무신거 외야
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 뭐. 아마도 뭐 더우니 몸이나 감고 있다가 뭐 바지
를 입는 다는 게 한 착 가달에 뭐 바쁘니까니 입는 게 한 착 가달에 다리
가 양다리가 다 들어가고 이렇게 헷다하여. 옛날은 거 바지 굴이 널리지.
거 종이라고 해서. 알아져 종이?

〈조사자 : 예.〉 종이 모를걸? 잘.

〈조사자 : 갈증이 알주 마썸〉

갈증이 알아져? 여자 갈증이 알아져? 모르지?

〈조사자 : 아. 알주마썸〉

여자 갈증이 어떻게 입영 하는거라?

〈조사자 : 그 막 평퍼짐한거 아니파? 할머니들 지금도 입엄수게계〉

지금 거 어디 입는 사람이 이서? 엇어.

〈조사자 : 우리 할머니 입엄수다.〉

아니야. 지금 입는 사람 내 거 같중이 못 봐서. 같중이 옛날에는 이게 열영 벌렁 놓곳디 여자들 소변 볼 때 그대로 걸어서 소변 보거든. 이 굴로 그대로 이렇게 걸어서 한 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소변 보거든.

〈조사자 : 아~〉

이렇게 뭐 허리띠를 내리 우는게 아니라 이 아래가 상당히 퍼진거라.

〈조사자 : 예.〉

건디 웬쪽으로 으렇게 올려 가지고 으렇게 궁둥이 내와서 소변본단 말 이라. 한 쪽으로.

〈조사자 : 예.〉

깡 남자 같중이 아니라. (웃음) 모르지마는 같중이란게 그런 게 있어.

〈조사자 : 예.〉 몽고식이라 내 보는디 아 그래가지고 한 가다리 두 가 다리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깐 이제는 어찌 잘 행 벗엄 도망간다는 게 바로 요 당동산이라고 해서 으 스무실 뒤에 그 경로당 이섯지?

〈조사자 : 예.〉 요 경로당 있고 리스무실 잇었지? 바로 경로당 즈끄레 (근처에) 나무 이렇게 있는데 잇었지?

〈조사자 : 예.〉 거기를 그 때는 그 사람이 여기 안 살아가지고 뭐 (칭취불능) 거기를 가서 억트멍에다 숨었거든. 숨으니까니 이놈의 자식이 뜨래 와서 강탈을 해빚다 이거야.

〈조사자 : 예.〉

강탈을 해비니 죽었다 얘기서.

〈조사자 : 예〉

해서 위한 것이 거 신이니까니 아마 그 존경하는 사람도 잇었겠지? 그게 바로 토산당이 되부러. 토산당이 되서 그기에다가 뭐 했다가 한디 여기가 성당이 생기고 예기 잘 못 온디란 말이라 다 거기만 왔어. 게니 그 전에는 몰타고 간 사람도 이 옛날 그 질이 나기전에 해변가로 술술 돌아 땡겼거든. 지금 뭐 그 해안도로 한 부분으로다가 그 돌트멍 까시트멍으로 돌아 땡길 때 몰타고 가는 사람이 토산 안네 오며는 물을 내리지 안이면

아 거 넘어진다 하여. 뭐 갑자기. 물이 들럭해서 넘어지고 하니 그게 이름이 나분거라. 토산가면 물 통 가던 것도 어떤 양반도 물을 내려서 토산가지 아니면 고만 아맹이나 처부린다고. 이렇게 가지고 이름이 나가지고 토산당 구신 토산당 구신 하는데 그게 아마 구신이 배엎 구신이랴다 모양이라. 신이. 이렇게 되니 토산당 뺨이 토산당 뺨이 으렇게 하는데 배엎이라고 다 토산당 배엎이 아니라. 여기 지금 다녀도 뭐 그런 구신이 잇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옛날엔 그런 토산당 위력을 발휘했지마는 요즘은 뭐 그렇게 발휘하는 것도 없어. 믿도 안하.

〈조사자 : 예.〉

믿는 사람도 몇 개 있긴 있지만 토산에 뭐 삼분지 일도 뭐 한 십분에 일은 믿음시카? 안 믿어 안 믿어.

〈조사자 : 예.〉

우리도 지금 우리 어머니네 때에는 거 다니면서 우리 어린 때 떡도 얻어 먹어 저거 뭐 가서 그 토산당이 하는거 봤어. 봤는데 그 토산당이 하는데 가면 뭐 신방들 오고 뭐 하는데 가면 떡 주거든. 그 때 상당히 떡이 거 거 메물(메밀)로 만들어서 거 뭐 돌레떡이라는 똥글래미 만들거든. 겐디 그 때는 떡이 거 돌레떡 하나면 말이지 요즘 거 벨 고급 떡들도 안 바뀌준단 말이여. 그 때 맛으로서는 거 기가 맥혀. 우리 어린 때는 그 그렇게 힘들 때니까 그 맛이 그렇게 즈니까 요새 뭐 별거 쥐도 안 바뀌주지. 그거 맛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 그 이 모관이라고 하거든. 이 북군 지역을 대개 모관 사람들이 이 정의 모관 해가지고 허는데 토산당 구신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놀래여. 겐디 서구포 성산포까지 토산당 아이 믿은 사람이 있어. 내가 그건 다 알지. 왜정 때 깎지는. 내가 이거 열네 술인가 열다섯 술인가 이 토산당 토지가 일본놈들 와서 불질러 분건데 불질러 비서 그 때부터 안하거든. 그 때부터 또 어디 탄디가서 술작술작 하다가 안히고 지금은 뭐 가타부타 혼 사람이 일체 없어.

29. 도채비 이야기 3

제 보 자: 부기선(남·75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토산2리 부기선 할아버지 댁

● 요약 : 병거지 쓴 도채비는 꼭 손해를 입힌다는 이야기

도움을 주는 도채비는 상제를 출린 도채비 있을 때에 도움주는 그
<조사자 : 거 어떤 혹시 얘기 들은 거 있어났수과?> 상제를 출린 도채비
는 그 그게 뵈인다 하여. 그 부인의 눈에는.

<조사자 : 아~>

그 뭐 병거지라고 하며는 그 패랭이 닮은 거 큰 거 이렇게 병거 써서
이거 이렇게 큰 거 이?

<조사자 : 예.>

그거 써서 온 도채비는 절 때 손해시킨다 하여. 뭐 이익 주다가도 혼
번 꼭 온다하여. 혼 번 탁 틀어지면 탁 잡나 하여. 좋을 때는 좋다가 혼
번 사람이란게 입에 문 새도 경헌디 아 그 마음이 변치 아일순 엇거든. 어
떤 사람 불문하고.

<조사자 : 예.>

혼 번 뭐하면 이게 뭐 맛 조은 거 헤여 먹을 때는 임식해서 따로 놔야
하거든. 도채비 구신 즉새. 거 상제로 툄린 도채비는 갖다줘도 그대로 그
만 사라져부러서 손헌 안 시킨다 하여.

<조사자 : 예.>

그런 도채비는, 사람도 그렇게 접근을 안하고 그 병거지 쓴 놈은 절대
그 남편이 어디 가 불어도 뭐 여자 앞에는 꼭 덤빈다 하여. 같이 와서 성
관계 하는 거 모양 같이 눕나 하여 와서.

<조사자 : 예.>

그 도채비가 그 그런 사람이 우리 웨 아는고 허니 여기 그 우리 연령

쫄쫄 흐 서너나 우에 사름덜이 결혼해서 그전에 사는디 그런 사름덜 앞에 결혼했거든. 요 신흥가면 도채비 구신 잇는 데가 잇었어. 그전에 거기 간 사름이 얘기하기를 아 그 남자가 어디 가불면 자기네끼리 아장 얘기하는 거거든. 잇거든. 재들끼리 우리 영 아정 우린 좀 어리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어리다고 흐 열대여섯 열여섯때 어리다고 저것들 들어서 뭘 알겠어하고 얘기하는 거주마는(웃음) 우리도 알거든 곁. 아 그렇게 오라서 늙나고 어디 가부림 오곳 그렇게 하고 그거 보니 확실히 아마 그렇게 아니면 자기네 그 친구끼리 이렇게 아자서 얘기할 수가 잇어게. 얘기한단 얘기한단 말이여. 그렇게 한다고. 다 얘기들 허여. 아마도 이 그런 일이 잇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영 원 없는 건 아니고.

30. 이순신 장군 이야기

제 보 자: 부기선(남·75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토산2리 부기선 할아버지 덕

- 요약. 이울곡이 자기 밑에서 공부하는 이순신을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떠나 보낸다. 이곳 저곳을 떠돌던 이순신은, 원랜 살아 있으면 자기 보다 더 일찍 임진왜란을 평정시켰을 인물들을 만나게 되지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죽이게 되고, 그 원한으로 임진왜란에서 화살을 맞고 죽는 다는 이야기.

옛날에 그 쌍놈 양반을 상당히 구별해 가지고 이 사름이 상당한 자격 잇는 사름이라도 쌍놈은 안 썻거든 절대. 으 스투미 자격이 어서서도 썻썻단 말이여 양반을.

<조사자 : 예.>

그렇게 썻썻다 하는데 거 옛말이주 나 들은 옛말인데 거 뭐 실담인가

뭐 뭐 무신 것도 모르고 그자 무신 옷는 소리로 들은 거지.

<조사자 : 예.>

젠디 옛날 어떤 큰 집안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조사자 : 예> 아주 장군이라. 그것이 임진왜란 나면 삼일에 평을 시킬 사름이라. 삼일에 평란 시켜가지고 딱 (칭취불능) 지금부터 삼일이면 해결시켜볼 사름인디 아 그 사름이 살다보니까 이젠 남자가 죽어붙어서 과부가 되씨. 과부가 되니 이젠 부잣집이고 아마도 여자도 부자집에 잘 출리면 고와 입석에도 얼굴이 난 거니까. 아 거 종이 여자한테 굴이 살자고 해씨. 그 딸 딸쨍한 장군이 장군인징 모를꺼라 그 때 그 사름도 신체만 좋았지. ㄱ치 살자고 하니깐 하 어디 이럴수가 있느냐고 하 그 뭐 남편도 죽어부리고 뭐 그리나 저리나 같이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안 될꺼 뭐 있냐고 하니까 하 그 신체에 몰려가지고 도저히 이기질 못하겠거든. 허락을 아니할려고 해도 아니홀수도 엇고 이게 뭐 말로 못하면 뭐 힘에 몰 리가 원체 장군이니까 몸집도 컷지. 요즘 ㄱ트면 혼 너댓 살난 에하고 저 사람네 ㄱ튼 체격이란 말이야. 그러니 뭐 너댓 살난 아이가 이길 수가 있어게. 아 그리니 아 남편 죽어붙어서 얼마 안 되니 우리 삼 년이나 츠려동 그 때라건 우리가 합방을 써 ㄱ치 살자고. 이제는 홀 수가 엇다고. 옛날 예로 봐서 아 그러라고 해서. 그 때동안 참아준거지. 거 돌쇠 장군이 삼 년만 기다린거라. 삼 년만 지나면 내 각시라 해서 데리고 살자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고. 내가 먼저 굴을 말 냉중 굴아졌던가 응 그게 아니고 음 그건 그렇고 거 이순신 장군 얘기를 흘려고 하는데 내 안 곤다보니 먼저 굴을 말을 냉 냉중 굴을 말을 먼저 굴았구만. 그 이율곡 선생한테 배웠다 하여. 이순신 장군이 공부를 ㄱ했다하여. 이율곡 선생이 조선팔도를 다 돌뎅긴덴 하여 밤에는. 이율곡 선생이 알았다하여. 하 우리나라에 몇 년뒤에는 임진왜란이 닥치는데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해서 뭐 백두산 ㄱ튼디나 지리산 ㄱ튼디나 뭐 소백산 ㄱ튼디 뭐 저런 뭐 한라산도 올라가고 뭐 다 조선팔도 강산을 다 돌아뎅기면서 명산을 가서 신선들 앞에 가서 아마도 물엇던 모양이지. 거기 그 지금 이순신 장군이 어릴 때도 공부를 했다하여. 거기서 글을 배우는데 ㄱ덥 살인간디 아 선생이 밤이 되면 세수하고 뭐 갓 뎅기 출리고 거

뭐 상투니까니 으게 모자 쓰는 게 맹기라고 하거든. 그 다음 뭐 탕건 쓰고 그 입자 쓰고 간뱅이 출려서 나간단 말이야. 정서하고 나가니 도복입고 나가니까 이거 이상하다 선생님이 옛날엔 밤글을 읽었거든. 낮에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거 서당이니까 이 글 읽다가 밤글 읽고 또 새벽글 읽고 이렇게 하거든. 요즘 같이 뭐 낮에 갓당오는 학교 그 뭐 요즘도 뭐 어디 학원 밤에 가잔여?

<조사자 : 예.>

어 학교에서 밤글 읽거든. 거 서당에서 이상하다 그거. 하루쯤 해서 가만히 보니 또 그렇게 나간단 말이야. 아 가만히 자는춧롬해서 보니 선생이 아 그렇게 세수하고 와서 갓맹이 쓰고 도복 입고 해서 와가지고 불을 키어가지고 딱 책을 펴놔서 본단 말이야. 보다가 딱 나간단 말이야. 나가는 즉시 불을 딱 끄고 말이야. 에엣 뭘 읽었는지 이제 불을 켜서 본단 빨리 불을 켜가지고 이제 나가분 뒤에 이제는 봤어. 책을 딱 펴논걸 보니 아 책을 보니 아 책을 보니 아 축지법을 통해진단 말이야. 마음대로 뭐 세상을 왔다갔다 해진단 말이야. 에잇 조차가보자 흥번 선생 뒤를. 아 거 조차가는 법을 배워진단 말이야. 그 당장 통해불었어. 조차가 뒤에 조차 덩기면서 보니 아 저 사람 팔도 강산을 다 돌아댕긴단 말이야. 명산을 다 가서 보니 신선들이 허고 바둑만 떡떡 두고 있으면 아 거 이울곡 선생이 딱 풀러 앉아가지고 업드려서 아 몇 년 뒤에는 아무년에는 임진왜란이 닥치는데 걸 어찌면 좋습니까. 게서 신선들 앞에 묻거든. 그 한참 바둑 두다가 말하기를 거 대결시킬 사람이야 잊지마는 거 서민이라서 써주지 안애고 이순신 베키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보내거든. 이순신이가 들으니 계난 것도 어느 이순신인진 자기도 모른거라. 자기가 이순신이지마는 모르고 선생도 이순신이라고 해서 제자가 이순신이 흐나 잊지만 뭐 이게 뭐 그놈인가 저놈인가 모른단 말이야.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돌아가지고 딱 보니 아 거 조차댕겼단 말이야 이놈이 이순신이가. 하 조차댕겼어. 아 으놈이 기로구나. 으넝 살이지만 이놈이 틀림없다. 너 널 아춤이 랑은 가지말고 냉중까지 기다려 있으라고. 이순신에게 이렇게 하니 아춤에 글 읽당 새벽 달 어스라니 너 가지 말고 좀 있으라 하니깐 아 으놈이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옛날에 그 뭐 으세같으면 우등상이지. 우등상이지 마는 거 강 주카부덴 아 강이엔 하든 우등상이주게. 아 거 주카보덴 으것 만 잘 곶아주면 주카부덴 다른 놈들도 두어개 기다fut어. 기다리니까니 아 뭐랜 하는지 모르거든. 너 일로부터 나가라고. 오늘 이후로 나가가지고 너 몸대로 땡기라고. 어 다 배울 거 다 배웠다고 다 배워시니 그 쯤 통해서 배울거 다 배워시니 필요없다고. 너대로 가 땡기라고. 아 게서 이제 나오려고 하니 다른 놈이 잇다가 거 거 엇들을라고 한 놈이 있어. 선생 뉘 난 어떻게 좋습네까 하고 보체서 물으니까니 아 이젠 윈 보니 임진웨란에나 강 윈 쫄병으로라도 곧 죽을 놈이야. (웃음) 곧 죽을 놈이야. 아 이거 보니 뭐엔 그 말도 홀 수가 엇고 아무연대거든 아무쪽으로다가 피하라고 그래서 글을 딱 써줘서. 써주니 아 그놈은 임진웨란나니까 이제는 그 쪽으로 선생이 가라고 하는 줄 알았어. 그쪽을 피하라고 써준거란 말이여. 가니깐 단발에 맞아서 죽어부렀단 말이야. 그 쪽을 피해심 살건디. 선생말대로. 게난 그 뜻이 그렇게 어려운 거주게. 아마 이렇게 혼 거지. 서쪽으로 가라하든 아마 동쪽으로 가지말고 서쪽으로 가라하니 동쪽으로 가뻐던 모양이지. 그 씨노니까 동서를 다 씨노니까 이 죽어부리고 그 다음에 이순신이 그 돌아땡겨 방향 방향해서 돌아땡기는데 바로 아까 그 부자집이 그 돌쇠라는 종을 드랑 살닷는디 남편이 죽어부리니 상뎡히 그 몬저건 얘기 혼거고 그 7치 살자고 이렇게 하니 삼 년동안 기다리라고 혼 건 얘기한 거난. 그러난 겐디 아 고민을 여자가 하고 잇엇어. 삼 년은 다 돌아와가고 아 뉘 모래 삼 년이 지나면 그놈은 돌췌놈하고 7치 살아야 뉘었니 고민을 하게될 거 아니야.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룻잠 무슨 거서 꿈을 꾸게 되는데 남편이 딱 나와가지고 내일 혼 오십이시가 되면 이 앞으로 이순신 장군이 지난다고. 이순신 장군이 지나니까니 그 벵이 이 사람이 돌쇠 장군을 칠 사람이 없다고 그 사람벵이 없다고 그 장군벵에 칠 사람이 엇으니. 오미시되영하든 한 미씨에 넘어가니 오후되는거지게. 넘어가거든 그 사람을 잘 어떻게 붙잡아서 잘 맞이해 드리라고 그 사람벵에 칠 사람이 없다고. 하 묘하단 말이야 꿈이. 하 이상허다 이제 여자가 춤 여기말로 몰래 나와서 매일 매일 기다린거라. 그 슝 넘어갈디만. 어

편 스름이 그 그 때는 뜸뜸이 혼자서 살았던 7라게. 게니 사름 넘어갈 때
 만 넘어가는데 찰림새가 허 좀 틀렸지. 거 뭐 장군이니까 열다섯술이라도
 컸겠지 아마. 사름이 거 보통은 틀렸주게. 거 뭐냐 아이고 장군님 와서서
 이순신 장군님 집에 와서 저 차나 한 잔 들르고 가십센. 야 이거 괴이한
 사름이 다 있다고 나를 아니까니 이거 춤 원 이순신 장군이라고 나를 아
 니 벨 여자가 다 있다고. 그래서 거 안다고 가서 차 혼 잔 주니 먹고 뭐
 술 혼 잔 주니 먹고 이젠 과천하게 예기 뉘었다 가십센 허난 아니라고 나.
 가겠다고. 아닙니다 뭐 그런저런 일이 있습니다고 해서 토파를 해서 종을
 드랑 사는데 사실은 남편이 죽어붙이니까니 종이 나하고 7치 살자고 겁
 탈 흘려 즈꾸 돌려드니 내가 살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방비해 줘
 똥 가십서. 아 그런일이 잇느냐고 그런 어처문 남편 꿈에 꿈에 시뻐가지
 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까짓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 뭐
 아 축지법 다 하지 뭐 장군이니까 칼도 뿔도 셋던 모양이라. 그까짓거야
 문제 없다고 하거든. 이렇게 앉았으니 저녁밥도 안 해주고 명하니 아갓다
 가 그러치말고 평풍 뒤에다가 숨어십서 경. 왜 그러니까 거 숨지 아니하
 며는 신체를 보건데 그 사름하고 장군님이면 맞지를 앉습니다. 숨어있다
 가 어떤 처단을 내줘야지 그렇지 않음 처단 못합니다 하거든. 그렇게 그
 뭐하냐고 허니 아 거 내려올라고 하면 봄 혼 10시나 되영 요즘 7트면 내
 려오는데 우레 소리가 우릉우릉 나고 빗방울이 흐나씩 똑똑하고 바람
 람이 킁킁킁 불명 내려온다고 갱하민 내려온다고 하니 그러나 그거
 보건 내 참 (청취불능) 말이야. 아 그러나 할 수 엇이 그 여자 말 들어서
 이렇게 방에다 평풍 이렇게 친 평풍 뒤에다 숨어서. 숨어 잇으니 하니카
 그 우레소리 나고 뭐해 해가니까 숨어서. 그 우레소리나고 빗방울이 딱딱
 떨어지고 바람이 썩썩 불어가니 썩 들어온단 말이여. 들어오니 아니고 낭
 군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모시지 아니면 아이 된단 말이여. 뭐 몸허락은
 아니 해주마는 모시니까 영 와서 술을 아마도 많이 해놔다가 줬던 모양이
 라. 게니 여긴 뭐 무슨 사발인가 뭐 그릇으로 이렇게 먹지만 육지는 남통
 잇잖여. 거 남통 알아져? 남통. 나무로 만든 술통이라고 해서 여기도 그
 전에 그 육지서 온 거 백이 여기선 별로 안 만들어서 제주는. 그 뭐 이렇

게 그 육지가면 동장 우트로 멘 동장 거 정 멩기는거지. 것도 수통식으로 만드는데 요로코롬 만들거고 나무로 다가 남 널해가지고 이렇게 으만씩 한거 딱딱 붙여가지고 다 동그락하게 멘든거라.

<조사자 : 도시락 ㄱ튼거 마시?>

어?

<조사자 : 도시락 ㄱ치 이렇게 들고 찬찬이 해 가지고 뭐 반찬 넣고...>

아니 그런게 아니고 나무로 으렇게 부찌고 으렇게 부찌고 해서 동글랑 하게 만든거. 나무로 돌아가명 부짱 을로 대로다가 딱 대 이렇게 대서 대로 딱 띠 둘러붙이면 딱 그것이 맞아서 물도 안 세나가.

<조사자 : 양동이 추룩...>

양동이처럼 만든거지. 어 양동이처럼 만든거. 수통이라고 해 가지고.

<조사자 : 술잔 아니 마시? 술잔?>

아니 술잔 아니고 통이라. 막걸리 받으러 갈 때도 육지서 그 통 가져강 받아와.

<조사자 : 아 예 예. 막 큰 거 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 게난 작은 거 으만한 거 가져강 받아오 거든. 육지선. 막걸리 받으러 갈 때 옛날엔 요즘은 그 주전자지만 주전자도 어린 때 으만한 거 가지고 가서 하면 한 두어되 들거든. 거 가지고 가서 술 사와 거 촌에서...거 막걸리 통이라 해서 막걸리 통 중간에 크게 이 서나. 예라 그래가지고서는 안 되겠다고 또 가서 혼 술을 노니까니 아마도 방은 넓었던가봐. 탁 나가는 걸 나오는 걸 탁 붙잡앗단 말이여. 혼 짝으로 술 먹다가 딱 하여 술 한 짝으로만 (칭취불능). 보통 기술이 아니지. 갱 하난 안 되겠다고 이게 기가 죽어선 안 될 것이고 확 평풍(병풍) 건어 자치면서 예잇 이 짜식 나쁜 짜식이라고, 이 자식 쌍놈이다가 끝까지 지랄한다고, 양반에게 너같은 자식이 어딴냐고 하니 옛날은 쌍놈이라고 하면 상탱히 기가 죽었거든. 기가 죽으니 양반한테 들면 고개를 이렇게 두른단 말이여. 쌍놈이라고 막 야단을 쳐서 욕하니 이렇게 두드니까니 미안해서 지도 그렇지 안 하시며는 뭐 이 짜식 할 거주마는, 이렇게 하니까 이

그 때는 칼 뽑아서 탁 모가지 쳐부러던 말이여. 모가지 치니 모가지 딱 그 쳐지니 이놈이 그 지붕 딱기 서서 올라갔다 하여. 모가지가. 시체는 따로 있고. 그 으자는 호솔 준비해 놔뒀어. 준비해 놔뒀다 모가지가 딱 그차정 올라가면서 이러가니 올라가니 이순신은 겁이 나서 그 질로 뛰어나갔어. 뛰어나가서 가가니 딱 모가지가 올라오면서 말하기를 "네 이놈 이순신이 가면 어디를 가겠느냐고 나 모가지 그차동 가면 어디를 가겠느냐"고 하니 겁이 더 낫겠지. 도망가고 그 으자는 재를 해다가 탁 그 모가지에다가 쏟아부렸어. 쏟아부니 모가지가 와서 또 부트려고 하다 또 못 부터어. 못 부터서 그건 그냥 나가부런. 나가분디 이순신은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거지. 그 모가지 그쳐서 나가면서 이 말을 하니 이 아침 붉은 뎨 눈두렁을 가누니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작대기 짚엉 감켜든. 아 그 할머니가 멀리 가돌(가지) 아니하니 어지러와서 도망을 못 가겠단 말이여. 아 그 할망이거 딱 그디 이렇게 밀어노코 딱 도망을 가가니 그 할망이 말하길 아이고 으 녀석 으 이순신이 날 밀어서 눈에 꼭 뿌려져고 가민 어딜 가겠느냐고 너 오늘 스오시가 전명이라고 이러거든. 도망가면서 들으니 아 으거 이상하던 말이여. 날 모르는 놈이 스람(사람)이 없고 이름은 다 아니 이상하다. 가서 이제 그 할망신디 간 탁 이젠 모가지질 잡았어. 잡아가지고 어그러면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하니 내가 뭐 알게 뭐냐고 하니 칼로다 찢러 할머니를 죽였다고. 내가 뭐 극도에다 지아틀렸어 죽였다고 애길 해 달라고 하니 살릴라고 든 할머니죽. 건 게 산신 할머니. 얼굴을 보니 참 이갑다고 죽는게 아까부니 내가 널 살려주겠다고 살려줄거니까 그 추룩 알아서 나가 하는데로 들으면 살 것이고 그치 아니하면 못 산다고. 오늘 스오시가 되며는 이거 뭐 도채비 닳은 것이 모가지 쳐들고 도망오지 안엿냐고. 그 백두산 아무디 가면 팔 신선이 아자가지고(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다고 바둑을 두고 잇으니 그 앞에 가서 꿇여서 엎드리라고. 그 수 백이 다른디는 살 디가 없다고. 그 재주가 신선 이상 재주라고. 팔 신선 이상 재주 7 겨노니 살 수가 없다고. 아 그렇게 혼단 말이여. 아 그러냐고 해 가지고 미안하다고 해서 할머니 일러 세워 둥 도망을 갔어. 거 뭐 기술 축지법 해서 백두산 가가지고 딱 가보니 팔 신선이 아자서 바둑을 두고 있어. 이제

딱 엮드려 가지고 이제 살려주십서. 쟁 이렇게 흐나가 쳐다보더니만 그대로 바둑만 두거든. 죽었든 살았든 바둑만 뒀. 하 나는 죽었구나 맹개 종신이 우레 소리가 춤 거기서도 나고 흔깨도 하고 춤 빗방울이 똑똑 오면서 바 바람(바람)이 바람이 너슬너슬하게 세계 불어가거든. 신선이 하나 있다가 저거 살려주자고 저걸 죽여부리면 우리나라 임진왜란 나건 처단할 사람이, 홀 사람이 없다고 저걸 죽여 부리면 안되니 살려주자고 그러니 아 그러자고 해서 다 여덟 신선이 다 해서 이젠 팔 공주 들여와서 딱 오라고 해서 뒷거든. 이놈이 딱 내려 오더니만 신선 앞에 와서 딱 꿇여가지고 아 거 이순신을 내달라고 하거든. 안된다고 가라고 벌써 죽은이는 죽었으니 까 가라고. 아니라고 나를 거 해친 그놈을 내가 내 쳐두고 가겠다고 막 허니 안 된다고 하니 선생님을 치고 나가라고 선생이 아니면 팔 신선을 쳐두고 갈껀디. 하늘에 가서 하늘에서 벼락(벼락)을 빌어가지고 내려왔어. 벼락을 빌어와가지고 벼락으로 때려두고 갈껀디. 팔 신선 선생이니까니 치지를 못 하는거라. 치지를 못 해가지고 그대로 돌아가다가 이놈의 할미가 아니라시른 꼭 잡을껀디. 그놈의 할미때메 못 잡았다 꼬부랑 할망(칭취불능). 그 할망을 이젠 벼락으로 가서 딱 쳐붙고 갔다하야 그게 베낭으로 쳐부니 그 할머니 죽을꺼지. 어떡해. 구신이라도 별 수 없지. 쳐 죽연가부니까 이젠(칭취불능) 거의 다 죽었드라 해 지가. 놀래어가지고 쟁 그 팔 신선이 살려봐가지고 이제는 가라고 해 가지고 보내니 그 다음은 원 돌아댱겨도 겁이 나서 어디 돌아댱기는거 상뎡히 겁이 난단 말이여. 아 거 알았보니까니 그거 삼일에 임진왜란이 나면 편한 시기 숫자렌 상뎡히 억울하단 말이여. 죽인게 그까 그까짓 여자 흐나 말 들어가지고 내 죽인게 상뎡히 억울하단 말이여. 아 국가를 안정시킬 사람인데 걸 해췌단(죽였단) 말이여. 아맹(아무리) 쌍놈이라고 해도 안뵈는다. 돌아댱기당 보니 여기서 ㄱ트면(같으면) 내창(실개천) 내창 빌러 해서 돌로이 돌로이 층을 심어 논 사람이 있어. 내창 빌러에다가 거 콩을 심어논 사람이 있어. 어 많이 심어 놔신게 거 이상하다 그 동네 가서 이 콩 여기다가 누구 심어놔느냐고. 그 밭에 누구 심어놔느냐고 밭이랜 굴아(말해). 이 다른 사람들도 굴을(말할) 때 내창 빌린 디 도로 위. 쟁 요집에 사는 아무가 집에 사는 중

이 거기 콩을 심어왔다고 굴아. 그러냐고 하면서 그 집에 찾아가(찾아가) 보니 그 종이 없어. 어디갔냐고 하니까니 산에 나무하러 갔덴. 산에 츠자 강 보니 나무 게 딱 질머만 지게에 그냥 지게 자루만 그디 뒗해두고 편한 한 들 위에 즘만 쳐 잠거든. 총각 머리에다가 거 뭐 머리도 안 감고 행 자 니 니가 달달 털어지고 잠잠서. 딱 꿩여가지고 잇을 밖에 별 도리가 있어. 흐쌀(조금) 기술이 자기보다 뛰어나니 어떡해. 딱 꿩영 이젠 옆드려 이시 니 한 몇 시간 이시니 일어나가지고 “허 좀 잘жат네.” 하면서 일어나. 자네 이순신이 어찌 왔는고 하니, “아이고 그게 아니고 그자 이 다음 아무년도 나면 임진왜란이 닥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래 왔 습니다.” 고하니 “그래? 거 뭐 우리는 천인이라고 써지지 않앤 별 수 없고 쌍놈이라고 안 써주니 별 수 없고 자네백에 더 있은가.” 아 이렇게 했거 든. 그나 “그 때 그러면 협조라도 해 주십서” 하니까니 “여기 써주면 협조 해 주지.” 이렇게 헨 가부린단(가버린단) 말이여. 가부리니 그게 팔개월만 에 (청취불능). 그 장부는 보통이 아니지. 어 나무짐 털어서 지 즘 (청취불 능).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니 자기보다 탁 위에 사롭이니까 뭐 어떻게 뭐 양반이라고 할 수도 없고 춤 없드린다니 별 다르겠어.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 또 도새장군 죽여부는건 상텡히 겁이 난단 말이여. 겁이 나가지고 어디가도 춤 침착하게 땡겨야지 그렇게 경솔하게 할 생자 이 없었어. 무인도를 한 번 가보자고 무인도를 가보니까니 하 어떤 팔 척 장군이 있다가 아 이순신 자네 잘 왔다고 이렇게 한 단 말이여. 아 거 어 디 서양 장군인디 하 나를 가는디마다 이런 사롭들은 다 아니까니 참 보 통이 아니라. 거 팔척 장군인디 이거 뭐 그 사롭한테 들어서는 뭐 도저히 애길 (청취불능) 없어. 그 사롭이 말하기를 자기 마누라 데리고 와서 거기 사는 사롭이라. 팔척 장군이 왜 그러는가 모르게 자기 아버지가 여기 철 련(천년) 먹은 구렁이었다는 거라. 구렁이가 잇는데 그게 지금 조화를 부 려가지고 사롭으로 변동해서, 지금 자기 아버지가 그한테 가서 죽었다고 게 내가 원수 부리러 저 놈 삼철련(삼천년) 묵은 구렁이를 치러 왔는데 느 시(도저히) 치지 못하겠다고 힘이 2타노니까(같기 때문에) 느시 치질 못하 겠으니까 저걸 좀 협조해 달라고. 야 내가 그걸 협조하다가 또 어떤 봉변

이라도 닥치지 아니 할 건가. 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여. 걸 협조해서 그 구랭이를 죽였다가 이제 어떤 봉변을 당하면 어쩔꼬 무서운거야. 협조를 안해주겠다고 해보면 그 장군한테도 죽게됐어. 아 이거 뭐 여기도 무섭고 저기도 무섭고 다 무섭단 말이여. 아 우선 닥치는 일이면 협조해 주겠다고 협조라는게 어떻게 그리 협조를 해 줄거냐고. 그렇게 말고 우리가 널 한 사오시 되면 가서 씹나고(싸운다고), 씹는데 공중정(공중전) 한다고. 게다가 이건 평제(평지)에서 씹는게 아니라고 공중에서 싸우니 철련목은 구랭인가 뭐 삼철련 먹은 구랭인가 잇는디 공중전을 하는데 공중전을 해 가면 그 때는 한참 서로 공중전 허다가 이렇게 서로 뭐 똥싸움 허듯이 이렇게 겨누어서 딱 헛을 때에 헛점만 보는거지. 겨누어서 잇을 때에는 내 이놈의 구랭이야 해가 지고 혼 번만 큰소리로 불러달라고 불러주면 그거 누가 그 마인도니까니 어떤 무엇인가를 불러는 것은 헛점을 뒤서 비끗할 때는 치겟다는 거라. 그러나 공중전을 벌리는 것을 보니 그야말로 무섭게 하거든. 자기 같으면 뭐 한 번에 아사부리거든. 무서워서 도저히 불를 수가 없어 안 불렀어. 자기가 보니까 오줌 쌀 정도라. 하 이거 안 불르니 왜 안 불렀냐고 하니 하 무스와서(무서워서) 도저히 불를 수가 없더라. 그래도 니가 일개국의 장군이냐고 어 오늘 가서 불러내라고 널 가서 불러내라고 했지. 오늘 저녁 널 가서 불러 내라고. 널 가서 불러주지 않으면 좋지 못 할거라고. 그러나 아 널로 가니 또 역시나 못 불렀어. 이거 뭐 도저히 못 불르니까니 와 가지고 얘기 하기를 무스와서 못 불러하니 삼일 째는 가서 안 불러주면 난 널 쳐두고 가겠다고. 우리나라엔 지금 국난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내가 안 가면 지금 거 곧 항복하게 됐다고. 게니 널 안 해 주면 내가 너 쳐두고 가겠다고 내 너 쳐두고 너라도 죽여놓고 가겠다고. 하 이거 뭐 참 무스운 행편(형편)이지. 너라도 죽여불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 약속을 해 가지고 씹는걸 보니 뉘게 무습기가 짝이 어서 무습단 말이여. 그러나 안 불러주면 오닐은 자기를 치겟다고 하니 뭐 이거 도리가 없거든. 한 번 부른다고 그러니 그 놈의 구랭이가 그 짝으로 이렇게 도니 탁 쳐서 죽인단 말이여. 죽여서 처치해 분단 말이여. 아 고맙다고 와서 고맙다고. 아 그러면서 나는 우리나라에

국난이 알다시피 나가지고 하루 빨리 육시가 바쁘게 가야한다고. 게니 우리 처를 맡아 달라고. 우리 처를 맡아가지고 데리고 살았든 어떻게 살아 달라고 맡아달라고, 데려가 살던 몸대로 하라고. 이렇게. 참 이것도 무서운 일이라 말이야. 남의 처를 갖다가 산다는게 이게 게다가 뭐 (칭취불능). 나 못하겠다고 했어. 못 하겠다고 하니 그 각시도 거 날아가지고, 하 살려 달라고 이순신 장군한테 막 매달렸단 말이여. 아 그 간다는건 안단 말이여. 게니 자기는 그 이순신 장군이 안 맡아주면 자기는 죽게 됐어. 게니 아 먹을 것도 없고 그거 사람이 죽게 돼니까니 자길 7티(같이) 데령 살던 뭇하던 맡아달라고 해도 안 맡아주겠다고 끝끝내 거절하니 자 이게 우리 아버지 원수 7티 갚았는데 그추록 하였는데 각시를 안 맡아준다고 죽일 수는 없고 할 수 없다고, 각시를 죽여부러야겠다고. 각시를 칼바닥으로 콧 처저 죽여부러버든. 이순신 장군 앞에서 뭐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데 죽여부러니 그대로 그 나왔어. 이순신 장군이 나와가지고 몇 해 후에는 이순신 장군이 이젠 임진왜란이 닥치니까니 그 전쟁에 참석을 하는데 그 말이 있어. 그 그 여자가 서양 장군 처가 까치로 변해가지고 그 나를 살려 주지 아니 got으니 까치로 변해가지고 화살 총살이 들어오는데 막 까치가 들어서니까니 그 화살을 언제나 그 갖혔는데 이순신 장군도 기술이 갖혔는데 그놈의 까치를 갖히다 보니까니 못 갖혀가지고 헛점도 까져가지고 죽었단 말도 이 말도 있어. 게 어떤 말인지 몰라. 거짓말. (웃음) 그런말도 이서.

<조사자 : 아.>

그게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 말도 들어보니 것도 헛살(조금) 일리가 이서 보염(보여서) 내가 얘기한거.

31. 당팻당장 3

제 보 자 : 김창문(남·68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토산1리 마을 회관

- 요약 : 토산에 당팻당장이라는 힘이 센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옆 마을에서 곡식을 꾸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 당팻당장은 그 강도를 크게 혼내주었고, 혼이 난 강도는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힘이 바로 그 당팻당장이라고 한 분을 이겨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영감이었었는디, 그 영감이 여기 토산에 사람이, 그 때 막 그 토산에뿐 아니고 표선면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을 당시에이, 가차운데 저디 므냥(모양)으로 나무가 이따만이 아릅드리 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잇다고 험디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은 농사를 지어사 몰그런 험 것도 잇지만은 방에가 우선이여 방에(방아), 방에 혹시 아는가 모르겠네, 방에

<조사자 : 방아 찧는 거>

<정의숙 할아버지 : 고기(?)방에가 아니고 올케 춤 세, 세발 뿔려진 이렇게 해서 서발 뿔려진 나무>

나무를 끊어가지고 방에를 이렇게 탁탁 타작을 하니깐 그런 파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잇는데 이제 그거를 파노라니까 산감(산을 관리하는 직책)이 심으레 온단 말이여. 심으레 와가니까 흙을(숨을) 데는 없고 방에를 큰 그 무거운 거를 툭 써서 거기 앓아 부러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산감이 썩 지나가면서도 그 소꿍에(숙에) 사람이 잇는지 무너지 몰라서 썩 지나가 부러어. 그러길 이제 막 혼 번을 이제 그 그런거를 피해서 지나가는데 다음에는 일 하다 보며는 요 혼 며칠 전에 돈으로 소나기 두 개가 썩 허게끔 막 쏟아진단 말이여. 그러나 그 방에를 툭 썩(써서) 앓으면 비가 아니 맞아. 그렇게 센 분이 잇었어요. 센 분이 잇었는디, 요즘 므냥(모양)으로 이 부종이 부종이엔 험 것 농사가 이 조곡농사가 다 이제 끝난다 이거야. 조고볼령 이렇게 써 끌려서 몰로 돌리게 해가, 이제 끝나서 허든 부종이 끝나그네게. 이렇게 감귤행 보며는 보리농사가 해뵈야 검질(잡초)을 못 메었거든(뿔었거든). 암석이 없어가지고 검질을 못할 행팬이 양석(양식)이 모자

라서 시장하영 검질을 못 매질 못할 형편이 되네. 저~지계를 지어가지고
저 서대정 가가지고 이제 그 장래 빚지레 간다고 헤가지고 뭉탱이 하나
푹 놓고 지계지영 거기 잇으렌 서대정 주변에 장래를 빚지러 가며는

<정의숙 할아버지 : 곡식 빚지레>

곡식을 빚지레. 계난 거길 가서. 거길 가서 혼 말을 갖다당 먹으며는
이제 조워서 말 저. 혼 말반을 갖다가 파야 되는 거야. '꾼 갑 말 닷뉘라'
해서 그게 바로 그 말이며. '꾼 갑슨 말 닷뉘라.' 그런 말이며 '꾼 갑슨 말
닷 뉘다' 이말이 이제 혼 말 먹었으며는 두 뉘를 더 놔서 가프는게 '꾼 갑
슨 꾀 갑은 말 닷 뉘다'라 '꾼 갑은 말닷뉘'라. '말 닷뉘'란 말이 그 말이며.

<정의숙 할아버지 : 적뉘를 먹었다가 옛뉘를 문단 말이며>

하나 반.

보리를 저 새벽에 가서 이제 장래를 비찌고 지계에다 톱 하게 지영,
지연 툃닥툃닥 오다가 지금은 저 농업기술협회라고도 뉘고 옛날엔 그 거
기에 지금은 지금 현재는 어쨌든 저 농업기술센타라고 했어. 전에는 농촌
지도소라고 했는데~, 여기 요 저, 저 서쪽에 가면 지금 그 그게 뉘었는데
그 옆에 바로 문드레기또라고 하여. 문드레기또라고 큰 난데 내창인데 내
창인디.

<조사자 : 내요, 내?>

나무가 이렇게 양쪽을 켜여 허는디 특해도 그기가민 뉘. 낮에도 콤콤
허여 어둑워서. 하늘 못보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장래빚정 지어가는 영
감이 좋 고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니까 거기 질에 푹 부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쉬노라니까 어떤 요즘 몰하면 강도지 그러니깐 건달놈이 머리
(칭취불능) 마니한 놈이 와서, 그 놈 뺏아갈라그러단 말이며 아 거 곡석 쉰
논 걸(?) 뺏아갈려 그러니까, 당장이란 하르방은 요까지껏싸 윈 나윈 지
금은 두렵지 아니허다 어떻게명허다가 그 놈을 좌우간 푹 잡혔단 말이며.
잡히니까 머리 이미에 누르니까 머리를 갖다 지계에 푹 걸머지었어. 돌마
뻤어. 돌마메명 아 경하당보니까 아 머리만 빠져 가지고 지계에 부뉘다
말이야. 그러구 머리를 지계에 푹 든든히 싹 졸라 맹이네 정 흘정(?) 가
니깐 머리가 속 빠지니깐 말이며. 이 놈은 털어쳐불고 흥 가불고 머리만

훈 주먹 이제 그 지게에 붙었더라 이거여. 근데 그 다음에는 이 놈이 겁나 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안했단 이말이여. 이 실제 그렇게 실제

<조사자 : 아, 실제 잇었던 일이에요?>

예 거는 계난 이제 당팃당장이 그렇게 힘이 셋어요. 거 웬만한 사람 앞에는 그 요즘 같은 말로 강도 짓을 하는 분도 말이여. 힘도 좋고 주먹질 이나 흐고 하는 분이주마는 거난 이제 그 힘이 좋은 영감을 들려노니깐 당장을 허여노니깐 흘 수 어시 이제 그 머리만 떼굴 얻언 결국 이자 따시는 그런 짓을 안했다는 말이여.

32. 여방훈장 2

제 보 자 : 김창문(남·68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토산1리 마을 회관

- 요약 : 당팃당장의 후손 중에 여방훈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개 소리를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동네에 온 옛장수와 농을 주고 받던 중에 여방훈장이 바지를 내리며 종기를 봐달라고 하였다. 옛장수가 얼굴을 갖다대자, 여방훈장이 방귀를 뀌어버렸다.

<조사자 : 또 힘 쓰는 사람 얘기 어서마썸?>

그 다음에는 그저 그 후손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조사자 : 아~아까 그 사람……>

예~당장. 당팃당장의 후손이 말이여. 어디 저 부산에도 있고, 다 이제 일본에도 살당 돌아가고 했는데,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훈 형제분인데, 훈 분은 서울에 가 있고 매 막내분이 여기 이제 훈 서른 두 셋 낫을 건데 심이 키는 키크지 않아. 남자 툇툇하고 키는 쪼끌락 한 분인데, 심(힘)이 장사야. 이 동네에서 아무리 이제 심자랑을 해도 큰 거 둘 곱은(갈

은 거 나무 굵은 거 무거운 거 들른 사름 가이만한 사름 없어. 아마 그게 유전이 되는가 몰라도 당, 당장 이 저 당팃당장 후손인가 몰라도 세여. 이, 이제까지는 그런 영감이 있어났는디 그루 후제는(그 후로는) 토산에 아직까지는 큰 썬 영감이 없어.

<정의숙 할아버지 : 그런데 그 때에 그 그분이 그렇게 해연>

그 점침이에 머리에 졸라메연 오당보난 머리만 붙어버리니사, 그 사람이 이제 다시는 교싸 그 강도 생각을 안 해영 허는 증인디. 아 어디서 되게 게으르니깐 꼬, 끝내까지도 잊히지 않은 거라. 어디 요게 상당한 사름 이면 언제 혼 번 요 놈, 그런 생각은 아니하고 머리 빠져부리니까 머리에 그 칙성(?)이 강도할 칙성이 빠져부리니깐 재미 좋아서 다시 도둑질 할 생각이 안나 이제 그 분이 언제 어떻게 소문을 들어서 이 은공을 갚으자고 어른들이 굵은 말 들은 말이주, 그렇게 해서 혼 번은 그 당장이 그 그 고향을 다 도느간 이 사름이 어떻게 하는가 소문이나 들어 불라고 고향에 가니깐, 거기서도 알아 맞추아서 하~그 분이런 재청합디댄. 이렇게 도둑질은 해여도 집이 가난해서 도둑질은 안 해여. 거 머리에 칙성으로 하는 거난. 가시도 그 아마도 식량을 구입할 즈루도 거기 가시니까 그 조여 쓴 걸 보고 이 당신 청새서 하여튼 침헌 막 지왕 보냈다고? 그 당신 덕분에 내 이제 그 머리에 칙성 나쁜 칙성이 깨어져서 이제는 그런 그 강도할 생각이 없으니 그런 은공이 잊어서는 안 된다해서 내 그렇게 헛다거 허는 말이 있어. 작년에 이거를 갑을 받지 않고

<정의숙 할아버지 : 이걸 그저 갑을 안 받아. 그대로 가직 가부러.>

심껏 지어가게끔

<정의숙 할아버지 : 심껏, 하던 좋든 심껏 지영 갑센 그렇게 헛댄 해여>

그런 말이 있어. 그 당장에 당장 당 손자, 손자~썬 똥으네 여방훈장 이랜 행으네 할아버지 있는데 하르방이 어떻게 재변(?)이 썬지 동네 어른들이 우스갯 얘기를 그렇게 잘 해여.

<정의숙 할아버지 : 당애긴 그렇고 우스갯은 그랬단 말이여.>

거짓말을 그리 잘 해. 거짓말을 하~, 누게 시꺼멍허게 속이면 말야

씩 넘어가. 옛날에는 이 저 참 시제로 먹을게 귀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먹는 얘기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조사자 : 하하! 아니, 아니 마씨>

먹을 걸 구해가지고 산에 가서 틀을 타 가지고 그 다음엔 틀을 타서
질머저네 오랏주. 바꾸아 드렌 당장 선생네 몰래에 강 서난

“틀 상(사서) 잡습서, 틀 바깥(바뀌서) 잡습서.”

이렇게 하니깐 그 영감이 슬그머니 나와선

“틀? 어땜이 행 바꿀거리.”

“맞 바꿀 거우다.”

경하다. 맞 바꿀거니겐 그 여자가 허는 말은 틀 가정 내왕, 얘기는 혼
되민 보리 혼 될 받을거랜 헛는디 요 영감은, 아 죄송한 얘기지만 이 영감
님은

<조사자 : 하하~>

아 거 우시겔 잘 허는 영감이라

“맞 바꿀거.” 허난

“네.”

거 저 멧택에 강 보리 한 줌을 푹 쥐어 아정 가지고, 틀 혼방울 이렇게
먹고땡 보리 혼 방울 푹 놓고 틀 한 방울 먹고 땡 보리혼방울 푹.

<일동 웃음>

어땜 그럭 이제는 그 여자, 틀 가진 여자는 가만히 보다가 이거 어의
없거든.

“이 망할 것. 이 망할 것.”

야 이거 어땜허는 하르방이 이시니

“아니, 아니~맞바꾼댄 허멍. 혼 방울에 혼 방울 아이라.”

<일동 웃음>

아니 그렇게 이제 우스개를 잘 해. 아주 춤 재미진 하르방이여. 키도
홀쩍허게 크고, 키도 홀쩍허게 그렇고 여방혼장이라고

<조사자 : 여·방·혼·장 마썸?>

에~여방. 여방 씨라고 해서 여재, 방재 이제 그 같을 여. 모 방재, 여

자 방재.

<조사자 : 같을 여자, 모 방자요.>

여방훈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춤 옷 동네에선 우스갯 잘했어. 지금 말하면 당장, 당팃당장, 장장 손자춤 당 손자춤 될꺼여.

<정의숙 할아버지 : 당손! 당손>

그 집안이 그렇게 춤 심이 다 좋고 키들이 다 큰데 훌쩍훌쩍 키들이고 신체들이고 다 이렇게 크던디 지금 현재 여기서 서른 두 셋난 그, 그 분만 굵게 적고, 신체는 좋은데 키가 적고

<정의숙 할아버지 : 게난 그 이제 그 당신네 말을 또, 또 이제 나도 이자 또 들은 말 잘은 못해도 또 흐술 흐주>

<조사자 : (웃으면서) 예~>

이 당신 ㄱ싸도 ㄱ랏주만은 농담을 어찌나 잘하는지 흐 번은 옛장시가 지나가다가 그, 그자 영 그늘에 앉아툼 이 말, 저 말. 스 하~난 춤 종기가 나서 윈 스, 땡겨봐도 뭘허고, 스 하, 종기가 나서

“어디?” 그 옛장시가

“어디? 종기는 어디 쫘입니까. 윈.”

“아, 요래 오래 오래 보라.”

웃 요 능력 뺨스 영 싹 능력 해난에 요래 보라고 요래 보라고.

하~(웃으면서) 암만 영 거 뭐

“어디? 어디?”

“아, 거 거디 거디.”

막 거 (근처에) 강 방귀를 째~

<일동 웃음>

거 거 꺾니깐 그 당신 그 옛장신

씨발, 조선 팔도를 다 돌아도 당신 ㄱ뜯 사름 처음 보는 거라고. 이렇게 하거든

“조선팔도? 조선팔도 다 보라니, 당신 고등나무도 봤어요?”

“안 봤어요.”

“역기 나무도 봤어요.?”

“안 봤어요.”

제기 씨발 조선 팔도랑 말앙 요, 요 제주만도 안 봤다고. 아, 이제 몰량도 봤어요? 이거도 이저 그 막 도가 많거든. 제기 씨발 별 놈의 영감 다 본다고. 이렇게 해서 그 농담을 잘 현 영감이 사었다고.

33. 답다으니

제 보 자 : 김창문(남·68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토산1리 마을 회관

- 요약 : 좋지 않은 것을 안 보이게끔 쌓는 담을 담단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담단을 쌓고, 십자가를 꽂아 병을 고치고자 하기도 했다. 그런데 마을에 큰 물난리가 나서 그 담을 쓸어가 버렸다.

거 농업기술센터 잇은 내 그 내가 잘 알고 잇은데 농업기술센터락 문드레기또라고 허는데 문드레기또 것도 문드레기 또, 또, 요즘에 어잇도가 잇었어요. 어잇도.

<조사자 : 어잇도>

어잇도가 잇는다, 옛날에는 예~이 급한 병이 잘 들어난. 호열자(마마)라는 건데, 호열자를 들면은 막 서른이기 저 씨려저(쓰려저) 가지고 이렇게 안장이네(앉아서) 얘기하당도 이제 쓰러지민 죽곡(죽고) 이렇게 허난 때가 잇어난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 부근에도 요즘에는 이 예수교도 교가 많이 생기니깐 십자가란 헛게 딱 걸렸다 이말이여. 젠디 이제 이 부근에도 나무로, 나무로 해서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돌로 이렇게 높~이 싸서 그 우에다가 십자가를 딱 박아 놔어요. 다 박아놔어요. 그래서 이제 거 어잇도엔 헛디도 여기 어잇도렌 헛디도 비가 크~게 오면은 내가 내가 이제 치면은 이제 막 떨

어지는 아주 이렇게 거진디가 있어. 거진디가 잇는디 거기에도 그런 돌담을 이제 싸가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이제 박아 놔, 놔놔고, 바로 거 서쪽에 네 개 서쪽 바위에도 이제 그 십자가를 그렇게 이제 박아 놔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마도 지금 생각하면은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마음의 어느 정도 이제 그 안도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병원 없고 보니깐,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없고 허난, 이제 그렇게라도 해볼까 해가지고 아마 그 그 많이 했어요. 요 근방에도 많이하고 저 쪽더래도 그거, 그거 십자가 잇이민 뵈 거 어실거여, 제주도는.

<조사자 : 아~그른 이제 거기강 빌젠 마썸?>

비는게 아니고~, 비는 건 아니요~.

<정의숙 할아버지: 당 사노아 가지고 세운거?>

거기도 가민 이제 답단이, 단단이란게 토산리 저디 가민 이제 답단이렌 현게 담으로 담으로 다가 저 쪽을 이제 나쁜 거를 위해서, 저 쪽에 이제 막 터져서 이제 허면은 터지면 물 막 나면은 답단이여.

<조사자 : 답·단·이요?>

답단이라고 답단이렌 현디도 있고, 답단이라고 해서 돌로 돌로 쌓는거여, 돌로 쌓고 저쪽에 나쁜 거 보이는 거 안 보일 정도만 쌓는 거.

<정의숙 할아버지: 여기서 안자서(앉아서) 거기 못 보이게끔, 그렇게 된 거>

그러면 그게 그걸 그걸 ㄱ르면(말하면) 옛날에 그 십자가엔 현게 이제 야 난게 아닌 민양이야. 여수, 여수교고 꼭 지금 거 여수님 여수님이 그 저 저, 저저저 무슨 예배당에 보면은

<조사자 : 예~예배당마썸.>

예배당에 탕 부찌는데 예배당에 가보면 잇는데 가면 꼭 그와 같은 형태로 그와 똑같은 형태로 ㄱ트게해서(갈게해서) 나무 까까가지고

<정의숙 할아버지: 요렇게 담을 요, 저 산굼부리 민양으로 요렇게 다 와서 한 가운데 요렇게 저 요렇게(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된 낭 요렇게 폼양(꽃아서)>

바로 십자가여.

<정의숙 할아버지: 응~십자가라~거 세워기네. 거 옛날도 거 나무가 좋은 낭인 마냥이지? 그거>

아~거 그래 이서방이 저 이 저 박서방보고 세우고, 저 묶어놔서 세워 놔서.

<조사자 : 아~거문. 병은 다 나아수과?>

<정의숙 할아버지: 나신지 뭘지 알말이라. 뭘 말이.>

아, 거 요 저저 아까 어윗 느들 어윗내창에 어윗도렌 헌디는 그 담이 지금까지 잇일건디(잇을건데). 이제 그 담을 많, 돌을 많이해 쌓부린 건디 지금 오당도(오다가도) 담이 잇일건디. 스삼사건(4·3사건)후에 큰 시위가 큰 물이 제주도에도 여기도 물이 오랐어요. 세화리엔 헌디는 말이여, 부락에 저 물 그 냇물이 들어 가지고 사람도 막 죽고 집도 끄서가고(쓸어가 고) 이래서. 그런데

<정의숙: 지붕문의, 거 거깃물이 지붕문이다. 아자시난 집차 끄서가 낭 가명 손 영 흔들명 가나서.>

<조사자 : 하하>

여기 그 때에 그 그 돌이 헤싸져 부러어요. 거 아니어서든 돌도 잇어 실건데. 그 때에 그 때에 그, 그 큰 내치때에 돌도 끄서가 부러어요. 둥싼 더래, 돌싼더래. 예누릴 구해가지고.

34. 결혼 이야기

제 보 자 : 김창문(남·68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토산1리 마을 회관

- 요약: 결혼을 하기 전에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 집에 찾아가는 절차가 있는데(여기서는 '친심 간다'고 함) 신랑 될 사람의 생김새가 도저히 신부 집에 갈 형편이 안되어 삼촌이 대신 가게 되었다. 신부 측에서는

신랑 될 사람을 삼촌으로 오인하고 혼쾌히 허락을 했는데 혼례날 보니 삼촌이 아닌 그 조카가 신랑이었다. 그러나 신부는 이 모두가 자기 팔자라고 하며 친정 부모를 달래고 어쩔 수 없이 혼례를 올렸는데, 매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메누릴 구해가지고 새 서방된 사름이 어느 동네 처녀가 우리 이제 그 마누라 될 사람인지, 뭘지 모른단 말이여. 전혀 몰라. 왜냐면은 그 아버님이 “아무디강 새악시 꼬섬을 메누리 꼬섬을 구했져.” 하면은 새 서방이 새 악시 보레 가는 새 서방은 어떻게 가느냐? 옛날에는 나가 불 처가집 될 띠가 아무 고을 어느 편이 사는 쥬데 가보자고. 게 새악시 친심이라고 하는데, 쑥 들어가가지고 새 서방이 될 고습(장모님)이 무앵(무엇이라고) 곧는 나면은(말하냐면은)

“도새기(돼지) 팔 거나 이수과(있습니까)?”

이런다고 이러면은

“도새기 풀 거나 이수과?”

이런다고 스, 어떤딘 가면 잇인디는 고지식허게 잇다고

“예, 풀(팔) 거 잇우다(있습니다). 예.”

새아기 고습이 이젠 그 다음에는

“하, 죄송호우다마는 윈 목 말라네. 물이 나 윈 호술(조금) 줍서(주세 요). 영해네 거짓청이라도(거짓말이라도) 거 말 하나도 해볼라고 새각시는 뭇도 몰르고 부엌에 가가지고 물박에다가 물을 기러당이네게(길어다가) 저, 준다말이여.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되서 먹는 척 하면서 눈을 새각시 앞에 가 잇어. 요~렇게

<모두 웃음>

새각시 불려고 새각시 모습만 불려고. 어디 예쁘냐, 이! 저 이제 우리 마누라 될 어땡 이쁜가. 거만 불려고 도새기 사긴 도새기 뭘 사? 경해서 새각실 봐가지고 시집을 가는다. 저 장길가는다. 그래도 옛날도 정~므음 에 안들면은 아이 가난디난지도 몰라.

<정의숙 할아버지: 거 사름의 성질에 달린 거>

서로서로, 서로서로 마찬가지로 여 중간꺼정 지금으로부터 혼 팔십 여 년, 구십된 할망 시절에는 중간에 강 자꾸 왔드만 이놈이 시집을 아니 사는 여자는 아주 최고! 게서 시집을 부모님의 말 이제 거역하지 못해서 가긴 가뉘, 가는 척만 행으네 어떻 행 영 달아나기네 돌아날딘 없고 일본덜만 일본더래만

<조사자 : 일본 마썸?>

어~일본더래만. 잠깐 그렇게 해난 적이 있어. 잠깐 옛날에도 지금 뭐 므냥(모양)으로 자기 실프면은(싫으면) 서로 끌리고 새각시 친심하면은 도 새기 잇수겐해서, 도새기 풀 거 잇수겐?해서.

<정의숙 할아버지: 사름이 거 신중 새각시 므음에 달려 있다고 난 생각이 들어. 그 혼 일환이 이저 저 말 갖는 거중에 이거 이제 춤 삼촌, 조케되는 분이 결혼은 신랑 조케(조카)가 신랑이 될 건디 친심을 가와야 될 건디 조케된 분은 입이 말 트라져서 새각시 친심가꼭 뭐 정도가 못 되니깐 못 갖단 말이야. 삼촌을 보내서. 새각시 친심, 삼촌간디 요즘이면 절대 그 날이라도 안 가. 이제 그 중개(장가)는 조카가 갈건디 삼촌이 그거 이제 그 신랑으로 친심을 보내서 친심을 삼촌이 하기로 딱 되엇는다. 스, 이제 조케 된 사름도 어찌해서 새각시 고슴인가 혼 번 되야 뉘. 어디저디로 아니고 이쯤해서 난산이어 어디어 어디 저 동촌을 갖는다. 어떻게 해서 저 각실 만날고 영해서 예잇! 하~이거 집이서 불 밤에 놔서 불, 초단불. 전등화리라고 해서. 쉐화리가 있어. 거 탐직 닭아두고 화리장서가 뉘단 말이며. 거 새각시 친심갈 때에, "화리 삼서." 영 허니 화리가 사켜 안 사켜해도 어떻든 접근해서 거 새각시만 고싸(금방) 이 각시가 영 했주어 어떻든 봐야 될 건디 아이 사켜 하민 게도

"뵘서(보세요). 보민(보면) 므음(마음)에 들거우다. 삼서."

어떻어떻 행 접근을 해서 허니 아, 물이나 줘서 영 행이네 물 먹으멍 허당 보니 새각시 고슴을 아마 새각시가 기다 한 것을 알아서 그 놈은 친심을 행 왔는다. 어찌어찌 하단 보니 잔치는 삼촌, 이제 삼촌이 신랑으로 헤영으네 택일을 헤, 건디 잔칫날은 강 보니까 그 삼촌이 아니고 활장수 거든, 앓 저 그 때 신랑이 아니고 활장사라고. 화리장사나 마나 신랑이 아

니. 건 이젠 그 어멍된 분은 그 저 입이 트라지고 새각시 친심 갈 얼굴이 못 될 때문에 본인이 못 가서 삼촌이 간 건디 막 옥신각신 헤 가니까 거 새각시 되는 분이 허는 말이

“이왕 내 팔자가 그러하므로 할 수가 없수덴(없습니다). 그냥 옥신각신 하지 말양(말고) 내뽀센(놔두시라고). 경행 잔치를 지났는디 아들 네 성제 낳고, 그렇게 해도 잘 살당에 그 당신들은 다 돌아가 잇주게 시방. 건디 요즘은 저 조케 춤 장가 갈 디 삼촌가그네 친심행 아니되어. 경허고 연달 아 그말은 그걸로 끝이고 다시 혼 번 곱아야주. 내거 이것도 보도 아니허 고 들은 말인디

35. 정당장(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제 보 자: 정의숙(남·75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토산1리 마을 회관

- 요약 : 사람들이 정당장의 묘를 파보니 몇 년 전에 묻은 시체가 눈을 뜨고 살아 있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상주가 달려와서 무덤 옆에 있던 천막을 걷으니 무덤가에 별이 들며 시체가 썩더라는 것이다.

옛날 혼 집이 거 땅일을 잘 알아도 그 권당(친척)들은 그 정실을 아니 청해서. 거 옛 조금, 조금 죽은 할망(둘째 부인)에 나면은 조금 낫다고 해서 거 옛날을 써그네 옛 써주기 실푸다고(귀찮다고) 해서 그 땅덩이를 그렇게 잘 아는 분이라도 원 아니 들여놔. 경 현디 이제 뜬 사람을 빌어서 영장을 해엇는디 그 그분도 이제 그 권당 친일이난예. 아맹해도 출령이네(준비하고) 그디 강 본 므냥이여. 여기 산 영장이라 보라고 허니깐 이 영감이 이디 묻어진 분이 살아잇수덴. 아니 땅 속읍에 묻엉 몇 년 된 분이 살아

잇젠 허민 거 말이 되질 아니헌 말이 아니라. 살아 잇젠. 살 분이 잇수덴. 허니깐 그럴 리가 잇느냐고 허면서도 이제 곧 파젠 강 일이난에 곧 볼건디

“에이. 내가 이제 임시 어디강 승그려야갠다. 임시, 멀리 아니허고 임시.”

베리디(보지) 못할덜(못할 곳에) 가서 쪼금 몸을 피해 잇는다. 땅을 판 보니깐 아 영장이 버쩍 살아 잇거든. 눈 버렁허게 트고. 하고 이거 이게 큰일 낫구나. 이제 그 느직해서 어 일가집에서는 일체 안 벌언 예 쓰지 말자고 했는디 그저 급하니깐 일름도 잘 안 붙것고 급한 대목에 당장 거 어 드레 가니? 당장 어덜가니 헤연 허당보니 정당장 거. 그 분이 정당장 정 씨랐는디. 정당장이라고 잇다고. 아 겨난 정당장을 좇으니(찾으니) 멀리 아이 강 그디서 하~상주가 다 나성 좇아가네 혼 쪽에 잇다가 당장 막 좇아수덴 막 영헤가난 이젠 어 어떠한 일이펜 허난에 아~이 신체가 완전히 살아 잇는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거냐고. 거 어렵지 않으켤게. 이젠 경행 이젠. 나중엔 오랑뵈서게. 그 산영장을 어떻 조케 보름헤어 달라고 허난 오란 요즘은 영장 팔 때에 무슨 천막 7뜯게 잇어도 옛날은 천막치곡 헤그네 영장을 팔는디 신체에 거 어려운 일 아니우덴. 이제 그 천막을 거 돕센. 혼 쪽으로 천막을 영 거된. 벳이 맨도롱허게(미지근하게) 나오라가니 깐 그 눈 보롱헛당 흑도 막 걸고 바로 살앗당 영장이 술술허게 녹아버리니 그 때부터는 아 그 당장일 당장헤게시기 거 당장으로 벨 눈이 지어서 벨눈이니영 헤영 그 분들이 강 당장 덩긴다고 이렇게 헛는디 아. 이제 그 당장이예 현 분이 땅 속일을 잘 알앙 허난 요즘 그 아주 저~어디 동리. 수산. 그 근처레 살앗던 므냥이라. 요서방에 오라 가면으 흰 물 타곡 행으네 막 놀령이 그 분이 요즘 요서방이렌 행으네 땅을 좋은 땅들을 많이 봤다고 그런 말이 잇어.

겨난 처음 이 저 죽은 할망에 난 것을 아주 느지 알아서 예쓰지 말자고 일체 나도 정썬디 그 우리집이서는 그 당장 그 당실 벌영 터를 혼 자리도 본 디가 없다고 해. 경헤 그루후체에 혼 두가시가 뵈젠. 어른들이 그러 말이 잇어. 아 겨난 나는 그 정도 대강 들은 말 그것 뿐.

36. 십댕께

제 보 자 : 김창문(남·68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토산1리 마을 회관

● 요약 : 십댕께라는 조그만 동굴이 있는데 비가 오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비를 피하기 위해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옆에 있던 진흙으로 말형상을 만들어 돌 위에 올려 놓으며 “너는 이제부터 말이 이 곳을 지나게 되면 다리를 절게 해서 더 이상 못가게 한 후, 그 말을 잡아 먹어라.”고 하였다. 얼마 후, 다른 사람이 말을 타고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말이 다리를 절며 더 이상 길을 못가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여긴 그 사람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진흙말이 있는 것이었다. 그 말을 두 동강내자 진흙말에서 피가 흐르며 자신의 말이 멀쩡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길을 갔다는 이야기이다.

아, 여자 여학생들 앞에서는

<조사자 : 하하하. 아~그거 마썸. 그거 해줍서.>

여학생들 앞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아이 아이는 손엿 보졸 늙은이 구비 석재라는 말 들어봤어요?

<조사자 : 아, 다시 한 번만. 아이는.>

손엿 보졸

<조사자 : 손에 보적>

보졸! 보졸!

<조사자 : 아~ 손에 보졸>

손엿 보졸. 아이는 손엿 보졸. 늙은인 구비 석졸. 입으로 이 저 된 말 아니 헌 말 곧는 다 이거야.

<조사자 : 아~예.>

게서 거 거 저기 중간까지 오는 그 아이 보고 아이는 손엿 보졸. 늙은인 구비 석재라는 이런 말을 흔히 써 낫지. 가끔 써 낫지. 그래서 그 처~

지금 비행장이 된다. 저 챗마을 앞으로 저 해남군으로 해 가지고 아까 ㄴ
 른 거 대청 집이 거 옛날엔 그 차가 없으난 들으시민 가차가만 들일야고
 길을 다 이제 몰로(말로) 탕(타고) 땡기고(다니고) 걸영도(걸어서도) 땡기고
 그런 길이 잇었는데, 기의 옛바위에 궤야가 흐나 잇었는디, 즉 말허민 이
 제 사름이 이제 비가 오거나 어떻게 눈이 오거나 허면은 쏘옥 들어가가지
 고 이자 어떻게 은신처. 그 조금 무슨 궤안고 허면은 십땡궤. 십땡궤헤여.

<조사자 : 십땡궤.>

예~지금도 거기 거기는 요즘 번방(?)하면서 다 매와지고 다 이제다
 정리 해부난 거주 그 궤야는 (청취불능) 그디 모셔갈 적에 그디 좀도 하고
 이렇게 허는디 그거와 보고 십땡궤, 십땡궤. 이게 십땡궤란 것이 어째서
 십땡궤냐.

옛날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자 이 나무열매나 타서 먹으멍 헛덩ㄴ
 라. 거기가 거 이제는 불을 살라가지고(피워서) 땡기다가 밤을 주어 삶아
 그 궤안에선 밤을 주어서 그디가서 불을 살라가지고 밤을 불에 지저가지
 고 한참 잇이니(있으니), 밤이 탁 튀어서 맞은 게 맞은 게 어덜 맞았느냐
 옛날에는 옷을 졸바로 안 입으니까 그덜 강 맞아 분 모양이야.

<모두 웃음>

그래서 십땡궤가 된 거주

<조사자 : 아~>

거기 궤야에 흘 번은 지나가다가 아~이 비가 크게 오니깐 잇다가 비
 가 지나가면 가자. 그기가서 이렇게 앉아신디 허난 물이 툭툭툭툭 떨어점
 서. 거 심심하곡 하니깐 요렇게 앉아가지고 손으로 조물락 조물락 한다.
 조물락 조물락허게 된다 그디가 이제 진흙, 찰흙 찰흙, 이! 찰흙을 이렇게
 이렇게 허다보니깐 그니깐 이제 요즘 아이덜 학생덜 만드는 거 잇지 안허
 여. 그런 찰흙이 되어. 게 이걸 몰 만들어 볼까하당 손으로 요렇게 요렇게
 발도 헤가지고 말을 만들엇어. 발. 대구리허고(머리하고) 모가지허고(목하
 고) 쪽 뺨가지고 말을 멘들아(만들어) 가지고, 아이고 심심허니깐 시간도
 잇인다. 요렇게 말을 툭 노면서 이 널랑이네 여기 잇다가 앞을 몰탕 지나
 가는 손님이 잇거든 물을 발을 절게해서 먹고 살라고 요렇게 얘길 헤두고

지나가니깐. 지나갔어. 갔던 모양이라. 스. 지나갔는디 혼 번은 어떤 손님이 물을 타고 실랑실랑실랑실랑 거덜 이젠 지나갔는디 느닷없이 그 앞에 쪼끔 지나가 지난 물 발을 절어가지고 거 거 도저히 가질 못한다 이말이여. 큰 일 났다고 아~지금까지 뎡겨도 말이여. 여디 오니까 말이여 물이 발 저는 걸 내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하이고 이럴 수가 있는냐 큰 일 났다. 물이 발 절어가지고 오도가도 못 한다. 예고 못 쓰겠다. 심심하고 하니깐 혼 번 들어가보자. 가서 요렇게 보니깐 영 위에도 돌 위에도 물 형태 될 흙으로 된 게 잇단 말이야. 요걸 이렇게 보다가 똑 이렇게 분지르니깐 피가 흘끈 난다.

<조사자 : 예~>

피가 흘끈 나서 이제 거 허니깐 요~요만헌게 지랄을 헛구나게. 예 몰 그다음에 몰도 발도 낫고게. 게서 이제 거. 아이는 손엿 보절 늙은이는 구비 석절해서 입에서 이저 된 말 아이 된 말 이저 놀 거죽 이렇게 헤가지고 아이는 손엿 보절 늙은이는 구비 석절 옛말이여. 거기에서 거기 이젠 뉘춤 지금도 그 퀘는 엇엇지만 이 십맹퀘, 십맹퀘해요.

37. 육혈(육반대기(토산당))

제 보 자 : 김창문(남·68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 토산1리 마을 회관

- 요약 : 제주도에 여섯 군데 혈 자리가 있는데, 다섯 군데는 찾았지만 한 군데를 찾질 못했다. 그런데 호종단이라는 사람이 종달에서 배를 타고 내려와 수산으로 해서 토산에 왔다. 거승생이 물을 건너 땅을 보러 갔다. 그런데 상재들이 그 보러 간 땅에 절대로 발을 들면 안 된다고 하였다. 호종단이가 이제 그 주위를 가서 혈을 밟았다. 뉘터마을을 가서다니는데 발을 너무 떼고 싶은 마음에 살짝 발을 들었는데 비둘기가 나왔다. 그 집터에서 꺾기시냥을 두 가지 해서 기둥으로 하고 집을 지어 살면 인제가 많

이 나왔다.

제주도, 제주도는 육혈이란 말은 들어봤지예?

<조사자 : 예, 육혈이란 건 들어봤수다마는(들어봤지만은) 어디어던진
잘 모르쿠다.(모르겠어요)>

아~나도 잘 모르는데 일사라. 사라봉 일사라. 이영실, 삼계미목, 그
다음엔 스상늑, 오 오반대기라고 허는데, 이 육혈이 뉘는데 지금 훈(한)
혈은 좇질(찾질) 못했어, 지금, 좇질 못해서 이제, 일사라 이영실 삼계미
목, 스상늑, 오반대기 이렇게 해서 이제, 오혈은 좇곡 육혈은 좇질, 훈 혈
은 좇질 못했다는 설도 잇는디(잇는데). 오반대기엔(라고) 헌디(하는 곳) 그
모신 어른은 나의 예 예~17대조, 17대 존데 이거 나가 지금 얘기하는게
확실하지는 아니허나 뭐 잘못 저 잘 들어서 잘 도스리지(다스리지) 못해불
근(못해버리면) 빗나가는 건디. 째. 호종단이엔(라고) 헌 분이 호종단이엔
헌분이 본 땅이라고 헛는데 호종단이엔 헌분이 육지에서 종달에서 이제
그 배를 타서 종달리로 행(해서) 내려와서 수산으로 해서 토산에 와서 저
거승생이 물 건너갔는데 육길을 건너가지 땅을 보레(보러) 가. 거덜(거길)
갓는디 상재들이 보고 요리가가지고 요디(여기) 영(이렇게) 똑 발 이디레
(여기) 똑 이거를 이 아래다가 벨(별) 짓을허고디고 발 들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헤 두고 그 주위를 가서 막 혈을 붉은(밝은) 모양이라. 호종단이엔
헌 분이

<정의숙 할아버지: 붉아가난(밝으니까) 발이 움직움직 헤여간디.(하
니까)>

계난(그래서) 이제 호종단이가 저 뒤터마을 가서 땡기는디(다닌데) 하
이(너무) 발도 떼고 싶은 마음이어. 떼고 싶어 떼질 말라 그랬는디 춤다가
(참다가) 춤다가 춤질 못하니깐 썩히 발 들러붙어. 이 비둘기가 싹 나와가
지고 알드레(알들을) 썩 네밀엄서.(내밀었다)

<조사자 : 아~>

계난 호종단이엔 헌 분이 와가지고 그거 나 7큰대로(말한대로) 아니엔
헤(하지 않아) 파열을 땃구나 마는 계나저나(그러나 저러나) 이디(여기) 파열

뻘다고 해서 영장 아니할 거여. 여기 정장허라 헤자기조 지금 장사를 지내, 지냈지. 지낸 거기 이제 그렇게 확실한지 뭐한지는 몰라도 내 들은 풍설에 의하면 이제 거 오반대기라고 헤가지고 저 내 17대 조분님을 거기저, 모시고 있는데. 그렇게 영장을 헤 두고 그 다음에는 그 비둘기 내령(내려) 놀아온(날아온) 방향을 좇아가지고(찾아가지고) 오끼 지금 사름사는 델 내려와가지고 거 집자리를 보는데 거기가 오끼가 지금 완전히 당시에 는 목발이란 모양이라. 혹시 컷가시낭이란 헛 말 들어본 적 잇는지 몰라.

<조사자 : 예, 예, 예~>

컷가시낭응르 고르치면서(가르치면서) 요런 걸 죽이지 말고

<정의숙 할아버지: 산 차>

산 차 꼭 개잇찌둥(?) 혈 만이만 풋찌둥(?)할 만인가 가지고

<조사자 : 무시거 혈 만이?>

<정의숙 할아버지: 개잇지둥>

<조사자 : 아, 가잇지둥. 예~>

옛날에는 집을 짓젠(짓자) 허면은 고사리 허곡헝(하고 같이) 네 갯 부찌 가지고(붙여서) 코를 깎는데(끼우는데) 고사리 멘들앙(만들어) 꼭 끼웠단 말 이야. 지금은 이렇게 옷질을 딱딱뚜가 허주마는 개잇찌둥도 마찬가지로 고사리 네 개를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레(요렇게) 툇 부찌가지고(붙여서) 스 그래서 요 기등을 낭을 굽(?)으로 부쳐 말이라. 꼭 맞추아가지고.(맞춰서)

<정의숙 할아버지: 굽은 그냥 두고 우로만 맞추는 거라.>

저 집을 짓으면은(지으면서) 알은 보래다 씨꺼그네(씻어서) 싹 지나갔는디 이 컷가시낭이엔헝게 원래 죽질 잘 아니허는구다. 원래가 그렇게 허신 죽는 게 아님주.(아니지)

<조사자 : 예~>

경헌디(그렇게 하는데) 잇이면은(이으면은) 순이 하나 난단 말이여. 순이 하나 나면은 그거 무슨 아주 필요한 일이 이제 나곡.(나고) 나곡 이렇게 헤여.(해) 또 이제 잇이면 순이 그렇게 나곡나곡 경해서 육지에는 없는 일 이주만은 제주도에는 감옥관이렌 헤여.(해서) 감옥관. 우리 이제 그 하라

바님(할아버님) 후손들이 계속 이런 데 가서 감옥관을 지었답디다. 순 하나 만 나민(나면) 감옥관이 자동적으로 (칭취불능)이니깐.

<조사자 : 아~>

그래서 그 그 밑에 다 허면은(하면은) 공신 하르방이엔(할아버지라고) 허는 하르방이 있는데 서의 남으로 이제 그 수막여산 동산 옆이(옆에) 가민(가면) 서의남이엔 허는데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조상님인데 13대존디(조인데) 공신 하르방이엔 허는 하르바님이 왜 어째서 공신 하르바님이 됐었느냐 감옥관이라는 그 별칭이 예~관리를 직접적으로 허지는(하지) 않으나 부하를 시켜가지고 몰을(말을) 잘 관리하게 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총 다 이렇게 쏘곡(쏘고) 하지만은 그 전엔 몰 타가지고 활로 다 쏘아서 전쟁을 일으켰는디 싸워서 이기고 저 이렇게 했는데 구루마를, 구루마를 스백(사백) 몇 십 필을 이제 헌마했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헌마공신 헌마공신 헌마공신이 그렇게 해서 났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종손, 경옥이 종손이다.(인데) 경옥이엔 헌 분이 우리 종손이다 그 집터에 컷가시낭을 두 가지 해서 우기쳐네 기둥해서 집을 짓영 사니깐 순하나 나민 감옥관하나 뵈기 이렇게 해서 잘 지금꺼정도(지금까지도) 아주 사람이 저 우리 종~손들 숫자는 많수다(많습니다) 실지로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숫자는 많은데 돈(?)은 많고 임재는 못하고 숫자는 많고 말이여.

<조사자 : 옛날에는 조상 많은 것이 부자라나신디.(부자라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했던고라 마썸.(말입니다) 호종단이엔 헌 분이 잇주.(있어 요) 완전 신, 완전 신. 아이전 완전히 건 신이주(신이지) 사람이 아이라.(아니다)

<정의숙 할아버지: 아니, 글로(거기로) 땡겨강으네(다녀가서는) 비둘기가 요 발아래서 움직, 움직헤연(하니까) 전디다가(전디다가) 버치니깐(힘드니까) 영(이렇게) 들러부리넨예(들어서) 비둘기가 영(그렇게) 놀랐젠 허면(날랐다 하면) 말 다 헛주(했지)~>

<조사자 : 하하하~>

<조사자 : 그 지역이 반대기가 마썸?(말입니까)>

예~반대기, 반대기

38. 조자현이 터 본 이야기

제 보 자: 정의숙(남·75세)
조사일자: 2001년 8월 4일
조사장소: 토산1리 마을 회관

- 요약 옛날에 조자현이라는 분이 산뱀이 걸쳐진 터를 보고 무후지지라고 하여 삼대에 걸쳐 좋은 땅이라고 했다는 이야기.

게난(그러니까) 나도 또 예까지(여기까지) 들은 말 또 한 번 또 한 가지
굴아야 뉘켜(말해야 겠다). 원래 원래 그 이제 이것도 땅 칼에 속한 말인데
그, 그 옛날에 조자현일렌(이라는) 헌 분이 이저 터를 볼 때에 자기 생각에
는 이제 산뱀미(?)가 걸쳐잇은 곳 그 걸로만 봐. 날을 받(봤다). 택 이제
영장을 헐(할) 걸로 이제

<조사자 : 뭐거가(뭐가) 걸쳐잇은 거 말씀하시는 건고?“(접니까)
산뱀엄

<조사자 : 아~산뱀엄.>

뱀미가 걸쳐잇은 그런 걸로 자기 생각에는 조자현이엔(이라고) 헌 분이
생각을 해서 땅을 봤는디 이제 그 일허는 분들 땅과는 저 신디(에게) 맞경
(말겨) 걸(그걸) 허게 뉘엇는디 이제 그 조자현이엔 헌 분이 터를 멧 번을
봤는디 아흠 번, 아흠 번 천리하고 열 번 자는디. 저 무후지지라고 그렇게
헌(한) 디를(곳을) 자기 생각에는 3대에 걸쳐신디(걸쳐는데) 으레 좋은 터로
생각을 헤엿주(했지). 아흠 번 천리하고 열 번 차, 열번 차이렌 헌 거.

<조사자 : 열번 차헌 땅이 무슨 지지마씀? 무……>

아흠 번 천리해서 구천십장에 그 조자현이가 무후지지라고……

<조사자 : 무·호?>

무호.

<김창문 할아버지: 무후! 무후.>

<조사자 : 아, 무후지지.>

<김창문: 아무 조건이 없는 땅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에 딱 새겨전(새겨져서) 묻어 잊거든.

<조사자 : 예~>

거디(그게) 무슨 그 해에 한 것도 아니고 몇 백년 전에 걸 새건(새겼다). 옛날에 그렇게 뒀었다는 말이서..(말이 있어) 거 일하는 분들이 파단(파다가) 보니 돌에 번뜩 새겨져서(새겨졌어). 그 아홉 번 쳐져서 열번 쳐. 차는 무허지지라고 해서 썩(써서) 묻었거든. 게니(그러니) 이제 그 조자현 이보고 아이 이렇게 뒀수덴허니깐(뒀더라 하니까) 집안 운이 이 정도 뒀으니깐 이게 그 어제 현(한) 일, 그지기(그제) 현 일이 아니고 몇 백년 전에 이걸, 이런디가 날 것이라고 묻었으니깐 우리집은 이저(이제) 헐 수 어시(없이) 그대로 이제하면 자서를 지내면, 무후해 불었젠 그런 말이 이서(있어). 건이(그러니) 그게 부신 들어그네(들어서) 누게가(누가) 헤연거(할 것) 같은면 몇 년 전에 영 허주마는(했지만) 이건 아니고 몇 백년 전일부터 이상산 그 조자현이가 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경헐 허었젠(그렇게 하였다는) 그 옛말이 있어.

39. 당팃당장 4

제 보 자 : 김순재(남·51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순재(조합장) 씨 덕

- 요약: 당팃당장이라는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소를 빌리려고 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소가 힘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하여 빌려주지 않았다. 께뻘하다고 생각하고 혼자 산에 가서 삼 칸 짜리 초가를 지을 만큼의 나무를 한 번에 다 베어서 등에 젖혀 내려왔다. 그 사람의 짐쪽으로 해서 지고 내려오는데 나무가 길므로 이웃집 담을 모두 헐어버렸다. 나무 탕도 있었지만 소를 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 때문도 있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 나무를 해 오면서도 산

지기와 실랑이가 있었다. 당팍당장이 삼 칸의 집을 지을 만큼의 나무를 한 번에 베고, 그 뿐 아니라 살림살이로 쓸 나무도 베었다. 산지기 둘이 와서 나무 자른 것에 대해 죄를 묻고 잡아가겠다고 했다. 그 때는 비가 막 내리고 있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나무를 가리키며 비오니 들어오라 하면서 그 무거운 나무짐을 들고 일어섰다. 산지기들은 놀라서 도망했다. 또 당팍당장 큰손자도 힘이 장사였다.

그 할아버지가 지금 후손이 살고 있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된다 말이야 그 예방에는 아까 여방 훈장인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될거야 아마 그 분이 여기 예제 살았었는데 그 집을 짓자 그러니깐 그 소를 빌리라 헛어 그 소를 빌리라 헛어 소를 이 소를 그 때는 나무를 산에 가가지고 집지을 나무를 헤오라고 하젠하며는(하면) 소에다 실고 왔는데 그 사람이 동네 사람 소를 빌리렌하니깐(빌리자하니) 아무도 안빌려줬단 말이야. 소가 너무 힘들게 헤버리니깐 우리 소는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헤버린거라 이집에 가서도 그렇고 저 집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자기네 소를 안빌려주겠다 그러니깐 이제 자기는 그렇다 헤가지고 꽤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에 가가지고 그냥 그 나무를 삼칸짜리 하몬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옛날 초가 삼각 그거지 그거 지을 나무를 한번에 이제 다 비어놓고 그거큰 막 등에 져서 오면서 그냥 이 토산 이쪽으로 자기네 이 산에 가서 그 나무를 등에 메고 오면서 그때 이 낭을 다 달았단 말이야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나무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옛날엔 나무가 없어가지고 돌로 다 경계를 했던 말이지 그거는 이렇게 지고 오면서 그냥 담을 다 헐어버렸단 말이야. 마을꺼 온전체다 이렇게 지고 오면은 나무가 기니깐 너무 기니깐 기냥 막 소도 안빌려주고 허니깐 종이 몽리(심술)를 좀 부린거지 아 그렇게 헤서 지고 와가지고 그 집이 지었다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부턴 마을 사람들이 다 몰라봤습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나무를 허래(하러) 딱 갔는데 상가 그니깐 지금같으면은 예 산림보는 직은(직원)이 균청이나 산림보호 직원을 가지고 상간가 그런말 들어봤나

<조사자 : 예예.>

산을 감시하는 사람 산림을 감시하는 사람

훈(한) 몇 년전만 하더라도 20년전만 해도 산림보호 지기허명 공무원이 잇었다고 게(그래) 그 사람을 봐 산감이라 한다고 게이(그래) 사람은 나무를 이제 도벌하는 나무를 끊어가버린 사람을 잡는 사람이구 구속시키고 이제 이렇게 허는(하는) 사람인데 산에 가서 하루는 큰 방이 잇지 방이 삼간짜리 나무를 집에 갖다놓고 집을 지어놓고 이제 살림을 장만 하젠(하러 한다) 옛날에는 밥그릇이든 방이든 나무를 잘라가지고 파서 만들엇단 말이지 거 알지 방아 밥도구리 도구리라하네 큰 이제 그릇 식기 닳은거 다라같은거 나무로 그 때는 만들엇다고 나무가 이만큼한 나무를 잘라야 만들 수 잇다고 게 그거는 잘라가지고 방아를 만들엇어 방아는 이제 직경 2메다된다 말이야 일로해서 우리집은 이정도 영 아즐정도의 큰 나무를 가져야 방아를 만드는 거라. 방아 짚고 곡식을 타작하는데 쓰는거 방아 알아?

<조사자 : 예.>

어. 그리를 만들려고 산에 가서 톱을 다 하고 이제 방아를 파고 잇엇단 말이야 근데 그 산림보호직원 산감 두눈이 나와가지고 비는 똑똑오는데 그 영감 앞으로 당팃당장 앞으로 와가지고 "잡아가겠다 말이지 당신은 이제 나무를 잘랐으니깐 잘못됐으니깐 당신을 잡아가겠다" 그리면서 와가니깐 그 할아버지는 아주 뭐 엄청나게 큰 나무를 아 그거를 하다가 톱허게(쉽게) 영(이렇게) 들러가지고 톱 일어섰단 말이야 머리에 "자네 비맞으니깐 들어와 여기 아즈란(앞으란) 말이야" 아즈라헐어. 그러니깐 그냥 막 "큰일났구나" 사랑으로 보이질 않는거 큰일났단 말이야 큰일났지 비는 똑똑 외가는데 산감이 와서 그 할아버지를 잡으레 왔는데 잡기는커녕 옷집으니깐 빨리 방 안으로 들어오라 하니깐 엄청난 나무를 탁 들렁(들어) 쓰니깐 하고 허명(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도망갔다 허는 이건 전설이 아니고 실화여 실화 이거 100년 밖에 되지 않은 이야기라 그대 자손들이 지금도 쪽 허게 살아오는데 그 바로 손자가 이 근방에서는 켈 센 사람이라 내도 사람 얼굴을 아는데 남양호 사건이라는거 너네 알아? 서귀포에서 출발해가지고 밀감하고 손님을 싣고 부산으로 가다가 제주 앞바다에서 침몰헤가

지고 백 60명인가 죽어버린 때가 잇엇단 말이야.

<조사자 : 실제로요?>

실제로... 25년 한 25년 정도 됐을거야 남양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당팻당장 고 바로 큰 손자가 그 가당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나도 알지 아는데 이 우리 연관례 체육대회를 한단 말이지. 그 이름도 내가 아는데 지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무슨 엄청나게 체구좋고해서 죽어버리니깐 시체도 못찾고 허구 당팻당장 손자가 실지적으로 그렇게 했고 당팻당장은 아까 니가 말한대로 산감나무를 헤오면서 동네 사람은 안빌려주니깐 담막 헐러버리면서 그렇게 했고 밤 산감 그 얘기가 실제적으로 적집이 되어?

<조사자 : 예.>

먼저 고른 사람하고 그것이 맞아 드느냐 말이야.

<조사자 : 예.>

그 다음 그렇게 세엿단 말이야..힘이 장사

40. 가사봉과 염통오름(터에 관한 이야기)

제 보 자 : 김순재(남·51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순재(조합장) 씨 덕

- 요약. 가사봉은 여승이 가사를 쓴 형체인데 목만 없고 아래로 꼭 여인상을 닮았다. 그 가사봉 바로 중간에 샘물이 나온다. 사람의 염통에서 난다 해서 이름도 가사봉 바로 밑에 염통 오름이라고 한다. 그 염통 오름의 제일 꼭대기에 무덤이 하나 있다. 여기에 무덤을 썼다고 해서 아주 잘됐다는 말이 있다. 이 염통 오름에 무덤을 쓸 때 관을 묻으려고 땅을 팠더니 그 땅이 그냥 흠뻑 빠졌다고 한다. 아무혈도 보지 않고 사람의 염통 딱 중간에 무덤을 썼더니 그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가사봉이 보이는 곳에 집을 지어 살면 남자가 여자에게 쫓기는 경

우가 많아, 그런 곳에는 흠어머니가 많다.

가새봉이 아니고 가사봉인데 가사하는거 뭐냐면 삼이 빨간 천으로 가리는거 알지? 보자기 같은거 그걸보고 가사라고 한다. 개 저 쪽으로 보면 이 꽃으로 보면 여인상이라 나가서 그 오름보여 아는데

<조사자 : 아왕 형태가>

형태가 무슨 기지국에 산 위에 이렇게 지금 세아버리니깐(세우니까) 좀 보기가 좀 그런데 자연 훼손이 된거 였는데 나가서 이쪽으로 보면 있는데 가사봉은 그것도 남자스님이 아니라 여자 스님이 갓을 쓴 형체다 이런거라 말이지 게서 가새봉이 아니고 가사봉이다. 겐디(그런데) 이 가사봉은 여승이 가사를 쓴 형체데 여학생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똑이 젓이라 젓, 딱 젓기 처 생겼단 말이야. 양 가슴이 이렇게 젓을 품어서 가사에서 목만 엮어 버리고 일로 이 미트레(밑으로) 여인상을 꼭 닮아서. 여승이 가사를 입은 형체다 해서 가사봉이다 했는데 그 가사봉 바로 중간에 물이 나온거야 샘물이 나온단 말이야 샘물. 이것도 역시 사람의 염통 여기에서 난다 해서 이름도 가사봉 바로 밑에 염통오름이라는데 잇서(있어). 염통여기 잇지 젓이 여기 잇지 염통 오름이 바로 여기 있어. 오름이 딱 그 형체에 맞게 잇단 말이지. 염통오름이라고 이름이 젓 있는데 그 염통으로 젓 꼭대기에 산이 하나잇어난. 무덤이 하나 잇단 말이야. 무덤이 하나 잇는데 그 무덤 어느 덧거는(어느 집 것인지는) 모르는데 이 염통에 바로 산을 썼다고 헤가지고 아주 잘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염통오름에 산을 쓸적에 그 뭐냐 관을 묻을려고 땅을 파니깐 그냥 흠뻑 빠졌다고 그래. 그 염통이 그렇게 해서 아무 혈도 보지안코 그냥 염통. 사람의 염통에 딱 중간에 산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런말을 들었는데 형체가 그런 형체다 가사봉은 그런 유사에서 가사봉이라고 했고 가사봉에 대한거는 그 정돈데 가사봉이 보이는 곳에 집을 지어 살면 남자가 쫓긴다.

<조사자 : 남자가 누구한테 쫓기는건데요?>

여자한테 쫓기니깐 여자한테 죽지. 갱(그러니까) 흠어머니가 많다.

<조사자 : 아...>

게서(그래서) 그거를 될 수 잇은 대로 안 보일려고 등을 이렇게 지고 저쪽에 짐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허는 전례가 여기는 있어. 이거는 확실한 거는 아니고 말에 전해오는데 어쨌든 여승이 가사를 쓴 형체다. 가새봉이 아니고 가사봉이다. 가새봉 한다 말이 게서 그 줄기를 찬자보면 우리 부락에 형성이 됐다는 그런말을 뭐 듣기도 하고 지금 사실이 그렇고 어..

41. 토산봉(설촌유래와 토산곳곳의 지명유래)

제 보 자 : 김순재(남·51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순재(조합장) 씨 댁

- 요약: 이 지역은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에, 부락이 설촌 되었다. 고려 때 성읍리 정의현, 대정현, 목관 제주현 이렇게 3개의 부락이 형성되었었는데 토산봉에 있는 부락은 위 3현 보다 600년이 앞서 부락으로 설촌 되었다. 성읍리 정의현보다 토산현이 먼저 설촌 되었다는 증거는 성읍리의 현청의 역사로 알 수 있다. 성읍리 현청은 본래 토산에서 오랜 기간동안 현청으로서의 구실을 하다가 고성으로 옮겨와 7년간 있다가 왜구의 침략으로 지금의 성읍리로 옮겨왔다. 따라서 토산현이 먼저 설촌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한 사람도 없지만, 1200년 전에 부씨가 설촌을 했다. 서귀포로 성산포까지 물 나는 곳이 없어 가물었는데 토산만 물이 나와 성읍리에서도 이 곳 물을 길어다 쓸 정도였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마을이다. 그런데 이 토산 즉, 흙 토 자에 뽕 산 자로 하던 토산을 200년 전 영웅호걸 한 사람이 이 지역 형체를 보더니 흙 토 자를 쓰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토끼 토 자로 바꾸었다. 그러나 1948년 4.3 사건 때 여기에 죽은 사람이 198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토끼 토 자로 바꾸어서 마을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매월 음력 정월초가 되면 포제를 지내는데 마을의 근합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축문을 보면 옛날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인재 양성을 해달라, 마을에 평안을 달라고 한다. 토산봉이라고 하는 까닭은 봉수대가 있

는 것을 보고 봉이라고 하는 것이다.

토산봉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흙 토자를 썼는데 원래 여기 설촌 유례를 얘기한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전 천년전 천년전 하던 것이 하도 오래되니깐 이제 한 1200년으로 올라가야지. 1200년이고 이조가 600년이지 이조 600년 계민 이조시대 이전 600년전에 이 부락이 설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증거로서는 이제 그 옛날에는 대학에도 도서관에 가보면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마는 표선정이 표선면, 남윤면, 성산면 이라고 해서 정의현이라고 했거든, 그니깐 정의군 지금말하면은 남제주군이 아니라 정의현이다 군이다 했거든. 게메(그래) 이것이 성읍리에 있어서. 성읍리 이게 고려말 이조초기에 있었는데 이 부락은 고려 때 형성이 된 부락이라 이거를 신빙의 자료로 삼는거. 성읍리 정의현, 대정현, 모관 제주현 3개군이 있었단 말이야 학생들도 알겠지만 그 중에 정의현 성읍리가 군청 소재지중에 하나여서. 겐디 이 부락은 그 세 현보단도 600년이 앞서서 이 부락이 설촌이 되어서. 게서 성읍리 정의현 보다도 토산현이라 흔히 더 먼저 있었다. 그 증거로써는 어떤게 있냐하면은 이 망봉 아래가면은 그 샘물이 아홉군데가 쭉 나는데 있어 그 샘물 위에 절이 하나 있는데 이 절 앞을 보고 절내왓가름이라 그니까 절내왓 절내왓 절내왓 이라하면 절 앞 받이라 말이지 절자에 올래자에 왓하면 들앗이니깐 절분은 앞 밥이라 한 말이다. 그게

절내왓 가름에 토산 현청 자리가 있다. 이거 갱 반 이제 쭉 나뉘서 있는데 거기에 현청지 여난. 현청지사가 있고 현재 보면은 옥터라는 곳이 있어 옥터. 옥터에는 뭐냐 감옥. 교도소를 얘기하는 거라 옛날에는 현청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옆에 옥터가 있어서. 나쁜사람 갖다 가둬두는 교도소가 있었다 이거야 근데 대정이나 성읍이나 절의 저기는 그게 없어 그게 없다 이거야. 신빙자료를 나가 제공을 하려니깐 그런거야 이런거를 증명해주는거지 지금 저기가면 있는데 지금 기왓장도 있고 터만 남아 있지?

<조사자 : 터만 남안 마심?>

기왓장만 있지 그렇게 되고 거기보면 무덤들이 있는데 비석이 있잔아

명칭이 다 적어져있어. 옥터 과수원이면 과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청은 이렇게 중심으로 놓아가지고 앞 쪽에 옥터. 지금 나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꽃아 다녔으니깐. 옥토 교소도가 있고 바로 현청 뒤에 밭이었는데(밭이라는게) 있어(있어) 비자난 밭 지금도 그 밭. 지명, 이름 할아버지 훈터 들으면 비자난 밭 어디냐 하면은 그디가서 가르쳐준다 말이여 비자난 밭이 있고 그 너머로 그 다음 감남 밭이 있어. 그 때는 감나무 과수원 이렇게 하지않고 감남밭. 감이 과수원이지 감과수원. 게 저기는 비자난 과수원 또 여기까지는 옛날에는 배식밭, 배를 재배하는 곳이라. 지금은 이제 그 새로 만든 그릇이 나왔는데 옛날엔 나무로 만든 그릇 쟁반 아니라면 배로 밖에 만들지 못했다고 배하고 나무로만 했었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배 밭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를 가지고거기 부락 사람들 만들고 그 현청에도 그 무슨 기구를 만들고 그런 것이 지금에도 있고 그 너머 밭으로 닥남밭이라는게 또 잇단 말이야. 닥남밭이라는건 종이 원료를 만드는 것이고 닥나무로 해가지고 창호지를 만들잔아 닥남밭이 있어 게난(그러니까) 내 이말 이 들어가지고 그것 함(한 번) 물어봐봐

<조사자 : 닥남밭이 어딴디까? 여기서 가까워마십?>

여기서 멀어 한 5km정도 되는데 게 밭이있다 이거야. 이것이 현청을 중심으로 해서 쪽 그 주변에 되어 있어 그 다음 영집니 영집터라는게 있어 영집터 영집터라는게 뭐냐면 옛날에 온님들이 살았던 터니 지금도 그디가면 영집터 위에서 오신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다. 그런 곳이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지장터 그건 나도 몰라. 한자로 적어진게 아니고 한글로 그냥 말만 전해오는 지장터란 곳을 알아 쟁 내가 확인해보니까 그 현을 바로 뒤편에 넘어서 잇은 밭인데 한 300평정도쯤 되는데 다른 디는(다른 데는) 다 평평해 근디 이 디(이 곳)만 움푹 패졌어. 300평 정도가 겐 집크기로는 할아버지도 의논하고 내가 지장터로 거길 명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기를 만들거나 사기 그릇을 만들거나 기와를 구운 장소가 지장터라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가 지금 예측을 하는데 이상하게 생겼어. 300평 정도만 집 지을 수 잇은 공간이 쑥 들어가 있어. 게서 거길 보고 집터라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이거는 상당히 오래전에

여기가 현청이 있었다 있었는데 거수로 얘기할게 거수로 너희가 중리를 성읍리에서 현청이 생겼는데 성읍리 현청은 어디서 옮겨왔느냐면 성산읍 고성리에서 올라 왔단 말이야 고상 고생은 모르겠거는데 겐 고성에서 현청이 있었는데 고성에선 7년 밖에 이 몬헛거든(못했거든) 7년 왜구들의 침략에 일본 사람들의 침략이 있어가지고 성산포에 일출봉이 있어나니깐 겐(그래서) 이거 이거 안되겠다 그래 중산으로 올라온게 성읍리란 말이야 여기서 고성에서 현청을 7년을 7년을 살았다 7년밖에 지탱을 못헛단 말이 지 게서 그 7년에 잇던 것이 성읍리로 옮겨왔다 고성 전에는 어디 잇었느냐 고성 전에는 바로토산에 잇었다 니가 말한 그 자리에 잇었다 게서 여기에서 엄청난 오랜 기간동안의 현청으로서의 구실을 허다가 고산으로 옮겨가서 아 고성으로 옮겨 가서 고성에서 7년하고 성읍리로 왔다 이런 얘기를 나가 홀수가 있는데 그거는 신빙자료가 벌써 옛날 할아버지들이 이런 옥터다 이진 현청지라서 현결로 봐서 나는 예측을 그렇게 현단(한단) 말이야 게 그렇게 해서 그디보면은(그 곳 보면) 성을 쌓았는데 성이 넘어가 한 2 m 정도는 되겠더라구 지금도 가면 확인할 수가 이서(있어) 사진 찍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디서(여기서) 한 10년 전에 이걸 전부 수압해서 그냥 도청에 문화재로 헐 올리니깐 그냥 웃어버리더라구 “그런디가 있냐 거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ㄱ르는데 뭐 이렇게 주민이 힘이있다 뭐 그거 안뉜다며 안뉜는 거지 그거 아니라면 아니로 알아버리지” 사진 자료 사니자료 우리야 그거 아는 신빙혈수가 어서 “책에 사건도 싣고... 사진은 해도 그것이 어떻게 된거냐면(어떻게 된거냐면) 여기 현청이 잇었던 도로에 갖 거나 옛날에 집을 짓젠하면 주춧돌알아? 주춧돌 전부 돌로하고 뭐 이렇게 뭐 비같은거 세워가지고 구멍 뚫어서 정낭 찌르는 것도 다 여기 잇었던 말이지. 이 토산 현청에 전부 그게 잇었어 잇었는데 이것을 고성에 다 실어가 본거야 현청잇는데 그 현청에서 없어지니까 새로 짓젠 허니깐 여기서 전부 주민들이 고선 꼬지 들같은 것들을 다 운반해 갖다 이거야 그래서 이젠 또 성읍리로 다 올라와버렸단 말이야 겐 내가 주장은 지금 성읍리에 가면 엄청난 문화재가 있는데 그건 다 토산꺼다 그렇게 얘기헤 겐 이 근방에는 이제 또 다른 전설하고 연결이 돼가는데 토산 설촌은 그렇게

해서 여기는 첫 번 설초는 부씨라고 한다 부씨 겐데 부씨는 여기 한 사람도 없어

<조사자 : 지금?>

지금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1200년 전에 설초는 부씨가 했다. 아 이렇게 해고 그 다음 내가 경주 김씨데 그 고종 자료가 또 뭐냐면 1대 게니 간 나가 2덴데 1대가 종달리에 잇단 말이야 구좌읍 종달리 1대가 있고 그 다음 바로 2대가 우리 동네에 2대 3대가 잇단 말이야 할아버지가 게난 엄 청 오랜 세월에 천년도 더 된 얘가지 그 선조들이 이 근방에 살았다 에 그렇게 된덴데 또 신빙자료는 서귀포로 이쪽에는 물 나는 곳이 어서 이제 고종달이라는 하는 말은 내가 해주겠는데 물이 이 근방 서귀포로 이 근방에는 물나는 곳이 성산포까지는 물나는 곳이 없단 말이야 게 여기만 물이나 토산만 그래서 현청이 처음에는 물이 만나니까 그 가물때 성읍리 사람이 바다에 와서 물 길어가고 오히려 여기와서 물을 길어간단 말이지 게니 (그러니) 현청은 그 옛날에도 물 좋은 곳에 잇으니깐 탐난다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마을이다 그런데 그것을 요 근래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당시 이름이 흙토자에 퇴산자 토산이다. 그때 당시의 명칭은 토산, 토산으로 해서 쪽 허게 해오다가 200년전 다른 사람헤 가면 150년 이렌 헐덴디(할 덴데) 어린때부터 150년이렌허난(이라고 하니) 나도 50이 뻗는데 50을 더해야 할꺼 아니야? 맞지?

<조사자 : 하하(웃음)>

젠 200년전으로 올라가야돼. 200년 전에 사람이 영웅호걸 영웅호걸 이 라는 사람이 뭐 뭐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지나가다가 이제 토산 지형에 와서 딱 요 멧돼지연 무루라는 것이 있어 멧대기 연현 무루가 잇는데 여기와서 딱 앉아서 이 사람 형체를 보니 흙 토자를 쓰면 안돼 이제 는 다 갖다 이겨여 전성기는 다 갖으니까 토산봉이 토끼가 이렇게 다리를 빌려서 활달헤지를 못했었는지 이제 1948년 4·3 사건때 여기에 죽은 사람이 198명 들어잇다구 198면이 만 18세 이상 스십세 집합하다 그래가지고 다 죽어버렸단 말야 게서 그 사실 1948년도에 여기 도청에 통계 연감을 보면 140세대가 여기 살았다고 허난(하니까) 말이야 140세대가

안돼 50년이 지나도 그 때 4·3 사건 때 살았던 그 호수는 만들지를 못한다고 게 한 세상 자버렸단 그래서 지금도 계중에 어떤 사람들은 토끼토자로 써버리니깐 마을이 망했다 흙토자로 쓰자 개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겐디(그런데) 여기서 난 인물을 옛날에는 풍조 뭐 뭐 별 별감 무슨 뭐 강옥곤 옛날 관직이 있는건 이 동네에서 다 말아서 헛단 말이야 뭐 한 미공신 뭐 이런거 다 이제 췌근에 와서는 출세한 사람이 없다가 췌근에 와가지고 15년쯤됐을거야 15년이 15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한 90년 경에 여기 표선면 1대 면장헌 사람이 잇었어 그것이 첫째 공무원으로써 그 당시 면장도 컷단 말이지 면장헌 사람이 잇었다 그것이 첫째 공무원으로써 그 당시 면장한 사람도 컷단 말이지 면장헌 사람이 김양하라고 그래서 그 면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면장이 누구냐 하면은 그 여기에 잇은 김문탁 지사야나? 혹시? 김문탁이 경찰관에서 제주도에서 1등 사람이란 말이지 김문탁 지사가 어느 지사였냐면 신구범 지사 바로 다음에 김문탁 지사가 됐단 말이지 그 사람이 여기 면장 표선면 1대 면장 한 사람에 손자지 손자 김문탁엔(이라는) 사람이 전국서열 5위 게니까(그러니까) 경찰 종합 학장 학장을 허고 경관으로써 허고 제주도지사로 그만둔 사람이 이제 췌근에 출세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잇고 그 다음 싱가포르 대사라고 헤가지고 김정철 대사 게 이분 대사가 뵈고 로마허고 세 군데 다니다가 이제 그만둔 그런 인물이 여기잇고 그 다음 영사라해서 내 친구 흥나가 지금 저기 싱가포르에 영사로 김시흥 영사가 지금까지 현재에 잇어 나보다 흥 살 어리니깐 나 51니까 지 50이라 그 사람이 잇고 작년 1월 영 출세한 사람을 보는거라 작년 2월달에 고등고시 사법고서 합격한 사람이 작년 12월달에 그 사람이 흥번에 나와버렸단 말이야 흥 번에 나고 어 인물로서는 이거고 나도 마찬가지로 이 근방에는 표선면 그 췌 주장을 허는 사람이 한분도 없었거든 나도 근합장이니깐 전체 중에서는 한 사람 뽑은거 아니?게서 이제야 이부작이 살아난다 이런 말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매월 음력 정월초가 되면 토제를 지낸다고 알아? 토제 몰라?

<조사자 : 들어보긴 해신디(했는데)...>

토제는 어디 부락 남원읍 일부 부락하고 성산읍 일부부락 표선면은 전

체가 다 이..저...1월 정월 초하루(초하루)날로 시작해서 정일 정일이니 헤일 그 12년간이지 갑자을축 허는 그 정일이나 헤일에 밤 딱 11시로 1시 사이에 호젓 이 마을 제완이 이서 근합 안녕을 위해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고 이 부락에 그렇게 허는데 그 부락이 그런거는 토산봉 맨 꼭대기 그디 가면 이렇게 있어 그 제도이 잇단 여기서 축문을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게 없는데 인재양성을 헤달라 마을에 편안하게 헤달라 이런것만 계속 불러왔어 이제 열십년동안 그러다보니깐 체근에 와서 이런 사람들이 좀

뛰어나오지 않느냐

<조사자 : 안 바뀌도 되겠습니까 허허>

게멘(그러게) 그래서 지금 사람들간에는 이제야 올게 온다 이제야 발복을 안다 이제 져실 내가 물 이어갈꺼(이어갈거다) 이거 마을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돼고 돼어 잇다 토산봉도 토기가 동쪽을 향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 잇은 형체가 토산봉이다 이렇게 토산 봉리라고 허는 거는 오름이라고 허기도 하고 봉이라고도 허는데 봉수대가 잇은 걸 보고 봉이라고 헌단 말이야. 제주도에 쪽 올라가면서 보며는 뭐 요산봉 봉자난면은 다 봉수대가 잇단 말이야 토산봉도 마찬가지로 봉수대가 있어 크게 이렇게 해서 웨구 침략 때 낮에 연기로 이렇게 표시하고 밤에는 횃불로 연락을 허는 걸로 허구 봉수대가 오름 꼭대기에 그런 자리가 잇다 마을은 마 이 정도로 허고 ...

42. 거슨샘, ㄴ단샘

제 보 자 : 김순재(남·51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순재(조합장) 씨 덕

- 요약 고종단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온 사람이다. 제주도의 터를 보고 엄청난 위력을 가진 혈들이 있어 전세계를 지배할 사람이 제주도에서 나

을까봐 그 혈을 끊기 위해서 종달리에 들어왔다. 들어와서는 인물이 날 혈, 물이 나오는 혈등을 다 잘랐다. 혈을 다 자르다가 거슨샘에 도착하였다. 물이 나오는데 그 지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밭을 가는 농부에게 물어보았다. 고부랑 행랑 아래 행기물이 어디냐? 농부는 그런 물은 없다고 하였다. 그 농부는 고종단이 오기 전 밭을 갈고 있었는데 물귀산(토산에 있는 거문석이 여자로 변장한 것임)이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였다. 그래서 못그릇에 물을 떠 길마밑에 숨겨 주었다. 여자가 숨은 후에 고종단이라는 사람이 물어보러 온 것이다. 목숨을 구한 여자가 나와 절을 백배하면서 들덕에 줄기가 끊지 않고 풍성할 것이라 하면서 사라졌다. 지금도 그 물이 끊어지지 않고 나온다.

거슨샘 물은 거꾸로 난다. 모든 물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지만, 이 물만은 한라산 쪽을 향해서 물이 난다. 노단샘이 거꾸로 난다.

그 다음에 그 물 관계, 물이 있어서 여기가 현청이 자리가 분명히 있었고 신빙할 만하다. 물에 대한 그 저 전설 고전다리 전설 그런 거 이서(있어).

<조사자 : 예.>

그거를 나가 연결을 해간단 말야 나가 굶다그네(말하다가) 그건 내가 들었수다 허면(들었다 하면) 내가 그칠게이. 고종단이엔 사람이 그건 저 중국에서 온 사람같은 고종단이라고 중국에서 온 사람인데 이 제주도에 와서 이 터를 보니까 엄청난 위력을 가진 혈들이 만이 잇엇단 말이야 혈들이 한라산에 기상이 높고 해서 전세계를 지배할 사람이 제주도에 나온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이제 그 고종단이엔(이라고) 현 사람을 제주도에 보냈단 말이야 위험한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나니깐 한라영산을 받아가지고 한라산 정기를 받아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인물이 제주도에 이 조선이 제주도에서 그런 인물이 나니깐 혈을 빨리 끈어버리자 겐 고종단이엔 현 사람이 종달리에 들어왔단 말이야 종달리 해서 쭉 혈을 다 자르기 시작했어. 인물이 날 혈도 자르고 물나오는 혈도 자르고 게니깐 물도 하나도 안나오고 혈도 하나도 어서 다 잘라온거야 딱 잘라오는데 토산 여기

딱 왓단 말야 거슨샘이엔현(이라고 하는) 전설을 나가 얘기할라고 하는데 거슨샘인엔 현 그 지경을 딱 왓단 말이야 거니깐 물이 어디 나는게 보이 질 안한단 말야 혈은 떠야 되겠고 그래서 저기 선산에서부터 혈을 다 잘라봐서 게서 물나오는데 흐나도 없단 말이야 흐나도 사실 흐나도 어서 겐 물을 다 잘라오는데 토산 거슨샘이영 와서 어 그 명부를 보니깐 물은 분명 잇단 말이야 아 이거 혈을 잘라야겠는데 아 그런 물이 없단말이야 게서 이제 저기 밧을 가는 농부가 하나이서 밧을 가는 농부가 흐나 잇었는데 그 농부란에 그 고종단이연한 사람이 몰으러 온거야

<조사자 : 이 저 고부랑 행랑아래 행기물이 어딴니까>

하고 몰엇단 말이야 갱 고부랑 행랑 팽랑이지 알아? 그런말 들어봐?

<조사자 : 예, 그건 들었는데>

아니 거슨샘이연(이란) 그말 ㄱ를(말 할) 때 그말 ㄱ라준(말해준) 사람이 와서 밧가는 농부한테 와서 아 여보쇼. 밧가는 양반 말 물음시다 했단 말이야 고종단이연(이라는) 한 사람이 게서(그래서) “뒤냐고” 했더니 “아 이 여기 고부랑 행랑아래 행기물이 어디냐 문서엔 보니깐 고부랑 행랑아래 행기물이 있는데 혈을 난 나는 자르려고 왓는데 어디냐” 물으니깐 밧가는 농부는 “아 그런 물 없다” 그 오기전에 그 오기전에 얘기를 나가해야졌다. 밧을 갈고 잇는데 어떤 여자가 나타난거여 어떤 여자는 물귀신인지 거슨샘이 물귀신이란 말야 토산에 잇은 거문석이 물귀신이 여자로 변장해서 와서 “농부님 농부님 저가 이제 곧 죽게 뺏습니다 저를 숨겨주십시오. 금방 이제 고종단이엔 허는 사람이 저를 잡으러 오니까 혈을 뜨러 온단 말이지 물을 나지 못하게 허는 사람이 온단 말이지 저를 숨겨주십시오!” 밧을 가는 사람은 어디를 숨기겠냐 말이지 근디는(그런 데는) 나무도 없고 숨길 데가 없는거야 그래서 게냥 “이를 어떻게 숨기면 되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저 이 그때는 늦그릇이라 헨 늦그릇을 씻는데 이 늦그릇이기 저기 물을 길어다가 이 길마 길마는 뒤냐하면 소등에 밧 쟁기를 싣고다니는 길마지 길마 안장. 알아?

<조사자 : 소에 걸리는거?>

소등에 이제 목슨 짐을 실젠하면(실으려고 하면) 길마라고 하는게 잇단

말야...그것이 뭐냐하면 고부랑 품으로 이렇게 고부라진걸 위해서 만든 거라 11 등에 아 게서 이제는 농부는 여자가 2큰대로 열린 낫그릇에 물을 떠나 그 길마말에 숨겼단 말이야 그 여자는 없어진 거라 말이야 그 농부한테 심심부탁을 학 없어져버렸단 말야 게 그 여자는 길마속에 행기물 속에 귀신이 나민 들어가 버린거란 말야 한참 잇으니깐 아년게 아니라 여자 말대로 고종단이언 헌 사람이 이루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이 온던 말이야 딱 왔단 말이야 어 농부 여보시오 고부랑 폭랑알어 행기물이 무엇이오 이렇게 헛단 말야...그 고부당 폭당 아래 행기물게 우리는 모른다고 그 고부랑 폭랑 아래 행기물이 잇을 수가 잇냐고 아게니까 고종단이가 아 여기가 분명하다 고부랑 폭랑아래 행기물이 분명히 잇는데 아 여 문새가 잘못될까 해서 아이거이거 다 필요속 다 찢어서 가버렸단 말야 가버리니깐 이제는 그 고부랑 폭랑아래 행기무레 곱쳤던 여자가 딱 나와서 절을 백배하면서 들덕에 이제 줄기가 끈지 앓고 맥을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헤가지고 사라졌다 게서 지금도 그물이 잘라지지 앓고 나고 잇다. 나고 잇는데 서귀포 저쪽 서쪽으로 물이 나고 샘물이 나고이 열길 동쪽 고종도이가 나올 궁단리까지는 샘물이 그래서 엇다 그런 전선이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하나도 없어 이 근처에는 엇어 게서 고종단이가 혈을 잘르래 온거를 말잇다 게 고종단이 전선이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적립을 하고

거슨샘이라 함도 물이 거꾸로 난다고 해서 거슨샘이라 게난 모든 물은 한라산을 중심으로해서 바다쪽으로 흐르게 돼 잇단 말이야 근대 유독 그 물도 그 아까 2큰(말한) 행기물만 한라산 쪽을 향해서 물이 난다 말이야 한라산 쪽으로 해서 물이 나기 때문에 거슨샘이라고 허고 또 저쪽 가면 아까 현청잇었던 절 내앞 가름이라고 허는 노단샘이라 한다 이쪽에 거슨샘이는 문이 하나만 나고 노단샘이는 물이 9조대관나 노단샘이 다음은 오른쪽으로 난다 바르게 난다해서 노단샘이 거꾸로 난다 해서 거슨샘이 물 전래는 그거 그거구 또 그 다음 무시거 뭐고?

43. 개미목(육혈)

제 보 자 : 김순재(남·51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순재(조합장) 씨 댁

● 요약. 백록담 왕갓릉 바다 밑에 개미목에 있는 육현종. 모관 사람 아버지가 죽어 제주도에서 가장 큰 골짜기 탐라계곡(왕관릉)에 묻히었다. 비가 많이 와서 물바다가 되었다. 상제들은 잠만 자고 사람 죽은 것처럼 잠갔다. 먹지도 못했다. 큰 상제가 큰 두건을 쓰고 배옷을 입어서 상기라 해서 모관 사람들이 염장을 하러 개미목에 올라갔다. 하관이 끝나고 내려올 무렵에 엄청난 비가 내려 물바다가 되었다. 그런데 그 때 큰 아들 상주가 갑자기 날개가 생겨서 사람들이 탐라계곡 물 냇가로 넘겼다는 전설이 있다.

<조사자 : 혹시 죽었당 살아나는 이야기 어수과(없어요)?>

죽었당(다가) 살아나는 그거는 들어보질 난 못했고 그건 뭐 옛날 할아버지들 옛날 삼아 끄는건데(말하는건데) 실지 여기 잇었다는 결코 보진 않고

<조사자 : 옛날 이야기라도 동화같은 옛날 이야기라도 전해주세요. >

이 부락에서 잇었던 이야기는 없고 그 살앗대허는(살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런말은 못들었는데 그 백록담에 왕갓능 바로 밑에 개미목이면 현대가 이서(있어) 알아

<조사자 : 많이 들어봤는데요.>

동산 코스에 탐라 계곡지나 개미 등지 낭 개미목지낭 계낭 상각봉지낭 몽진각이라고 허는(하는)데가 잇다고 거기도 용진각 백록담에서 내리는 물 용존각 지나서 왕갓릉이라는데가 이서 용존갓을 지낭(지나) 올라가야 백록담이거든 개미목에 육현종에 하나가 잇었는데 그 모관사람이 그 모관 사람이연 허영 모관아영 허명 재주서 보고 모관이라 허면 그 모관 사람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왕관릉 그 탐라계곡에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골짜

기 탐라계곡이 백록담에서 넷줄긴내 곳에 땀에 묻엇단 말이지 물은 하관을 딱 해서 공군을 쓰자마자 그냥 비가 엄청나게 온거야 막 계낭(그냥)비가 오니깐 그냥 비가 몰바다가 된거야 몰바다가 돼 버렸는데 그 연에 가서 딱 아버지를 쓰니깐 그 뭐 그 옛날 기는 뭐 먹을 것도 없고 허니까 상제들이 줌도(잠도) 안자고 사람 죽은 것처럼 잠자고 해낮단 말이야 그게 보멍(보면은) 잠도 하나도 안자고 경(그렇게) 해낮거든 아버지가 죽으면 잠도 안자고 속 허게 근엄하게 깻거든 켈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헌(한) 떼데 그 큰 상제가 이렇게 큰 두건 쓰고 베을을 입고해냈는데 이제 상기라해서 모관 사람들이 염장을 허래 개미목에 다 올라간거라 남녀노소 이제 하관이 끝나고 올 무렵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니깐 온통 다 몰바다가 된거야 사람들의 끝을 내릴 정도가 됐는데 그 혈은 딱 속그온 큰 아들 상주가 계낭 갑자기 날개가 돌아브거라 날개가 돌아가지고 그 모관 사람 염장하러 갔던 사람들이 어깨 이렇게 안고서 탐라계곡 물 냇가로 넘겼다고 그런 전설이 잇단 말이야 게 그런 전설이 잇어가지고 그 어느 해에 가서 그 할아버지를 이묘를 하게 됐어 뭐 모르니깐 그디가 좋지않다해가지고 더 출세를 할려고 그거를 딱 파는데 딱 터보니깐 황소 한마리가 딱 누워잇었다는 거야 관속에 아버지가 누워잇는게 아니고 황소하나가 딱 누워잇는데 소는 어느 발부터 일어나? 어느발 어쨌든 하나부터 일어선거지 뒷발은 일어섰고(일어섰고) 앞 발만 일어삼오면 되엇을건데 황소가 그렇게 누워잇었던 거야 파보니까 게서(거기서) 그 두발만 일어섯으면 그 자손이 그냥 막 전국 세계를 누빌건데 그런건 없고 파혈돼버렸다 그렇게 한다 그게 제 1혈이고, 그 다음 제 2혈 한람요에 반내기 밧이라는 디가(데가) 잇어 반내기 밧이라는 곳이 잇는데 거기에가 바로 나도 경주 김씨데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딱 섰다이거야 혈중에 6반대기라고 하는데 그 혈에 가서 씻어 거기서 씻는데 기낭(그냥) 뭐 엄청난 엄청난 위력을 전국을 기낭 이제 중국 김씨가 막 허다가 장손이 위미리 사람 위미리 사람이 장손인데 이 사람이 보니깐 선근바로 위에 가서 상을 딱 써버렸단 말이야 상은 딱 써버리니깐 하관을 딱 하자마자 위미리에 기와집이 12채가 잇었다고 하더라고 아주 옛날에 이래 그 하관을 딱 하자마자 12채가 불에 타버렸다는거야 거의 그

냥 잘못돼분거지 혈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게서(그래서) 이제 그 두혈은
파혈돼버리고 앞으로 무신 뭐 4혈 남았다는데 그 4혈을 찾아서 쓰면은 그
런 전설을 들었는데 그건 뭐 여기 전설은 아니고 그 다음에 거슨샘 관계
는 그거고 또 뭐가 잇을까

44. 토산봉 구리먹고 병 나은 이야기

제 보 자 : 김순재(남·51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순재(조합장) 씨 댁

- 요약 토산봉에 구리가 있는데, 그 구리를 먹으면 부러진 뼈도 다시 붙는
다고 한다. 토산봉에 토끼가 동쪽을 향해 누운 부분이 있다. 토끼가 머리
부분에 가면 엄청나게 땅이 파져 있다.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소문을 들
고 파다가 계산이 맞질 않아 놔두어서 그런 것이다. 또 배를 토산봉에다
대어 놓으면 구리 자석에 의해 뱃머리가 토산봉쪽으로 향한다고 한다.

<조사자 : 토산 그리 가니깐 배가 토산이민가 쉼부치가 발견되고>
아 맞아 그렇지 내가 다 ㄱ르켜(말할게)
(웃음)

이 토산봉에는 그 구리가 있어 구리가 잇는데 그 지금도 여기에서 나
는 구리를 먹으면은(먹으면은) 뼈가 붙는다고 그래 뼈가 딱 잘리질거 아니
교통사고라도 뼈가 잘라진단 말이여 뼈가 부러지면은 여기 토산에게 글을
주워요 먹으면은 붙는다고 그런다고 과학적으로도 증거를 대지 못하는 일
이 하나일어 게서 제주도에 사람은 그거 소문들은 사람은 그걸 사다먹고
다 낫는거야 게 우리 큰아들도 딱 뿌뜨려졌는데 그거 먹어서 했는데 이상
하게도 X레이가 보니깐 그게 타탄하게 굳어졌다 이거 야 그게 의사도 확
인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있어) 그것이 여기서만 잇단 말이야 토산봉에

만 있다 구리가 매장되어 있는데 저쪽 토산봉 저쪽 토끼가 동쪽을 향해 누웠다 했지? 토끼가 머리 부분에 가면 엄청나게 땅이 파져있단 말이야 이거는 옛날 일본이 여기 침략 했을 적에 그 구리가 여기에 매장이 되어 있다 게서 그냥 그 구리를 팔려고 우리 근산 사람들 못 견디게 그걸 파도 계산이 맞질 않으니깐 파다가 놔두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토산 앞바다에 배를 딱 세우면 철선 철산만 쉼선, 철산이 딱 세아 놓으면 은 이상하게도 뱃머리가 토산봉만 향해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게서 이것을 구리 지식(자식)에 의혜가지고 자식에 의혜가지고 이쪽으로 빨리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닿는다. 하는데 이거 어디서 들었나?

<조사자 : 예 토산... 할아버지께서 근데 거의 이야기를 잘 안해주셔서 지고 표선이리 김대은 할아버지...>

아... 김대은 할방(할아버지)~

<조사자 : 근데 3줄 정도밖에~하하~!!>

그니까 이거 자세하게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 계난 그것이 이쪽을 향해있었다고 토산봉을 향해서 가만 세양놔두면(세워두면) 아 이상하게 토산오름을 향해있다 이거야 그니 그거는

<조사자 :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몰으니 이거 구리가 구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게 지금도 구리시엔 허는걸 보면은 아주 반짝반짝 자식이라 자식 게도 우리는 가서 죽 올려고 하니깐 몇 개 줍지는 못해 잘 줍는 사람은 하루에 1cc 1 구랍 정도 줍서 지금보니까 한 5명 정도 하는 것 같드라고 게고 또 다친사람 살아나고 그 때문에 그렇다고 전해들영(전해들었지) 귀로만영(귀로만 이렇게) 들은 게나 또 무시거(뭐)?

45. 뱀에 관한 설화

제 보 자 : 김순재(남·51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순재(조합장) 씨 댁

- 요약: 옛날에 1200년 전 오랑캐들이 이 지방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여기 토산을 침략을 해서 높은 사람 다 죽이고 그렇게 하였다. 토산의 팽팽이 물이라는 냇가에서 토산 예쁜 처녀 3명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오랑캐들이 이를 보고 강탈하려 하였는데 처녀들이 뱀으로 변해 버렸다. 그래서 오랑캐들은 도망가서 토산 여자는 건드리지 않았다. 뱀이 따라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가 뱀으로 변신한게 아니라 하늘이 조화를 부려 오랑캐 눈에 뱀으로 보이게 한 것이다. 앞의 이야기가 잘못 와전되어 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였다. 미신으로 토산 사람들이 뱀을 모시고 키운다고 ..토산 여자를 상대하면 뱀이 따라 온다는 등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 둔다.

여기 사람 얘기 안 할꺼야. 엄청난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란 말이야. 여기가 특히 여자들 여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꺼야. 아마 아무도. 그래서 막 내가 방송국에도 항의하고 신문사에도 항의하고. 이제 막 한 적이 있는데 뭐 전설의 고향 같은데도 막 방문하고.

<조사자 : 예 들었어요. 전설의 고향에 잘못……>

이거 해서 상의한 사람 나 밖에 없어 말이여. 이거 그때 나 고등학교 삼학년 될 땐데 방송에 막 올면서 이건 거짓이다. 그렇게 해서 막 했는데. 그 그 전설이 여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이걸 내가 이 얘기 하면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받아들여) 여러분들이 강(가서) 굶어불면(말해버리면) 난 얘기 난 안할꺼고 이건 이게 아니다 말이여.

<조사자 : 근데 그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예, 이거 뭐 사람이 여기서 시집갈 때 뱀 쫓아간다고 헤그네(해서), 여기 사람이영 결혼 안 한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고, 무슨 여기에 잇은 토산당 본풀이 거기에 뱀에 관한 얘기가 나온덴(나온다고) 예, 그게 잘못 사람들한테 와전되가지고 인식이 그렇게 된거라고.>

그래 바로 그거라 말이여

<조사자 : 교수님이 그 이런 구전 이런거 박사학위 받으셔가지고...>

그래 바로 그건데, 건데 이거를 구전으로 전해들은 것이, 여자 이제 시집을 가면 뱀을 7치 따라간다, 이게 여자가 피해지역이라 남자도 그렇고, 여자가 시집을 갈려고 하면은 이게 터무니 없는 얘기지, 터무니 뭘 뱀을 뭐 어디 모신다. 게서 나 그전에도 옛날에도 이 학생들 와서 막 그러니까 우리집 다 뒤져보라고, 토산 어느 집을 다 뒤져보라고, 뱀을 모신 디가 있는가. 거 생각이나 헛거나, 뭘 뱀 궤에 넣어서 거 잇을 수가 없는 얘기가, 뭘 거 잇을 수 없는거 아니, 그거 아 게서(그래서) 이 이전 아주 이전 잇을 수 없다, 헤가지고 나 막 항의한 적도 있고, 지금 나 이디(여기) 지금 신문에 나 낸거 다 있어, 지금 자료 다 가져잇는데 건 뭐냐 하면은 그 옛날에...

<조사자 : 이거 지금 이것이 말씀이 정확한 거 아니마씨(아닌가요)?>

하기야 나도 전해들은 거지, 옛날에 그 저 이 어떤것이 옛날에 우리가 1200년 전 역사를 가졌는데,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똑똑한거야, 엄청나게 똑똑하니까, 오랑캐들이 여길 이제 쪽 다 이제 저 오랑캐들이 이제 전부 이제 침략을 헤가지고, 높은 사람 다 죽이고, 이렇게 행 허는데, 토산을 딱 왔다 말이며, 토산을, 토산을 왔는데, 그 바로 그, 저 현청 바로 앞에 큰 냇가가 하나 있다 말이며, 큰 냇가가 있는데, 물이 아흠군데 옛날에 물이 막 잘나니까, 물이 아흠 군데서 냇물이 죽 내려가다 아주 깊숙한(깊숙한) 뭘 깊이를 알 수 없는 이 팽팡이 물이렌 현 물이 잇었던 말이며, 바로 현청 바로 이 서쪽 냇가에 바로 붙어 잇다 말이며, 그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잇어 여자 처녀 세 개가, 토산 처녀들이 토산처녀들이 아주 높은 사람 그 뭘 자제분이겠지, 토산 처녀가 세분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차려서 이제 빨래를 하고 잇었다 말이며, 빨래를 허고 잇었는데, 아 오랑캐 그 아주 무리들 아주 나쁜 놈들이 그 여자 아가씨 세 아가씨를 그냥 막 강탈 하려고 한거야. 빨래 하는걸 그냥 게서 막 안고 막 하니까, 거 어떻게 헛꺼냐 말이며, 게니까, 그 여자 셋이는 이제 뱀으로 딱 변신이 되 버린거라, 어디서 조화를 부렸겠지, 아, 게니까 그 남자들이 그 오랑캐들에게 막 안고 이렇게 헛디 뱀을 안은거야. 뱀을 게문 어떻게 된거나, 기냥 버리고

막 도망갔어. 게서, 그 사람들이 가서 토산여자는 건드리지 말라. 뱀뱀 따라온다, 뱀 따라 온다, 어, 이렇게 해서 오랑캐를 무찔렀다. 겐디 그렇게 험게 아니고, 하늘이 조화를 부러가지고 그 오랑캐한테 뱀으로 둔갑을 시켜버린거지. 뱀으로 그 아기가 뱀이 맨드러진게(만들어진게) 아니라, 그 오랑캐 눈에 뱀으로 보여 버린거라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토산여자는 이제 상대하든 뱀이 이렇게 해서 어, 안된다, 뭐, 시집갈 때 따라간다, 뭐, 이렇게 전설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거는 터무니 없는거고 오히려 뭐, 김녕 7튼 디가(같은 데가) 처녀들 저...

<조사자 : 재물로.>

재물로 받치고 허잖여. 겐디(그런데), 그디는(거기는) 시, 실지적으로 경 했음에도 문제가 없고, 우린 아무것도 아니지. 우린 겐디 여기도 마찬가지로 뱀을 여기 죽이진 않는다. 이거야.

<조사자 : 다른...>

다른데도 안 죽여. 다른 데도 뱀은 저, 해서 뱀이라는거는, 이 구렁이나 독사, 독사는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좀 영 공격을 할 수도 있지. 구렁이는 절대 건드리지 않으면(않으면) 공격하질 않은단 말이야. 공격 안한다 말이야. 게, 뱀은 아주 좀 신선하고 깨끗한 디만, 전 다녀. 또, 뱀은 저 나쁜 데는 안다닌다 말이야. 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냥 와전, 와전, 와전 되고 허다 보니까 그냥 이 여기 잇은 처녀들이 시집갈 적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무신 아프거나, 또 뭐, 무신 좀 잘못되거나, 허든 그냥 전부 여자 탓으로 돌리는 거라. 게서, 이혼도 헤버리고, 이렇게 행 허는데. 이러, 이거는 뭐, 터무니 없는 거고,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됨(발달된) 이 컴퓨터 시대에 이런 말은 이진 진짜 저 도채비(도깨비) 이, 인데 ..이진 잇을 수도 없는 얘기고, 또 여기와서 이렇게 헤봐도 그렇게 허는 곳이 한군데도 없고, 그러고 또 단 우리가 이제 얘기를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하면은 미신, 1월 15일날 정월 15일날 그 신방을 모시고, 어느 그 당에 가서 토산 토산당이런 현 당이 잇다 말이야. 여기가서 정성을 들인다 이거야. 우리가족 편안하게 헤 주십시오. 요거 하나밖에 없어. 미신이엔(미신이라) 현거는, 게난 여자들이, 게난 두 개가 잇지. 여자들은 일월 정월

보름날 일월 십오일날 토산 당에가서 여 마을의 안녕과 가족의 안녕 안녕을 빈다 이거야. 정성 들여서 비, 비는 날이 일월 십오일날 여자들이 가는 거고 그때 돼지고기도 안 먹고, 돼지도 안 잡고, 아주 조심하고 헌다 말이여. 또 남자들은 일월 일일 첫째 정일날이나 해일날 ㄷ새기 날, 이날에 가서 이제 새벽에 가가지고 열두시나 한시 사이에 가서 토산 봉 꼭대기에 가가지고 부락 안녕을 빌고, 이제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남자들이 헌다 말이여. 게 미신이 딱 이거 두 개라. 이거 뱀은 뭐 요만이도 관계된 게 없어. 전혀.....

계난 뱀은 그렇게 해서 이건 근거가 저 무너, 전혀 없는 것이다. 게고 (그렇고), 내 이제 내가 오십하나(오십하나)지만 여기서 쪽 여기서 살았는데, 전혀 뭐, 뭐, 그런게 없다. 이런 말씀을 마 학생들 앞에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그거고, 또 사실 이디(여기)와서 부락을 이렇게 돌보면 아, 다른 부락이나 다 꼭 같은다. 이거지. 꼭같으다. 어디 무슨 어디 훈 뭐, 들어봐. 집 다 돌아보라고. 어디 뭐, 모시는 게 잇는가. 우리 다 헤바봐. 어디 뭐 그런 흔적이 잇겠는가. 없다말이여. 수박먹고, 그 다음 또 뭘 얘기해 주까. 그, 그거하고.

46. 힘자랑

제 보 자 : 김순재(남·51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순재(조합장) 씨 덕

- 요약 : 각 부락마다 '들음돌'이라는 힘자랑 할 때 쓰이는 돌이 있었다. 불량배를 마을 밖으로 내쫓을 때에도 힘자랑으로 내쫓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돌은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때 깨졌다고 한다.

서로 힘자랑하는 얘기는, 여기는 그 뭐,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들음돌'이라고 해가지고(해서), 큰 돌 게, 똥그란 돌 뭐, 다, 부락에 다 잇은 돌인데, 그 마을 중간에 갖다 놓지. 갖다 놔가지고, 이제 제일 센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저쪽 한 뭐, 백 메다(미터)면 백 메다, 딱 들고 가는거야. 게서 이제 다른 동네에서 이제 까불까불해서, 이레 온다 말이며, 이레 오면은 저 돌 좀 들러봐라, 들러보고 나하고(나한테) 덤벼라. 그 돌은 못 들르면은 안돼는거지. 게서 들음돌 허는건, 힘자랑이지. 그건 게서 이디 청년들은 이제 해서 뭐, 다 들르는게 아니고, 몇 사람 들르겠지. 게서 그 싸우기 전에, 싸움을 허기 전에 그 들음돌을 들러서 못 들은(들은) 사람은, 아 나 져다 해야 돼고, 아, 들고가서 허든 흥번 헤블 만 하고 해서 싹는다(싹운다)는 얘기여. 겐디 그건 그 돌을 깨부러터. 그, 그걸 새마을 사업때 보니까, 깨부러터라고.....

<조사자 : 지금 어서마썸(없어요)?>

없어. 깨버리고 없고, 힘자랑은 그거고, 그 우리가 예, 장이 나면은, 영장 허랴(하러) 가면은 흙을 메다가 봉분을 만드려야 돼잖아. 게든 힘자랑 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하며는, 그걸 해서 그냥 뭐 아주 큰 가마에 뭐, 돌이가 이렇게 들르지도 못하는거를 이제 들러다 이제 논는거. 그런 힘자랑이 있는데 건 옛날이고, 지금은 뭐, 건 아예 바보가 하는 짓이고.

47. 토산 뒷병디

제 보 자 : 김순재(남·51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순재(조합장) 씨 덕

- 요약 : 정씨가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태평성대가 찾아온다고 한다. 특히 토산 뒷병디에는 만호가 모여 살 정도로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여기 바로 이 위에 가민 토산 뒷병디라고 허는 속칭이라. 토산 뒷병디, 토산 뒷병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쪽 얘기 해오는 얘긴데, 예, 우리나라는 정씨가 지배를 해야 가장 편안한 나라가 된다. 이말 들어 받?

<조사자 :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정씨, 정씨계, 정씨가 대통령이 돼야, 왕이 돼야 아니 대통령이 되어 편안한 삶을 누린다. 그때가 오면은 토산 이 뒷병기는 만호를 유지한다. 만호, 만세대지. 게난 그 옛날에는 만세대 허면 뭐, 제주시 다음가는 부락 이 만 세대가 될 꺼라 말이지. 엄두도 못네지. 겐디 만세대를 이 토산, 이 뒷병디에 유지가 된다. 그 얘기를 아주 옛날 할아버니부터 전해오고, 전 해온게 이거라. 지금 정씨가 나라를 지배허면은 여기는 만호가 들어선다. 게 지금은 만호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옛날에야 만호면 엄청난 거 아니라 말야.

<조사자 : 왜 하필이면 정씨가..>

아 것도 난 모르겐어. 무슨 정감록이엔 헌 말 들어봐서?

<조사자 : 예.>

거기에 잇다는 거야. 정씨가 도움, 도움을 해야 편안한다. 그 한번 아 으 물어봐 봐. 아, 어디갔더니, 나라가 정씨가 지배하면 정감록에 그, 잇다고 정감록이 됩니까 하면, 나도 몰라 게서 한번 물어봐 봐. 정감록에 정씨가 나라를 지배해야 나라가 아주 편안하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고 허는데, 이 뭇 말 입니까. 토산에 갔더니, 그 시대가 오면은 토산에 만호가 이제 상주한다고 험디다. 게문, 지금 뭐, 만호민 그 뭇 한 그때 옛날에 가 만호니까, 지금은 뭐 그거 한 백배가야겠지.

48. 산여리통

제 보 자 : 김순재(남·51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순재(조합장) 씨 댁

- 요약 : 산우리통은 조사지 근방에서는 가장 큰 샘물이다. 물이 매우 차갑다고 한다.

산우리통, 산우리통인데. 그 산우리통은 이 근방에서는 켈 큰 물이 샘물이 나는 곳이 산우리 통이야. 겐디 돌로 이렇게 우에(위에) 이 엉덕에 저가지고 엉덕 알아, 엉덕? 그 물나는 우데(위에)가 돌로 다 이렇게 덮어져 있다고. 돌로.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오늘 들어강(들어가서) 목욕 한번 해봐. 목욕...

<조사자 : 어제도 하라고 했는데. 하계(웃음)>

너네 학생들 가서 쫓려서 못헐꺼. 쫓려서 못한다고.

<조사자 : 물이 팔팔 떨어져 마썸?>

팔팔 떨어지질 않히고, 그냥 미티에서(밑에서) 기냥 이만이 현 구멍에서 물이 막 나오는데.

<조사자 : 완전 차갑다고..>

응. 완전 차가워 가지고, 우리도 가도 5분을 못 아자(앉아). 앉을 수가 없어.

49. 마을 곳곳의 지명에 대해

제 보 자 : 김순재(남·51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순재(조합장) 씨 댁

- 요약 : 소소름, 석밭다, 사당뚝루, 월지동 등의 지명에 대한 이야기.

(학술조사 자료집을 보기 시작)

소소름. 이거 쇠(소)가 누운 형체여. 저 무악에 다 바르게 뒤신게. 이 자리가 이거, 이거, 이거 석밭디여, 하면 우리집을 가르치주게. 타동네에 서는 계난 이 사당므루, 사당므루엔 헌게 이것도 지금, 이, 이걸로만 표기한 거는 아니주게. 토산, 토산망이 잇은 언덕뻬기이며, 모래로 이루어진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난 이걸 아니다라고 보주게.....

<조사자 : 아, 거른 다른 뉘.>

사당이란게 여기 잇었다.

<조사자 : 사당이요?>

사당, 공부하는

<조사자 : 서당...>

왜 이게 잇었냐면은, 이 사당므루가 그 현청에서 거의 한 200미터지점에 잇은 산줄기라. 산줄기. 팽팽한 므루엔 허면은 동산이란 사람이 놀기 좋은 곳인데, 이 거기에 사당이란 것이 집이 잇었다고 난 봐요.

<조사자 : 아 예.>

'모래 사'자가 잇더라고, '집 당'자 놓고 '모래 사'가 허면, 거기 모래 잇을 리도 없고,

<조사자 : 아>

계난 그 표기가 잘못뉜거라. 아, 모래가 잇어야 '모래 사'자가 쓰일건디, 이상허게 왜, 저 지도에는 '모래 사'자를 봐서 사당이라 했다. 개, 난 이거 잘못뉜거다. 선비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말이야. 북토산은 이거 상토산이렌 허주. 옷토산이다....알토산 물 곁는 맛이엔헤으네 월지동이엔 헌 건데. 여기 표시가 없네. 아 월지동잇구나....달 아래 동네다 헤서.

50. 굿해서 병나온 이야기

제 보 자 : 김순재(남·51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순재(조합장) 씨 덕

- 요약 : 마을에 병원에서조차 치료를 포기한 환자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곳이라고 해 보기로 했다. 곳판이 벌어지고, 환자는 일어나서 밤새도록 춤을 췄다고 한다. 그 뒤로 환자의 병은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바로 난 어디 저 요, 요 알녁가래(아래쪽에) 나 보단 두 살 아래, 요, 알력가래(아래쪽에) 최근에 최근, 아, 그냥 뭐, 이거 어디에 가니까, 이제 뭐, 곧 죽게될젠 허고, 병원에 가도 뭐, 뭐 이시, 저시지.. 게니까, 뭐 병원에 가도 이, 뭐 안 받아주겠다. 뭐, 이젠 강 집에 죽으라 이거지. 마지막 이제 허는게, 아, 게문 곳이나 헤보자 헤가지고 곳을 했다 말이여. 에, 에, 곳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뭐, 무신 풀이, 무신 풀이, 무신 풀이 뭐, 괴상한거 다 허고, 영 했는데, 이제 어느정도 이렇게 허면 이제 그 사람을 막 놀리라고 이제 조상도 즐거워 해야 그 환자도 돼니까. 이제 덩실, 덩실 이제, 이제 그 막, 장기(장구) 치고, 북 치고, 이제 옆에서 막, 흥을 돋군다 말야. 신방들이 막, 뭐, 이 사오젯 소리도 허고, 그 팀은 보니까 다른 팀이엔 헛구나 마는, 경혜가문(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도 가서 이제 같이 막 춤을 추는 거야. 게문 환자는 춤을 안 출려고 만 하드라고. 겐디 덩실 덩실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 아픈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이 그냥 일어서가지고 같이 기냥 그 장구에 맞춰가지고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기냥 덩실덩실 춤을 춘다 말이여. 아, 춤을 추었는데 그렇게 춰가니까 우린 막 보통사람은 힘 들어서 춤을 못춘다고. 그렇게 막, 뭐, 몇시간 막 춤을 출 수가 없거든. 경행 우린 흥솔허다가(조금하다가) 다 아자(앉아) 부렀다(버렸다) 아자 버린데도 그 환자는 기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야. 기냥, 기냥 밝도록 춰가지고, 이 발이 다 카졌지(깨졌지). 게서 그 환자는 뭐 어떻게 돼게 된 판인지 곳해서 나아버렸다 말이야. 죽을 병에 걸렸당. 게, 그렇것이 한사람, 두 사람이 만약에 이 부락, 저 부락에 다 거 몇 사람씩은 나오게 마련이지. 게난 그거는, 스, 나 생각으로는 하나의 위로 긴장감을 좀 풀어주니까, 나올 것이라는 의지를 심어주니까 나온거 아니냐 마음에서 우러나는 병이지. 실지적으로 뭐, 무슨 간암 걸렸다, 뭐, 폐암했다, 뭐, 죽을 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다

51. 도채비이야기 4

제 보 자 : 김순재(남·51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순재(조합장) 씨 댁

- 요약 : 밤 늦게 정미소에 다녀 오다가 도채비(도깨비)를 만난 이야기다. 큰 불이 갈라졌다가 합쳐지기를 반복하고 날아다니며 왔다갔다했다고 한다.

그, 그 어린이, 게, 나, 우리 외할아버지가 죽었는데, 아, 왜할머니가 죽었는데, 그때는 정미소가 여기 마을마다 없었대, 이거지. 정미소가 마을마다 없었는데, 이제 그, 장마 때 비는 이제 오고, 그래서, 이제 그, 세화 3리 거기에 이제 여기서 한 삼 키로 떨어진데 가서, 소, 이제 마차에 해서 보리를 실코(싣고), 가 가지고, 그, 뭐, 장만을 허래(하리) 간거지. 밤에, 낮에 가는데, 어떻게 허다 보니까, 뭐, 기계도 고장나고 해서 기냥, 한, 한, 열 한 시 기냥 댜거지. 오젠 허니까, 겐, 오는데, 그 쪽 대주제 마루(마루) 옰 헌 곳에 오니, 아, 기냥, 뭐, 이 도채비(도깨비)가 나타나 가지고 도저히 앞드레(앞으로) 오질 못허는 거라. 아, 게서, 이젠 이여, 그 노인 회장 요번에 ㄱ른(말한) 사람이 알오름이옰(알오름이라고) 헌(하는) 요 쪽 공동묘지 잇은 곳엘 거기에, 아, 산에서 가만히 아잔(앉아서), 상주니까 다른 사람은 심부름 시키고, 아, 어째서, 저, 이, 도정헌 거를, 이, 소, 소를 끌고 이제 구르마가 오질 았는다, 말이여, 이거 가만히 상주고 해서, 아, 시, 아자서(앉아서) 그 쪽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냥 큰불이 하나가 댜다가, 두 개 댜고 두 개가 댜다가, 이래(이쪽으로) 쑥 놀아갓다가(날아갓다가), 저래(저쪽으로) 놀아가고 허면서, 그냥, 아, 막, 잡더래.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아, 이렇게 해서, 아, 저래 도채빈가 헤가지고 그냥 상주 입장에서도 그렇게 겁이 나서, 이제 헛는데, 한창 허다가 동쪽으로 도망가더라. 이렇게 헛는데, 스, 뭐, 내는, 뭐, 그거는 부모가 죽으니까, 스, 아마

잠도 못자고 피로가 느끼고, 그래서, 지금 현시대로만 봐서는 도채비가 아니고 그냥 눈에 아롱거렸겠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당시는, 아, 이거 도채비가 이제 나서 이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허주만은 그건 아니지 않은가.

52. 죽은 부인과 이야기 한 할아버지

제 보 자 : 흥기생(여·73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토산2리 게이트볼 장

● 요약 : 늦은 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무덤 가에서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 주렁막댁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무덤의 주인인 할머니에게 와서 하는 말이, 후손의 집에 제사 밥을 먹으러 갔는데 들어 갈 수가 없어 심술이 나 어린 아이를 화로에 데이게 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나무라면서 자신 무덤 가의 손님에게 부탁하기를, 그 아이에게 청주를 발라 달라고 한다. 꿈에서 켜 사람은 그 후손의 집에 가서 아이에게 청주를 발라주었다고 한다.

옛날 사람이 이, 옛날은 밤길만 걸었지. 차가 없으니까. 밤길만 걷다가.

<조사자 : 예 맞아.>

막 먼디를(먼곳을) 걷다가, 큰 산이 있어. 이 길가에 이 산이 있으니까, 산에 간(가서) 지, 지치니까, 좀 쉴라구 간, 봉분에 이렇게 쉬게 행 났으니까, 헤영현(하얀) 백발 노인이 주렁막, 막댁이(막대기)라고, 저런거 있지, 이?

<조사자 : 예.>

주렁 막댁이라고 하여, 저거.

<옆 할머니: 아네가 제춧아이들이난 바로 이딴 말로 해서 하여.>

계메 경허난 계, 주렁막댕이 아, 주렁막댕이라고 해야계, 그걸 옛날 주렁막댕이라고 했으니까. 에이 적질말라. 주렁막댕일 지평(짚어서) 허영한(하얀) 백발 노인 할아버지가 이, 그 산에 와서, 그 산은 아마 할망 산이 었던 모냥이라 이. “할멈 잠서. 할망 잠서?” 영(이렇게) 허니까, 할망이 그 산 안에서 허는 말이 “아니 잠서” “생쥐일 먹으레 가자” 생쥐일 이렌 허른 너넨 모르지 이.

<조사자 : 예.>

제사.

<조사자 : 아~>

“제 생쥐일 먹으레 가자”

<옆 할머니: 야 녹음험다아?>

<조사자 : 예.>

“생쥐일 먹으레 가자” 하, 할망이, 저 하르방이 허니까, 이 할망이 허는 말이 “여기 손님들었으니까 하르방만 강(갔다) 오주.” 이렇게 해서. 이, 경허난, “게믄 경허여” 하르방이 이, 경헨 또 주렁막댕일 두그락, 두그락 지평 나간거라이. 훈참 이딴(이따가) 또 하르방이 막댕일 지평 두그락 두그락 와서. 완, “할망 잠서?” 영허난, “아니 잠서. 벌써 생쥐일 먹영 올라서?” 영허난. “아니 먹어서” “아이고, 어땡허난 아니 머경 올라서?” 저 상, 상방, 상방 알지? 마루.

<조사자 : 아>

요새엔 마루엔 헤부니까, 상방.. 지팡일 베연 큰 재관 큰 종손이 뉘부니까 상방으론 못들어가고, 또 창문으로 들어가젠 보니까 너구리 새끼, 개 새끼, 너구리 새끼가 나부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부엌으론 들어가젠 보니까 또 그 갱꺼리 썰면서 이, 갱꺼리 썰면서 손을 썰어부니까 으네기 괴기. 거꺾라(그것을) 으네기괴기라고 허는거여. 으네기 괴기를 썰어부니까, 썰어놔부니까 부엌으로도 못 들어가고, 헤연 부에나난(화나니까) 아이 새끼 불화로에 지저된 왔주. 알이들업다?

<조사자 : 아이 새끼 불. 뭐?>

불화로에 지저두고 왔다고. “아이새끼 불화로에 지저된 오랏주.” 영허

난, 할망이 허는 말이, 뭐엔 허느냐면, 그니까 항상 느리사랑은 있고 치사랑은 없는거라 이. 할망이 뭐엔 허느냐면, "아이고, 요 하르방, 요 하르방 츠마가라 이녁(자기) 즈손 승을 뵙 불화로에 지지면 어떻힐꺼라. 어떻힐꺼라." 이젠 또 그 나, 나그넬 불르는 거라 이. 그 사람은 아, 꿈을 꾸는 거지 이. 저, "손님, 손님" 이렇게 불르니까, 그 손님은 대답을 허니까, 요 아무마을 강(가서) 보민(보면) 시방(지금) 음복을 한참 험실꺼라고(하고 있을 거라고), 한참 험실꺼니까, 그 아이 덴 것을 청주, 옛날은 그 술을 헤여놔서(해 놔서) 영 혼 몇 달뒤면 까맞게 칭 앓는 거라. 칭 아즈면(앓으면) 그걸 헤연 제주를 썼어. 옛날은, 요새 소주엔 써도 그걸 헤 쓴디. "그 총죽지름을 건너그네 불르렌(바르라고) ㄱ라줘(말해줘)." 영 허는거라 이. 겐, 확 깨 난보난 꿈이라. 굶도 이상하다. 이, 겐, 이 맛을을 찾아가본덴(찾아가보니까). 찾아가 보난, 아일 대연 불화로에 들어아전 대여놔시니까, 족족힐꺼냐. 막막 외는디(소리치는데). 뭐, 음복을 허는지, 마는지 모르게, 막 아인 정신이 확확하게 울어가니까 들어가단 보난, 경허난 "웨방사람 덴깁니다(다닙니다)." 이렇게 허니까, "아이고, 웨방사람이고, 아무고 귀찮으다고, 이 아이데연 뭐, 죽게 마련인디(생겼는데), 웨방사람이 이 밤이 뭘 웨방사람이 잇느냐."고 허니깐, "아이고, 그것이 아니고, 스실이(사실이) 이리저리 해서 들어 오와수젠(왔습니다). 저 말을 들어봅센." 게건 ㄱ라보렌(말해보라고) 허난, "아 스실이 이만저만 헤네, 오란보난 구들론 들어가져, 저, 차웃둥으론 들어가젠 보난 강생이 새끼 절 나부난 못 들어가고, 또 상당으론 보나네 큰 재관이 지팡배연 뉘부난 못들어가고, 정지로 강 보난 너구리 새끼 춤, 저 으네기괴기 썰어놔부난 못들어 가네, 아이를 불화로에 지져된 가고렌 험디다. 또 청지지름 거더그네 아이 덴디랑 불르렌 고릅디다. 이렇게 허느거라이. 경허난 간보난 저 창웃등에 그 난간안, 옛날엔 난간이 이섯지 이. 난간아랜 강생이 새끼 뉘 저, 나깁, 또 그 상방 지팡엔 큰 제관이, 종손이 거에 뉘 불고 이, 또 갱꺼리 썰명 손 ㄱ친것도 맞고, 경헌 또 아인 불화로에 들어 아정 이 영치 데여 온 거라 이. 그걸 딱 맞으난 그 손님을 막 대접하고, 고맙덴 허연, 보냈드라 한다.

<조사자 : 아>

53. 김녕뱀

제 보 자 : 홍기생(여·73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토산2리 게이트볼 장

● 요약 : 육지에서 제주도로 온 목사가 있었다. 제주시에서는 돌로 성을 쌓고 있었는데, 벌충담까지 헐어가며 돌을 가져다가 성을 쌓고 있었다. 이에 목사는 이를 제지한다. 그 뒤 목사가 김녕에 갔는데, 김녕에서는 뱀굴의 뱀에게 삼년에 한번씩 처녀를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목사는 뱀이 굴 밖으로 나왔을 때, 화살과 불로 뱀을 죽이는데 성공한다. 목사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꿈속에 벌충담 할아버지가 나타나 풍랑이 거세게 일어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목사는 결국 뒤를 돌아 보게 된다. 목사의 아내가 나이 사십이 다 되어 임신을 해서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어려서부터 매우 영리 했다.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하여 집에 돌아와 재를 지내는데 갑자기 죽어버렸다. 목사가 이상하게 여기고, 두 아들의 관을 불태우니 타는 것은 아들들이 아니라 두 마리의 뱀이었다.

옛날에 목사, 육지서 목사가 들어왔는데, 제주시엘 들어와서, 이 제주시엘 들어와네. 옛날은 저, 시에 동문통, 서문통 현 것이 다 성 싸난 디여.

<조사자 : 아, 예.>

성을 다 싸난 건디, 성을 밀로 싸느냐면.

<옆 할머니 : 이 할망이 시엿 할망이난.>

<조사자 : 아.>

무조건 돌을 아저당(갓다가) 성을 싸라, 싸라 허니까 벌충담이고, 뭐시고 그냥 무조건 아저당 싸분거라 이. 목사가 들어완 보니까, 그 벌충담을 아저다네 성을 싸시니까, 백성들을 이제 다 휘유허렌 헨. 이 성땅을 물러서 이 굴충땅을 다 와주라고, 이렇게 허는 법이 아니라고, 다 와주라곤 헤 두고 짐녕(김녕)을 와서 이. 짐녕 배엄굴(뱀굴)이 라고 현디 있어. 배엄굴

이라고 한다. 오란 보니까 거긴 어떻게 허느냐면 삼년에 한번씩(한번씩) 딸 난 건(딸 낳으면) 그 배엄이 나시라. 셋 딸난건 이.

<조사자 : 처녀?>

처녀 셋딸 난 건, 나튼 그 배엄이 나신디 이. 짐녕굴 시방 너네들 짐녕 굴 자꾸 가지 이?

<조사자 : 예.>

그 짐녕굴에 나그네 그 셋딸 난건 배엄이 나신디, 삼년에 한번씩 처널 회생 허느거라 이. 막 큰 굻허고 큰 대 세우고 행 막 큰 굻을 허는디, 처년 또 막 새각시 가추룩(처럼) 출려그네(차려서), 상물 목욕시키고 행(해서), 상 출령(차려서) 상위에 아쟁(앉혀) 놔뒀다그네, 몇시 되민 그 배엄이가 나오랑 먹을 시간 되민, 막 신방들이 굻 헤가민 그걸 나오랑, 나오민 그 처널 그랠(그곳에) 들이치민(던지면) 먹는거라 이. 배엄이가 소한 비엄이가 아니야. 이 도가지만한 큰 도가지만한 혼, 배엄이니까. 이젠 짐녕을 넘어와서 이 짐녕을. 그 말을 듣고

<옆 할머니 : 짐녕 알아지크냐?>

<조사자 : 예.>

알당도 버치주. 그 배, 배엄굴, 짐, 짐녕을 넘어완 보니까. 그렇게 굻을 와상와상 험서 이. 와상와상 험시니까(하고있으니까), 목사가 넘어완 보난 굻을 험시니까, 몇시 뒤편 이 처녀 먹을 배엄이가 나오느냐고. 널 오, 오, 오시가 되면 나옵니덴. 열 두 시 이, 열 두 시, 오시가 뒤편 나옵니덴 허난(하니까), 경허른 여기 제일 활 잘 쏘는 포수가 없느냐고, 경허니까, 아, 포수 잇젠(있다고) 허난, 게문 포수 셋만 빌어주고, 숯 다섯 가마니만 상 위랜 아따봐도렌(갓다 놔두라고), 경허니까, 이젠 그 믈을 사람들이 숯 다섯 가맹이 허고, 포수 또 셋허고 비런(빌려서), 다 이디 딱 아찌(앉혀) 논거라 이. 그 굻허는디 아찌뵈, 어제 목사도 그디 아꼐디. 널 스오시가 뒤편이, 이젠 그 놈이 이만이 나오니까 완전히 내(나와) 안찌라고(앉으라고), 완전히 내 아찌, 완전히 내 아찌사 뒤편 허난, 이젠 조상님이 저 처널 회생봐도 그건 완전히 몸뚱어릴 완전히 나옵써, 나옵써 막 신방들은 뵈꺼야, 비난 춤 큰 도가지만한 나오는거라 이. 나오난 이젠 그 활 잘 쏘는

포수들이 서이가 그 놈을 막 쓰안 죽여서 이. 죽여노크 이젠 걸 어떻게 허 느냐민, 솟 다섯 가맹일 불 탁 질러노크 그래 난 데와부러어. 완전히 데와 두고, 그 목사가 이젠 돌아가단 시에 강 여관에 강 났어 이. 여관에 간 누 니까 헤영헌 백발노인이 나오라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희 올 담을 다 도둑님이 들영 커가부렀는디(가져가 버렸는데) 이렇게 둘러줘서 고맙습 니다. 그리고 목사님 돌아갈 때는 아무리 바당이(바다가) 부러도 뒤돌아 보 지 마십써." 이렇게 헨거라 이. 그렇게 허고 깨난 보난, 그것이 꿈이라. 아, 요 굴충 하르방이랏구나. 헨 욱드니까 이, 하르방이랏구나 헨 생각을 해서, 이젠 뒷날은 가는디, 바당이 춤 이렇게 막 브는거라. 브란 춤 뒤돌 아보지 안 허영 가는디, 아마, 요 배신디만은 가니까 자기네 가일 다 간거 지 이. 다가니까, "에이, 이제 아무리 경해도 뒤돌아 봐도 괜찮으겠지." 헨, 아 이젠 장담해 놓고, 될 확 돌아보니까, 갑자기 막 파도가 일어나는 거라 이. 막 파도가 일어나니까, 이젠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일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이 마느라, 마느라가 마흔넷 나도록 얘기를 아니 난 마느란다. 그날 저녁에 간 접촉을 했는디, 임신을 가졌어. 임신을 가져 서 얘기를 난디, 쌍둥이 아들 쌍둥일 두겔 나써 이. 아들 쌍둥일 두 겔 낳 는디, 머리가 그렇게 영리할 수가 없어. 뭐, 과거, 옛날은 과거지. 요새엔 뭐, 대통령이니, 뭐니 해도 옛날은 과거 자원을 헨, 성제가 다 헤연 들어 오는디, 집에 딱 들어오민 과거 영 들어오, 옛날은 들어오민 상 츠려봐그 네(차려서) 문제 지냈지 이. 그 과거 떠운 사름 질 시키멍, 이, 문제를 지 내는디, 그 상 앞이 엷더정 질허는디, 성제가 다 죽어부는거라. 성제가 다 죽어부니깐, 막 각신 오죽헐꺼냐. 과거까지 다 성제가 떠영 오랑 성제가 죽으니까, 막 죽자살자 하고, 목사는 벌써 안거라. 벌써 나 죄로 이렇게 된 거란걸 안거라 이. 목산 그렇게 울지 말라고, 내 존식이 아니라고. 내 존식이 아님 누게 존식이냐고. 그러믄 내중 보자고. 관을 두 개 딱 차서 이. 관을 두 개 딱 찬, 딱 때려놔네 이젠 함을 막 헤다놔네 불 살랏어. 그 아들 성제 관을 노크 불 살랑 보니까, 완전히 배엄이가 두 개라. 아들이 아니고, 그 관엔 배엄이가 두 개라. 끝. 잘들었지 이.

<조사자 : 예.>

54. 죽었다 산 이야기

제 보 자 : 홍기생(여·73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토산2리 게이트볼 장

- 요약: 할머니가 죽고 일주일만 지나 뒤 땅에 묻으려고 가보니 거품을 물면서 살아났다. 할머니가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저승에서는 할머니에게 사흘(이승에서는 삼 년)을 더 살다가 오라면서 흰 강아지와 함께 이승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것도 시엿 할망인디 이. 성당 믿는 할망인디..

<조사자 : 예배당 마씨?>

응. 성당믿는 할망이.

<조사자 : 예배당 말고 마씨?>

성당, 성당, 성당 믿는 할망인디. 죽은 일주일만 이. 손 불 날이 아뵈어서 못 방 가만이 놔두서(놔두었어). 일주일, 일주일 놔두니까, 일주일 쳇 날은 손불라고, 뭉을라고(묻으려고) 이, 뭉을라고 들어간 보니까 개 품을 보웨이 물영(물어서) 살아남씨. 살아남으니까 이젠 놔두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는디. 저승을 가서, "어떻게 헨 돌아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헌 돌아왔느냐?" 허니까, 여기서 일년이 저승이면 혼 흐루(하루)라 이. 흐루. 저승이 흐룬디, "앞으로 서, 사흘만 살앙, 더 살앙 들어와라." 허느거라 이. 사흘이면 삼년이지 이. "사흘만 더 살앙 들어오라. 이승을 가라." 허니까, "이승을 어떻게 헤서 갑니까?" 허난, 흰 강아지를 하나, 흐나 내어 주는거라 이. 강아지를 흐나 내어 주면서, "이 강아지 가는 대로만 또라가면(따라가면) 이승을 간다." 허니까, 강아지 가는 양(가는 대로) 오당보난(오다 보니까) 물르레(물 쪽으로) 개는 퉁글랑하게 들어가 부는 거라(버렸다). 퉁글랑하게 들어가부니까, 그 죽은 사람은 놀렐거 아니여. 놀래는 것이 그것이 꿈, 그 개품 물어서 살아, 살아나는 거라. 온, 그거.

그 사람 영 일어났. 이 저 여름이니까, 이디 벌어, 벌거지가 행편어서(형편 없이) 일어났어 일주일을 놔두니까, 여름에 일주일을 놔두니까, 벌거지 막 이니까, 개고쟁이로 막 음파내, 좋아도 이디가 오루룩, 오루룩, 행편어서(형편없이) 나서, 그 사람 이젠 몰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55. 사랑이야기

제 보 자 : 홍기생(여·73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토산2리 게이트볼 장

- 요약 : 평소 자신의 아내가 뒷 집 살던 김 서방을 좋아했던 사실을 안 남편이 김서방이 죽자, 아내에게 떡과 술을 가지고 문상을 가라고 권한다. 이에 아내는 떡과 술을 만들었다. 남편은 아내가 없는 사이에 떡과 술을 없애고 대신 쇠똥과 오줌을 담아 둔다. 이 사실을 모르는 아내는 조문을 가서 쇠똥과 오줌을 내놓았다가 호되게 망신을 당했다고 한다.

웃을꺼여. 이 말 7라가민.

<조사자 : 재미난 얘기파?>

옛날 사람이, 이. 하도 서방, 남편하고 살면서 이. 뒷집 김 서방을 좋아해냈어. 뒷집 짐(김) 서방을, 뒷집 짐 서방을, 뒷집 짐 서방을 좋아하니까. 남편은 자꾸 거등(행동)만 본 거라 이. 거등만 보고 자꾸 거등만 봤는다. 해필이민(하필이면) 뒷집 짐 서방이 죽어부러서, 뒷집 짐서방이 죽어부니까, 각시보고 허는 말이, 건 역불(일부러), 제물떡을 행 갈꺼라 현 생각으로, “제물떡을 행 가라.” 했지. “저 이웃집이 사람이 죽었는디, 제물떡이라도 헤영가주.” 이렇게 각시보고 허는거라 이. 허난, “에고, 게메(그러면), 경(그렇게) 허카 양.” 허나네, “이 제물떡 행 가사주게. 이웃집 사람 죽었는데 제물떡을 안 행강 되어?” 영 허나네, 이젠 제물떡 행 가젠, 제물떡 헤

놔두고 옛날은 다 집이서 떡 만들었어. ㄱ래 ㄱ랑, 노물 곱아그네, 전골에 곱아그네, 떡을 헛지 이. 제물떡 행 놔두고 제주 받아당 놔뒤네, 이 제주 받아당 노크 행, 딱 구덕에 출려노난, 각신 또 어디 신바람 시키는거라이. “아무디 강 저 무시겨 아져오주.” 영 행, 허난, 이젠 “경허주.” 이젠 술은 비와 먹어된 썩은 오줌을 지러노크, 떡은 비와뒤네 쇠똥 맹그라네(만들어서) 제물 떡을 맨 차룽에 담아 노크,

<조사자 : 하하>

영헤네, 이젠 각시 모르게 헤어 났어. 헤어 노니까, 이젠 각신 그 뭇도 모르고 이젠 경 같꺼 아니. 히히. 경 간 경가네, 이젠 앞이 난,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아이고” 우는 처레가난(척하니까), 아, 제물떡을 해당 놔시니까 이젠 그걸 상제들은 그걸 상드레(상에) 올리젠 열앙(열어서) 불꺼아니. 열앙 보난 쇠똥,

<조사자 : 하하>

또 제준 비왕(비워서) 잔드레(잔에) 비우젠 보니 썩은 오줌, 저놈의 (칭취불능)년 죽이렌, 저래 다올리난 아, 경, 그것 보단도이. 서방이 뭇시엔 허느냐면, “동네사람 죽은디 갈뎨 저 등어리에 갈름벽을 부짱 가는거라.”

<조사자 : 아 갈름벽 마썸?>

응, 이제 감주렌 현 벽을

<조사자 : 아 예.>

“이레 부짱(붙여서) 가는거라.” 이러, 이렇게 헛어. 허난, “아이고, 경허주.” 뭇 영행, 이젠 갈름벽을 등어리에 부짱 간, “아이고, 아이고” 허노렌 허난, 차룽은 열앙 보난 쇠똥, 또 제준 비왕 보난 썩은 오줌, 영허난, “저년 죽이라.” 현 다올리난 저래 돌아가믄, 서방은 “저 갈름벽 등에, 갈름벽 등에 부짱 년 동드래(동쪽으로) 돌암썸(도망간다), 동드레 돌암썸” 또 서르레(서쪽으로) 돌아가믄, “갈름벽 등에 부짱 년 서르레 돌암썸, 서르레 돌암썸” 허고 경행, 폭씩 각실 증신 빠지 더라 한다...

56. 도채비이야기 5

제 보 자 : 흥기생(여·73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토산2리 게이트볼 장

- 요약 : 부유한 형과 가난한 아우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아우가 밤을 줍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낡은 집 윗층에 있게 되었다. 그때 도채비(도깨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은덩두렁한 은마깨(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놀았다. 윗층에서 아우가 밤을 씹어 먹는 소리에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놀란 도채비들은 은덩두렁한 은마깨도 잊은 채 도망간다. 이에 아우는 도채비들이 놔두고 간 은덩두렁한 은마깨를 가지고 집으로 가 부자가 된다. 이 소식을 듣고 다려온 형은 아우의 자초지종을 듣고는 그 낡은 집으로 향한다. 그러나 사람의 냄새를 알아챈 도채비가 형을 잡아내서 벌을 준다.

성제(형제)가 사는데, 성(형)은 막 잘 살고, 아신(아우)은 가난하게 살았어. 아무것도 어선 이. 가난하게 사나네 그저 어디가그네 밤낭(밤나무) 아래 강(가서) 밤이나 주서당(주위 다가) 술마(쌌어) 먹고, 영허멍(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혼번은 강 보나네, 밤낭 아래 강 보나네, 죽은 밤 혼방울, 여문 밤 혼방울을 주서(주위서), 주서지니까, 주서 노크, 정신을 그래도 이어부러어(잃어버렸어) 이. 집을 츠자오지(찾아오지) 못허는거라 이. 집을 츠자오지 못허니까, 영 손 문직음으로, 문직어보난 퀘아가 잇는데, 웃, 위층, 알층헌 퀘아라, 퀘아라. 이 계난 알층에 들어간 알층은 뭐허고, 위층에 들어간 엷더전 들어강 ㄱ만히(가만히) 낫단, 여디서 보니까, 도채비 눈들이 오란, 어두그니까(어두우니까) 들어오란, 막 밤 나라, 떡 나라 허멍(하면서) 먹어가니까, 약올나거든, 자기가 이, 위층에 ㄱ만히 엷더져서(엷드려서) 죽은 밤, 죽은 밤 혼번 딱 씹으난, "아, 이상허다. 지붕이 물러점신가(무너지려나). 이상허다." 에, 이젠 여문 밤 혼방울 씹넨, 여문밤 혼방울 딱 씹으니까, 와닥딱 허니까, "아이고, 이거 지붕 물러남쎄. 아이고, 이거

큰일나젠. 우리 둔겐.” 듣는 것이, 그 은덩구렁한 은마깁(도깨비방망이) 그 만 내부러 두고 도망가 부러어 이. 도망가부니까 이젠 흐쓸(좁) 정신나고 행, 내려왕 보니까 은덩구렁한 은마깁이 있는거라 이. 예, 이젠 뉘젠, 그 걸 아정 완, 집이 완, 그 도채비 굶는 식으로 밤 나렌 허민 밤 나고, 떡 나렌 허민 떡 나고, 집 나렌 허민 집나고 행, 허는거라. 헤네 막 성이 그, 그, 그 놀부 흥부 허는 식으로 이. 막 성이 개살을 허는거라. 너 어디간 도둑질 헤당 이렇게 잘 사느냐고, 막 개살을 허니까, 그것이 아니라 저 나가 이만 저만, 이만 저만 헤네 헤어시난 밤을 주성 영 헤여시매, 나 재산을 반 갈라 내건디라 삼센. 게난, 아니엔 어디강 경 헨디, 나 강 똑 강 허 켜. 놀부식이라 바로. 이 어디강 경 헨디 고라도렌(말해달라고), 성님 가도 안됩니다 예, 저 우리 재산 반 갈라주건딜라 그네 꼬찌(같이) 우리 살면 좋지 안으젠. 영허난 아니뉘덴, 나 잘 살 카부텐 이 놈이 개살행 안 굶아 좁젠. 막 아시신드래(아우한테) 뭐 허는거라. 이 허난 경허건 성님이 가 봅센, 아명 아명 헨디 가그네, 나 죽은 밤 흐방울, 여문 밤 흐방울 주선 옷 케아에 이시나네(있으니까), 도채비 놈 들이 오라네, 떡 나라 밤 나라 허멍 막 먹어가난 나(청취불능)나네, 새암은 죽은 밤 흐방울 씹으나네. 아, 이거 어떻 지둥이 물러지는거담텐, 경헨게, 또 여문밤 흐방울 씹으나네, 다음은 아이고 저 대들보 물러점젠, 상모루가 거꺼지는거(꺼져지는거) 담텐(같다고), 우리 둔겐(달아나자고), 경헨 도라나부런 내려오란 보나네, 은덩구렁한 은마깁이 이시난, 나 붕가오란(주워다가) 영 사는거우덴. 이, 이제 지도 경혜 본덴, 지도 이젠 그 아시가 난 케아에 강 보난, 아닌게 아니라, 우, 우, 옷케아에 돌아강 보나네 들어강 7만히 뉘서, 누난 아시에 도채비 놈 들이 들어오멍 “흠, 흠, 이상허다. 입내남따, 도둑이 또 왔나. 스, 이상허네. 입내남따. 이상허네, 입내남따.” 또 흐놈은 “에이 문에 드러나니가 경허지. 그럴 리가 있나. 동네 드러나니가 그지.” “아니다, 입내가 확실히, 입내 남따, 남다” 영허난, 또 세 놈 인디 흐 놈은 “우리 계건 돌아보자. 이 등에 돌아보자.” 허난, 돌아보난 새암은 봐내 없는디, “아이, 안트래더 바.” 흐 놈은 “또 더봐.” 호난, 이제 안니보난 사름이 잇꺼든. “아, 이 사람이 쯤.” 시멍나완, 이젠 막 은마깁으로 두드리당, 두드리당 버치난 조질 막

심영 늘라분거라 이. 으히히. 혼발 늘라, 두발 늘라, 허멍 막 두드려 부니까, 어전 뭐 덩길(다닐) 수가 없는 거라. 뱅뱅 다련 이젠...

<옆 할머니 : 야, 조쟁이 알크냐?>

<조사자 : 하하하.>

게, 이디 말걸는디 허끄지 마라. 뱅뱅 사례, 저, 사례네, 이젠 전 덩기당,

<옆 할머니 : 그걸 전 땡긴덴.>

전 땡기당, 노람지슬 잡지못힐 옛날은 노람질 패와 난, 새각시 들어오젠 허믈 노람지 패워난 새각시 들어왔어. 새서방도 들어오젠 허믈 노람지 새로 영 엮은거 이, 그거 영 패와와그네(퍼서) 저 새서방도 들어오고 영 헤났는다. 아이 노람지 어서 잔칠 못헐 허는디네. 무사게? 나 곧는다(말하는데) 봉당봉당 험시? 어서네 잔칠 못헐 해신디, 막 저드누랜 허난 그놈 이 강 그걸 강 패우멍, 아 이거 패와그네 잔칠허렌, 좃을 패와난 잔치를 허는디, 아이 맨 꼭대기에 아즌 놈이 밥을 먹다네 더운 국을 쏟아 부러서, 그레 쏟아부니까 그놈이 코들락 허니까 하늘 우이 올라간, 일래 이만이 내려오는 놈, 여드레 만이 내려오는 놈, 이렇게 헐, 말젠 폭삭 두드려 불어, 이놈 뇌뒹당 큰일 나켄 폭삭 심어놔 두드려 부난, 이젠 그거 좀 오도 못허고 이젠 늘어난 양 썩워 노나네게

<옆 할머니 : 알아 들었냐 느네?>

오도 못허고 이젠 그냥 들어놔 이시니까, 이젠 아신 소문들영 은등등 구름한 은마깨을 아정 가서 이. 아정 간, 이젠 "혼발 들라, 두발 들라 허멍." 두드러단, 두드러당 보나네, 그 놈은 다 들어가 부는 거라 이. 다 들어가부난 각신 들영 "아이고, 신랑 뇌주주." 영허멍, 심어부난 좃 또 그게 매기엔 헤라. 끝이라. 재산, 재산 이젠 아시 재산 반 갈라쥬 막 잘 살드라 한다.

57. 여방훈장 3

제 보 자 : 김임천(남·세)
 조사일자 : 2001년 8월 5일
 조사장소 : 김임천 할아버지 덕

- 요약 : 힘세기로 유명한 여방훈장은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남의 집 음식을 장난으로 가져다 먹기도 하는 재미있는 할아버지였다. 삼 형제 중 둘째로 제보자의 친척 할아버지라고 한다.

그 하르버지(할아버지)가 우리 집 하르버지라. 우리 친척 하르버지라.
 <조사자 : 아, 기파(그렇습니까)?>

저, 이쪽은 이 손자들 저기 살고, 지금 저 밑에 동네 살고 있고, 덩치도 엄부랑하게(아주) 크고, 그, 그 여방훈장 하르버지가 당팃당장이라. 당장. 계난 심(힘)이 이 근처에서 최고 센 하르버지라. 겐디 옛날에 우리들은 말인디. 이 지금 저 밑림에 저 한라산에, 그, 집을 짓젠(지으려고) 허니까, 그, 진 낭(나무)을 베어다가 그 집을 지어야 될건디, 간 진 낭은 다 베어 노코. 요즘은, 그 여방훈장이 들췌 아들이라 큰형이셨고, 큰형은 지금 여방훈장 그 형은 옛날에 이제, 요즘은 이 촘지름(참기름) 같은거 무슨 기름을 빼도 기계로 다 빠잖아. 어, 옛날엔 나무틀로 헤가지고 말이야, 이제 지름을 뺐어. 이 나무틀로 행으네, 저 깨 같은 것도 빠가지고 그디 집어넣으네(집어놔서), 심으로 눌러가지고 그 기름을 뺐거든. 그렇게 그 우리가 하다보니깐, 그 할아버진 그렇게 헛고. 이제 그 여방훈장은, 계난 이 조식(자식)을 여방훈장은 못 낳어. 그, 형허고 아시(아우)는 조식이 이셨는다. 그 조식을 못나니까, 그 양자를 데린거야. 이, 저, 아시 아들을. 아시 아들을 양자로 데려가도록 하는데, 엄청나게 우시계를 잘했거든. 어, 뭐, 그 하르버지 우시계라면 말이여, 뭐, 입에 걸리게 엇어가지고, 어디가도 막 옛날엔, 이, 시, 뭐라면은 요새는 이, 그렇지 않오지만은 과일 같은것도 말이여, 이, 그 저 남이 것도 장난으로 따다 먹고, 닭도 심어다가 이제

그 잡아가지고 술안주도 허고, 거 혼 사람이 혼게 아니고 몇 사름이 일행들이 그런 구렵(그룹)들이 잇엇거든. 그렇게 헤가지고 말이여, 심지어 이 돼지 같은것도 말이여, 좀 집집마다, 그, 이 화장실이 없고, 저, 저 돌담을 싸가지고, 그런거 구경 안헤실꺼여 이. 돌담을 싸가지고,

<조사자 : 구멍만 헤가지고>

저, 이, 그 돼지통을 만들어가지고,

<조사자 : 통시?>

어, 통시 대소변도 우리가 거기 강(가서) 봐주고, 계난, 인분을 먹영 살았거든. 돼지가. 시, 그래, 그때, 그, 이 돼지가 아무리 잘 멕여도(먹여도) 얼마크지 않애. 요즘은 뭐, 혼 백 키로 더 거주만은(나카지만). 뭐, 혼 하영(똥이) 커야, 최고 커야, 혼 시, 삼십키로 쫘 뉘꺼다. 게, 이, 거 고기도 맛 좋지. 거, 이 그런 걸 뉘질 질러냥, 그 일무 그 벳들이 오면은 잡아 그네 거 술 안지(안주)도 행 먹고. 스, 이 여자들 봐도 말이야, 요즘은 여자, 남자가 저, 그 구분이 별로 어서그네(없어서), 그 보통 우시게도 잘 허고 막 장난도 잘 치고, 여, 손도 잡고 허잖아게, 이, 요즘은 이. 옛날에 우리 클 때는 말이야, 여자가 남자 엠(가까이)에 말이라 부치지 아니허고, 애 엠에 들어와 보질 못했어. 아주 그러면 그 여자는 버린 여자로 취급, 취급 하거든. 응, 허난, 어디, 지금, 뭐, 춤말로, 예, 하나도 안 보이는 옷 다 입고 말이여, 그, 그 하르버지는 말야, 그래도 그런 여자 신디 말이여, 막 강 손도 잡고 말이야. 막 장난도 쳐, 막 하르버지라. 지금 겐 그 하르버지가 돌아간지 얼, 얼마 안돼. 어, 이 지금 우리가 다 영장을 헛는다. 계난 그 후대, 그 후손들이 예, 나는 네, 우리가 우리 집안으로 35세고, 그 하르버지는 33세 쫘 되어. 계난 우리가 그디보고 응, 하르버지, 하르버지, 우리 촌 사름이니까, 하르버지엔 허지. 또 손자가 지금, 예, 서울 혼나(한명) 살고, 아니, 지금 막내,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헌 아이 혼나, 그, 사는다, 계난도 여방훈장 아들은 양재 아들은 이제 그 아들들이 그디 아들들도 삼 형젠디, 서울 큰 아들 살고, 부산 셋 아들 살고, 아, 소형제로구나. 이디 성제가 사는다. 부산 그 사는 아들신디 이제 그 여방훈장 아들이 그 형신디. 예, 놀레가다가, 옛날 그 저 무신 남양훈가, 뭐, 헤가지고 침몰

똥가지고 사름 하영 죽었잖아. 그것이 아다로 죽어부러어 게. 해가지고 저, 저 남양호가 맞을꺼야. 지금 저 배에서 그냥 죽어부러 가지고 시, 저, 줌, 묘, 묘를 말이며, 시, 그자 현묘해가지고 제사지내고 그래행, 그 하르 버지네 그 후손이 이 지금 딸들은 놈이 집에 다 시집가부난 모르지만 아들 형제 지금 있어. 여기...

<조사자 : 그러면 이금 아까 할아버지는 여방훈장 전반적인 얘기 막 해주섯잖아 예. 그, 막 재미났던 얘기 막 일화 같은 거 잇잖아 예. 그거 딱 하나 어땡 말 해 줄 수 어수과? 어디 어디강 들어신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옛장수 붙잡아그네 막, 조선 팔도 돌아다녔덴 허멍 거짓칼 친거. 그거 막 얘기해 쫓는데, 그런 것처럼...>

그, 그, 뭐냐, 그 여방훈장님이, 그, 힘도 세고, 그, 웬만한 사람은 꼭 잡아부러도, 그, 꼬딱(꼼짝)을 못헤났어. 그러니까 외지에 옛날, 그 하르 버지네도, 이, 지금도 그런 뭐시 잇주마는, 도박하는 사람도 많고, 좀 나쁜 버릇 허는 사름들도 많거든. 건디, 이 우리 토산에는 말이며, 지금, 그런 그, 센 하르버지가 잇다 해가지고, 시, 그, 줌, 줌 불량배가, 줌, 침범을 못헤봤어. 이제, 저, 그 하르버지 잇당, 그게 지금 이 맞고 나니 소분(소분)이 나부러거든. 이 그 쪽으로.

신 앙

〈 목 차 〉

- | | |
|---------|---------------|
| 1. 개관 | 2. 공인종교와 유사종교 |
| 3. 마을신앙 | 4. 무속신앙 |
| 5. 가신신앙 | |

1. 概 觀

표선면 토산리는 1리와 2리로 나뉜다. 1리는 '웃토산, 북토산'으로 불리는 중산간 지역이고, 2리는 '알토산, 남토산'으로 불리는 해안 지역이다.

첫 날 조사를 통해 토산리의 신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제해야 할 몇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우선 4·3 당시 백 여명의 남자들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남자 중의 최고령자가 80세 미만인 등 제보자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주민들은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토산리가 뱀, 뱀신앙으로 너무 유명하다는 점이다. 즉 모계로 승계된다는 뱀 신앙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토산지역의 처녀가 다른 지역으로 시집가는 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토산리 주민들은 특히 할머니들은 뱀에 대한 이야기를 피한다.

2. 공인종교와 유사종교

2.1 기독교

1) 토산교회

- ① 명칭 :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토산교회
- ②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 2리 474번지
- ③ 연혁 : 1974년 4월 20일. 20년 전 태풍에 의해 건물이 파손되어 토산 2리 사무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군유지(439번지)에서 현재 474번지로 이전하였다.
- ④ 대표자 : 이우근 목사(男, 45). 청주출신으로 1993년 6월 10일부터 5번째로 이우근 목사가 부임하였다.
- ⑤ 건물 : 총대지 150평, 예배당 30평, 사택 13평, 서재·화장실 7평
- ⑥ 신도 : 전체 50여명이나 어린이 신도를 제외한 장년층은 15명 정도이며, 신도 대다수가 농업종사자이다.
- ⑦ 운영비 : 신도들의 헌금인 십일조, 감사헌금과 장로회의 지원(선교비)으로 운영하며 십일조가 중심이 된다. 다른 직원 없이 이우근 목사 혼자 운영한다.
- ⑧ 예배일 : 주일아침 오전 11시, 주일저녁 오후 7~8시(유동적), 수요일 오후 7~8시(유동적), 어린이 예배 주일 오전 9시
- ⑨ 주보 : 목사님이 직접 작성하여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발행한다.
- ⑩ 금기 : 기독교의 일반적인 금기사항으로 술, 담배, 제사를 금한다.
- ⑪ 당과의 관계 : 아주 배타적이다.

2.2 불교

1) 용두사

- ① 명칭 : 龍頭寺

- ② 종파 : 조계종
- ③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 2리 1026-6번지
- ④ 건물 : 총 대지 200평. 2층 건물 1채이고, 1층 요사채 60평, 2층 법당 30평이다. 법당 내부에는 본존불인 아미타불과 우측에 관세음보살, 좌측에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다.
- ⑤ 대표자 : 法宇 스님(속명 김준선, 女, 42). 전북 정읍 출생으로 16세에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월정사로 입도하였고, 1994년 조용한 곳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토산 2리에서 용두사를 창건하였다.
- ⑥ 연혁 : 1994년 7월 24일 개원.
- ⑦ 신도 : 80세대. 주지인 법우스님이 용두사를 창건하니 자연스럽게 신자들이 찾아왔다. 대다수가 토산 2리 주민들이며, 신제주, 서귀포 지역 주민도 있다.
- ⑧ 운영비 : 신도들의 불전으로 운영한다.
- ⑨ 법회일 : 음력 매월 초하루(인등법회)와 음력 매월 보름(아미타제, 영가)에 정기법회를 연다.
- ⑩ 주민들과의 관계 : 1년에 한 번 마을제가 있을 때 보조금을 내는 등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
- ⑪ 특이사항 : 3~4세부터 중학생까지 연고지가 없는 아이들 약 6~7명이 스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2) 영천사

- ① 명칭 : 英泉寺
- ② 종파 : 태고종
- ③ 위치 : 토산 2리 1247번지
- ④ 건물 : 총 대지 2700평. 대웅전 40평, 요사채 70평
- ⑤ 대표자 : 운곡 스님(속명 김영율, 57세). 제주시 삼양 출신으로 13세에 원당사로 출가했다.
- ⑥ 연혁 : 1930년 전라북도 위봉사의 김종화 스님이 제주에 오셔서 창건

하였고 강대자화 보살이 인계하여 30년간 운영했다. 1967년
운곡 스님이 인계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 ⑦ 신도 : 서귀포, 제주시, 성산읍 온평리, 남원읍 신흥, 의귀리, 표선면,
가시리, 세화리, 토산리 등 150여 가구의 400명 정도이다. 토
산리에 거주하는 신도는 약 35가구 정도이다.
- ⑧ 운영비 : 신도들의 불전으로 운영한다.
- ⑨ 법회일 : 1달에 2번 법회를 한다. 24일은 정기적으로 관음회를 하며,
정월에 칠성기도를, 3월에 산신기도를 한다.
- ⑩ 모임 : 믿음을 실천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신행회(信行會)'라는 모임
이 있는데 절의 대소사와 봉사활동 등을 한다. 또 1년에 3, 4
번 양로원 등을 찾아가는 봉사단과 신도 35명으로 구성된 합창
단이 있다.
- ⑪ 금기 : 특별한 금기는 없다.
- ⑫ 부적 : 1년에 1번 정도 연말에 만든다.
- ⑬ 타 종교와의 관계 : 교회에 가는 것을 금지하며, 삼천교나 당에 가는
것은 금기시 하지 않는다.

2.3 천지대안도

- 1) 명칭 : 天地大安道
- 2)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 2리 4681-1번지
- 3) 건물 : 교당 1, 신도들이 생식·기도하는 수련방 1
- 4) 교주 : 夫海月仙任('어머니'라 부름)
- 5) 대표자 : '선생님'(男, 58)이라 불리며 이름 밝히기를 거부했다. 군
대에 입대하기 전(약 30년 전) 두통이 심할 때가 있었는데
천지대안도 신도였던 장모의 권유로 천지대안도에서 수양
하다가 계속 다니게 되었다. 100일 동안 생식을 하는 등
신앙생활을 하던 중 25년 전 '선생'으로 임명되어 토산지
역에 부임하였다. 이곳의 대표자는 분교소를 혼자 운영하

며 기도를 주관하고, 천지대안교 제주도지역 본교의 재무(財務)를 맡고 있다.

- 6) 본산 : 충청남도 계룡산에 있었다가 논산군 엄사리로 옮겼다.
- 7) 가치관 : 천지대안도는 모든 것을 천상의 계시를 받아 살아가는데 분교들도 충남 논산 본교의 지시를 받아 운영한다.
- 8) 연혁 : 1976년에 토산리 분교를 설립했다.
- 9) 신도 : 20여명 정도이나 자주 오는 신도는 약 10명이다. 서귀포, 남원, 신흥, 토산, 표선 거주자이다.
- 10) 운영비 : 신도들이 내는 성금으로 운영된다.
- 11) 기도일 : 천지대안도는 항상 음력을 사용하는데 매월 음력 5일, 15일, 25일이다. 3월 15일, 6월 4일, 8월 27일은 기일로서 3월 15일(1949년)은 천지대안도 교명 개시를 받은 날이며 6월 4일(1965년)은 해월선이 사망한 날이다. 이때는 모든 교인이 충남 논산의 본부로 가서 행사에 참여한다.
- 12) 성탄절 : 8월 27일이며 간단한 재물을 차려 海月仙任(어머니)의 탄신을 축하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 13) 기도소 : 해월선의 초상화를 모셔놓고 있으며 기도할 때 쓰는 관은 모두 기도소 안의 벽에 걸려 있다. 초상화가 있는 벽에는 전체적으로 노란 커튼이 드리워졌으며 기도를 할 때는 초상화만 겨우 보일 정도로 걷는다. 천장에서 초상화 가운데로 약 15cm 정도 폭의 흰 비단이 드리워졌다. 여기에는 노란글씨로 28숙 법문이 적혀 있다. 계운전이라는 교리책이 초상화 앞에 놓여 있고 그 앞에 반원형의 탁자가 있다. 탁자 위 좌측에는 황국(黃菊)이, 우측에는 백국(白菊)이 1단씩이 꽃병에 꽂혀 있으며, 탁자 앞에는 황색 천이 덮인 향로가 있고 향로 우측에 선금을 놓는다. 탁자 앞에는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작은 탁자가 있으며 황색 천으로 덮여 있다. 여기에는 물그릇과 주전자가 있다.

14) 금기 : 개고기, 말고기, 술, 담배 금한다.

15) 부적 : '해월선님 대법 천황법령'을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세로로 적은 것이다. 매년 정월에 바꾸어 집에 붙인다.

16) 기도

① 방법 : 기도일 낮 12시에 모여 40여분간 진행한다. 준비한 헌금을 미리 상에 올린다. 남자는 흰 바지, 저고리를 입고 흰 무명천으로 만든 관을 쓰고 흰 방석에 앉는다. 여자는 흰 치마, 흰 저고리를 입고 노란색 관을 쓰고 노란색 방석을 깔고 앉아 기도를 한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바람이 있을 때는 '소원'이라 하여 기도를 하는데 5일 동안 생식을 하며 기도를 하기도 한다. 남자는 흰 봉투, 여자는 노란 봉투에 담아서 향로 옆에 놓는다. 선생님이 가운데 앉고 신자들은 양 옆으로 일렬로 앉는다.

② 순서

- 엎드려 기도소원문을 외고 바로 앉음
- 28속 법문을 28회 구송
- 선생님이 박수 1회
- 運(度)歌, 즉 천지평론가, 선양가, 찬양가, 영도가, 계운가를 차례로 제창
- 엎드려서 선생님이 신앙에 대한 질서를 읽
- 바로 앉음(특별한 비님이 있는 신도는 선생님과 함께 엎드려 기도)
- 선생님이 일어서서 신도들의 등을 두 차례씩 두드림
- 주전자와 잔을 꺼내어 흰 천으로 잔을 닦고 약수를 신도들과 마심
- 엎드려 절하고 제단 앞의 커튼을 침

■ 기도소원문

합장예도 천하유아 해월선어머님전에 소원이옵시다.

만천하의 중생들이 역천죄를 지을지라도 해월선어머님의 은덕으로 많은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어머님의 새로운 광채로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기 소원이옵시다.

■ 신앙에 대한 절서

해월선어머님을 염원할 일, 나라에 충성할 일, 부모님께 효성할 일, 형제간에 화목할 일, 예의를 마땅히 지킬 일, 빈한한자를 구제할 일, 어질고 바름을 지킬 일, 두 가지 마음을 먹지말 일, 악은 불을 재촉하는 것이니 반드시 소멸시키고, 어짐을 행하여 우리의 근본을 찾을 일, 미신은 영원히 타파할 일.

■ 二十八宿 法文

바다해자. 해월선님. 도술조화. 지하지리. 통이룡령. 모비소시. 소원성취.

2.4 삼천교

삼천교는 57년 전 표선면 하천리에서 발원한 종교이며 창시자는 고대 오이다. 23세부터 신병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여 태상노군(노자의 道號)의 계시를 받았다. 삼천교는 노자의 계시를 받아 땅을 구입하고 궁(교당)을 짓는데 토산리에는 삼천교의 교당이 두 군데가 있다. 서왕모가 모든 개척법을 다스리는 곳인 五土宮과 시흥리쪽으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地天太 地法宮이다. 地天太 地法宮은 서왕모의 영정을 모시는 곳이다.

- 1) 명칭 : 三天教
- 2)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 1리 1255번지(五土)
- 3) 신도 : 제주도 전역 분포
- 4) 포교지역 : 시흥리, 토산리, 종달리에 궁(宮)이 있으며 하천리, 한동리, 신희리는 포교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아직 궁이 없으며 地法宮과 같은 날인 음력 15일이 강시일이다.
- 5) 운영비 : 강시일에 모여진 돈을 운영회에서 관리한다.
- 6) 운영조직 : 삼천교는 도호가 '道法官'인 18인에 의해 모든 법이 관

리된다. 또 상제의 계시를 받는 '연주님(고대오, 女)'과 받은 계시를 글로 써내는 사람이 있는데 도호는 '監修(강봉유, 男)이다. 또한 각 궁마다 회장 3인이 있으며 각 회장은 천, 지, 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天法에 해당하는 회장은 총회장, 地法에 해당하는 회장은 중앙회장, 人法에 해당하는 회장은 도회장이라 한다.

7) 기도

① 기도일(강시일) : 매월 음력 5일 시흥리(본사), 음력 7일(本宮), 9일 토산리(地天太 地法宮), 15일 토산리(五土宮), 17일 종달리(龍泉宮)

② 기도방법 : 강시일에는 8시에서 9시 사이에 교당에 도착하고, 12시까지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상제님 도술조화'를 읽는다. 12시부터 2시까지 연주의 설법을 듣는다. 예전에는 사과, 쌀 등을 올리고 촛불을 켜으나 요즘은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보시금(誠心)을 올린다. 매일 아침 4시부터 7시까지,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앉아서 법문을 낭송한다.

8) 계율 : 남에게 중상하지 말 것, 남에게 모략하지 말 것,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구별하지 말 것, 행동을 앞서하지 말 것, 말을 앞서하지 말 것, 자신을 앞세우지 말 것, 남을 억지로 누르지 말 것, 자기자격으로 남의 자격을 둘러보지 말 것, 남의 비판을 하지 말 것, 인간문자에 넘치지 말 것, 도덕 예의에 밝을 것, 없는 사람을 지도할 것, 바른 마음을 지킬 것, 바른 정신으로 자연을 믿을 것 등이다.

9) 금기 : 술, 담배를 금하며 쇠고기, 황돔을 금식한다.¹⁾

1) 제보자 최창수(男, 47)에 의하면 우주의 중심 방향이 1983년(癸亥年)까지 자오방이었다가 1984년(甲子年)에 축미방으로 바뀌었는데 이 때 노자가 등시하며 삼라만상 중 소가 가장 먼저 깨달아 올음으로 옥황상제에게 가장 먼저 알렸다고 한다. 자오방일 때는 말고기를 금식했으나 18년전부터는 축방이 앞으로 다스려질 방향이므로 쇠고기를 금식한다.

황돔은 서왕모가 동방으로 출시하는 길을 빛을 내며 정방폭포까지 안내했다고

10) 특이사항 : 지법궁에 들어서면 왼쪽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비문 내용을 소개한다.

■ 천지대자연 계시

새천지는 제주도라 중앙무기 五十土는 제주도라 토금화금 불급하니 생문 방은 토산 흙토자로 개척하면 토산은 세계 중앙이 도리라 토끼 똥지는 검은 까마귀가 날다가 매의 날개로 때려 부수우니 검은 까마귀는 용맹을 못 치고 땅으로 내려앉은 형치이므로 토끼 똥자를 흙 토자로 개척 못하면 토산 부락은 발전성이 없다 토끼토자 토산이름 구번구토구함으로 열릴 때 흙 토자로 아니고쳐 까마귀 날개가 되겠느냐 거북이 등이 되겠느냐 거북이 등은 지구형 이니라 거북형 거북선을 내어 놓을 때 장군 將자 장군법을 아니 받은 검은 까마귀는 장군 활로 쏘며는 죽게 된다 토명토자 토끼토자 토산이름을 흙토자로 고치지 못하면 토산은 언제나 부락에 속한 땅이 되고 토금복금 흙토자로 고치면 대진마을이 되나니라.

3. 마을신앙

3.1 포제

토산 1리는 4·3 당시 한 차례 지내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전부터 계속 포제를 지냈다. 토산 2리는 매해 끊기지 않고 포제를 지냈으며 김대은(男, 69) 씨의 제보에 의하면 예전에는 1리와 같이 지낸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1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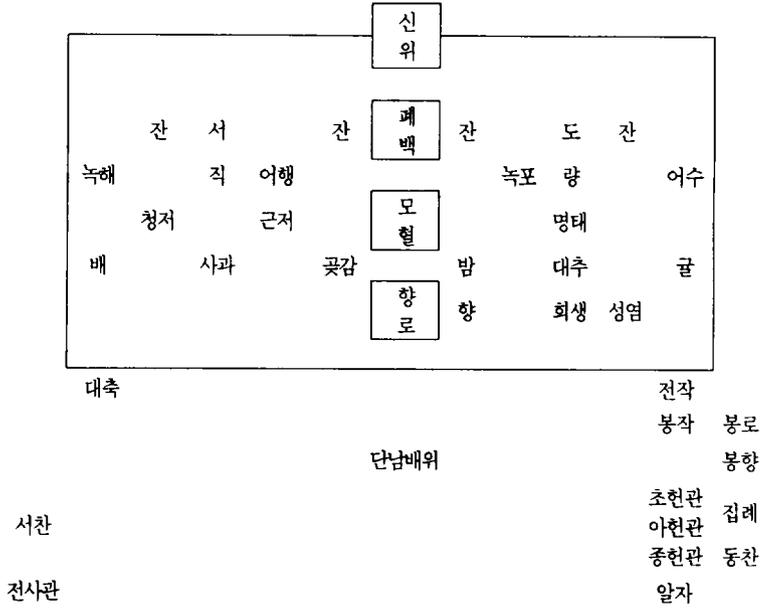
● 토산 1리

1) 제명 : 醯祭

한다.

- 2) 신위 : 土地之神位
 - 3) 제일 : 음력 정월 초 정일이거나 해일에 지냄.
 - 4) 제장 : 토산봉 꼭대기 북쪽 포제단. 1993년 남제주군이 지정하는 향회재현 마을로 선정되어 제단이 새롭게 정비되었고 진입로에는 184개의 계단을 만들었다.
 - 5) 제비 : '유서'를 두어 집집마다 천원내지 이천원씩 건었으나(세밋드름) 요즘은 집집마다 성의껏 낸다.
 - 6) 제복, 제기 : 예전에는 제복이 따로 없고 청도포를 빌려 입었으나 현재는 마을에서 제복을 구입하여 마을회관에 보관하며 이장이 관리한다. 제기는 초헌관 집의 제기를 이용한다.
- 7) 제물
- ① 메 4 : 도량서직(나뭇, 참쌀, 기장, 피)을 각 1사발씩 올린다.
 - ② 채소류 : 미나리, 무
 - ③ 어류 : 명태 1, 소금에 절인 날 생선 1
 - ④ 과일 : 밤, 대추, 꿀, 꽃감. 요즘은 사과, 배도 올린다.
 - ⑤ 제주 : 원래는 청주를 올리나, 요즘은 간소화되어 감주를 올린다.
 - ⑥ 포 : 전에는 노루고기를 썼으나 지금은 쇠고기를 쓴다. 마른 것 1, 소금에 절인 것 1
 - ⑦ 회생 : 검은 돼지. 예전에는 초헌관집에서 잡았으나 3년 전부터 마을회관에서 잡는다. 회생은 털 몇 겹만 뽑아 같이 올린다. 혈은 회생을 잡을 때 받으며 내장도 그릇에 놓고 제단까지 이동한다. 내장은 씻어서 원래 위치에 놓고 회생의 배를 바닥에 깔도록 한다.
 - ⑧ 폐백 : 흰 천이나 창호지 7자 이상
 - ⑨ 물 : 거سن세미, 노단세미에서 떠온다. 깊은 밤중에 길어와서 봉한다. 이 물로 제기를 씻는다.

8) 제물진설도와 제관위치도



8) 행제 과정

- ① 마을총회 : 음력 12월 15일쯤 마을 총회 자리에서 제관을 선정하는데 초헌관은 총회 전에 미리 정한다.
- ② 제관 :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3헌관과 집례, 대축, 동찬, 서찬, 알자, 봉향, 봉로, 전작, 봉작 사주를 선정한다. 제관은 예전에 자격이 엄격했으나 지금은 20세 이상 남자인 것 외에 특별한 자격요건을 두지는 않는다.
- ③ 합숙 : 3일전에 초헌관의 집에 입제하여 3일 정성을 드린다. 합숙전에 향물로 목욕제계하여 입제하고 정제일에는 향물로 다시 목욕한다. 합숙기간에는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놀이판을 벌인다. 단, 3일째 날에는 제관들 방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제

관들도 어울려 놀 수 없다. 3일째 날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며 이 날 홀기, 축 읽는 연습을 한다. 축, 홀기는 매해 새로 쓰며 원래는 대축이 써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다른 제관들이 써준다.

- ④ 제차 : 제사 당일에는 아침부터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 저녁 5시경이 되면 목욕을 하고 제관복을 차려 입는다. 그리고, 집례가 전사관과 함께 제물을 봉한다. 이 때, 제물을 봉하는 의식은 집례가 “이 제물 준비됐느냐?”라고 하면, 전사관이 “준봉이요”라고 말하며 진행된다.

집에서 예행연습을 하다가 저녁이 깊어 12시가 다 되어 가면 포제단으로 이동하는데, 이 때 제물은 제관들이 제물을 직접 져서 이동한다. 젊은 사람이 앞서 가며 길을 연다. 밤길이라 예전에는 초롱을 만들어 썼으나, 지금은 그냥 손전등을 따로 준비하여 보관하고 있다.

- ⑤ 홀기 :

謁者引獻官以下俱就門外位謁者引祝及諸執事八就壇南拜位四拜祝以下皆四拜○盥洗位盥洗盥○各就位謁者引獻官入就位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俱請行事四拜獻官以皆四拜行奠幣禮謁者引初獻官○盥洗位北向立搯笏盥洗盥○執笏引○神位前北向跪搯笏三上香獻幣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行的酒引○神位前北向跪搯笏獻爵俯伏興小退跪祝以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行亞獻禮謁者引亞獻官○盥洗位北向位搯笏盥洗盥○執笏○樽所西向立酌酒引○神位前北向跪搯笏獻爵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盥洗位北向入搯盥洗盥○執笏○樽所西向立酌酒引○神位前北向跪搯笏獻爵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飲福受胙執事者樽所以爵酌福酒執事者持俎進○獻官以授胙以授執事者執事者受虛胙.降自東階出門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立四拜.座立者及獻官以皆四拜.徹○○祝以進徹○○四拜.座立者及獻官以皆四拜.望火○位祝以入位取 祝 及.毛血於幣.降自西階置

於坎. 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 北向立可燎. 謁者進獻官之左白禮軍
遂引獻官出. 謁者引祝及諸執事俱伏壇南拜位四拜祝以下皆四拜. 以
此 兎山一里

- 9) 음복 : 제가 끝나면 마을회관에 음식을 들고 와 음복하고 음식을
나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 중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음
복하였으나 지금은 제관들만 음복하여 남은 음식을 나누어
갖는다.

제물 중에서 초헌관 몫으로 '음복소주'라 하여 회생의 목들
레 살을 나눠준다. 이는 제차에서도 나타나는데 초헌관이
먹는 시늉도 한다고 한다. 이는 마을로 내려와서도 초헌관
몫으로 남긴다.

- 10) 금줄 : 잡인을 금하며 마을 입구 2군데와 사무실 앞에 내건다.

- 11) 축문 : 마을회관에 올해년의 축문이 보관되어 있다.

醑祭祝維歲次乙亥正月壬戌朔初六日丁卯幼學敢昭告于土地之神
伏以赫赫明靈鎮我一城上應天道下賜民德是憑是依永賴無極歲和
時平民物咸若總是神助肆庸保德感我微忱神其歆茲茲率鄉黨載虔
載沐黍稷香馨祭器清潔乃薦乃獻始在如失北戶南隔小無疾厄人寸
養成育畜俱澤將保四隣載登五穀興來福萬掃去災百於萬斯年祀祭
不絕謹次牲幣禮齊黍稷誠庶品式陳明薦于神尚饗

● 토산 2리

- 1) 제명 : 醑祭
- 2) 신위 : 土地之神位
- 3) 제일 : 음력 정월 초 정일이나 해일 중 먼저 오는 날로 정한다.
- 4) 제장 : 토산봉 꼭대기 남쪽 포제단
- 5) 제비 : 예전에는 유서를 두어 집집마다 쌀을 한 되씩 모아(제밧드
름) 제물을 마련하였으나 지금은 회사금 등으로 모아진 마
을 공금으로 충당한다.
- 6) 제복, 제기 : 제복과 제기는 마을 이장이 관리하며 마을회관에 보

관한다. 제기는 전부 스테인레스 그릇을 사용한다.

7) 제물

- ① 메 4 : 도량서직(나뭇, 참쌀, 기장, 피)을 각 1사발씩 올린다.
- ② 채소류 : 미나리, 무, 소금간은 하지 않고 날 것으로 올린다.
- ③ 어류 : 옥돔이나 명태 말린 것
- ④ 과실 : 밤, 대추, 굴, 꽃감, 사과, 배를 올린다.
- ⑤ 제주 : 감주를 올린다.
- ⑥ 포 : 원래 사슴고기로 만드나 지금은 쇠고기로 만든다.
- ⑦ 희생 : 검은 돼지. 제관들이 직접 잡았으나 지금은 양돈장에서 잡아온다.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깨끗이 씻은 후 원래 위치에 넣는다. 머리는 동쪽을 향하게 한다.
- ⑧ 폐백 : 창호지 2장. 크기는 B5정도로 자른다.

8) 제관

- ① 종류 :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 대축, 동찬, 서찬, 알자, 봉향을 연령순으로 선출한다. 전작, 봉로, 봉작, 사준까지 13명을 선출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 ② 자격 : 나이, 결혼 여부에 관해 특별히 자격을 두지 않고 상주나 병자가 아닌 경우로만 한정한다.
- ③ 합숙 : 4일 합숙을 한다. 초헌관 집에서 주로 하고 마땅치 않은 경우 제청을 빌려 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다. 첫째, 둘째날은 마을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하고 특별한 금기가 없으나 셋째날부터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9) 음식준비 : 예전에는 마을 총회에서 '취반' 1명을 따로 뽑아 모든 음식을 만들게 했으나 지금은 제관 부인들이 합숙기간에 마을회관 부엌에서 모든 음식을 만든다.

10) 제차 : 오후 11시 반쯤 합숙장소에서 제장으로 이동하여 12시쯤 제물을 진설하고 곧바로 제를 지낸다. 축은 1회 읽는다. 제가 끝나면 희생의 목부분만 초헌관의 몫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제관들과 함께 먹

고 남은 것은 제관들이 나누어 갖는다.

- 11) 참가자 :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구경할 수 있으나 여자는 되도록 가지 않는다.
- 12) 축문

維歲次辛未正月丙辰朔初八日癸亥本里居住民選屬職銜姓名敢昭告于土地之神伏以赫赫明靈鎮我一城上應天道下賜民德是憑是依永賴無極歲和時平民物成若肆庸保德感我微忱總是神助神其欽格茲率鄉黨載虔載沐乃薦乃獻始在如失北戶南臨小無疾疫鳴吠皆肥蠶角俱澤將保四隣載登五穀掃去災百於萬斯年祀祭不絕謹次牲幣醴齊柔誠庶品式陳明薦于神尚饗

4. 무속신앙

4.1 옷토산 한집

- 1) 당명 : 토산 옷당 일뤼당
- 2)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 1리 마을 입구 서쪽 300m 지점. 과수원 안에 있다.
- 3) 당 형태 : 당 주변이 돌담으로 둘러쳐져 있다. 당은 돌 담벽 위에 슬레이트가 얹혀져 있다. 당 내부 바닥은 짚과 흰종이 조각이 깔려 있다. 두 개의 신위가 따로 위치해 있다. 좌측 탁자 위에 놓인 나무상자 속에는 신복(神服)이 보관되어 있



사진5 옷당 내부

다. 우측 바닥들 위에는 촛대 2개, 향로, 술잔 3개가 있다.

4) 신앙민 : 토산 1리 리민

4.2 알토산 한집²⁾

토산 2리 설촌 초기에는 포제를 지내지 못했으므로 당동산에 있던 당에서 마을제를 지냈다. 그러나 포제를 지내게 되면서 당동산에서 마을제를 지내지는 않았다.

당동산에 있던 이 당은 아주 썩었다고 한다. 일례로 칼차고 총 든 관리들이 말을 타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다가 그대로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60여 년 전에 당신(堂神)을 힘센 마을 청년들이 일본으로 보내도록 바다에 띄워



사진6 여드렛당

당을 없앴다고 한다. 이 때 산디얏사귀로 배 모형을 만들어 그 위에 제물을 싣고 띄워보냈다고 한다. 그러다 일제시대에 생활이 힘들어지자 당의

2) 제보자 고휘선(女, 79)씨는 원래 신흥 출신으로, 1년에 한 번씩 이 당에 다녔었다고 하며 표선에 시집을 와서도 계속 당에 다녔다. 그러나 40여 년 전부터는 머리가 많이 아파서 천지대안교를 다니게 되면서 당에는 잘 가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른 제보자인 김행아 씨는 일뿔당도 다녔었다고 한다. 제보자의 친정어머니도 일년에 두 번 일뿔당을 찾고, 그 다음날에는 여드렛당에 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제보자는 일뿔당에는 가지 않는다고 한다. 제보자의 며느리는 당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제보자는 딸이 없으나, 딸이 있더라도 시집을 가면 그 지역 당에 다니게 된다고 한다.

힘을 빌고자 다시 당을 세우게 되었는데, 당신을 바다로 띄워보냈었기 때문에 바닷가에 좌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1) 당명 : 토산 알당, 요드렛당. 60여 년 전에 당을 없애고, 다시 바닷가에 세운 이후에는 특별히 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 보통 '막실 간다'라는 표현을 쓴다.

2) 위치 :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 2리 바닷가 동쪽 포구에서 동쪽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있다.

3) 제일 : 음력 3월, 6월, 11월 8일. 8일에 가지 못하면 18일, 28일에 간다.

4) 당 형태 : 바닷가 포구 너머에(동쪽) 있으며 나무 밑 조금 들어간 곳에 있다. 바위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금은 오래된 드럼통이 입구를 막고 있다.

5) 제차 : 제일 아침 7시~9시 경에 당을 찾아가는데 일하러 가기 위해 새벽 3~4시경에 다녀오는 사람들도 있다. 혼자 찾아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기도 한다. 이때, 당에는 심방이 제기들을 준비하여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다.

제물을 진설한다. 여럿이 찾아간 경우에는 제물을 동시에 올리는데 메에 꽃는 것은 없다.

술을 올린다. 심방이 비념을 하고 점을 쳐준다. 잡식은 심방이 하지만 가져간 폐백과 지전은 신앙민이 직접 태운다. 제물을 정리하여 집으로 가져와 음복한다. 심방은 예전에 메(밥과 쌀)를 가져갔으나, 요즈음은 쌀과 돈(만원 정도)을 받아간다.

6) 신앙민 : 토산 2리, 신흥리 주민 일부이며 대부분 해녀이다.

7) 제물

① 떡 : 돌레떡 1 사발

② 메3) : 사발메 1, 보시메 1

③ 생선 : 옥돔이나 우럭 등 비늘있는 생선 1마리. 생선이 없을 때는 제

숙 대신 계란 1개를 갖고 가기도 한다.

- ④ 제주 : 소주 2홉 1개
- ⑤ 폐백 : 천(시라목)을 예전에는 석자를 가져갔으나 요즘은 1통을 가져 가며 액을 막아달라는 의미이다. 종이는 지전을 말 것으로 1권을 가져간다.
- ⑥ 쌀 : 점을 보기 위해 가져간다.
- 8) 예조 : 심방이 쌀을 던져 6개가 나오면 길조이다. 7개나 9개가 나오면 흉조이다. 8개는 길조도 흉조도 의미하지 않으며 심방은 다시 쌀을 던진다.
- 9) 금기 : 3일 정성이라 하여 3일 전부터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당을 찾아간다.
- 10) 음복 : 제를 지낸 곳에서 같이 간 사람들끼리 먹는다. 일부는 심방이 가지고 간다.
- 11) 비념 : 식구들의 편안
- 12) 심방 : 태흥리, 서귀포, 가시리, 토산 2리 등 심방을 하는 집에 따라 부른다. 큰 곳 때는 여러 명의 심방이 같이 온다.

5. 가신신앙

5.1 토신제

● 토산 1리

- 1) 신위 : '土地之神位'를 대나무 2개에 붙여 세운다.
- 2) 제일 : 집 지을 때, 상 났을 때 정일, 해일 중 택하여 지내는 데, 땅을 파기 전에 지낸다.⁴⁾ 그 외에도 정초 혹은 음력 3월에

3) 김행아 씨의 제보에 의하면 예전에는 쌀이 없어 산되로 밥을 지었다고 한다. 일뒤행당에 갔다가 여드렛당에 가는 경우에는 메 하나를 올리지만, 일뒤행당에 가지 못한 경우에는 사발메와 보시메 각각 1씩 올린다고 한다.

지낸다.

- 3) 제장 : 집 뒷마당에 황토를 뿌리고 새를 간 후 쌀뜨물을 뿌려 제장을 마련한다. 따로 설치하는 제단은 없다.
- 4) 제물
 - ① 희생 : 큰 장닭을 날 것으로 올린다. 먹을 수 없는 내장은 몸에서 빼어 낸 후 싸서 두었다가 제가 끝나면 버린다. 털과 피는 올리지 않는다.
 - ② 메 1 : 바닥에 깔린 새를 끊어서 쪄낸다.
- 5) 제기 : 제를 지내기 3일 전 밖에 꺼내놓고 잡인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더욱 정성을 들이는 경우에는 밤에만 밖에 꺼내서 이슬을 맞을 수 있게 한다. 이 때는 이슬을 맞을 수 있도록 창호지로 덮어두었다가 집안에 들여 봉한다.
- 6) 제관 : 1명
- 7) 제차 : 전날 밤 11시 반 경 제를 지낸다. 告祝 3회를 하고 절 3회를 한 후 잔을 3회 올린다. 그리고 잡식하여 땅을 파서 깊이 묻는다.
- 8) 금기 : 제물을 다룰 사람과 제관은 제를 지내기 전 3일 동안 피 등 부정한 것을 보면 안되며 밖에 나가서도 안된다.

● 토산 2리

예전에는 심방을 빌어 '올렛코시'라 하였는데 무당이 없어져가니 토신 제를 지내는 사람도 없어졌다. 축문은 포제의 것과 유사하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포제와 달리 토신제의 축은 개인과 가정의 소망을 담는다.

- 1) 신위 : 土地之神
- 2) 제일 : 정월 초순경 정일이나 해일 중 택일(3년에 1번 정도 지냄)
- 3) 제장 : 집 뒤 맨 바닥에서 지낸다.
- 4) 제물 : 포제와 비슷한데 보다 규모가 작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

4) 이러한 이유로 '開土祭'라 하기도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개토제라고 하지는 않는다.

- ① 회생 : 닭 1마리를 생채로 올리는데 털을 모두 뽑고 내장을 다 꺼낸 상태로 머리까지 올린다.
- ② 생선 : 말린 것으로 올린다.
- 5) 제차 : 초석을 깔아 제물을 차린다. 절 4회를 하고 분향한 후 잔을 올린다. 축을 하고 다시 절 4회 한다.

5.2 백중제

● 토산 1리

- 1) 명칭 : 백중제, 백중코사
- 2) 제일 : 음력 7월 14일 밤 11시경
- 3) 제장 : 우마를 방목하는 들판의 깨끗한 오름을 선택하는데 보통 송골왓모루, 영아리, 녹산장에서 한다.
- 4) 제물 : 돌레떡, 닭(삶아서 각 집에서 준비하거나 공동으로 돼지 1마리를 준비), 소주, 메 1(나뭇가지를 째음)
- 5) 제차 : 터진 방 쪽으로 제를 벌이고 한참을 즐기다가 포서를 한다. 절은 하지 않으며 준비해 온 제물을 잡식하여 풀밭에 버리고 술을 입에 물고 뿌린다.
- 6) 참가자 : 남자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여자들도 함께 지낸다.

● 토산 2리

예전에는 우마를 키웠으므로 많이 지냈으나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우마를 키우는 동산에서 제를 지내며 방향은 가리지 않는다. 제물은 집에서 준비하며 밥과 생선을 준비하고 채소는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 제물을 마련하면 향을 피우고 술잔을 비운다. 메에 손가락을 꽂았다가 빼어 잡식한다.

5.3 요왕제

- 1) 명칭 : 요왕제
- 2) 제일 : 음력 3월 경으로 심방이 택일한다.
- 3) 제장 : 토산 2리 바닷가 동쪽 끝에 있는 요드렛당
- 4) 제물 : 메 2(사발메 1, 보시메1), 쌀 1 접시, 생선(옥돔)
- 5) 제차 : 심방과 같이 당에 간다. 각자 준비한 제물을 초석 위에 놓는다. 심방이 굿을 하고 쌀을 던져 점을 친다. 길조가 아니면 심방이 쌀을 던진 자리에 신앙민이 돈을 놓고 심방은 쌀을 다시 던진다. 쌀, 고기, 밥을 종이에 놓고 동그랗게 싸서 묶고 바다에 던진다.
- 6) 예조 : 심방이 쌀을 던져 6개가 나오면 길조이다. 7개나 9개가 나오면 흉조이다. 8개는 길조도 흉조도 의미하지 않으며 심방은 다시 쌀을 던진다.
- 7) 금기 : 제를 지내는 날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몸이 부정하면 당에 가지 않는다.

5.4 귀양풀이

'놀귀양', '귀양풀이'라 하여 사람이 죽었을 때 지낸다. 이 때는 제물 외에 천과 대나무 12개를 준비하는 데 이것은 망자가 저승을 가는 길을 의미하며 대나무 12개는 저승에 가기까지 거치는 12개의 문을 의미한다.

5.5 성주풀이

집을 지은 후 지낸다. 성주풀이를 지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기가 아파도 제를 지낼 수 없다고 한다.

굿을 하며 얇은 종이(불찬지)를 물에 적서 마루에 붙여 도끼로 목수질

하는 시늉을 한다. 이 때 심방은 “김목시(집을 지은 이, 성이 김씨인 목수) 지
 섰째”라고 중얼거린다. 성주풀이를 할 때는 애기비נם을 할 때와 제물이 비
 슷하여 메와 생선 등을 올리는 데 애기비נם과 달리 메를 여러 개 올린다.
 또 천과 대나무 12개를 준비하여 조상들이 저승길을 잘 가기를 기원한다.

5.6 녀들임

아기가 아프거나 녀이 나갔을 때 지낸다. 심방 없이 문전에 물 1사발
 을 떠놓고 지내기도 하는데 이 때 “성은 김씨우다. 나이는 두 살이우다.
 녀들여줍써, 녀들여줍써”라고 한다. 심방을 부를 경우에는 문전에 메 2(사
 발메 1, 보시메 1), 물 1사발, 명주실 1타래(쌀 위에 놓음), 쌀 1를 준비하여
 같은 방식으로 녀들임을 한다.